

업 무 자 료

인사 2000-4-29

ASSESSING **Aid**

원조평가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2000. 6

KOICA

한국국제협력단

업 무 자 료

인사 2000-4-29

ASSESSING **Aid**

원조평가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2000. 6

KOICA

한국국제협력단

목 차

요 약

I. "Assessing Aid" 발행의 의의	1
II. 협력단 사업에 대한 시사점	3
III. 서론요지 (보고서작성의 배경)	9
IV. 본문요지	10

번역정리

서 론

1. 원조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의 검토	22
2. 새로운 국제환경	28
3. 개발전략에 대한 새로운 사고	30

제1장 : 원조자금은 훌륭한 정책환경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Money Matters -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1. 개요	35
2. 국별로 나타난 다양한 원조결과	35
3. 다양한 격차발생의 원인	38
4. 훌륭한 관리체제 갖춘 나라의 원조성과	40
5. 원조의 배분	45
6. 원조여건별 지원 방향	46

제2장 : 수원국의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조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Policies)

1. 개요	49
2. 자금지원은 개혁을 위해 좋은 것일까 혹은 나쁜 것일까?	50
3. 돈으로 살 수 없는 주인의식	52
4. 개혁의 촉진	54
5. 개혁의지가 확고한 나라는 자금을,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아이디어를 지원	59

제3장 : 원조자금은 훌륭한 제도적 여건하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Money Matters - In a Good Institutional
Environment)

1. 개요	63
2. 원조의 용도 대체 가능성 (Fungibility)	63
3. 공공부문 지출비용의 질적 개선	72
4. 공여국의 임무	76

제4장 : 수원국의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조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Institutions)

1. 개요	81
2.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 방안	83
3. 비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	89
4. 공공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한 원조의 운용방안	92

제5장 : 자금지원 못지 않게 아이디어 지원강화

(Money, but More Ideas, Too)

1. 개요	99
2. 베트남: 구조조정후 차관공여 개시	102
3. 엘살바도르,파키스탄,브라질: 교육의 분권화와 개혁	105
4. 카메룬: 보건분야 지원 및 효과	110
5. 아프리카: 도로유지관리	112
6. 결론	114

※ 첨부 : Assessing Aid 원문

요

약

I. "Assessing Aid" 발행의 의의

- Assessing Aid 는 1998년말 세계은행에서 발행한 정책연구 보고서로서,
 - 지난 50여년간 실시해 온 개발원조의 성과를 사례중심의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원조 실시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동 보고서의 주요 권고요지는 아래와 같음.
 - 개도국은 원조공여국에서 아무리 많은 돈으로 지원해 주어도 개도국 스스로의 개혁 및 개발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음.
 - 이런 나라에 대한 자금지원은 무의미하므로,
 - 공여국은 개혁의 분위기조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만 제공하고 자금지원은 스스로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함.
 - 개혁 및 개발의지가 강하지만 이를 구체화할 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책수립능력과 정책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러한 부분이 원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임).

■ 개혁 및 개발의지가 강하고 훌륭한 정책수립능력과 제도를 갖춘 빈곤한 나라에는 재정지원을 대폭 늘릴 것.

■ 과거 냉전시대에는 정치적, 전략적 고려 때문에 개도국의 수원여건이 미비된 나라에 대해서도 많은 원조를 제공하여 왔으나, 이제 이러한 부담이 없어진 만큼 원조의 효과제고를 위해,

- 공여국의 원조조건에 대한 수원국의 의무사항을 분명히 하고,
- 수원국의 수원여건에 따라 원조방식을 차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기타

- 동 보고서는 또한 오랜 원조경험을 바탕으로 원조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형태별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동 보고서의 연구성과는 우리의 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동 보고서의 번역에 참가한 직원은 아래와 같음.
 - 김상태: 개요(pp. 1-27) 및 자료 취합
 - 신혜인, 문혜경: 제1장(pp. 28-46)
 - 김복희, 박홍식: 제2장(pp. 47-59)
 - 김창섭, 나 현: 제3장(pp. 60-82)
 - 최재홍, 고희숙: 제4장(pp. 83-102)
 - 김창원: 제5장(pp. 103-119)

II. 협력단 사업에 대한 시사점

1. 협력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별원조계획 (Country Programming)의 수립이 중요함.
 - 동 보고서를 통하여 아래 사항이 확인됨.
 - 개도국은 국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단계도 다양하므로 국별 특성에 따라 원조형태 및 방법을 달리해야 함.
 - 개별 프로젝트의 성과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별, 분야별 정책 및 제도의 질적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공여국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협력하여야 함.
 - 따라서, 협력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종합 사정과 다른 공여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별 원조계획의 조속한 마련이 중요함.
 - 동 보고서가 권고하고 있는 국별특성에 따른 지원방향은 아래와 같음.

국별 특성	지 원 방 향
○ Good Policy ○ High Poverty	○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형태는 프로젝트 원조보다 프로그램원조가 바람직함.
○ Poor Policy ○ High Poverty	○ 기술협력을 통한 정책 및 제도개선 후에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Good Policy ○ Low Poverty	○ 지원규모를 줄이되, 지원형태는 프로그램 원조가 바람직함.
○ Poor Policy ○ Low Poverty	○ 원조효과가 매우 낮은 나라로 지원규모를 줄이고, 기술협력위주의 지원이 바람직함.
○ 개혁의지가 강한 나라	○ 개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지원을 강화함.
○ 개혁의지가 약한 나라	○ 재정지원의 효과가 없으므로, 정책개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위주로 지원함.

2. 작은 비용으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원조의 지원방법관련 확인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음.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자본격차”가 아니라 “정책 및 제도격차”임.
 - 따라서 개도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양은 당해 국가의 개발과 개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며,
 - 건물, 장비 등 원조의 “물질적인 지원”측면보다는 개발과 개혁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지식전수를 통해 수원국의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조를 통한 “정보 및 지식 제공측면”이 훨씬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 원조재원이 부족하지만 개발경험이 풍부한 우리 나라는 여타 선진국보다 작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바, 향후 협력단의 협력방향에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음.

■ 첫째, 건물, 장비 등 프로젝트의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프로젝트를 통한 수원기관의 제도와 운영방식의 개선 등 기술협력측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대베트남 협력사업의 경우,
 - 설립초기에 지원한 하노이 및 퀴논 기술학교는 훈련장비를 위주로 한 지원으로 지원효과의 지속성(sustainability)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 한.베산업기술학교는 학교의 운영 및 제도확립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어 하노이 및 퀴논 기술학교보다 지원효과가 높고 지속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동 보고서는 개도국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의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대베트남 협력사업의 경우,
 - 한.베과기센타 협력사업(KIST 모델을 지향), 증권거래소 설립지원사업, 개발전략연구소(KDI와 유사기관) 지원사업은,
 - (i) 중앙정부의 제도확립(Institution Building)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 (ii) 우리의 지원은 해당분야의 제도수립 및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 (iii) 앞으로 우리기업의 연계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사료됨.
 - 반면, 하노이 및 퀴논 기술학교, 한.베산업기술학교(3건 10백만불 상당) 지원사업은 지방학교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학교운영개선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효과는 크지만 전국적인 파급효과는 제한됨.

■ 셋째, 상기 두 가지 협력방향과 관련 (i) 제도구축(Institution Building)을 목적으로 한 사업과 (ii)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구분하여 지원하되, 국별로 적절히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구축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분야에 기술협력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함.
-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은 지역위주(예를 들어 극빈지역, 재난지역, 또는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지역 등)로 물질적 지원(초등학교 또는 보건소 지원 등)에 중점을 둠.

■ 넷째, 연구조사 및 전문가 양성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

<연구조사의 중요성>

- 원조사업의 일차적인 중요성은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교훈을 수원국에게 습득시키는 데 있다는 전제하에 동 보고서는,
 - 원조기관은 지원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반복 지원할 것이 아니라,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새로운 분야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 이를 위해서는, 연구조사활동이 매우 중요함.
 - *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의 경우(예: 증권거래소 설립제도 지원), 한 나라에 두 차례의 지원이 불필요함.
 - 이와 관련, 영국의 '97년도 원조백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개발을 위한 제반활동도 연구(Research)가 없으면 실패하거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든 반면, 연구는 승수효과(Multiflier effect)가 있다..... 영국정부는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전문가양성의 중요성>

- 원조사업을 제공함에 있어 물질적인 측면보다 기술협력 측면에 중점을 둘 경우, 각 분야별 전문지식, 경험 및 외국어 능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가의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가양성제도의 마련이 중요함.

<JICA의 총합연수소 설립사례>

- JICA는 이러한 연구조사기능과 전문가양성기능을 겸비한 총합연수소를 1983년에 설립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우리의 개발경험과 지식전수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아래 자료를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정부 및 당의 최고위층 지도자에서부터 관련 공무원, 학계 등에 배부한 바,
 - 이는 작은 비용으로,
 - 우리의 개발경험 및 지식전수를 통하여 베트남의 관련분야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i) 김정렴 회고록(Policymaking On the Frontlines: Memoirs of a Korean Practitioner)
- (ii)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최형섭박사)
- (iii) 새마을운동관련 자료모음

3. 협력형태별 원조방향

■ 전문가 파견사업

- 전문가 파견사업은 수원국의 제도적 개선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93년 UNDP의 평가에 의하면 전문가 프로그램은 (i) 높은 파견비용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며, (iii) 수원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iii)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전문가 파견사업은 별도의 수요조사를 지양하고,
 - 수원국측이 전문가파견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연수생 초청사업

- 특정국을 대상으로 현지여건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관된 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별연수사업은,
 - 귀국연수생이 연수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본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 물질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데 따른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연수사업도 다른 선진국의 경우처럼,
 - 특정한 분야를 대상으로 수개년간에 걸친 종합프로그램형 연수와,
 - 국별연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 타

-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의 필요성
 - 도로,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i) 공공 서비스의 불필요한 과다이용, (ii) 재원부족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저하, (iii) 관계자들의 주인의식 결여 등이 문제됨.
- 예를 들어, 무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예산부족으로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 심지어 주사바늘이나 약이 부족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적저하를 가져옴.
 - 결국 사용자들은 다른 보건시설을 찾게 되며, 보건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됨.
- 이와 달리, 베트남에 지원한 한.베우정병원의 경우에는,
 -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베트남 현지병원과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 한국인과 제3국인에 대한 의료수가는 베트남 현지병원보다는 비싸지만, 국제병원보다는 훨씬 싸게 적용(1/5수준)하여,
 - 동 비용으로 우수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 많은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음.

III. 서론 요지 (보고서 작성의 배경)

- 1990년대 이래 개발원조를 둘러싼 제반여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
- 첫째, 냉전의 종식으로 공여국들은 정치적, 전략적인 고려에 의한 원조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 등과 같은 원조 본래의 목적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 수원국측에게도 원조의 효과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요구를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음.
- 둘째, 주요 공여국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전반적인 ODA는 줄어들어,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금의 이전은 급증하여,
 - 개도국의 발전에 있어서 ODA의 역할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는 바,
 - ODA가 개도국발전을 위한 많은 수단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하에,
 - ODA를 제공함에 있어서 개별원조사업의 효과보다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정책개혁과 분야별 제도개선 등 원조의 거시적인 효과를 고려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 셋째, 지난 50여년간에 걸친 개발원조의 성공과 실패경험을 통하여 효과적인 원조실시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개발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 수원국과 공여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원조를 위해 공여국과 수원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관한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됨.

IV. 본문 요지

1. 제1장: Money Matters -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 개발원조와 성장률과의 상관관계

- 원조를 많이 받아도 성장이 여전히 느린 나라가 있는 반면, 성장률이 증가한 나라도 있는 등,
- 지원된 원조의 규모와 수원국의 성장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정책관리능력과 원조효과

- 56개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 정책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 소득성장률이 낮으며,
 - 원조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낮을 뿐 아니라,
 - GDP 1%에 해당하는 원조는 GDP 0.5%상당의 민간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정책관리능력이 뛰어난 국가들은 소득그룹별 차이는 있지만,
 - 소득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조액이 늘어날수록 성장률은 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 빈곤해소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 GDP 1%에 해당하는 원조는 GDP 1.9%상당의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개도국의 개발장애는 “자본격차”가 아니라 “정책 및 제도격차”인 것으로 밝혀짐.

■ 국별 특성에 따른 원조방향

- (i) 빈곤계층의 비율이 높으며 훌륭한 정책관리능력을 갖춘 국가
 - 원조효과가 가장 높은 나라로 중점지원 대상국임.

- (ii) 빈곤계층의 비율이 높으며 정책관리능력이 부족한 국가
 - 정책집행여건이 열악하여 원조효과가 저조하므로,
 - 대규모의 원조제공보다는 정책 및 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나 정책대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iii) 빈곤계층의 비율이 낮은 국가
 - 정책관리능력이 부족한 나라는 원조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 정책관리능력이 우수한 나라도 빈곤계층의 비율이 낮아 원조의 역할이 미미하므로,
 - 원조제공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제2장: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Policies

■ 개발원조와 수원국의 정책개혁과의 상관관계

- 제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정책관리 능력이 우수할 때 소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 정책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안은 정책개혁을 통한 능력향상(Capacity Building through Policy Reform)임.
- 이와 관련, 각종 연구조사에 의하면 개발원조의 지원규모와 수원국의 정책개혁의 질적개선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개발원조가 오히려 수원국의 개혁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는 바,
 - 돈으로 개혁을 살 수 없다(Money Cannot Buy Reform)는 사실이 입증됨.

■ 정책개혁을 조건부로 한 원조의 성과

- 정책개혁이 개도국 발전의 핵심요소라면 공여국은 정책개혁을 조건부로 하는 원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원조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대부분 실패하였음.

- 조건부원조에 따른 공여국의 영향력은 원조기간에만 유효함.
- 원조기관의 관심은 정책개혁의 내용보다 자금집행율이었음.
- 수원국의 정책개혁이 지연될 때 그 원인이 자체노력의 부족 때문인지 또는 외적변수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어려움.
- 조건부원조는 수원국의 개혁의지 및 원조사업에 대한 주인의식 (Ownership)이 강하고 국민의 지지가 강할 때에 한하여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 일단 자발적인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지원되는 원조는 개혁을 궤도에 올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 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에 많은 원조를 제공한다고 해서 개혁이 추진되지는 않았는 바,
- 돈으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살 수 없다(Money Cannot Buy Ownership)는 사실이 확인됨.

■ 원조방향

- 수원국의 자발적인 주도하에 성공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강화함.
- 개혁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 개혁을 외부에서 주도해 나갈 수는 없으므로,
 - 공여국은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 (i) 연수생초청, 전문가파견 또는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이용하여 정책개혁 및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제공하고,
 - (ii) 해외유학생제도 등을 통하여 향후 개혁주도세력을 양성하고,
 - (iii) 시민사회의 정책토론 촉진 등을 통해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바,
 - 이러한 활동은 소규모의 재원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3. 제3장: Money Matters - In a Good Institutional Environment

■ 개발원조의 “용도대체가능성(Fungibility)”

- 학교, 병원건축 등의 프로젝트는 사업의 결과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개별프로젝트차원의 평가는 대부분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편임.
- 그러나, 개별프로젝트를 지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분야의 질적개선을 가져오거나 수원국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 이는 원조자금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대체되는 (fungible)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용도대체가능성(Fungibility)의 개념

- 어떤 학교에서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이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여,
 - 어린이들의 부실한 영양상태는 학교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 “빈곤가정 어린이 도시락 공급사업”을 전개하였음.
- 그런데, 대상 어린이들의 영양상태와 학교성적 부진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어느날 학교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부모는,
 - 자식들에게 제공해 오던 아침식사비용을 모아 출퇴근에 필요한 자전거를 사기로 하였기 때문임.
- 이 경우 자식들로서는 하루 두끼밖에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빈곤가정 어린이 도시락 공급사업”은,
 -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은 집에서의 식사를 대체하여(fungible)

- 당초 목적인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결식 아동부모의 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된 결과가 되고 말았음.
- 이처럼 원조자금이 용도가 대체될(fungible) 경우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당해 프로젝트의 효과를 파악할 수는 없다("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는 것을 알 수 있음.

■ 용도대체된 자금을 수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 앞의 도시락 공급사업에서 결식아동의 부모는 매일 한끼에 해당하는 추가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첫째, 집안내부수리 등 가계의 복지를 위한 지출 또는 도박에 활용하는 경우와,
 - 둘째, 자녀때문에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자녀를 위한 책상을 구입하거나 다른 소비부문에 지출하는 경우와,
 - 셋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에 관계없이 종전처럼 계속해서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 등임.
- 공여국이 교육분야에 100만불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수원국정부는 100만불의 수입이 증대되는데, 국별 사례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수원국정부는 원조때문에 늘어난 100만불의 자금을,
 - 100% 정부지출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또한 개발원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발분야에 전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소비부문에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 도시락 공급사업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부문에 늘어난 수입 100만불을 전부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효과적인 지원방안

-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공여국이 원조자금의 용도대체가능성(Fungibility)을 피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일 것임.
- 즉, 당해 프로젝트 1건의 성공여부보다는
 - 동 프로젝트의 지원을 통해서 수원국 전체의 개발을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 또는 해당분야 전체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관심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건물건축과 같은 외형적인 면보다는 (i) 기술의 이전, (ii) 제도구축능력(Institution-building capacity), (iii) 개혁 정책입안과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수원국이 (i) 원조자금을 분야별로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ii) 배분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여국이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주요 선진원조공여국 및 국제기구가 도입한 제도가,
 - 분야별 투자프로그램(Sector Investment Program: SIP) 과
 - 중기비용지출계획(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MEF) 임.
- SIP제도는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정부가 특정분야와 관련된 개발목표를 설정한 후,
 - 동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 지원키로 합의된 사업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전반적인 개발 진척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 정기적인 평가와 정책대화를 통해 비용지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MEF 제도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개발전략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국별원조계획(Country Programming)과 유사한 제도임.

4. 제4장: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Institutions

■ 개발을 위한 수원국 정부역할의 중요성

- 최근 세계 각국의 시장경제화 추세로 말미암아 공공부문은 작을수록 좋다는 축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 인적자원개발, 각종 제도의 구축 및 사회간접시설 등 공공 부문은 정부가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공공재이므로,
 - 문제는 수원국정부가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음.

■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방안

- 개발원조사업의 사전조사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수혜자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
 - 49개국에 대한 121개 관개용수사업의 평가 결과, (i) 수혜자의 참여율이 높은 사업의 경우 68%가 매우 성공적이며, (ii) 참여율이 낮은 사업은 12%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수혜자의 참여없이 시작한 네팔 관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지역에 농민들이 85개의 관개시설을 자체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됨.
- 공공부문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방안을 강구할 것.
 - 개발초기에는 보건소만 건립해 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 실제로는 공공서비스 관계공무원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완성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공무원들은 오히려 사업을 이용한 부업이나 부패에 열중하게 됨.
- 훌륭한 계획을 입안하고 이의 실행을 위한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것.
 - 훌륭한 학교건물과 장비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학교운영계획과 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이와 관련, 공여국들은 개별프로젝트가 지원대상분야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주요 평가기준으로 삼기 시작함.

■ 원조형태별 공공서비스/공급의 질적개선방안

○ 비프로젝트방식 원조

- 비프로젝트방식에 속하는 원조는 프로그램 원조, 분야별 원조, 구조조정 원조 등이며,
- 수원국의 공공지출자금이 효과적으로 배분이 되고,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 프로젝트의 설계나 집행절차에 공여국이 개입하여 부가가치를 올릴 만한 사항이 별로 없고 프로젝트사업에 수반되는 행정비만 낭비되기 때문에 비프로젝트방식의 원조가 바람직함.

○ 프로젝트방식 원조

-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할 능력이 미흡한 국가에 대해서는 (i) 전체적인 원조규모는 줄이고, (ii) 수원국정부와 정책대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iii) 프로젝트방식의 원조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 경우, 프로젝트의 개념형성, 기획, 집행과정을 통하여 수원국의 제도를 개선하고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교훈을 습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을 반복 지원하는 것보다는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새로운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 그 이유는 새로운 사업은 실패하더라도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를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임.

- 전문가 파견사업
 - 전문가 파견사업은 수원국의 제도적 개선측면에서는 기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93년 UNDP의 평가에 의하면 전문가프로그램은 (i) 높은 파견비용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며, (iii) 수원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 제기능을 발휘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iii)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수생 초청사업
 - 장기적으로 일관된 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별연수사업은,
 - 귀국연수생이 연수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본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인적, 물질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 배운 지식을 활용하는데 따른 개인적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음.

■ 기 타

-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의 필요성 ✓
 - 도로, 보건 등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i) 공공 서비스의 불필요한 과다이용, (ii) 재원부족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저하, (iii) 관계자들의 주인의식 결여 등이 문제됨.
- 예를 들어, 무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예산부족으로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 심지어 주사바늘이나 약이 부족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적저하를 가져옴.
 - 결국 사용자들은 다른 보건시설을 찾게되며, 보건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됨.

5. 제5장: Money, but More Ideas, Too

■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추진중인 나라들의 공통점

- 첫째, 개혁주도세력을 발굴한 점
 - 아무리 여건이 어려운 나라일지라도 개혁성향인사의 발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둘째, 개혁세력은 체제개혁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보유할 것.
- 셋째, 원조기관은 개혁이나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창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
 - 개혁세력은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개발해야 하는데,
 - 개혁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발한 개혁과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 개발원조의 핵심역할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임.
- 넷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것.
 - 개발여건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지원과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조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성공사례: 구조조정후에 본격적인 재정지원을 개시함.

- 베트남은 80년대 구소련으로부터 GNP 10%에 달하는 원조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경제운영으로,
 - 대규모 재정적자, 연 400% 이상의 인플레이 등이 발생한 바,
 - 왜곡된 구조와 정책을 가진 나라는 아무리 많은 원조를 받아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임.

- '86년 개혁(Doi Moi)정책 도입후, Vo Van Kiet 부수상이 개혁의 선두역할을 하였으나,
 - 개혁의 기본방향 설정에도 불구하고 개혁팀은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음.
- 이때 세계은행 및 IMF 는 미국 등 주요 회원국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금지원이 불가하였는바,
 - UNDP, SIDA 등의 협력하에 개혁에 관한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한국 등의 성공사례 소개와 관련공무원에 대한 연수 등으로,
 - 베트남 스스로 개혁추진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또한 베트남의 개혁추진은 시민사회의 개혁참여 활동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여국도 이를 장려하였음.
- 이 결과, 90년대초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현저히 개선되고 인플레이션도 400%에서 70%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며,
 - 개혁.개방에 관한 각종 제도가 정비된 '94년 이후 원조기관이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 '95년이후 부터는 연 9%이상의 고도성장률을 나타내기 시작함.

■ 원조기관의 역할

- 아무리 수원국의 개혁여건이 어렵더라도 개혁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함.
 - 구소련의 붕괴, '86년 베트남의 개혁, '90년대초의 인도, 내전 이후의 이디오피아 및 엘살바돌과 같은 나라의 개혁과 개방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혀 예측을 불허하였음.
- 원조공여국들은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공동목표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함.

- 90년대 들어 많은 원조기관들은 국별원조전략을 수립하여,
 - 개별원조사업이 정책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수원국의 전반적인 개발계획의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 또한, 종전의 개별프로젝트를 위주로 한 평가에서 국별, 분야별 전반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원조제공을 위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여, 훌륭한 정책관리 능력을 갖춘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원조 효과를 제고하고, ✓
 -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제도변화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번역 정리

서론

1. 원조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의 검토

1-1. 원조의 성공사례

- 성공사례에 해당하는 국가는,
 - 1960년대 한국, 1970년대 인도네시아, 1980년대 볼리비아 및 가나, 1990년대 베트남 등임.
- 이들 성공사례국가들에 있어서 원조가 담당한 역할은,
 - 개발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 공공부문 정책결정자들을 훈련시키고,
 - 개혁과 공공부문 확대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 농업부문의 기술혁신과 투자 등을 통하여 “녹색혁명”을 이룩한 것 등임.
- 원조를 통하여 이룩한 성과는,
 - 수익에 달하는 인구가 교육, 식수, 전기, 보건, 관개시설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 절대빈곤, 각종 질병 등의 문제가 크게 감소된 점임.

1-2. 원조의 실패사례

- 자이레(현 콩고민주공화국)의 전 대통령 Mobuto Sese Seko는 개인 재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중의 하나로, 이 나라는 부패, 무능 및 잘못된 개발정책을 실시한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지고 있음.
- 지난 20여년간 원조공여국들은 탄자니아의 도로건설을 위하여 20억불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었으나,
 - 부실한 도로유지관리 때문에 새로 도로를 건설하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기 건설한 도로가 마모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
 - 탄자니아의 도로상태는 전혀 개선되지 못하였음.

1-3. 원조문제 재고의 필요성

- 지난 50여년간 원조로 지출된 금액은 미화 1조 달러에 달하며,
 - 동 기간동안 과거 어느 시기보다 빈곤문제 해결에 팔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 아직도 10억에 달하는 인구가 절대빈곤(1일 1불이하의 소비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 교육, 위생, 식수, 전기 등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아직도 많음.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원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
 - '97년도 OECD 원조공여국의 GNP 대비 ODA 비율은 50년대에 원조가 개시된 후 비교가능한 원조통계가 생긴 이래 가장 낮은 비율인 0.25% 미만인 바,
 - '91년도 수준을 회복하는데도 50%이상의 원조증액이 필요함.
-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아래 3가지의 여건변화를 고려하면 원조와 관련된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음.
 - (i) 냉전종식과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금흐름의 급증으로 원조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ii) 개발과제의 다양화로 개발전략이 변화됨에 따라 원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됨.
 - (iii) 효과적인 원조와 비효과적인 원조를 구분할 수 있는 실증적인 경험의 많이 축적됨.

1-4. 원조와 관련된 제반문제들에 대한 검토결과 확인된 6가지의 새로운 사실

- 재정적인 원조(Financial Aid)는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되면 효과가 없음.

-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의 경우, GDP 1%에 해당하는 원조로 빈곤인구 및 유아사망율이 각각 1%씩 감소된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의 경우 실적이 훨씬 미흡함.
-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의 경우, 100억불의 원조증가로 25백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한 반면, 그렇지 못한 나라의 경우 같은 돈으로 7백만명을 구제하는데 그침.

■ 개도국의 빈곤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개혁을 원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원조가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제공, 훈련 및 자금 등의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효과적인 원조는 민간투자에 도움을 제공함.

- 경제운영을 건전하게 하는 나라의 경우, 원조 1불당 2불의 민간투자효과를 가져옴.
- 개혁의지가 강한 나라에 제공되는 원조는 주요 공공부문 서비스를 개선하고 민간부문의 신용도를 제고시킴.

■ 개발프로젝트의 가치는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강화시켜 주는데 있음.

- 개발프로젝트는 해당분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음.
- 왜냐하면, 개발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가 지원되지 않았더라면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조달했어야 할 노력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즉, 수원국이 의료분야 프로젝트에 100만불의 지원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지원하려던 의료분야 예산을 다른 분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발프로젝트는 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당 분야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경험을 전수해 주는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은 공공서비스의 질적개선에 기여함.

- Top-down 방식이나 기술관료 주도에 의한 개발프로젝트는 성공적이지 못한 반면,
- 시민사회의 주도에 의한 참여적 개발을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는 공공서비스를 매우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조는 가장 왜곡된 여건하에서도 개혁을 유도할 수 있음. 단,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내가 필요하며, 재정적인 지원보다 아이디어 지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최빈국의 경우, 비효율적인 정부체제 때문에 정부차원의 원조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러한 경우, 원조는 개혁주도세력에 대한 집중훈련 및 연수 등을 통하여 개혁을 효과적으로 주도할 수 있음.

1-5. 빈곤감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5가지 정책개혁

■ 건전한 경제운영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국가 (low-income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에는 재정지원에 중점을 두도록 함.

- 정책집행에 필요한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한 재정원조는 효과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좋은 여건을 갖춘 나라에 대한 재정원조는 고도성장 및 사회개발지수의 개선을 가져오고 민간투자유치의 촉매역할을 제공함.

- 1990년대 까지의 재정원조는,
 - 여건이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의 구분 없이 비슷한 비율로 지원되었으며,
 - 재정원조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중소득국가에 오히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바,
 - 재정원조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경제운영을 하면서도 소득이 낮은 국가를 위주로 하여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혁조건부 원조는 개혁세력이 정책개혁을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강력한 지도력이나 개혁에 대한 정치적인 지원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원조공여국이 아무리 엄격한 조건하에 재정지원을 하여도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
- 따라서, 개혁조건부 원조는 개혁구호만 외치는 나라대신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개혁조치를 하거나, 확고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새로운 정부를 위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책집행능력이 부족하고 개혁의지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혁과 관련된 다른 나라의 경험과 아이디어의 제공
 - 향후 개혁추진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정책결정자와 지도자에 대한 훈련
 - 시민사회의 정책토론능력 향상 등

■ 각종 원조활동은 국별, 분야별 특수한 여건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제도가 미비되고 정책집행능력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 원조 공여국은 보건이나 기초교육분야 등 BHN분야의 사업을 지원 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도 소기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건분야에 대한 재정지원계획을 갖고 있던 수원국정부가 동 분야에 원조공여국이 지원을 하게 되면 동 예산을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동 보건분야는 원조이전에 비해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와 같이 볼 때,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선정했다거나 BHN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해서 반드시 원조의 효과가 제고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원조의 효과를 측정할 때는, 공공분야 전반적인 예산의 배분실태 및 효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처럼 예산의 배분은 양적인 면 못지 않게 질적인 측면이 중요하므로 국가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건전한 경제운영을 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프로젝트보다는 예산지원형태의 원조를 늘려 행정을 간소화하고 간접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서비스공급기능이 약한 나라의 경우에는, 공공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정책이 올바르지 못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관련예산도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각종 개발프로젝트는 지식과 능력(knowledge and capacity)을 창조해 내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함.

- 개발프로젝트의 중점 역할은 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음.
- 개발프로젝트를 통하여 습득하게 된 현지 지식과 제도적 측면의 능력향상은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성과임.
- 특히, 어떠한 조건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안되는 지에 관한 지식은 개발원조의 가장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임.

- 서비스공급의 혁신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결정의 분권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원조기관은 제반 여건이 극도로 왜곡된 나라를 지원할 때는 전통적인 지원방법이외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함.

- 원조제공과 관련된 여건이 지극히 어려운 나라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개혁의 여지는 있음.
 - 이러한 나라에서는 원조공여국이 끈기와 융통성을 가지고 개혁추진노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함.
 - 이 경우, 대규모 자금지원보다는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임.
- 과거 원조기관들은 자기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성공여부를
 - 자금의 집행실적과 외형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해 왔으나,
 - 이러한 기준으로는 원조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음.
- 따라서, 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원조기관들이, 정책개혁과 제도적인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어느 정도 건전한 정책집행 여건(sound policy environment)을 만들어 내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2. 새로운 국제환경

2-1. 대외원조를 공여하는 2가지 목적

- 대외원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 번째 목적은 개도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 두 번째 목적은 공여국의 단기적인 정치적, 전략적인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임.

2-2. 개도국에 대한 자금흐름의 동향

2-2-1. ODA

-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OECD 회원국들의 ODA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91년도 최고수준인 690억불에 달하였음.
- 1990년대는 아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ODA의 절대적, 상대적 규모가 줄어들었음.
 - OECD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로 각국들은 ODA를 우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 냉전의 종식으로 전략원조의 명분이 약화되었고,
 -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금의 급증으로 ODA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
- '91~'97년간 모든 주요 공여국들의 GNP 대비 ODA 비율이 낮아져 '97년도 OECD 회원국의 평균 ODA 비율은 0.22%에 불과하였음.
 - 미국의 경우, '97년도에는 0.08%에 불과하였고,
 - 강대국중 0.45%이상의 비율을 나타낸 나라는 프랑스 1개국에 불과한 실정임.

2-2-2. 민간자금

- 1970년대 및 1980년대에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의 흐름 중 공적자금의 비율이 50%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민간자금의 급증으로 '96년도에는 공적자금의 비율이 25%에 불과하였음.
- 다만, 민간자금은 소수의 중소득국가에 집중되고 있음.
 - '96년도의 경우, 전체 민간자금의 95%가 26개국에 집중되었으며,
 - 나머지 5%가 기타 140개국에 제공되었음.
 - 저소득국가의 경우에는 ODA가 GNP의 7~8% 수준으로 외자액의 대부분을 ODA가 차지하고 있음.

2-2-3. 공여국들의 원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

- 1990년대 원조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로 공여국들은 원조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됨.
- 즉, 냉전종식으로 정치적, 전략적인 원조에 구매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 개도국의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해소 등과 같은 원조 본래의 목적에 보다 중점을 두고,
 - 원조의 효율화에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공여국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금 흐름의 증대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원조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게 됨.

3. 개발전략에 대한 새로운 사고

3-1. 개발원조의 경험과 성과

3-1-1. 개 요

- 개발원조는 개도국의 개발을 위한 많은 수단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전반적인 개발전략과 일치하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함.
- 원조와 관련된 조직, 집행수단 및 방법 등은,
 - 국내외의 정치적 여건과 개발전략에 대한 신념에 따라 형성되어 왔으나,
 - 국내외의 여건과 개발에 대한 신념이 변화됨에 따라 개발원조의 방향도 변화되어 오고 있음.

3-1-2. 개발원조 초기의 개발에 대한 인식 및 개발전략

- 개도국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개도국 정부임.
 - 이는 개도국에는 국내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 대공항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제경제질서의 혼란에 따른 시장체제에 불신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 개도국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적, 인적자본의 부족이므로,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 성장에 필요한 요소 중에서 빠진 것(missing components)을 원조로서 채워주는(filling of foreign exchange or saving gap) 개발전략을 위주로,
 - 정부차원 원조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으며,
 - 원조의 성과는 지원된 달러의 규모로 측정하였음.

3-1-3. 개발원조의 성과

- 많은 개도국의 경우 개발원조의 성과가 미흡하였음.
 - 잠비아의 경우, 1인당 GNP를 2,000불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는 원조를 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00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 중앙계획 경제체제국가들의 붕괴
 -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외채국가들의 정체
 - 대부분의 아프리카국가들의 경제개발 실패 등
- 성공적인 지원사례
 -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
 -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 칠레
 - 보츠와나, 모리셔스 등
- 경제개발에 성공적인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 유능한 정부가 단순히 지배적인 역할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촉진제로서의 역할(an economically important facilitating, but not dominant, role)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임.

3-1-4. 개발에 대한 사고방식의 세 단계 변화

- 첫 단계는 시장의 완전한 실패가 만연해 있으며, 정부를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간주한 시기임.
- 두 번째 단계는 정부의 완전한 실패가 만연해 있으며, 시장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간주한 시기임.
- 오늘날의 세 번째 단계는 이념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실용적인 견해로써,
 - 정부와 시장의 실패가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정부와 시장 양쪽 모두 완전한 실패는 아니라고 간주하며,
 -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개입하여야 하며,
 - 정부는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예를 들어, Stiglitz 는 아래와 같이 언급함.
“우리는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는데 있어서의 정부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함은 물론 시장의 강점과 한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음(Stiglitz 1989, p. 202).”

3-1-5. 세 번째 단계의 두 가지 개발전략 및 과제

가. 두 가지 개발전략

- 첫 번째 전략은 경제성장과 함께 시장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토록 함.
 - * 예: 안정된 거시경제 여건의 조성, 법과 질서의 확립, 무역자유화 등
- 두 번째 전략은 민간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없는 주요 공공서비스 제공업무만을 정부가 담당토록 함.
 - * 예: 사회간접시설, 교육 등

- 또한 건전한 정책과 높은 수준의 공공제도를 갖춘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훨씬 빨리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바, 결론적으로,
 - 개발의 장애요인은 자본부족이 아니라,
 - 정책형성, 제도구축 및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 등에 실패했기 때문임.

나. 새로운 개발과제

- 초기의 개발전략은 1인당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도국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소득증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생활수준(빈곤해소, 문자해독률 증대, 보건 증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등)의 향상임.
- 따라서, 원조공여국들은 개도국과의 협의하에 새로운 개발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DAC가 작성한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음.

■ 2015년까지 세계 극빈층을 반으로 축소할 것.

■ 2015년까지 모든 국가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

■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학교에 남녀차별을 없앨 것.

■ 2015년까지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을 2/3까지 축소할 것.

■ 2015년까지 임신가능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여성들이 기본적인 보건체제를 통하여 생식보건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손실된 환경자원을 2015년까지 국가차원은 물론 범세계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국가전략을 2005년까지 추진할 것.

- 이 모든 과제는 종전과 다른 원조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 개발원조는 자본보다는 수원국이 좋은 제도와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 이는 자금지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서는 자금과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 수원국별로 각기 상이한 여건과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여 원조의 두가지 요소(자금 및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절히 배합하여 지원할 것인가가 원조업무의 핵심과제중의 하나임.

제1장: 원조자금은 훌륭한 정책환경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Money Matters -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1. 개 요

- 많은 개도국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해외원조를 받아 왔으나, 경제 성장과 빈곤완화면에서의 효과는 국가마다 격차가 큰데, 이는 원조효과가 주로 수원국의 제도와 정책환경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임.
 - 건실한 경제운영을 하는 나라에서는, 원조가 (i)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시키고, (ii) 경제성장율을 높이고, (iii) 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iv) 빈곤인구를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지만,
 - 경제운영이 부실한 나라에서는 원조가 개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이 장에서 다룰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도국들의 다양한 경제성장 경험에 관한 개관
 - 성장, 제도 및 정책간의 상관관계 검토
 - 원조와 성장, 원조와 빈곤감소, 원조와 민간투자간의 상관관계 검토
 - 원조의 배분관련 검토
 - 원조효과의 제고방안 제시

2. 국별로 나타난 다양한 원조결과(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Fortunes)

2-1. 국별사례

- 1966년 당시 이디오피아, 인도, 태국 모두 1인당 하루 1불('85년 가격기준)이하 생활수준의 가난한 국가들이었으나, 1990년에 이르러서는 1인당 소득면에서 현격한 격차를 보임.

- 인도는 1인당 실질소득 수준이 2배로 증가하였고 빈곤인구는 53%로 감소되었음.
- 태국은 같은 기간동안 소득수준이 3배 증가하고 빈곤인구는 2%로 줄어들었음.
- 반면, 이디오피아는 같은 기간동안 소득수준에 변화가 없었으며, 1966년 태국과 3배차를 보이던 소득이 1990년에는 10배차로 늘어 났음.

2-2. 경제성장의 중요성

- 경제성장이 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님.
 - 경제성장은 환경오염, 범죄, 성차별, 사회적 소외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야기시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그에 따르는 문제해소를 위해 성장은 저소득 국가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며,
 -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및 사회개발지수의 향상은 통상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경제성장과 유아사망율의 관계를 보면,
 - 경제성장율이 높은 태국의 경우, 1967년 출생후 1년 이내 사망하는 유아의 수가 1,000명당 84명이었으나 1990년 이 숫자가 2/3 정도 줄어들었음.
 - 인도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유아사망율이 반으로 줄어들었음.
 - 그러나, 경제성장이 부진한 이디오피아의 경우는 유아사망율 감소율이 27%에 불과하였음.
- 경제성장과 초등의무교육과의 관계를 보면,
 - 태국의 경우 1990년까지 여자 어린이에 대한 초등의무교육이 달성되었으며,
 - 인도의 경우는 91%, 이디오피아의 경우는 여자어린이에 대한 초등의무교육이 19% 수준에 불과함.

2-3. 전세계의 평균적 수준향상

- 전세계 평균적인 면에서 볼 때 유아사망율, 기아, 교육, 질병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
- 현재 60대의 나이에 해당하는 중국인의 62%는 어린 시절에 교육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비율이 5%로 줄어들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80%에서 15%로 줄어들었음.

2-4. 국가별 성장격차

2-4-1. 성장속도별 국가분류

- 2차대전 이후 개도국들은 성장속도별로 볼 때 아래 3가지 집단으로 분류됨.
- 첫째, 고도성장 집단,
- 둘째, 저성장 및 정체 국가집단,
- 셋째, 비성장 또는 퇴보국가집단.

2-4-2. 고도성장 집단

-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보츠와나 등이며 이들 국가들과 미국과의 소득격차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 이에 이어 고도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는 70년대 말 이후의 중국, 1984년 이래의 칠레 등임.
- 반면,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고도성장국가 집단에서 탈락하게 되었음.
- 브라질은 1965~1980간 4.2%이던 경제성장률이 1980~1992간에는 0.2%로 떨어짐.
- 인도네시아는 최근 경제위기후 성장률이 둔화됨.

2-4-3. 저성장 및 정체국가 집단,

- 방글라데시, 인도, 말라위, 파키스탄 등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들임.
- 인도의 경우, 1990년도 미국과의 소득격차(18배)가 1966년의 소득격차와 동일함.
- 이러한 국가들이 빈곤 및 사회개발지수면에서 질적 개선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고도성장국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2-4-4. 비성장 또는 퇴보국가집단

- 최근 수십년 동안 상당수의 개도국들은 소득수준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되었는데,
- 코트디부아르, 이디오피아, 잠비아 등 동 집단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프리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 아프리카 이외지역의 국가로는 하이티, 니카라과, 이란 등임.
- 이들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과의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바,
- 자이레의 경우 1966년 당시 미국과의 소득격차가 20배였으나 현재는 50배로 벌어진 실정임.

3. 다양한 격차발생의 원인(Why the Divergence?)

3-1. 원조 역할의 변천

3-1-1. 개발초기

- 저축과 외환 부족에 따른 투자부진을 경제 발전의 주된 저해 요인으로 간주하여,
- 초창기 원조는 “저축격차”와 “외환격차”를 보전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주류를 이루었음.

3-1-2. 중앙계획경제체제의 붕괴이후

- 이러한 격차논리와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한 중앙계획 경제 체제하의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0년대부터 개발에 관한 논의의 중점이,
 -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투자자본에서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방향으로 바뀌게 됨.
- 이러한 유인책으로서는,
 - 투자의 효율성 제고,
 - 인적자원개발,
 - 기술발전의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3-1-3. '90년대이후 새로운 개발과제논의를 통한 교훈

- 거시경제의 안정이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Fisher 1993, Easterly and Rebelo 1993).
 - 높은 물가상승률과 재정 적자는 투자와 성장을 방해함.
- 대외지향정책 및 국제경제체제 참여에 필요한 여건조성이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 무역자유화 조치는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킴(Sachs and Warner 1995).
- 미시경제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제도와 건실한 경제운영이 중요한 요소임.
 - 사유재산권의 강화, 법치주의, 공무원의 자질 등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Knack and Keefer 1995).
 - 반면, 관료주의의 부패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Mauro 1995).

3-1-4. 경제관리능력과 성장간의 상관관계

- 56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4개년간 평균 성장율, 원조 및 경제 관리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Burnside and Dollar 1997, 1998),

- 1인당 성장률과 경제관리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거시경제면에서든 제도적인 면에서든 건실한 경제운영(sound management)은 성장의 필수요건인 것으로 나타남.
- 동 연구 결과, 빈곤국가들은 “재정 격차”가 아닌 “제도격차” 및 “정책격차”에 의해 성장이 지체되어 온 것으로 밝혀짐.
 - 보츠와나와 태국은 건실한 운영의 좋은 예이며,
 - 탄자니아와 잠비아는 부실 운영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바,
 - 태국과 잠비아간 운영격차는 4%에 달하는 성장률의 격차를 가져옴.
- 볼리비아와 가나의 경우처럼 경제운영을 개선하면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이들 2개국은 1980년대에 부실한 경제운영을 하였으나, 1990년에 들어서는 건실한 경제운영을 하고 있음.
-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비해 성장률의 기복이 매우 심한 편임.

4. 훌륭한 관리체제를 갖춘 나라의 원조성과(In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4.1. 정책집행능력과 소득성장율과의 관계

- 후진사회는 개발에 유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이 전제되어야 함(Sachs and Warner 1995).
- 그런데 개발의 성과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당해 개도국이 속하는 소득그룹과 정책집행 능력에 따라 다양함(Burnside-Dollar).

■ 정책집행능력이 떨어지는 국가(countries with poor management)

- 정책집행능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의 경우, 그 나라가 저소득, 중소득 또는 고소득국중 어느 소득그룹에 속하더라도 소득

성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무역규제와 불안정한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세계화와 동떨어진 나라들의 개발성도가 가장 저조함.

■ 정책집행능력이 뛰어난 국가(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중소득국가와 고소득국가>

- 동아시아 신흥공업국, 칠레 등 중소득그룹에 속하는 나라들이 고소득그룹에 속하는 나라들 보다 높은 소득성장을 나타내고 있음.
- 이들 중소득그룹의 국가들은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도 높은 편임.

<저소득국가>

- 개발의 성과는 양호한 편이나 중소득국가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이에 대한 요인으로서는 지리적인 여건이 불리(내륙에 위치)하거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난하여 저축 및 투자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음.
- 민간투자자들은 이러한 국가들의 여건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투자를 꺼리기 때문에 개혁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훌륭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 기여하는 것이 개발원조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원조의 효과가 매우 높은 반면,
- 정책집행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를 펴붓는다고 해서 반드시 성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님.
- 또한, 개발원조는 정책개혁을 장려시킬 수 있음.
- 본격적인 개혁을 추진하면 2~3%의 추가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

- 이러한 수치는 지난 25여년간 성장이 정체되어 온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음.

4-2. 개발원조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

4-2-1. 원조와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조와 개도국의 1인당 성장률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조를 많이 받아도 어떤 나라(예: 잠비아)는 성장이 느리고, 어떤 나라(예: 보츠와나, 가나)는 성장이 빠른 현상을 보임.

4-2-2. 수원국의 관리능력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그러나, 관리능력이 훌륭한(good-management) 국가와 관리능력이 약한(poor-management) 국가간에는 원조의 성과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관리능력이 약한 국가의 경우에는, 원조의 금액에 상관없이 성장이 저조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어, 원조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만들었음.
- 관리능력이 훌륭한 국가들 중
 - 적은 원조를 받은 국가의 1인당 성장률은 2.2%성장한 반면,
 - 많은 원조를 받은 국가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바,
 - 훌륭한 관리능력(good-management)은 원조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예: 1990년대의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가나, 온두라스, 말리 등).
-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및 니카라과를 대상으로 한 Lopez 연구(1997)에 의한 결론은 아래 세 가지임.
 - 첫째, 해외원조 그 자체는 개발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음. 이는 원조의 효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은 수원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기 때문임.

- 둘째, 재정정책은 정부의 경상저축을 늘려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외자는 정부의 경상비용 지원에 그치고 말게 될 것임.
- 셋째, 원조의 긍정적인 효과와 수원국의 훌륭한 정책은 항상 정비례 관계에 있음.

4-2-3. 아프리카 7개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결과

- 많은 양의 원조는 빈곤퇴치에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빠른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는 바,
- 이는 수원국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정책들 때문에 원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임.
 - 높은 재정적자와 물가상승률, 국제수지문제를 악화시키는 정책들은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장하여 공공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촌지도사업인데, 정부의 고환율정책은 농업생산물의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어 사업목표달성에 실패하게 됨.
 - 시장기능을 지나치게 왜곡시키는 정책들 또한 희소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유인이 됨.

4-3. 소득증대와 빈곤감소와의 상관관계

- 원조의 주된 목적은 빈곤 퇴치에 있으며, 빈곤 퇴치와 1인당소득증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개발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으로 거둔 성과들이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해 상쇄될 것을 우려하였으나, 최근의 연구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우려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 분배에 큰 변화가 없는 한, 1인당 소득증대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에게 대체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고도성장국의 경우에는 최빈층의 소득이 급격하게 증가하며, 빈곤인구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짐.
- 1인당 소득성장률이 저조하고 소득분배가 안정적인 국가에서는 빈곤인구가 감소되지 않음.
- 최근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1인당 소득성장과 빈곤해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 1인당 소득이 늘어난 나라는 빈곤층이 감소되고, 소득이 줄어든 나라는 빈곤층이 증가하였음.
 -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이 4% 늘어나면 빈곤층이 5% 줄어들고,
 - 경제가 위축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이 7% 떨어지면 빈곤층이 19% 늘어났음.
- 평균적으로, 개도국에서 1인당 소득의 1% 증가는 2%의 빈곤인구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관리능력이 훌륭한 개도국에서는 원조로 인한 실질 GDP 1% 증가가 0.5%의 성장률 증가와 1%의 빈곤인구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관리능력이 부실한 개도국에게 있어 원조의 빈곤완화효과는 이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음.
- 유아사망률의 경우에 있어서도 원조의 영향은 빈곤완화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4.4. 원조와 민간투자유치의 상관관계(...Aid "Crowds in" Private Investment)

- 정책관리능력이 훌륭한 국가에서는 원조가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훌륭한 정책관리체제가 일단 확립되면 생산성이 높은 공공투자 사업에 원조자금이 많이 지원되며,
 - 투자에 대한 수익률도 높은 편임.
- 정책관리능력이 훌륭한 국가에서는 해외원조가 (i) 수혜국 정치, 경제여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시키고, (ii) 인프라문제를 완화시켜

- GDP 1%에 달하는 원조는 GDP 1.9%에 해당하는 민간투자를 증가시키게 됨.
- 그러나, 정책관리능력이 부실한 국가에서는,
 - 원조가 민간투자자들이 담당해야 할 상업부문에 공공부문이 대신하여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 원조는 주로 공공부문에 지원되기 때문에 원조가 많이 지원될 수록 오히려 민간투자를 몰아내는 결과를 가져옴.
 - 이런 나라에서는, GDP 1%에 달하는 원조는 GDP 0.5%에 해당하는 민간 투자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남.

5. 원조의 배분(Aid Has Not Favored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5-1. 1인당소득과 1인당 수원금액간 상관관계

- 원조는 훌륭한 제도와 정책을 갖추면서도 가난한 나라에 중점 지원되어야 원조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음.
- 그러나, 1970~1993간의 원조배분은 냉전시대의 국제정치와 원조공여기관의 내부정치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음.
- 양자간 원조의 경우, 수원국의 1인당 수원금액과 1인당 소득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이 2배로 증가하면 원조는 33%정도 감소됨.
 - 양자간 원조 총액중, 20%만이 최빈개도국 12%에게 제공되었음.

5-2. 인구와 원조배분과의 관계

-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많은 나라보다 원조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1990~1993간 인도와 중국은 1인당 수원금액이 각각 2불과 1불인 반면,
 -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50불 이상을 지원 받았는바,

- 이러한 인구규모에 따른 차별이 소득과 원조배분간 상관관계가 미약한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함.

5-3. 공여국의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와 원조배분

- 양자간 공여국중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을 제외한 다른 공여국의 경우 정치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원조배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 미국의 원조는 중동지역에, 유럽의 원조는 과거 식민지국가에 많은 원조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다자간 공여기관은 원조배분시 정치적, 전략적 고려는 미미하며, 대신 소득, 인구 및 정책관리능력을 주로 고려하고 있음.

5-4. 수원국의 관리능력과 원조배분과의 관계

- 양자간 원조의 경우, 수원국의 관리능력이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에 같은 양의 원조를 제공하였음.
- 예를 들어, 공여국의 과거 식민지라는 사실이 관리능력이 좋다는 점보다 원조를 받는데 더 중요한 요소임.
- 전략적 고려에 의한 냉전시대의 원조는,
 - 공여국의 정치적 목적은 달성하였을지 모르나,
 - 정책관리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제공된 원조는 빈곤해소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6. 원조여건별 지원방향(Be Focused)

6-1. 개 요

- 개발 원조는 빈곤해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나라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 빈곤인구가 많고 훌륭한 제도와 정책을 갖춘 나라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음.
- 1996년도에 113개의 개도국을 빈곤의 정도와 정책의 질로 분류하여 원조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6-2. 빈곤율이 높지만 훌륭한 정책을 펴는 나라
- 32개국이 전체인구의 50% 이상이 빈곤하면서도 평균수준 이상의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 이들 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빈곤퇴치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이디오피아, 우간다, 말리, 인도 등임.
- 6-3. 빈곤율이 낮고 평균수준이하의 부실한 정책을 펴는 나라
-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18개국으로 원조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나라에는 원조를 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고,
 - 부실한 정책으로 인하여 원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음.
- 6-4. 빈곤율이 높고 부실한 정책을 펴는 나라
- 32개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인구 50% 이상이 빈곤계층에 속하면서도 부실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 이들 국가들에 대한 원조는 제반 정책집행을 위한 환경이 열악하여 효과가 크지 못하므로,
 - 이들 국가들에게는 대량의 재정지원보다는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보전파와 정책대화 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6-5. 빈곤율이 낮고 훌륭한 정책을 펴는 나라
- 이에 해당하는 나라는 31개국으로 원조가 효과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빈곤율이 낮으므로 원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지 않음.
- 6-6. 결 론
- 공여국들이 원조배분시 이러한 빈곤율과 정책의 질을 고려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원조의 효과제고를 위해서 보다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나라를 중점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00억불의 원조자금을 가지고 상기 네 가지 유형의 국가들에게 같은 비율의 자금을 제공하면 7백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반면,
- 가장 효과가 높은 유형의 국가에 지원하면 25백만명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음.

제2장: 수원국의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조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Policies)

1. 개 요

1-1. 건전한 정책관리의 중요성

- 거시경제의 안정, 개방화, 법에 의한 지배 및 부패척결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건전한 정책관리는
 - 성장과 빈곤해소에 기여하며,
 - 원조가 빈곤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수 있음.
- 개도국의 정책관리능력을 향상시키면 같은 자금으로도 훨씬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 이러한 정책관리능력향상의 핵심은 정책개혁과 능력향상(Policy Reform and Capacity Building)임.

1-2. 이번 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에 중점을 두고 원조와 정책 개혁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자 함.

- 원조자금은 수원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었는가?
- 일부 보수적인 비판가들은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들 국가들의 정책관리능력을 오히려 저해시켜 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인가?
- 정책개혁 조건부 융자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러한 융자는 수원국의 경제정책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는가?
- 이상의 질문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후, “원조가 수원국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mechanism)” - 아이디어의 전파, 차세대 지도자 교육, 시민사회내부의 정책토론 촉진 등 - 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1-3. 원조와 수원국의 정책간의 상관관계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운 사유는 아래 두 가지임.

- 첫째, 원조의 양과 수원국의 정책간에는 놀랄 정도로 상관관계 희박하다는 점
- 둘째, 정책개혁 조건부 용자의 경우는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임.
 -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한 나라의 경우, 구조조정 용자가 이러한 개혁을 지원하여 정책적인 성과가 나타난 경우가 많음.
 - 반면, 개혁에 대해 국내적으로 강력한 지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의 지원성고가 실패로 끝나게 됨.
 - 정책관리능력이 부족하고 개혁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없는 나라의 경우는 개혁추진 및 일반 지지세력을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1-4. 이와 같이 여건이 어려운 나라에서 원조가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은,

- 차세대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전파하고,
- 공공토론을 촉진시키는 것임.

2. 자금지원은 개혁을 위해 좋은 것일까 혹은 나쁜 것일까?

2-1. 외국원조가 수원국의 개혁을 원만하게 추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는,

- 정책개혁을 장기화시키지 않고,
- 개혁에 따른 고통이 전체인구중 일부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될 경우임.

2-2. 2차대전후 경제개혁을 추진한 7개국(볼리비아, 칠레, 독일, 이스라엘, 멕시코, 폴란드 및 터어키)에 대해 연구분석한 결과는 (Sachs, 1994) 아래와 같음.

- 원조가 훌륭한 정부들(good governments)에 제공될 경우,
 - 이들 정부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 경제성장에 필요한 정책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 지속적인 개혁추진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2-3. 반면, 또 다른 연구(Rodrick 1996)는 “원조는 무능한 정부(bad governments)가 계속 생존해 나가는 것을 돕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대표적인 예는 1950년대의 한국과 대만으로
 - 이들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원조를 받던 1950년대에는 개혁을 지연시켜 오다,
 - 미국원조가 끝나갈 무렵인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였음.

2-4. 또한, 56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와 거시경제 및 무역정책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조사(Burnside and Dollar)한 결과,

- 원조는 정책지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 법에 의한 지배, 민족분쟁 및 정치적 불안정 여부 등 국별 특수사정에 의해 정책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5. 그리고 원조의 양이 수원국의 정책변화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바, Alesian and Dollar(1998)가 6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 원조규모의 급증후 개혁이 뒤따른 경우는 87건의 사례중 6건에 불과하며,
- 원조규모가 급감된 후 개혁이 뒤따른 경우는 92건의 사례중 16건이었음.

2-6. 원조와 정책변화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개별국가 사례는 아래와 같음.

- 잠비아의 경우는 원조로 인하여 개혁이 지체된 사례임.
 - 잠비아의 정책수준은 1970~93년의 기간동안 계속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원조규모는 계속 늘어나 1990년대에는 GNP의 11% 수준에 달하였음.
- 가나의 경우는 개혁을 시작한 후 원조가 증가된 사례임.
 - 가나는 개혁시작 전에는 수원규모가 미미하였으나,
 - 개혁시작후 원조공여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된 바,
 - 개발원조는 좋은 개혁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7. 결론적으로 원조의 양과 정책의 질적인 개선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음.

- 다만, 원조가 정책개혁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면 정책개혁을 조건으로 한 경우나 아이디어 보급을 통한 경우임.

3. 돈으로 살 수 없는 주인의식(Ownership - What Money Cannot Buy)

3-1. 개혁과 조건부원조

- 원조가 개혁을 장려시키기도 하고 지체시키기도 하는 것이라면 정책개혁을 조건부로 한 원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바,
 - IMF와 세계은행은 개혁조치를 조건부로 자금을 지원해 온 이래
 - 다른 공여국들도 원조배분에 있어 정책개혁을 조건으로 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
- 그러나, 사례조사결과에 의하면 개혁조치를 조건부로 한 원조도 개혁추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3-2. 정책개혁 조건부원조의 실패원인

- 첫째, 정책개혁 실시에 대한 확인이 어려움.
 - 예를 들어, 원조조건으로 재정적자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을 경우,
 - 재정적자는 단순히 정부개혁조치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요인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 정부에 의한 정책개혁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음.
- 둘째, 조건부 원조의 영향력은 원조기간에만 유효함.
 - 어느 정부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 개혁에 동의하게 되지만,
 -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원조프로그램 말기에는 개혁이 유명무실하게 됨.
- 셋째, 원조공여기관의 주관심은 자금집행율에 있음.
 - 정책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조공여기관은 자금집행율에 가장 큰 관심을 두게 됨.
 - 많은 연구결과(Mosley 1987, Mosley and others 1995, and Thomas 1991 등)에 의하면 "수원국내 강력한 개혁움직임이 없는 한 조건부원조가 개혁을 촉진시키기 어렵다"는 것임.
 - 또한 동 연구에 의하면 자금지원조건 충족율은 5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100% 지원되었음.

3-3. 조건부원조가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여건

- 수원국의 개혁의지 및 원조사업에 대한 주인의식(ownership)이 강하거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강할 때 조건부원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음.
- 세계은행이 구조조정 차관사업 실시결과에 대한 자체분석결과,
 - 세계은행 자체적인 노력은 사업의 성공 또는 실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원국의 정치적, 제도적 여건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 사업에 성공을 거둔 나라의 52%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이며,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으면서도 실패한 나라는 29%임.

- 장기집권국가는 실패율이 높으며,
- 정치가 불안한 나라로 성공을 거둔 경우는 9%에 불과함.

3-4. 과거 실패경험에 따른 교훈

- 과거, 세계은행은 개혁의 성공여부와 수원국측 노력간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고려치 않았음.
 - 1980년대 잠비아의 경우 212백만불에 달하는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한 바, 동 자금에 의한 각종 사업의 3/4은 실패하였음.
- 잠비아의 실패가능성은 Dollar-Svensson의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음. 즉,
 - 잠비아 정부는 민주적인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것이 아니었으며,
 - 장기집권을 하고 있었으며,
 - 개혁의지가 없었음.
- 최근 세계은행은 자금공여시 이러한 요인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 구조조정자금에 의한 사업의 성공률이 76%에 달함.
- 결론적으로 과거의 실패경험에 의한 교훈은 아래와 같음.
 - 정책개혁의 성공여부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주로 당해국의 정치적, 제도적 여건에 따라 좌우됨.
 -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개혁의 성공에 중요함.
 - 일단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면, 외부의 자금지원은 개혁을 궤도에 올리고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즉, 개혁을 하지 않는 나라에 자금을 많이 지원한다고 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님).

4. 개혁의 촉진(Fomenting Reform)

- ##### 4-1. 최빈국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심도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 실증적인 연구조사에 따르면, 개혁을 통해 2-3%의 추가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국가의 장기성장율이 0~1%

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엄청난 향상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정치적, 제도적인 면에서 취약한 여건에 처해 있는 최빈국들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님.

4.2. 개혁추진여건이 극히 왜곡된 나라들에 대한 원조정책방향

- 건전한 정책을 펴는 개도국들은 빈곤을 경감시킴.
- 반면, 왜곡된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오히려 빈곤층 인구 비율을 증대시키며,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조건부원조 또한 성과가 없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원조를 포기할 수도 없음.
-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작은 비용으로 장기간에 걸친 정책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임.
 -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 차세대지도자를 양성하며,
 -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장려함.

4.3.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의 전파

4-3-1. 훌륭한 정책에 관한 정보의 전파

- 개발원조기관들은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 보건의료, 연금개혁 등과 같은 개별 분야와 관련하여 무엇이 훌륭한 정책(good policy)인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훌륭한 정책이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낸 교훈에 의하면,
 - 성장률을 증가시키고,
 - 빈곤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함.

4-3-2. 거시경제의 안정과 개방화에 관한 정보의 전파

- 훌륭한 정책과 관련된 주요 개발정책은 “거시경제의 안정과 개방화”임.

- “거시경제의 안정과 개방화”는 개발정책의 핵심으로서 일반적으로 워싱턴합의(Washington consensus)로 알려져 있으나,
- 개발원조기관들이 전전한 거시경제 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고, 폐쇄경제국들에게 개방경제 국가의 성공사례를 배우도록 권장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부터였음.

4-3-3. 정보전파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 Sachs와 Warner는 1995년, 지난 10년간 무역자유화조치를 취한 35개국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 이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이 과거에 거둔 성공사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

4-4. 차세대 지도자 양성

4-4-1. 성공적인 정책의 지식전파에 있어서 개발원조기관의 역할

- 개발원조기관들은 개도국 주요인사들의 해외유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개발과 관련된 지식전파를 성공적으로 촉진시키고 있음.
- 귀국 유학생들은 정부기관, 대학, 언론기관 등에서의 활동을 통해 정책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인도네시아 사례: Berkeley Group이 60년대말 및 70년대초 개혁을 주도함.
- 남미사례: 해외유학파에 의해 많은 개혁이 기획되고 수행되어 왔음.
- 보츠와나 :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장기간에 걸친 훈련 프로그램지원으로 보츠와나 대부분의 정부관료가 동 프로그램에 참가함.

4-4-2.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위한 인재양성의 중요성

- 연구결과(Williamson, 1994, p. 589)에 따르면,
 - 개도국의 성공적인 개혁과 관련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음.
- 다만, 개혁을 추진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일관된 경제팀(coherent economic team)"인데,
 - 이러한 경제팀의 핵심요원들 중에는 해외유학생 출신들이 많음.
- 물론 해외유학이 개혁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다른 국내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개혁운동이 시작된 경우에도,
 -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잘 훈련된 경제학자와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이들 해외유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훈련된 훌륭한 인재들이 반드시 제대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4-3. 훈련된 인재들의 활용사례

- * 해외개발위원회(Overseas Development Council)가 실시한 아프리카 원조에 관한 연구 :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가. 실패사례

- 일반적으로 개도국 정부는 내부적인 관리문제 및 공공부문의 낮은 임금 등의 사유로 우수한 공무원을 오래 고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1970년대 탄자니아 및 케냐에서는 정부관리들의 봉급이 민간 부문보다 11~16% 더 높았음.
- 그러나 탄자니아의 경우 '80년대말 인플레이와 지속적인 재정위기로 인해 공무원 봉급은 과거에 가졌던 구매력의 94%나 상실하게 되자, 유능한 직원을 고용하기 어렵게 됨.

- 케냐의 경우, CIDA지원 프로젝트에 의해 1985~1991간 13명의 경제학자를 양성하였으나,
 - 이들 모두는 1년 이내에 정부이외의 기관이나 민간부문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 이는 정부부문 봉급수준이 국내 외국컨설팅회사나 원조공여국 해외사무소 봉급의 20%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임.
- 이러한 사례는 아프리카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 UN통계에 의하면 1986~1990년간 5~6만명에 달하는 중.고위직 관리직 인사들이 해외로 떠났으며,
 - 많은 우수한 사람들이 월급이 5~10배나 높은 원조기관에 취업하고 있음.
 - 세계은행이 케냐에 지원하는 농업프로젝트에 고용된 케냐인의 월급이 3,000~6,000불 수준인데 비해, 중견공무원의 월급은 250불에 불과한 실정임.

나. 성공사례

- 경제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보츠와나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봉급지불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제공으로,
 - 공무원들이 이직을 하지 않으며,
 - 특히, 해외로 떠난 예는 매우 드문 편이었음.

다. 교훈

- 보츠와나의 경우처럼 잘 교육받은 관료는 훌륭한 정책 (good policy)에 필요한 중요한 투입요소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원인들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 지속되면,
 - 이들은 공직을 떠나게 되며 특히,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 그렇게 되면, 당초 의도한 바와는 달리 이들에 대한 교육이 당해국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 결과가 되었음.

4-5. 시민사회의 정책토론 장려

-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촉진시키는 것은 개발원조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정책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임.
- 저개발국에서 무역체제, 환율, 농산물 가격 등이 왜곡되면 부패와 지대추구(rent-seeking)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 이런 경우, 공여국은 중견기술관료와 시민사회간 대화의 기회를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음.
- 우크라이나 사례
 - 올바른 정책이 부재한 기간에 세계은행은 차관공여가 오히려 개혁지연 등의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정부와 시민사회를 위한 공공교육을 실시하였음.
 - 또한, 각계각층(정부, 국회, NGO, 언론, 민간부문 등) 개혁인사들의 참여하에 개혁과제에 대한 세미나, 토론회, 집회 등을 개최하였음.

4-6. 결 론

- 개발에 관한 훌륭한 아이디어를 전파시키고, 해외유학을 보내고, 시민사회의 정책토론을 촉진시키면 당해 개도국이 정책개혁을 추진하여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확증적인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실정임.
- 그러나, 사례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요소들이 정책개혁 및 개발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확실하며, 또 이러한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음.

5. 개혁의지가 확고한 나라는 자금을, 그렇지 않은 나라는 아이디어를 지원(If Commitment, Money — If Not, Ideas)

5-1.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을 펴는 나라에 대한 지원방향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을 펴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도 효과가 없으므로,

- 최근에는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차관의 공여 여부가 대의원조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됨.
- 저소득국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나,
 -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외부에서 시작하도록 할 수는 없으므로,
 - 공여국은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 (i) 정책개혁 및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 (ii) 해외유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 (iii) 시민사회의 정책토론 촉진 등을 통해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5-2. 구조조정차관의 지원방향

- 구조조정차관은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진 정부에 지원될 때 가장 효과적임.
 - 과거에는 공여국들이 개혁의지가 약한 정부에 대해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정부가 개혁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돈을 가지고 개혁을 시키려(buy reform)하였으나“, 이 방법은 실패하였음.
- 구조조정차관은 사전신호의 역할을 함.
 -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를 늦추게 하지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훌륭한 개혁정책을 펴나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가 늘어나게 됨.
 - 따라서, 세계은행이 어느 나라에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간투자자에 대해 그 국가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됨.

5-3. 원조기관의 역할

- Collier(1997)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 구조조정차관프로그램은 개혁이 당초 요구대로의 추진여부와

- 관계없이 자금이 지불되어 “개혁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는 제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사전 신호기능도 발휘하지 못하여,
- 구조조정차관사업의 1/3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
- 세계은행과 같은 원조기관이 개도국정부를 강요하거나, 원조기관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또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개혁에 실패할 나라가 성공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국제재정기구의 역할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정책개혁을 주제로 한 공공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전파하고,
 - 당해 개도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혁에 적극적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함.
- 구조조정차관사업의 성공률은 최소한 85%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차관 제공의 조건과 관련된 제반여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5-4. 구조조정차관의 효과제고 방안

- 차관제공을 위한 수원국의 이행조건은 핵심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대상 숫자를 줄이도록 함.
- Dollar-Svensson의 조사에 의하면 수원국의 이행조건 평균건수가 46가지이며 최고 193개에 달하였음.
- 개혁의 성공여부는 핵심과제의 개혁이 중요한 것이지 개혁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님.
- “개혁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는 제어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 원조공여기관과 수원국 정부간에 (i) 핵심적인 이행조건은 무엇이고, (ii) 어떤 경우에 차관을 중단할 것인지에 관해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함.

- 최근에는 개혁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차관의 공여 여부가 대외원조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됨.
- 저소득국이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이나,
 - 그러나 이러한 개혁을 외부에서 시작하도록 할 수는 없으므로,
 - 공여국은 이들 국가들이 스스로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 (i) 정책개혁 및 개발에 관한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 (ii) 해외유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제공하고,
 - (iii) 시민사회의 정책토론 촉진 등을 통해 개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5-2. 구조조정차관의 지원방향

- 구조조정차관은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진 정부에 지원될 때 가장 효과적임.
 - 과거에는 공여국들이 개혁의지가 약한 정부에 대해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정부가 개혁을 시작하도록 하는 등 “돈을 가지고 개혁을 시키려(buy reform)하였으나”, 이 방법은 실패하였음.
- 구조조정차관은 사전신호의 역할을 함.
 -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를 늦추게 하지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훌륭한 개혁정책을 펴나가는 나라에 대해서는 원조가 늘어나게 됨.
 - 따라서, 세계은행이 어느 나라에 구조조정차관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간투자자에 대해 그 국가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됨.

5-3. 원조기관의 역할

- Collier(1997)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 구조조정차관프로그램은 개혁이 당초 요구대로의 추진여부와

- 관계없이 자금이 지불되어 “개혁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는 제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고,
-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사전 신호기능도 발휘하지 못하여,
- 구조조정차관사업의 1/3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음.
- 세계은행과 같은 원조기관이 개도국정부를 강요하거나, 원조 기관의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또는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개혁에 실패할 나라가 성공할 수는 없음.
- 따라서, 국제재정기구의 역할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정책개혁을 주제로 한 공공토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전파하고,
- 당해 개도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개혁에 적극적인지 여부를 나타 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함.
- 구조조정차관사업의 성공률은 최소한 85%수준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차관 제공의 조건과 관련된 제반여건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음.

5-4. 구조조정차관의 효과제고 방안

- 차관제공을 위한 수원국의 이행조건은 핵심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심사대상 숫자를 줄이도록 함.
- Dollar-Svensson의 조사에 의하면 수원국의 이행조건 평균건수가 46가지이며 최고 193개에 달하였음.
- 개혁의 성공여부는 핵심과제의 개혁이 중요한 것이지 개혁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님.
- “개혁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는 제어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 원조공여기관과 수원국 정부간에 (i) 핵심적인 이행조건은 무엇이고, (ii) 어떤 경우에 차관을 중단할 것인지에 관해 사전에 명확히 하여야 함.

- 구조조정차관이 사전신호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 우선 차관사업의 성공률이 85% 이상이 되어야,
 - 차관사업을 받는 나라는 개혁의지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민간 부문에서 믿을 수 있을 것임.

제3장: 원조자금은 훌륭한 제도적 여건하에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Money Matters - In a Good Institutional Environment).

1. 개 요

- 학교, 병원건축 등의 프로젝트는 사업의 결과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개별프로젝트차원의 평가는 대부분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편임.
- 그러나, 개별프로젝트를 지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분야의 질적개선을 가져오거나 수원국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데,
 - 이는 원조자금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대체되는 (fungible)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 그런데, 만약 원조가 다른 용도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fungible)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용이한 일은 아닐 것임.
 -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그 프로젝트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임("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원조평가는,
 -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실행결과 또는 기여도를 평가하기 보다는,
 - "만일 그 원조가 없었다면 그 국가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할 때 비로소 제대로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2. 원조의 "용도대체가능성 (Fungibility)

2-1. 원조의 용도대체가능성(Fungibility)의 사례

- 어떤 학교에서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이 점심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여,

- 어린이들의 부실한 영양상태가 학교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 “빈곤가정 어린이 도시락 공급사업”을 전개하였음.
- 그런데, 대상 어린이들의 영양상태와 학교성적 부진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 어느 날 학교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부모는,
 - 자식들에게 제공해오던 아침식사비용을 모아 출퇴근에 필요한 자전거를 사기로 하였기 때문임.
- 이 경우 자식들로서는 하루 두끼밖에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빈곤가정 어린이 도시락 공급사업”은,
 -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 학교에서 제공하는 점심은 집에서의 식사를 대체하여(fungible)
 - 당초 목적인 결식아동에게 식사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결식 아동부모의 자전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용도변경이 되어버린 결과가 되고 말았음.
- 이처럼 원조자금이 용도가 대체될(fungible) 경우에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당해 프로젝트의 효과를 파악할 수는 없다(“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는 것을 알 수 있음.

2-2. 용도대체된 자금을 수원국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 앞의 도시락공급사업에서 결식아동의 부모는 매일 한끼에 해당하는 추가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첫째, 집안내부수리 등 가계의 복지를 위한 지출 또는 도박에 활용하는 경우와,
 - 둘째, 자녀로 인해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자녀를 위한 책상을 구입하거나 다른 소비부문에 지출하는 경우와,
 - 셋째,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에 관계없이 종전처럼 계속 해서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는 경우 등임.

- 이상의 사례를 원조자금과 수원국정부의 선택에 적용하면, 수원국 정부가 교육프로젝트관련 100만불의 원조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 정부지출금을 늘릴 수 있는 선택과,
 - 개발분야(반드시 교육분야가 아니더라도) 지출금을 늘리는 선택과,
 - 교육분야 지출금을 늘리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대한 연구조사결과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함.

2-3. 원조와 정부지출 증가와의 관계(Does Aid Increase Government Spending?)

- 앞의 도시락공급사업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조를 받으면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수원액수만큼 여유자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자금을 가지고 수원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 국민의 세금을 경감시키는 데 이용하거나,
 - 국가의 부채탕감 등에 사용하는 것임.
- 만일 수원국 정부가 1불의 원조를 받았다면, 동 1불이 다른 용도로 대체되지 않는 한, 정부지출이 1불 늘어나야 하지만,
 - 4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간 차관공여는 정부지출 증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i) 양허성 차관 1불 지원시 정부지출은 63센트만이 늘어났으며, (ii) 양허성차관과 무상원조를 합하여 1불을 지원시에 늘어난 정부지출은 33센트에 불과한 바, 무상원조의 용도대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원조자금 1불당 1불이상의 정부지출이 증가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수원국정부가 원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늘어난 자금을 전부 정부지출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4. 원조와 개발비용 지출증가와의 관계(Does Aid Increase Development Spending?)

-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 원조자금 1불은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29센트의 투자를 가져오고,
 -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의 소비부문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사용되었음.
- 또한,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의 예를 보면,
 - 스리랑카에서는 원조자금 1불당 정부지출이 52센트 증가하는데, 이 52센트 중 개발에 지출되는 금액은 38센트이고 나머지는 소비부문에 지출됨.
 - 인도네시아에서는 원조자금 1불당 1.58불의 정부지출이 증가하는데 정부지출중 개발에 지출되는 비용은 89센트이고 나머지는 소비부문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조사결과는,
 - 원조자금의 상당부분이 정부지출로 전환되지만,
 - 원조자금으로 인하여 정부지출이 늘어난 경우에도 개발원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부분에 전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음.

2-5. 프로젝트원조와 해당분야 지출증가와의 관계(Does Project Aid Finance Particular Sectors?)

2-5-1. 특정분야에 지원되는 원조가 동 분야에 가져오는 직접적인 효과 (Direct Effect on a Sector of Aid)

- 특정분야에 대한 원조가 그 분야에 대한 비용지출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방법은,
 - 특정 나라에 대하여 연도별 변화과정을 조사하는 방법과,
 - 주어진 시기에 여러 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는 두 가지가 있음.
-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조사결과는 각 나라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농업부문에 대한 1불의 원조당 동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이 92센트씩 늘어난 반면,
- 14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조사에 의하면 농업부문에 대한 1불의 원조제공은 동 분야에 대한 지출이 5센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2. 특정분야에 지원되는 원조가 동 분야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순수효과 (Net effect on a Sector of Aid)

- 특정분야에 대한 원조의 순수한 효과는
 - (i) 원조의 분야별 배분구조와,
 - (ii) 받아들이는 원조에 대한 수원국정부의 대응방법에 따라 달라짐.
- 예를 들면, 수원국정부에 지원된 1불의 원조가 교육 및 보건분야에 가져다 준 직접적인 효과(direct effect)는 원조의 분야별 배분구조에 달려 있는데,
 - 14개국에 대한 비교조사결과에 의하면 수원국정부가 받아들이는 1불의 원조자금중 교육 및 보건분야에 배분된 금액은 8.7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원조에 의한 순수효과(net effect)를 알기 위해서는
 - (i) 교육 및 보건부문에 원조(8.7센트)가 제공됨으로써 정부가 교육부문예산을 감소하게 되었는지, (ii) 다른 부문에 대한 원조(91.3센트)가 정부로 하여금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렸는지를 고려해야 함.
 - 이와 관련, 스리랑카에서는 1불의 원조중 5.9센트가 교육 및 보건분야에 배분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동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1.9 센트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 인도네시아에서는 1불의 원조중 7.2센트가 교육 및 보건분야에 배정되었으나, 정부지출을 18.9센트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결론적으로, 특정한 분야에 원조를 얼마만큼 받을 것인가라는 것보다 동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 줌.

2-6. 원조의 용도대체가능성과 개도국의 예산구조(Budgetary Mechanics of Fungibility)

2-6-1. Fungibility 정도의 결정요소

- Fungibility 의 정도는 수원국의 예산구조, 즉 (i) 수원국정부의 재정관리능력과 (ii) 원조공여국의 간섭의 정도에 달려있음.

2-6-2. 주요 사례

- 인도의 경우,
 - 연방정부의 복잡한 재정체제 때문에 지방정부로 원조자금이 이전되면, 공여국이 선정한 프로젝트나 지원한 원조자금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며,
 - 프로젝트가 공공부문 투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인도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배정액을 정해두고,
 - 지방정부가 외국정부의 원조를 받으면 해당분야에 대한 예산을 그만큼 삭감함.
 - 따라서, 인도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는 완전히 용도변경되는 것(fully fungible)으로 나타났음.
- 멕시코의 경우는 정부예산을 배분할 때 재원의 과다여부나 추가재원 발생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예산제도를 갖고 있어 원조자금의 용도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가나, 말라위 및 우간다 등 아프리카지역에서는 정부가 공공 투자에 대한 통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 (i) 종합적인 예산기강의 확립,
 - (ii) 전략사업 우선순위 부여 및
 - (iii) 예산집행의 효율성 장려 등

- 예산제도의 세 가지 기본목적중 그 어느 하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6-3. 수원국의 취약한 예산제도와 공여국의 개입

- 예산기획, 통제 및 관리체제가 취약한 개도국에 많은 원조가 공여될 경우에는,
 - 공공투자계획이 공여국 주도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 원조프로젝트의 선정 및 집행관련 수원국측이 기여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네갈의 경우, 316건의 프로젝트중 170건만이 정당한 내부 절차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원조사업에 대한 공여국의 개입이나 주도는 원조의 용도변경가능성(fungibility)을 줄일 수 있을 지는 모르나,
 - 수원국의 원조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의 부족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부족 등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됨.

2-7. 용도변경된 자금의 사용용도별 효과분석 (Project Assessment with Fungible Money)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국이 받은 원조자금이 용도변경이 되어버리면, 원조자금에 대한 효과분석은 당해 프로젝트에 한정된 직접적인 효과분석만으로는 의미가 없음.
- 따라서 가상의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 사례별로 그 효과를 살펴보기로 함.

2-7-1. 사례별 효과분석

가. 가 정(Hypothesis)

- 수원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임의의 11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프로젝트당 사업비용은 10백만불임.
- 프로젝트별 수익율의 종류는 100%(프로젝트 A), 90%(프로젝트 B), 80%(프로젝트 C) 0%(프로젝트 K) 등 11가지

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이와 관련, 원래 수원국이 동원가능한 재원은 50백만불로 5개사업(A, B, C, D, E)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 공여국이 사업수익율이 가장 높은 프로젝트 A를 지원기로 결정함에 따라,
 - 공여국의 지원은 당초 수원국이 추진하려던 5건의 사업(프로젝트 A, B, C, D, E)중의 하나인 프로젝트 A를 대체하는 (fungible) 결과를 가져왔음.
- 프로젝트 A의 경우 수익율이 100%인 사업이므로 공여국측의 개별사업 평가는 매우 성공적으로 나타날 것임.
-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 당초 수원국이 추진하려 했던 프로젝트 A를 공여국이 지원함에 따라 생긴 여유자금 10백만불을 수원국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데 있음.

나. 여유자금 활용방법별 효과

- 첫째, 당초 추진기로 하였던 프로젝트 5건(A, B, C, D, E)을 제외하고 가장 수익률이 높은 프로젝트 F(수익율 40%)를 추진할 경우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둘째,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개발효과면에서 불필요한 프로젝트 K(수익율 0%)를 추진할 경우, 효과가 미미함.
- 셋째,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신 소비부문으로 전용할 수 있는데,
 - 예를 들어 공여국들이 지원하기를 꺼려하는 기존 프로젝트의 관리 및 유지비로 활용할 경우에는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 반면,
 - 특권층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부문에 지출할 경우, 수익률은 0%에 가까울 것임.
- 넷째, 세금부담의 경감에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왜곡되어 있는 세금을 줄인다면 수익률은 매우 높을 것임.

2-7-2. 프로젝트원조의 장점, 한계 및 효과

- 공여국 입장에서 본 프로젝트원조의 장점
 - 업무를 관리가능한 단위로 조직화하는 것이 용이함.
 -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는 “투자증가가 개발의 핵심이다”는 개념과 일치하고, 특정분야(가족계획, 교육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명분 및 목적이 분명하여 공여국내의 지지 확보가 용이함.
- 프로젝트원조의 한계
 - 프로젝트원조가 원조국에 주는 장점이 있다고 해서, 프로젝트 원조가 (i) 원조를 좋은 목적으로 쓰이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ii) 원조효과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도 아님.
 - 예를 들면 20%의 수익률을 가진 “도로 프로젝트”에 원조자본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는 (원조의 fungibility를 고려하지 않는 한) 원조의 효과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있는 설명을 할 수 없음.
- 프로젝트원조의 효과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로젝트원조가 원조자금의 용도변경 가능성(fungibility)으로 인한 한계가 있다고 해서, 프로젝트에 의한 원조방식을 포기하고 보다 광범위한 재정지원방식으로 바꿀 필요는 없음.
 - 이는 프로젝트원조는 당초 기대하지 않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 많은 공여국들은 프로젝트를 (i) 기술이전, (ii) 제도적 능력(institutional capacity)의 구축, (iii)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면, 공여국이 도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이를 통해 (i) 도로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ii) 도로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결론적으로, 프로젝트는 돈과 아이디어를 담은 그릇임.
 - 어떤 분야에 원조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프로젝트의 설계는 분야별 제도와 정책을 변경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평가도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할 것임.

3. 공공부문 지출비용의 질적 개선(Public Spending - Quality not Quantity)

3-1. 개 요

- 원조공여국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수원국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 수원국에 대한 적절한 원조의 수준과 방법을 결정할 때는,
 - 공공지출의 효과적인 배분과 배분된 자금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2. 평등화 및 효율성(Equity and Efficiency)

3-2-1. 정부개입 정당화의 기준

- 정부는 공공개입의 타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부문에 한하여 직접 참여해야 함.
 - 20여년 전만해도 공여국은 개도국정부가 국영기업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업(직물공장, 신발공장 등 모든 종류의 제조업)을 기꺼이 지원하였음.
 - 그러나, 오늘날에는 직물 및 신발공장운영은 민간부문이 더 효과적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음.
- 일반적으로, 정부개입의 타당성은 평등화와 효율성의 제고 여부에 달려 있음.

3-2-2. 정부지출과 평등화

- 많은 개도국들의 경우 정부지출이 빈곤완화목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브라질의 경우, 1980년도 상위 20%의 근로자가 하위 20%의 근로자가 받는 사회보장보험료의 12배나 더 받았음.
- 교육의 경우 초등교육과 고등교육간의 평등화정도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인도네시아의 (i) 초등교육의 경우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구가 공공지출비로부터 받는 혜택은 하위 20%가 받는 혜택의 60%에 불과하나, (ii)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17배나 되는 혜택을 받고 있음.

3-2-3. 효율성의 원칙(Efficiency)

- 효율성제고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는 일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라는 요인 때문에 용이한 일이 아니며,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정도와 정부의 능력(capacity)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의 일반원칙을 따르면 몇 가지 분명한 지침은 알 수 있음.
 - 예를 들어, 민간부문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조업과 무역관련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재원(특히, 원조자금을 지원 받아)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
 - 또한, 농업부문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나 주로 부유층이 사용하는 연료비 보조 등은 평등화나 효율성의 어떤 면에도 기여하지 못하므로 지원할 필요가 없음.

3-2-4. 정부지출의 질과 양(Quality and Quantity)

가. 정부비용 지출증가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정부비용지출에 있어서 질적인 면이 양적인 면보다 더 중요하다
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어떠한 공공부문(교육 등)의 활동성결과가 경제성장이나 빈곤
감소를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입증할

수 있지만,

- 역으로 정부가 어떤 부문에 대해 양적으로 공공지출을 늘렸다고 해서 경제성장이나 빈곤완화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음.
- 경제성장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 정부의 소비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관련,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 정부의 소비지출부문을 위주로 원조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은 원조가 왜 그동안 많은 개도국에서 성장의 활력소가 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음.

나. 사례조사

- 43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경제성장과 공공자본지출(public capital spending)과는 상관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 공공부문지출을 1% 증가시키면 경제성장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율도 경제성장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공공투자의 효과에 관한 국별비교연구에 의하면 정부투자의 효율성이 투자규모에 못지않게 경제성장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분야별 비용지출과 경제성장과의 상관관계

- 각종 자료분석에 의하면 분야별 비용지출과 경제성장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3개분야(보건, 교육 및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분야의 경우,
 - 가장 훌륭한 성과를 나타낸 상위 10개국은 GDP의 1.3%를 지출하고 기대치보다 40%가 낮은 유아사망율을 기록했으며,
 - 가장 나쁜 성과를 나타낸 10개국은 상위 10개국보다 GDP 대비 높은 비율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유아사망율이 기대치보다 40%나 높게 나타남.
- 교육분야의 경우에도 높은 교육비지출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증거는 없음.
 - 급속한 기능인력의 확대가 동아시아의 고도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시아의 교육비의 지출이 특별하게 많았던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교육비가 GDP의 3%에 불과하였으며,
 - 1987년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한국이 38명, 필리핀이 31명, 스리랑카가 32명이었음.
- 사회간접시설도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에 대한 투자규모가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희박함.

라. 비용지출을 통한 성공사례 및 요인

- 비용지출의 규모와 성과간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해서 비용지출이 성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비용으로, 비용이 가지는 잠재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기 때문에,
 - 무엇(what)을 어떠한 훌륭한 방법(how well)으로 결합하여 정부가 올바른 일을(right things) 제대로(well) 수행하는가가 중요하며, 이 경우 같은 비용으로도 놀랄 정도로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며,
 -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단기간에 문맹율 및 각종 질병을 감소시킨 예가 이에 속함.

-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단순히 수원국정부가 해야 할 일과 특히 원조규모에 중점을 둘 경우,
 - 원조는 비용지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수원국의 비용지출을 지원하는 수단에 불과하게 되며,
 - 비용지출이 빈곤해소를 촉진시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조는 제공됨.
-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여국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분야에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증진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는 바,
 - 이는 정부가 무엇에 비용지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 비용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어떻게 제대로 잘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을 나타내 주는 것임.

4. 공여국의 임무(What should Donors Do?)

4-1. 개 요

- 원조자금이 용도변경가능성(fungibility)이 있다는 것과 공공비용 지출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원조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점을 시사하는 것일까?
- 원조정책관련 공여국들은 무엇을 지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 왔으나,
 - 원조자금이 부문간에 대체된다면 원조공여국이 무엇을 지원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 보다 넓은 관점에서 원조자금의 지원효과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4-2.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공여국의 입장정리(Form a View....)

- 효과적인 개발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여국은 수원국의 공공 지출자금의 배분과 그 효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공지출에 대한 평가는 예산의 세가지 기본 요건- 회계기강확립

(fiscal discipline), 부문별 우선순위 설정(priorities across sectors) 및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을 어떻게 잘 충족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 공여국은 수원국정부가 비용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세가지 기준을 어떻게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함.

4-3. 공여국입장의 적용(... and Use the View)

4-3-1. 원조자금 대체가능성 회피의 어려움

- 원조자금의 대체가능성(fungibility)과 관련한 공여국들의 공통된 대응은,
 - 수원국으로 하여금 공여국이 지원하는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수원금액에 상당하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방안이 아님.
- 또한 수원국측의 추가자금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수원국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는 수원국이 원치않거나 추진의지가 없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공여국의 지원이 끝나면 지속성이 없음.
- 따라서,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가 사업지속성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나,
 - 이러한 사업은 원조자금의 용도대체가능성(fungibility)이 있으며,
 - 공여국이 이를 피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4-3-2. 효과적인 원조제공방안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공여국들은 원조자금의 대체가능성(fungibility) 발생은 염연한 현실이므로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대신 원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원조의 효율적인 집행은 수원국의 (i) 공공지출비의 성격과 (ii) 공공부문의 효율성에 달려 있는데,
 - 공공부문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수원국의 “경제관리능력(economic management)”이며,
 - 이와 관련, 앞에서 똑같이 가난한 두 개의 국가중에서 경제 관리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권고를 한 바 있음.
- 공공지출비용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원조의 상당부분을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 수원국정부가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프로젝트방식의 지원보다는 예산지원방식을 통한 경우,
 - 불필요한 인건비나 행정비를 절약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방안은 세계은행이 예산지원방식 대신 프로젝트방식으로 지원할 때 통상 매년당 1백만불 상당의 행정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4-3-3. 지출비용의 구성과 효과

- 공공지출비용의 관리와 관련된 두 가지 주요 문제점은 (i)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ii) 배분된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임.

가. 비용지출의 구성요소

- 수원국이 공공자금의 지원필요성이 적은 고등교육분야에 굳이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원조공여국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초등의무교육분야에 중점지원을 할 수 있으나,
 - 이러한 방안도 원조자금의 용도대체가능성(fungibility)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 이러한 경우 보다 나은 접근방법은 “시간대별로 구분(time slice)”하여 자금을 지불하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제도가 “분야별 투자프로그램 (Sector Investment Program: SIP)”임.
 - 즉,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이 특정분야와 관련된 목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후,
 - 동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 원조공여국은 기합의된 프로그램에 포함된 프로젝트를 지원 하거나, 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함.
 - 동 SIP의 진행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회의를 통해
 - (i) 공여국과 수원국은 해당분야의 전반적인 자금집행에 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ii) 공여국은 동 회의를 지출비용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화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SIP이외 또 다른 제도는 “중기 비용지출 계획(Mid-term Expenditure Framework)”으로 수원국정부에게 올바른 개발 전략의 방향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그런데,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갖는 일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 실제로는 개도국정부의 올바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여국과 수원국간에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 공여국간에도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비용지출의 효과(Effectiveness of Spending)

- 수원국이 원조공여국의 충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비용을 배분하였다 하더라도 비용지출방법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 공여국측은 프로젝트방식에 의한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러한 경우,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 특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늘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 미시적인 차원(micro level)에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배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변화를 지원하는데 있음.
- 일단, 개혁을 시작한 나라들 중에서는,
 - 공공분야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공공분야가 비효율적인 나라는 자금지원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보다 많은 아이디어(less money and more idea)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비용지출의 배분과 배분된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이 모두 비효율적인 나라는

제도와 정책이 부실하고 재정지원의 효과가 거의 없는 바,

 - 원조자금의 “용도대체가능성(fungibility)”은 지원여건이 열악한 나라에서는 방대한 양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원조효과가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기는 하지만,
 - 공여국은 보다 생산적인 공공비용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 이와 관련된 주제는 제4장에서 다룰 것임.

제4장 수원국의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는 원조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Institutions)

1. 개 요

1-1. 개발을 위한 정부역할의 중요성

- 세계 각국의 시장경제화정책으로 공공부문은 작을수록 좋다는 축소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 인적자원, 각종 제도 및 사회간접시설 등은 정부가 계속해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바,
 - 이런 경우에는 축소만이 최선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임.
- 개발과 관련 핵심사항중의 하나는 “개도국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 공여국의 원조대상이 대부분 공공분야인 만큼, 이와 관련된 개발원조의 주요과제는 아래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 (i) 경제를 성장시키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수원국정부의 필수적인 역할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 (ii) 어떻게 하면 재정지원과 지식창출에 필요한 지원을 잘 결합하여 수원국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

1-2. 지식창출의 개념

- 수원국의 지식창출(creating knowledge)을 돕는다는 것은 ,
 - 원조공여국이 기술이나 공학에 관련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님.
- 개발지식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나,
 - 이러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은 상자에 담아서 다른 개도국에 전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 공공서비스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관련된 지식을 당해 지역에서 창출하여 내재화시키는 수밖에 없으며,

- 기존의 원칙들은 항상 새로운 환경이나 현지 여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므로,
- 당해 개도국 정부 및 국민들이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

1-3. 공공분야의 질적 개선을 위한 원조방안

- 원조목표를 명확히 할 것.
- 개도국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형태의 원조를 제공할 것.
 - 공공분야가 효과적이지만 가난한 나라에는 공공분야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 공공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자금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핵심 공공서비스부문의 효과제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최대한의 부가가치생산을 위하여 자금지원과 아이디어제공을 적절히 배합할 필요가 있음.
- 정책대화와 재정지원간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것.
 - 공여국은 좁은 시야에서 원조자금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자체만의 성공적인 집행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 원조전반의 효과제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 이를 위해서는 정책대화와 재정지원을 적절히 조합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할 것.
 - 공여국은 수원국의 여건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지원하고 있는 프로젝트만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 수원국에게 정책 및 제도개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2.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과 및 효율성 제고방안

2-1.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방안

2-1-1. 참여적 개발의 중요성

- 최근 들어 공여국들은 지역사회의 보다 많은 참여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원조방법을 개선하여 온 바,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음.
 - Rural Water Supply (Participation),
 - Irrigation Systems (Water User Associations),
 - School Autonomy (Decentralization),
 - Health (Community Associations),
 - Environmental Management (Community Forestry) 등
- 공여국의 재정지원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공공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 공여국 및 수원국정부가 투자의 양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한 결과, 수혜자그룹은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및 집행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
 - 네팔 관개개선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에 관개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후에 동 대상 지역에는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85개의 관개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함.
 - 또한 원조사업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방해작용을 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원조의 양적 확대에 치중할 경우, 원조기관은 원조규모와 자금집행의 속도를 목표로 정하게 됨.
 - 이러한 경우에 원조기관은 대형프로젝트를 선호하고,
 -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중앙정부기관과 직접적인 업무처리를 선호하며,
 - 사업의 성공여부를 자금집행율에 의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확정된 일정과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에는 수혜자가 참여할 여지가 없는 실정임.
- 네델란드의 30년간에 걸친 탄자니아 농촌지역급수사업 경험에 의하면, 원조기관의 업무절차는 수혜자의 수요를 제대로 공급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보다는 프로젝트의 집행일정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 확인됨.
- 세계은행의 관개사업 경험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사업지연을 이유로 수혜자들의 사업참여를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49개국에 대한 121개 관개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아래와 같음.
 - 수혜자 참여율이 높은 사업의 68%는 매우 성공적이며,
 - 수혜자 참여율이 낮은 사업은 12%만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수혜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원조기관의 사업은 성공률이 62%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이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시민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프로젝트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자유가 적은 나라는 프로젝트의 실패확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1-2. 수혜자참여와 주인의식의 제고를 위한 방안

가.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 동 기금의 활용을 위해 분야별로 특별한 사업(도로프로젝트, 학교건설 등)을 지정하는 대신,
 - 해당 지역사회는 현지여건(현지수요, 사업비, 수혜자 부담분 등)을 고려하여, 동 기금을 이용하여 수행할 프로젝트 추진 절차만을 분명히 하도록 함.

- 20개국에 동 기금을 설립하여 조사한 결과, 이러한 제도는 공여국으로 하여금 사업절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여 상당히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나.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융통성

- 프로젝트 추진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사업계획변경에 반영하여 사업목적달성에 기여토록 함.
- 이와 관련된 사례는 세계은행과 Caixa Economica Federal 이 공동지원한 브라질의 “PROSANEAR 공중위생 프로젝트”로서, 지역사회와 참여율과 책임분담율이 매우 높았는데,
 - 사업추진을 통해 얻은 경험을 사업계획변경에 반영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음.

2-2. 공공부문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방안

2-2-1.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중요성

- 투자량과 기술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원조방식은 공공부문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중요성을 경시하였음.
 - 과거,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는 발전소는 설립되기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보건소는 설립만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 실제로는, 공공서비스 공급자(주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없으면 완성된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자,
 - 공공분야 및 공무원관련 개혁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음.
- 많은 가난한 개도국에서는 지난 15~20년간 공무원의 봉급이 계속 하락해 옴에 따라,
 - 유능하고 정직한 공무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 공무원들이 부업이나 부패에 열중하게 됨.

2-2-2. 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

- 가난하고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 공여국은

- 수원국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음.
- 원조기관들은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높은 임금과 훌륭한 고용조건을 제시하여 우수한 공무원들을 스카웃 하게됨.
- 결국 수원국 정부는 남아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집중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지만 제대로 훈련된 공무원들은 바로 공직을 떠나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함.
- 공무원개혁 또한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공직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음.
 - 공무원개혁은 반드시 인력감축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장 먼저 공직을 떠나는 사람은 가장 우수한 자들임.
- 그러나 인원감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만 생기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판세청의 경우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직원의 2/3를 줄이는 대신 임금을 인상하여 조세수입을 두 배로 올린 사례도 있음.

2-3. 공공제도의 효과제고 방안

2-3-1. 건전한 정책과 제도적 능력의 중요성

- 제도적 능력은 경제성장과 투자의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 지난 30여년간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 훌륭한 정부제도를 갖추고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는 1인당 연경제성장이 3%이며,
 -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제도가 취약한 나라는성장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면,
 - 세계은행이 지원한 프로젝트의 평균성공률은 68%인데,
 -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건전한 정책을 추진하는 나라의 성공률은 86%로 나타났으며,

- 건전한 정책이나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추지 못한 나라의 경우는 52%의 실패율을 나타내었음.
- 동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 정책이나 제도가 지극히 취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정책 개혁 조건부원조와 개발전략에 필요한 전략적인 정책형성과 정부의 능력을 지원하는 무상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
- 공여국에 따라서는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집행에만 중점을 두고 책임부처 소관밖의 반독립적인 프로젝트 시행부서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으나,
 - 이러한 체제에서는 프로젝트 자체는 성공을 거둘지 모르지만,
 - 완성된 사업을 수원국에 이관한 후 수원국측의 의지, 능력 및 자원부족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없으므로,
 - 수원국의 제도적인 능력구축(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을 희생시키고 성공한 프로젝트는 원조사업의 진정한 성공에 오히려 해로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3-2. 프로젝트방식에 의한 지원시 유의사항

- 자금지원 측면보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제도를 구축하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학교지원사업의 경우,
 - 진정으로 효과적인 사업은 훌륭한 건물 건축과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운영방법을 개선하는 것인데,
 - 이는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건설해 주어도 이를 운영, 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며,
 - 반면, 수혜기관이 학교건축과 운영을 훌륭히 할 수 있다면 프로젝트방식의 지원보다는 일반예산지원형식의 지원이 보다 효과적임.
- 프로젝트방식 지원의 진정한 의미는 사업의 성공여부보다, 사업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교훈을 습득하는데 있음.

- 원조공여국은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고, 혁신적이고 위험부담이 있는 지원을 꺼리고,
- 과거 경험을 통하여 성공확율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용이한 사업은 자금만 있다면 수원국 자체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 ✓ - 공여국은 위험부담은 있지만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수원국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 ✓ - 이런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실패하더라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 못지 않게 중요하다.
- ⑤ ○ 이와 관련, 영국의 1997년도 개발원조백서는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음.
 - 연구(research)는 빈곤퇴치를 위한 중요한 무기이다.
 - 개발을 위한 제반 활동도 연구가 없으면 실패하거나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힘들며 사실상 연구는 승수효과를 가지고 있다.
 - 어떤 지역에서 찾아낸 빈곤의 해결책은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식나눔의 원칙(The principle of shared knowledge)은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파트너십의 주요요소이다.
 - 영국정부는 지식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있다(U.K. White Paper 1997, P.48).

2-3-3. 프로젝트 평가방법의 개선

- 공여국들은 보다 넓은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지원대상분야와 관련된 제도능력 향상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가령 도로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 도로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보다 나은 기술이 도입되었는지 여부,
 - 완공된 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가격정책 및 다른 관련정책

- 들을 마련하였는지 여부,
- 유관기관의 인력들에 대한 필요한 훈련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
- 수원국의 도로분야의 관리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변화 시키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함.
- 세계은행은 각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제도적인 면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실적순위를 정하고 있는 바,
- 제도발전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은 전체의 30% 수준이며,
- 최근들어 39% 수준으로 늘어났음.

2-3-4. 개발원조기관의 역할

- 프로젝트실패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 평가방법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 새로이 얻은 지식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데 프로젝트방식 원조의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야 함.
- 이러한 지식의 창출과 전파는 개발원조가 할 수 있는 큰 기여 중의 하나임.
- 자본시장에서의 시장실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발원조 제공의 주요 이유중의 하나이나, 이제 공여국은 “지식시장의 실패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음.

3. 비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 공급(Public Provision without Public Providers)

3-1. 개 요

- 보다 효과적인 원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많은 개도국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전통적인 공공관료들 대신 점차 계약이나

위탁방식으로 바꾸고 있음.

- 공여국과 수원국정부는 NGO에게 공공서비스 업무를 맡기고 있음.
-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수혜자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원조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3-2. 계약 및 위탁(Contracting and Concessions)

- 민영화 및 정부의 독점폐지 등으로 정부재정 및 인력의 낭비 요인을 감소시킴.
 - 계약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의 민간이양, 경쟁입찰 등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위탁(Concession)은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과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운용이나 책임은 정부가 그대로 유지함.
- Guinea에서는 계약을 통해 민간기업이 수리시스템(water system)을 맡아 수지개선 효과를 가져옴.
 - 이때 국제개발협회에서 시설설립비용과 사용자 수수료간의 차액을 지원하였으나,
 - 점차 보조금은 줄어들어 현재 상업적으로 정상운영을 하고 있음.
- Guinea의 경우와 같이 원조공여국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는 다른 원조공여국이나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개도국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음.
- 새롭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원조프로젝트를 통한 경험과 교훈의 전파는 원조효과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함.
 - 대부분의 개도국 철도사업의 경우, 정부독점 및 비효율적인 관리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음.
 - 아르헨티나의 경우, 연방정부 책임하의 방대한 철도운영체제를 (i) 화물용과 승객용으로 구분하고, (ii)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

- 결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운임료는 싸졌으며, 6억불 상당의 예산을 절약한 바,
- 동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브라질, 칠레, 멕시코 및 다른 아프리카에도 이전한 바 있음.

3-3. NGO의 역할 증대

- 최근에는 원조공여국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실행에 NGO의 참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임.
- NGO의 활동은 정부의 활동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 예를 들어,
 - 사명감에 고취된 헌신정신,
 - 정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의 용이,
 - 지원대상그룹의 실정과 수요의 정확한 파악,
 - 비권위적이고 융통성있는 업무추진의 용이,
 -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배제로 비용대비 효과가 높으며,
 - 현지의 토착문화, 가치 및 지식의 최대한 활용 가능 등.
- 그러나 국외 NGO의 경우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만, 완성된 사업의 지속성 및 주인의식(local ownership)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의 역할을 100% 대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3-4. 이용료 부과에 따른 효과 및 수혜자 부담원칙(User Fees, Effectiveness, and Demand-side Financing)

- 정부의 서비스(보건, 관개, 식수, 기술지도, 교육 등)는 통상 무상으로 제공되는데 이에겐 세가지 문제점이 있음.
 - 첫째, 도로나 병원시설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부문 서비스의 경우 불필요한 과다 이용으로 시스템 운용상 문제를 초래함.
 - 둘째, 무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자체적인 이윤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을 전적으로 정부에 의존, 공공서비스 운용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문제가 됨.

- 셋째,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주인의식이 결여됨.
- 예를 들어, 가난한 나라에서 보건소를 통한 무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 예산부족으로 종사자들의 사기가 떨어짐은 물론,
 - 심지어 주사바늘이나 약이 부족하여 보건서비스의 질적저하를 가져옴.
 - 결국 사용자들은 다른 보건시설을 찾게되며, 보건소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최근 원조공여국들은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USAID에서 지원한 보건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시설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여, 동 이용료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하여,
 -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에 따른 이용자의 증가 및 저소득자의 의료서비스 수혜를 확대하는 성과를 가져옴.

4. 공공서비스의 질적개선을 위한 원조의 운용방안(Making Aid Work for Better Public Services)

4-1. 개 요

- 개발과 관련된 사고방식이 기존의 정부주도 물량위주에서 근본적이고 효율성 및 효과를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개발원조 방법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이 요구됨.

4-2. 프로젝트방식 원조

- ##### 4-2-1. 세계은행차원에서 원조효과분석관련 기술적, 행정적 측면을 자세히 다루지 않는 이유

- 첫째, 기존에 많은 선진원조기관에서 원조효과 분석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세계은행측이 이 부문에 특별히 기여할 만한 역할이 없음.
- 둘째, 세계은행은 원조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간접적인 효과에 비중을 둠

4-2-2. 프로젝트원조의 장점

- 원조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의 개념형성, 기획, 집행과정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수원국의 제도구축이나 프로젝트 참여자의 능력을 배양하는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 개발프로젝트는 수원국, 정부 및 시민들에게 생소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개념(공공서비스를 민간이나 NGO에 위탁 등)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원조공여국이 만들어 내는 두 가지 부가가치는 아래와 같음.
 - 첫째, 과거의 경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국제적인 공공재(international public goods)라 할 수 있음.
 - 둘째, 원조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됨. 특히, 개혁지향적인 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의 성공여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 개발원조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함.
- 원조프로젝트는 수원국 정부와 해당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대화를 가능하게 함.
 - 개도국의 경우 어떤 분야에 해당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의 목표가 동 분야와 관련된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경우가 흔히 있음.
 - 예를 들어, 특수작물증산 프로젝트는 동 작물을 많이 생산할수록 높게 부과되는 세금 때문에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 국가적 차원에서 해당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대화는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음.
- 세계은행은 해외이주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수원국과의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수원국의 이주정책 및 관계법령을 개정할 바 있음.

4-3. 비프로젝트방식 원조

4-3-1. 비프로젝트방식 원조의 종류

- 프로그램원조, 분야별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별 구조조정 자금지원, 시차별 재정지원 등은 비프로젝트방식의 원조사업에 해당함.
- 지출자금의 배분이 건전하게 이루어지고 자금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경우에는 원조공여국이 프로젝트의 설계나 집행절차에 개입해서 부가가치를 올릴만한 것이 별로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비프로젝트방식에 의한 원조가 효과적임.

4-3-2. 프로젝트방식보다 비프로젝트방식이 가진 장점

- 공여국이나 수원국 모두에게 프로젝트 준비나 실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 줌 .
- 수원국 입장에서는 비프로젝트 재정지원은 공여국과의 조정 업무(Coordination)를 용이하게 하여 줌.
 - 수원국의 제한된 분야별 관리능력과,
 - 공여국별, 프로젝트별로 각기 상이하고 복잡한 업무처리를 감안할 때,
 - 수많은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은 수원국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임.
- 프로젝트방식 지원의 불합리한 특성에 따른 비프로젝트원조의 상대적인 장점
 - 경상비지원을 회피하고 투자성격의 프로젝트를 선호함.

- 사업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대규모의 가시적인 사업을 선호함.
- 사업의 효율성제고보다는 외형적인 성과를 강조함.
- 수원국의 자체조달 재화보다는 수입재를 선호함.

4-3-3. 비프로젝트방식의 원조가 바람직한 여건

- 어느 나라에서나 비프로젝트방식의 원조가 프로젝트방식의 원조보다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나라는 오히려 예외적일 정도로 소수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프로젝트방식원조가 효과적인 경우는 공공부문이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에 한함.
- 수원국의 효과적인 제도구축이나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이 단순히 자금지원만 늘려준다면 개발원조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음.
- 이와 관련, “어떤 형태의 원조가 공공부문의 개선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해외개발위원회의 지원하에 아프리카 7개국에 대한 원조를 연구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고 있음.
- 건전한 경제정책이 부재한 나라는 프로그램원조를 제공하여도 개발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i) 수원국정부와 정책대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ii) 원조규모를 줄이고, (iii) 프로젝트방식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
- 건전한 경제정책이 정착된 나라에 대해서는 수원국정부와의 정책대화를 통하여 분야별 투자전략차원에서 프로그램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4-3-4. 결 론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원조의 효과제고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함.
- 그러나, 효과적인 개발원조는
 - 지원형태나 방법에 달려있다고 보다는,

- 수원국의 정책, 제도적역량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4.4. 기술협력

4.4-1. 기술협력의 종류

- 개도국의 제도적 역량부족은 개발의 가장 큰 장애요소중의 하나인 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비재정적인 지원형태중의 하나인 기술협력이며, 이에 (i) 전문가 파견, (ii) 연수생 초청 및 (iii) 유학생파견 등 장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등이 있음.

4.4-2. 전문가파견 프로그램

- 공여국들은 수원국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 많은 전문가를 파견해 왔으나 그 성과는 실망스러운 정도임.
 - 1993년 UNDP 의 평가에 의하면 전문가 프로그램은 (i)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고, (ii) 전문가 파견에 따른 높은 비용으로 비효율적이며, (iii) 지속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스스로 개혁을 주도해 온 수원기관의 경우에는 기술협력과 제도적인 역량구축과 관련된 지원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과 제대로 동화되지 않아 소기의 성과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국제기구 등에 의한 개별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술이전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 공공분야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음.

4.4-3. 연수생초청 프로그램

- 개도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생 초청프로그램도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 주요한 요인은 아래와 같음.
 - 귀국연수생이 연수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본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수 있는 제도적, 인적 그리고 물질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적 인센티브도 없음.

4-4-4. 인적자원투입과 프로젝트의 효과

- 프로젝트관련 인적자원 투입요소는 (i) 프로그램의 준비작업 등 직접요소와 (ii)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제일반 및 분야에 관한 분석작업과 정책대화에 필요한 자료작성 등 간접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 세계은행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간접요소에 대한 투입이 사업성과를 제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1주일간의 추가적인 분석작업은 투입비용대비 9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세계은행의 프로젝트는 이러한 간접요소에 대한 투자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프로젝트의 준비 및 감독비용을 줄이고 분석작업비용을 늘릴 경우, 사업의 성공률이 더 높아지며 자금집행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분석작업의 결과, 사업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 프로젝트를 보다 훌륭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4-5. 원조방법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 원조업무를 제대로 잘 관리운영만 한다면, 프로젝트방식은 비프로젝트방식이든 공공분야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두 가지 협력방식 모두 다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데,
 - 프로젝트방식원조는 개혁, 시범 또는 실험적인 사업 및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 비프로젝트방식 원조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경험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 특히, 원조공여기관은 많은 나라의 다양한 여건하에서 수많은 원조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므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개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제5장: 자금지원 못지 않게 아이디어 지원강화(Money, but More Ideas, Too)

1. 개 요

1-1. 과거원조의 경험을 통해 확인된 사실

-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원조보다 경제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즉,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자본격차가 아니라 정책 및 제도 격차임.
- 외국원조는 수원국이 자신들의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고 난 이후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 이와 관련, 과거원조의 경험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
 - 첫째, 정책관리능력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빈곤해소가 되는 것은 아님.
 - 둘째, 개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공여국이 개혁조건부원조를 한다고 해서 개혁이 추진 되는 것은 아님.
 - 셋째, 개발을 위한 제반여건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서 공여국은 핵심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원조를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i)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ii)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동 프로젝트가 제도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파급효과가 크지 않는바, (iii) 원조자금은 용도대체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분야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공공분야 전반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1-2. 국정관리능력과 정책이 부실한 나라의 성공사례

-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개도국을 지원함에 있어,
 - 개별프로젝트차원의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벗어나,
 - 문제가 되는 분야는 물론 공공분야 전반에 관한 체제개혁에 중점을 두어야할 것임.
- 이와 관련, 국정관리능력과 정책이 부실하면서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한 나라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이 거둔 성과와 관련된 공통적인 특징은 아래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 첫째, 개혁주도세력을 발굴한 점.

- 국가와 정부, 지역사회는 상호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면 효과적인 원조가 가능함.
- 예를 들어, 미얀마가 정책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일지라도 개혁성향이 있는 인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둘째, 개혁세력이 체제개혁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보유한 점.

- 개혁세력은 구조적 개혁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보유함으로써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음.

■ 셋째, 원조기관은 개혁을 위한 지식창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 점.

- 개혁세력은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혁신적인 사고와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개발해야함.
- 특히, 개혁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개발원조의 핵심적인 역할은 이러한 개혁작업에 대해 재원을 조달하고 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음.

■ 넷째, 시민사회와 협력을 강화한 점.

- 열악한 환경에 처한 국가에서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지원과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하여도 결국 실패하게 됨.
- 이러한 여건하에서는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원조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데,
- 시민사회는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서비스의 공급역할을 직접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임.

1-3. 원조의 효과제고를 위한 공여기관의 중점활동방향

■ 첫째, 장기적 개혁과제에 중점을 두고 원조를 실시할 것.

-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원조가 성공을 거둔 경우는 인적요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반면, 재정측면의 지원은 크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며,
- 개별사업차원의 성공여부를 넘어 체제개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이며,
- 개발여건이 열악할 경우에는, 원조는 자금이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둘째, 공여국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동반자의식으로 공동협력을 강화할 것.

- 원조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공여국은 수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공여국간 상호조정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공여국들이 자국의 이익과 홍보를 목적으로 원조의 가시적인 성과물에만 집착하였기 때문임.
- 원조는 개별 공여국의 업적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원국의 보다 포괄적인 개혁을 위해 모든 원조공여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음.

2. 베트남: 구조조정후 차관공여 개시

2-1. 개발원조제공의 악조건 (1980년대 중반)

- 당시 세계 최빈국인 베트남은 매년 GNP의 10%에 달하는 소련의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빈곤감소 또는 여타 개발관련 사회지표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으며,
 - 미숙한 경제운영, 무역체계의 붕괴, 민간경제부문의 소멸, 대규모 재정적자, 과도한 화폐발행에 따른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 국제식량원조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1985-6년의 베트남은 왜곡된 경제구조와 정책하에서는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재정지원을 하더라도 좋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임.
 - 이러한 정책실패는 사회각층과 정부 그리고 집권 공산당의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베트남정부는 개혁정책에 눈을 돌리게 되었음.

2-2. 구조개혁을 위한 방향 전환

- 1986년의 당대회에서 획기적으로 체제개혁을 위한 방향전환을 위한 개혁(*doi moi*)을 시작함.
 - 개혁의 선두주자로는 경제부수상인 Vo Van Kiet가 부상하였음.
- 베트남의 변화 시도 및 개혁의 원동력은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외무역 및 투자 등에 있어서 보다 개방적인 정책으로 성공을 거둔 주변국들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였음.
- 그러나,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개방이라는 개혁의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팀은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음.

2-3. 원조공여기관들의 지원방식 및 효과 (1980년대 후반)

2-3-1. 기술협력을 통한 개혁에 필요한 지식의 창출

-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는 격감하여 GDP대비 대외원조의 비율은 1%수준에 불과하였음.
- IMF와 세계은행은 주요 회원국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 베트남의 지극히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하지 않았으며,
 - 대신 베트남 정부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파견하였음.
- 또한 UNDP, SIDA와 협력하여 베트남 중앙은행과 국가계획위원회(현 기획투자부)에 대한 기술협력을 실시함.
- 원조기관간의 이러한 파트너십에 의한 공동노력은 베트남의 개혁추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줌.
 - 1991년, 세계은행과 IMF는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한국, 인니 및 말레이시아의 경제장관과 Vo Van Kiet 부수상이 이끄는 경제팀이 만나 무역자유화, 해외투자, 안정화정책 등 주요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 또한, 베트남의 경제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한 바,
 -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변국을 통해 개혁추진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2-3-2. 미시적 차원 지식창출의 지원

- 1992~93년 UNDP, SIDA 및 세계은행 공동으로 가계조사를 실시하여,
 - 가계의 생산, 소득, 빈곤, 교육, 보건 및 어린이 건강 등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알아내었으며,
 - 전체인구의 55%가 국제기준의 빈곤선(poverty line)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음.

2-3-3. 시민사회 참여활동의 지원

- 베트남의 개혁은 시민사회에게 개혁참여를 위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공여국도 이를 적극 장려하였음.
- 아시아재단과 세계은행은 민간투자 저해요인과 경제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분야와 관련 주요 공무원들과의 모임을 주선하였고,
- 공여국들은 농촌개발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가계조사결과 확인된 빈곤문제 해결방안과 지역주민의 자조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음.

2-3-4. 베트남의 개혁노력 및 공여국 지원의 효과

- 베트남에 대한 공여국의 지원활동효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정책면에서 극적인 개선이 이뤄졌으며 국민들의 생활도 현저히 개선됨.
- 농지소유권이 강화되었고, 식량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 1단계 안정화정책이 실시되어 물가상승율은 개혁전 400%에서 70%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며, 이후 통제가능한 수준으로 낮아짐.
- 또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졌으며,
- 민간분야활성화를 위한 법적 여건이 명확해졌음.
- 이상과 같은 성과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1989~93년 동안 베트남은 GDP대비 1% 수준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원조를 받았으며,
- 본격적인 원조가 시작된 것은 저소득국가로서는 제도 및 정책 환경이 상당히 개선된 1994년 이후였음.

2-4. 베트남의 교훈

- 베트남은 체제변화의 훌륭한 사례임
- 1980년대 중반까지는 각 가계에서 자신들의 땅과 노동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 1990년대 중반에는 자신들의 땅을 활용하거나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자유가 허용되었음.
- 지방에서 성공을 거둔 혁신적인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대 되었으며,
- 정책환경이 개선되자 도로, 전력, 교육 및 기타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었음.
- 정책개혁후 성장이 가속화되었으며 1986년도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40개의 나라 중에서, 이후 10년간 베트남은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른 혜택도 광범위하게 배분 되었음.
- 1998년도 가구조사결과에 의하면 가구평균소득이 39% 향상되었으며 빈곤가구도 55%에서 30%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베트남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아래와 같음.
 - 공여국들은 베트남의 개혁가들이 개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돕고 그러한 정책개발이 개혁에 실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
 - 베트남 지도자들의 개혁을 위한 명확한 목표는 공여국간의 지원 노력을 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1989~92년간 원조의 중점은 자금이 아니라 개혁에 필요한 아이디어제공에 있었음.
 -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인적요소에 중점을 둔 원조로 자금소요는 크지 않지만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에는 크게 기여하였음.

3. 엘살바도르, 파키스탄, 브라질: 교육의 분권화와 개혁

3-1. 개도국의 교육과 중앙정부 역할

- 개도국에서는 중앙정부가 교육자원의 배분 및 관리와 관련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일부 권한이 지방정부나 시청에 위임되는 경우에도 개별학교 및 학부모의 발언권은 제한되어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중앙집권적 제도는 많은 교육의 성과를 이루는데 기여한 면도 있지만, 빈곤가정이나 소녀 등 전통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는 혜택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2. 최근 개도국의 교육분권화 경향

- 최근 많은 개도국에서는 교육의 분권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음.
 - 첫째, 공립학교에게 보다 많은 자율권과 지원을 제공함.
 - 둘째, 비정부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일부 경우에는 원조공여국이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에 필요한 재정지원이나 기술적인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혁신적인 시범사례에 해당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엘살바돌, 파키스탄 및 브라질의 경우, 혁신적인 방법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3. 엘살바돌의 사례

3-3-1. 지역사회 운영관리 학교제도(*Education con Participacion de la Comunidad: EDUCO*)의 역사

- EDUCO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직접적인 참여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및 예비초등학교 교육을 분권화시킨 혁신적인 제도임.
- EDUCO식 학교가 처음 등장한 것은 내전으로 인하여 농촌지역에 공립학교가 설립되지 못한 1980년대였음.
 - 일부 지역사회가 주도하여 자립학교를 설립하고 각 가구의 대표로 구성된 협회에서 운영 및 재정을 지원하였음.
 - 초기에는 낮은 소득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여준 교육의 필요성과 학교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식은 매우 강하였음.

- 1991년 엘살바돌 교육부는 세계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EDUCO를 모델로 하여 농촌지역에 교육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음.

3-3-2. 오늘날의 EDUCO 제도

- 오늘날의 EDUCO식 학교는 지역사회교육협회(*Association Communal para la Education: ACE*)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ACE는 학부모중에서 선출된 인사들로 구성됨.
- 학교운영 및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ACE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교육부와와의 계약하에 주어진 교과과정을 계약된 숫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함.
 - 엄격한 실적위주의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의 채용 및 해고업무를 담당함.
 - 교육에 필요한 장비공급업무를 담당함.
- 이와 같은 교육부와 ACE간의 파트너십은 현지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운영.관리업무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됨.

3-3-3. EDUCO제도의 성과

- EDUCO제도는 농촌지역에 신속하게 교육을 보급시킬 수 있는 제도로써 질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학과 언어의 테스트결과 EDUCO식 학교와 종전의 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선생의 결근으로 인한 수업부족일수는 EDUCO식 학교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엘살바돌정부는 나머지 학교도 모두 EDUCO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

3-4. 파키스탄의 사례 (NGO 학교운영)

- 파키스탄 교육의 오랜 문제점은 여자들의 교육참석율이 낮은 점인데, 1994~95년 Balochistan 주정부는 여자들의 입학증가에 중점을 두고 NGO가 운영하는 학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한 바,
 - 3년이 경과한 후 지원을 받던 학교들은 수업료와 민간분야의 지원으로 재정자립을 이룩하게 되었음.
- 도시 빈곤지역에도 같은 방법에 의한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 일반학교에 비해 여자들의 입학율이 2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로 인해 남자들의 입학율도 증가되었음.
- 이와 같은 성공은 소득이나 다른 경제사회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다른 가난한 지역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여자들의 입학율이 훨씬 낮은 편인데, 유사한 제도의 여자학교를 설립하고, 여자 교장을 임명하여 여자들의 입학율을 제고시킴.

3-5. 브라질의 사례

3-5-1. 개혁이전의 교육실태

- 초등학교는 오전반, 중등학교는 오후반으로 하여 같은 건물을 사용함.
- 교사들은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함.
- 교사들의 봉급은 낮고 사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었음.
- 당연한 결과로서 입학율이 저조하고, 유급 및 탈락율이 높아 교육성과가 매우 낮았음.

3-5-2. 3대개혁조치

- 상파울로주의 신임 교육장관은 교육의 분권화 및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세 가지 개혁조치를 단행함.

- 첫째, 교육체제의 합리화 조치를 단행함.
 -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건물을 분리함.
 - 교사들을 한 학교에서만 가르치도록 하여 통근시간을 줄이고 보다 일관성있는 교육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비를 10% 인상함.
 - 이와 같은 조치로 수업일수를 늘리고 교사들의 봉급을 2배로 인상할 수 있었음.
- 둘째, 분권화를 단행함.
 - 초등교육에 관한 책임을 필요한 자원 및 능력을 갖춘 시청에 이양함.
 - 학교장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함.
 - 종래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들에 대해서는 자격시험과 함께 학교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과제를 부여함.
- 셋째, 실적에 중점을 둔 연구 및 평가를 강화함.
 - 신중한 평가결과, 정부는 개혁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
 - 불과 수년내 초등학교 입학율이 2배로 늘어났으며,
 - 유급율은 10%이상에서 4%이하로 감소되었고,
 - 탈락율은 초등학교는 9%에서 5%로, 중등학교는 20%에서 12%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 학생들의 학업성적도 상당히 향상되었는 바,
 - 상파울로주 교육장관은 20년만에 처음으로 교사들의 파업없이 3년을 지낸 첫 11번째 장관이 되었음.

3-6. 3개국의 경험에 의한 교훈

- 각 나라의 경우의 공통점은 분권화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음.
- 또한 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은 (i) 첫째, 훌륭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고, (ii) 그 아이디어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iii) 해당분야에 전반적인 체제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창출하였다는 점임.

- 엘살바돌과 브라질의 경우는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 파키스탄의 경우는 혁신적인 방안이 광범위하게 전파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분권화 및 지역사회참여활동은 다른 분야(도로건설, 보건 등)에도 주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공여국은 초기의 시범사업단계, 시범사업의 평가단계 및 사업의 전파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4. 카메룬: 보건분야 지원 및 효과

4-1. 개혁이전의 보건실태

- 1980년대초 연 10%에 달하던 카메룬의 경제성장율은 1980년말 마이너스 10%를 기록하였음.
- 부실한 경제정책에 외부적인 악조건이 겹쳐 1988년 재정적자가 GDP의 12% 수준에 달하였음.
- 이와 관련 재정지출비용의 19% 삭감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보건분야예산은 1987~90년간 46%가 감소되었는 바, 이러한 조치는 공공보건소의 질적 수준 및 이용률 저하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음.
- 보건소에는 4~5명의 간호사가 있었으나 의약품 등 필요한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여 의료인력들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며,
- 보건소의 질적 수준의 저하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i) 재래식 약품을 이용하거나, (ii)검증이 안된 약품을 노점상으로부터 구매하거나, (iii) 이름있는 약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먼 곳으로 여행하게 되었음.
- 또한 치료는 물론 각종 질병의 예방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현저히 줄어들었음.

4-2. 개혁조치 및 성과

- 1989년 보건부는 USAID의 지원을 받아 2개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보건업무와 관련된 재정지원과 행정업무의 이양을 목표로 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하였음.
- 지방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건소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질병예방의 중요성을 설명함.
- 보건소에 치료약품을 공급하고,
- 의료상담료와약품판매비를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동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치료약품과 보급품을 조달하고,
- 보건예방에 필요한 물품(예방접종, 가족계획, 안전식수 홍보물 등)은 무료로 제공하였음.
- 보건소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함께 다양한 의약품을 염가로 판매하게 되자 보건소 이용율이 현저히 늘어났음.

4-3. 개혁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미비

- 상기 사업은 1994년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으나,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았음.
- 상기 2개주에서 시행되었던 많은 개혁정책은 기존질서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광범위한 정책과 법률의 변화가 불가피하였음.
- 예를 들어, 보건위원회가 보건부의 권한을 갖는 비영리 민간 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확립해야 함.
- USAID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시기에 법률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의약품 조달체계개선 등 개혁조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되어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음.

5. 아프리카: 도로유지관리

5-1. 아프리카 도로분야 지원 실패사례

- 아프리카 도로분야 원조사업은 수원국의 제도 및 정책적인 여건 미비로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임.
 - 도로사업에 투자된 총 1,500억불(이중 대부분이 원조자금임)중 1/3에 해당하는 자금이 도로관리의 부실로 유실되었으며,
 - 1990년대에 들어서는 포장도로의 50%, 비포장도로의 70%가 매우 부실한 상태로,
 - 정부의 개혁추진과 다른 공공분야의 투자의 장애요소가 되어 왔음.
- 많은 개도국의 경우, 도로관리업무는 국영기업이 전담하게 되는데,
 - 이들 국영기업은 활용도가 낮은 고가장비를 구매하고,
 - 불필요한 직원을 과다하게 고용하는 경향이 있는 바,
 - 도로관리 국영기업운영의 주목적이 도로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있는 경우도 허다함.

5-2. 개혁조치 및 성과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응하여, 아프리카제국 교통장관들은 1987년 도로관리를 위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교통프로그램”을 시작하였음.
 - 동 프로그램은 도로관리상 주요 문제점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도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며,
 - 동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2000년까지 적절한 도로관리체제를 개발하는 것이었는데,
- 동 프로그램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첫째, 도로분야 정책결정자 및 도로사용자를 세미나에 초청하여

- 도로관리를 경시한 결과 야기된 문제점,
- 도로관리부실을 초래한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을 의논하였음.

■ 둘째, 제도적인 약점보완에 중점을 두고, 도로관리국영기업에
직원의 고용, 관리 및 해고의 자율권을 부여하였음.

■ 셋째, 재정자립에 중점을 두고, 차량이나 연료세로 도로건설 및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동 프로그램에 참가한 일부 국가들은 도로기금을 마련하여, 동
기금중 일부를 도로관리비로 할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세금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음.

- 세금수입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의사도 중요한 것인데,
- 도로사용자들이 자신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공공서비스를 공급
하는데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납세기피율이 높은 반면,
- 세금이 자신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에 사용된다고 확신하면
납세율이 높아짐.

■ 둘째, 지속적인 재원확보가 용이함.

■ 셋째, 비용지출방법을 개선할 수 있음.

- 도로기금은 도로관계자들(정부관리, 도로사용자, 운송업자 등)
로 구성된 이사회의 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지출을 할 수
있음.

- 도로이사회는 정부에 전적인 의존을 하지 않고,
- 상업적인 풀(pool)제로 장비를 대여하고,
- 도로관리 및 장비정비업무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음.

5-3. 교훈

- 첫째, 장기적인 개혁안 마련의 중요성임.
 - 도로프로그램은 1987년도에 시작되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2년도 부터임.
- 둘째, 동 프로그램은 새로운 지식창출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음.
 - 개발여건이 극도로 왜곡되고 열악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공공 분야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개혁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므로,
 - 이러한 여건에서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를 실천에 옮기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
 - 이제 동 도로관리 프로그램은 훌륭한 제도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동 제도는 여러 나라에 전파되고 있음.
- 셋째,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개혁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함.

6. 결론

- 빈곤은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반면, 50년의 역사에 불과한 개발원조는 성공과 실패의 사례로 점철되어 있음.
- 빈곤한 나라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을 뿐 아니라 국정 관리능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 개발원조초기에는 개도국의 제도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의 개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 부족한 자금만 지원하면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자금위주의 지원을 하여 실패한 사례가 많았음.
- 지난 50여년간의 개발원조경험에 의하여 개발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자금지원보다는 개혁을 통한 제도적, 정책적인 면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는 바, 효과적인 원조제공을 위한 주요한 과제는 아래와 같음.

- 지역차원이건 국가차원이건 장기비전을 가진 개혁의 선도자를 발굴해야 함.
- 효과적인 개발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함.
-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민사회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 개발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함.
 - 베트남의 경우 1980년대말의 전국적인 개혁은 1990년대에 획기적인 빈곤감소의 성과를 거둠.
 - 카메룬의 2개성에서 시작된 보건분야 개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여 성과가 미흡함.
- 아무리 수원국의 여건이 어렵더라도 개혁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함.
 - 구소련의 붕괴, 1986년의 베트남, 1990년대 초의 인도, 내전 이후의 이디오피아 및 엘살바돌과 같은 나라의 개혁과 개방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전만 해도 전혀 예측을 불허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원조공여국들은 서로 경쟁하기 보다는 공동 목표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함.
- 원조기관은 자금집행실적보다는 원조를 통해 체제변화를 유도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야함.

- SIDA의 최근 보고서는 “많은 원조기관들은 원조자금의 국별 배분과 집행실적에만 관심을 집중하는데, 이는 미집행자금 발생시 국회나 예산당국이 이를 알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수원국측의 입장에서 원조약속을 많이 받아내고 원조규모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원조의 질적인 효과는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
-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조기관도 내부적인 업무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훌륭한 정책과 제도를 갖춘 나라에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끈기를 가지고 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1990년대 들어 많은 원조기관들은 국별원조전략을 수립하여 개별원조사업일지라도 수원국의 정책개혁과 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평가도 개별 프로젝트를 위주로 한 평가에서 전반적인 국별프로그램 평가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 정책개혁과 제도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가 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되었음.

■ 원조기관들은 원조업무의 관리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아래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임.

- 첫째, 원조제공을 위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하여, 훌륭한 관리 능력을 갖춘 나라에 보다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함.
- 둘째,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전파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셋째, 타원조공여국 및 수원국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원조기관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지
그 영향은 무엇인지 등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끊임
없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성할 필요가 있음.
- 냉전시대의 전략원조 필요성이 줄어들고 개발과 관련된 문제와
효과적인 원조방안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됨으로써, 원조기관의
성공적인 원조를 낙관할 수 있게 되었음. 끝.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Published for the World Bank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NEW YORK TORONTO
DELHI BOMBAY CALCUTTA MADRAS KARACHI
KUALA LUMPUR SINGAPORE HONG KONG TOKYO
NAIROBI DAR ES SALAAM CAPE TOWN
MELBOURNE AUCKLAND

and associated companies in

BERLIN IBADAN

© 1998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The World Bank*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200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6

Oxford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Oxford University Pres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Oxford University Press.*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irst printing November 1998

*The boundaries, colors, denominations, and other information shown on the maps in this vol-
ume do not imply on the part of the World Bank Group any judgment on the legal status of
any territory or the endorsement or acceptance of such boundaries.*

Library of Congress Cataloging-in-Publication (CIP) Data has been requested.

∞ Text printed on paper that conforms to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Permanence of Paper for Printed Library Materials, Z39.48-1984

Contents

Foreword ix

The Report Team xi

Overview Rethinking the Money and Ideas of Aid 1

-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7
- New Thinking on Development Strategy 9
- Money Matters—In a Good Policy Environment 14
-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Policies 17
- Money Matters—In a Good Institutional Environment 19
-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Institutions 21
- Money, but More Ideas, Too 23

1. Money Matters—In a Good Policy Environment 28

-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Fortunes 29
- Why the Divergence? 32
- In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 . . 34
- Aid Has Not Favored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40
- Be Focused 44

2.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Policies 47

- Money—Good or Bad for Reform? 48
- Ownership—What Money Cannot Buy 50
- Fomenting Reform 53
- If Commitment, Money—If Not, Ideas 58

3. Money Matters—In a Good Institutional Environment 60

- Fungibility? 62
- Public Spending—Quality not Quantity 74
- What Should Donors Do? 78

4.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Institutions 83

- Better Public Provision 84
- Public Provision without Public Providers 92
- Making Aid Work for Better Public Services 96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5. **Money, but More Ideas, Too** 103

- Vietnam: Adjustment without Lending 105
- El Salvador, Pakistan, and Brazil: Education's Decentralization and Reform 108
- Cameroon: Health Financing and Delivery 111
- Africa's Road Maintenance Initiative 113
- Conclusion 115

Appendixes 121

- Estimating the Effect of Aid on Growth 121
- Expla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126
- Analysis of the Fungibility of Foreign Aid 130
- The Impact of Civil Liberties and Democracy on Government Performance 135
- Estimating the Impact of Analytical Work 139

Selected Bibliography 143

Boxes

- 1. Defining Aid 6
- 2. Measuring Aid 8
- 3. Defining Sound Management: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12
- 4. Function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3
- 5. Stakeholder Views on Aid Effectiveness 24

- 1.1 Aid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41
- 2.1 Reforming Pension Schemes 54

- 4.1 Aid and Centralization 86
- 4.2 A Useful Surge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94
- 4.3 Resettlement in Development 98

- 5.1 Reforming Aid Agencies in the 1990s 118

Text Figures

- 1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7
- 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lative to Gross National Product, Major Donors, 1991 and 1997 9

3	The Gap between Model and Reality in Zambia, 1961–94	10
4	Per Capita GDP Growth in Low-Income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14
5	Project Performance by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15
6	Bilateral Aid and Colonial Past	16
7	Elections, Tenure, and Probability of Successful Reform	18
8	Public Investment from One Dollar of Tax Revenue 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9
9	Success in Rural Water Supply Projects with Differing Levels of Beneficiary Participation	22
10	Actual Allocation of Aid, 1996, and Optimal Allocation to Reduce Poverty	23
1.1	Infant Mortality in Selected Countries, 1967 and 1994	30
1.2	Economic Management and Growth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33
1.3	Growth Rate and Income Level	34
1.4	Aid and Growth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1970–93	35
1.5	Marginal Impact on Growth of a Percent of GDP in Aid	36
1.6	Economic Growth and Poverty	38
1.7	Decline in Infant Mortality from a Percent of GDP in Aid	39
1.8	Marginal Impact on Private Investment of a Percent of GDP in Aid	40
1.9	Bilateral, Multilateral, and World Bank Aid Per Capita and Income Level	40
1.10	Aid and Population	42
1.11	Allocation of Bilateral Aid, 1970–93	43
1.12	Allocation of Multilateral Aid, 1970–93	44
1.13	Poverty and Policy, 113 Developing Countries, 1996	45
2.1	Zambia: Aid and Policy	50
2.2	Ghana: Aid and Policy	51
2.3	Bolivia: Aid and Policy	52
3.1	Distribution of Aid, by Type and Sector	61
3.2	Full Fungibility	62
3.3	Partial Fungibility	63
3.4	A Dollar's Worth of Aid and Government Expenditure Estimates from Large Cross National Samples Estimates from Individual Countries and Small Samples	65
3.5	A Dollar's Worth of Aid and Government Investment ("Development") Expenditures	67
3.6	Bilateral Aid and Government Consumption	67
3.7	A Dollar's Worth of Aid to Agriculture and Spending on Agriculture	68
3.8	A Dollar's Worth of Aid to Health and Education and Spending on Health and Education	70
3.9	Public Spending on Health as a Percentage of GDP and Health Outcomes	76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 4.1 Participation and Project Success 87
- 4.2 Civil Liberties and the Probability of World Bank Project Failure 88
- 4.3 Cost and Benefit of an Additional Week of Analytical Work 101
- 5.1 Vietnam: Aid and Policy 107
- 5.2 Pakistan: School Enrollment of Five- to Eight-year-old Girls 110
- 5.3 Cameroon: Change in Health Center Use and Utilization, 1990-91 112

Box Figures

- 2 Total Aid: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djusted Official Aid 8
- 3 Institutions, Policies, and Growth 12

Text Tables

- 1.1 Real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United States 31
- 2.1 Features of Successful and Failed Adjustment Programs 52
- 3.1 Donor Financing of Investment Budgets in Two African Countries (percent) 71
- 3.2 Evaluating the Effect of Projects with Fungibility 72

Appendix Tables

- A1.1 Estimating the Effect of Aid on Growth 124
- A1.2 Countries in the Dataset 125
- A2.1 Estimating the Outcome of Adjustment Loans 129
- A3.1 Impact of Foreign Aid on Total, Current, and Capital Public Expenditures, 1971-90 133
- A3.2 Impact of Sectoral Concessionary Loans on Sectoral Government Expenditure, 1971-90 134
- A4.1 Base Specification for the Nongovernance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Rate of Return of Government Projects, 1974-87 137
- A4.2 Impact of Civil Liberties Indicators on the Economic Rate of Return of Government Projects, Controlling for Economic and Project Variables 138
- A5.1 Impact of Economic and Sector Work on Project Outcome and Economic Rate of Return 141

Foreword

FOREIGN AID IS AS MUCH ABOUT KNOWLEDGE AS IT IS ABOUT MONEY. Helping countries and communities generate the knowledge that they need for development is a prime role of assistance. And aid itself is a learning business that continually evolves as lessons of success and failure become clear.

Assessing Aid is a contribution to this ongoing learning process. It aims to contribute to a larger “rethinking of aid”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ngaged in—a rethinking in two senses. First,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is a group that is “rethinking aid” in the sense of questioning its very existence in a world of integrated capital markets. In response to this trend, we show that there remains a role for financial transfers from rich countries to poor ones.

Second, developing and developed nations alike are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assistance in light of a new development paradigm. Effective aid supports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policy reforms that are at the heart of successful development. Though tremendous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past 50 years, global poverty remains a severe problem.

Research into aid,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provides important evidence about making aid more effective. This report summarizes the findings of recent World Bank research on aid effectiveness. The primary research has been published or will soon be published in professional journals. This report aims to disseminate the findings to a broad audience. It should be stressed that there are important aspects of development cooperation that have not been covered by the research. The report restricts itself to areas where we have new findings.

Aid is channeled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that bring a mix of money and ideas. Two key themes emerge in this report. One theme is that effective aid requires the right timing and the second that it requires the right mix of money and ideas.

The timing of assistance is crucial in helping countries improve their policies and institutions. When countries reform their economic policies, well-timed assistance can increase the benefits of reform and maintain popular support for them. Similarly, at the local level, when communities organize themselves to improve services, the availability of aid can make the difference between successful innovation and failure.

On the mix of activities, we find that money has a large impact—but only in low-income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Before countries reform, finance has little impact. Thus, donors need to rely on other instruments to support development in the distorted environments—and the report looks in detail at what is likely to work and what, n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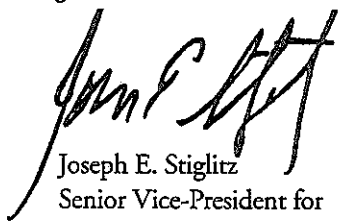
To have a greater effect on global poverty reduction through equita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oreign assistance requires a three-way partnership among recipient countries, aid agencies, and donor countries.

The recipient countries must be moving towards sound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activ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can help sustain this sound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 good news here is that many poor countries have initiated serious reforms in policies and governance, so that the climate for effective aid is the best that it has been in decades.

Development agencies must shift away from total disbursements and the narrow evaluation of the physical implementation of projects to create high impact assistance. Agencies should be evaluated on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allocated their resources, both of finance and knowledge, to stimulate the policy reforms and institutional changes that improve people's lives. The good news here is that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encies are transforming themselves and cooperating together to become more effective.

Finally, citizens of donor countries must continue to support aid. The bad news is that just as aid is poised to be its most effective, the volume of aid is declining and is at its lowest level ever. This report is also aimed at persuading developed countries to continue to give aid and to take an active interest in development and development cooperation.

More effective development means improvements in the lives of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more food on the table, healthier babies, more children in school. These are things worth fighting for—and properly managed, foreign aid can make a big contribution.



Joseph E. Stiglitz
Senior Vice-President for
Development Economics and
Chief Economist
The World Bank
November 1998

The Report Team

THIS POLICY RESEARCH REPORT WAS WRITTEN BY DAVID DOLLAR and Lant Pritchett of the Development Research Group. It culminates a research program on aid effectiveness initiated and supervised by Lyn Squire. Original research as background for this report includes work by the authors and by Craig Burnside, Klaus Deininger, Shanta Devarajan, William Easterly, Deon Filmer, Jonathan Isham, Dani Kaufmann, Elizabeth King, Jennie Litvack, Luis Servén, Lyn Squire, Vinaya Swaroop, and Jakob Svensson. The authors draw extensively on evaluations and studies done in other parts of the World Bank, which are cited throughout the text. Much of the underlying research was presented and discussed at the joint OECF-World Bank symposium, "A New Vis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21st Century" (Tokyo, September 1997). The authors would like to acknowledge excellent research assistance from Mita Chakraborty, Charles Chang, Giuseppe Iarossi, and Pablo Zoido-Lobaton and superb administrative support from Emily Khine, Kari Labrie, and Raquel Luz. Lawrence MacDonald provided helpful support throughout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Bruce Ross-Larson, with Jessica Moore and Sharifah Albukhary, edited the report for publication.

The judgments in this policy research report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views of the World Bank's Board of Directors or the governments they represent.

Rethinking the Money and Ideas of Aid

FOREIGN AID HAS AT TIMES BEEN A SPECTACULAR SUCCESS. Botswan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1960s, Indonesia in the 1970s, Bolivia and Ghana in the late 1980s, and Uganda and Vietnam in the 1990s are all examples of countries that have gone from crisis to rapid development. Foreign aid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each transformation, contributing ideas about development policy, training for public policymakers, and finance to support reform and an expansion of public services. Foreign aid has also transformed entire sectors. The agricultural innovations, investments, and policies that created the Green Revolution—improving the lives of millions of poor people around the world—were financed, supported, and disseminated through alliance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Internationally funded and coordinated programs have dramatically reduced such diseases as river blindness and vastly expanded immunization against key childhood diseases.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have had their lives touched, if not transformed, by access to schools, clean water, sanitation, electric power, health clinics, roads, and irrigation—all financed by foreign aid.

On the flip side, foreign aid has also been, at times, an unmitigated failure. While the former Zaire's Mobutu Sese Seko was reportedly amassing one of the world's largest personal fortunes (invested, naturally, outside his own country), decades of large-scale foreign assistance left not a trace of progress. Zaire (now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is just one of several examples where a steady flow of aid ignored, if not encouraged, incompetence, corruption, and misguided policies. Consider Tanzania, where donors poured a colossal \$2 billion into building roads over 20 years. Did the road network improve? No. For lack of maintenance, roads often deteriorated faster than they could be built.

Foreign aid has at times been a spectacular success—and an unmitigated failure.

Financial aid works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Foreign aid in different times and different places has thus been highly effective, totally ineffective, and everything in between. Perhaps that is to be expected in a complex endeavor that has spanned half a century, with scores of countries as donors, a hundred countries as recipients, tens of thousands of specific activities, and nearly \$1 trillion in finance. But hindsight is valuable only if it produces insight. The checkered history of assistance has already led to improvements in foreign aid, and there is scope for further reform. The pressing question: How can development assistance be most effective at reducing global poverty?

The answer is needed urgently. While there has been more progress with poverty reduction in the past 50 years than in any comparable period in human history, poverty remains a dire global problem. More than a billion people live in extreme poverty—on less than \$1 a day. Even more lack basic services that people in developed countries take for granted: clean water, sanitation, electricity, schooling. It is ironic—and tragic—that just as economic reform has created the best environment in decades for effective assistance, donors have cut aid back sharply. In 1997 OECD donors gave the smallest share of their GNPs in aid since comparable statistics began in the 1950s—less than one-quarter of 1 percent. It would take roughly a 50 percent increase even to restore aid to its 1991 level.

There have been many excellent studies of foreign aid.¹ But there are three important reasons to revisit this previously charted territory. First, recent shifts in the global economic and political environment—notably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surge in private capital flows to the developing world—have affected the landscape for development assistance in a way that has left many questioning the very existence of aid. Second, there has been a shift in development strategy that requires a new approach to aid as a tactic within the evolving agenda. Third, there is new empirical evidence that provides insights into the puzzle of what is effective aid and what is ineffective aid.

This rethinking of aid produces the following findings:

- *Financial aid works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Financial assistance leads to faster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gains in social indic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And the effect is large: with sound country management, 1 percent of GDP in assistance translates into a 1 percent decline in poverty and a similar decline in infant mortality. In a weak environment, however, money has much less impact. A \$10 billion increase in aid would lift

25 million people a year out of poverty—but only if it favors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By contrast, an across-the-board increase of \$10 billion would lift only 7 million people out of their hand-to-mouth existence.

- *Improvements in economic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the developing world are the key to a quantum leap in poverty reduction.* True, there have been sharp improvements in governance and policies in the past decade, but further reform of the same magnitude would lift another 60 million people a year out of poverty. When societies desire reform, foreign aid can provide critical support—in ideas, training, and finance. Efforts to “buy” policy improvements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movement for reform, by contrast, have typically failed.
- *Effective aid complements private investment.* In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foreign aid does not replace private initiative. Indeed, aid acts as a magnet and “crowds in” private investment by a ratio of almost \$2 to every \$1 of aid. In countries committed to reform, aid increases the confidence of the private sector and supports important public services. In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aid “crowds out” private investment, which helps explain the small impact of aid in such cases.
- *The value of development projects is to strengthen institutions and policies so that services can be effectively delivered.* Aid brings a package of knowledge and finance. Most aid is delivered as investment projects in particular sectors such as roads, water supply, or education. Project finance, however, often does not increase spending in a sector any more than an untied grant would have—that is, aid finance is typically fungible. Thus, choosing such laudable sectors as primary health or education cannot ensure that money is well used. Aid is financing the entire public sector, and the overall quality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is the key to securing a large return from this finan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the most critical contribution of projects is not to increase funding for particular sectors, but to help improve service delivery by strengthening sectoral and local institutions. The knowledge creation supported by aid leads to improvements in particular sectors, whereas the finance part of aid expands public services in general.
- *An active civil society improves public services.* One good idea that many projects have supported in recent years is a participatory approach to service delivery, often resulting in huge improvements. The best aid projects support initiatives that change the way the public sector does business.

The value of development projects is to strengthen institutions and policies so that services can be effectively delivered.

Financial assistance must be targeted more effectively to low-income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The top-down, technocratic approach to project design and service delivery has not worked in areas critical for development—rural water supply, primary education, natural resource management, and many more.

- *Aid can nurture reform in even the most distorted environments—but it requires patience and a focus on ideas, not money.* In some of the poorest countries of the world, the government is not providing effective policies or services, which is why government-to-government transfers have yielded poor results. Still, there are often champions of local or sectoral reform, and aid at times has been effective supporting these initiatives. This work is staff-intensive and results in little disbursement of funds. Successful assistance here aims to help reformers develop and test their ideas.

Making aid more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requires five policy reforms. First, financial assistance must be targeted more effectively to low-income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financial assistance is a catalyst for faster growth, more rapid gains in social indicators, and higher private investment (chapter 1). In a poor policy environment, however, aid has much less impact. Clearly, poor countries with good policies should receive more financing than equally poor countries with weak economic management. Up until the early 1990s, however, finance has gone in equal amounts to well managed countries and to poorly managed ones. Furthermore, much of aid continues to go to middle-income countries that do not need it. It is possible to make aid more effectively targeted to poor countries and to better management simultaneously.

Second, policy-based aid should be provided to nurture policy reform in credible reformers. Experience shows that donor financing with strong conditionality but without strong domestic leadership and political support has generally failed to produce lasting change (chapter 2). Continued flows to governments that pay only lip service to reform have been a major problem. Policy-based financing should go only to countries with a strong track record or where there is a demonstrable basis for optimism (to support, for example, the concrete actions of domestically initiated reform efforts or a government newly chosen on a reform platform). New governments in post-conflict situations are often good candidates for support. In countries with poor policies and no credible reform movement, assistance should assume the more modest and patient role of disseminating ideas, transmitting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training future

policymakers and leaders, and stimulating capacity for informed policy debate within civil society. These measures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do not conflict with the proposal that the bulk of finance should go to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Third, the mix of aid activities should be tailored to country and sector conditions (chapter 3). Even where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weak, donors have tried to find something useful to finance. Surely it must be a good thing to finance primary health care or basic education? The evidence, however, is that aid is often fungible, so that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In circumstances where similar projects would have been undertaken anyway, donor money for particular projects and sectors does not necessarily “stick”—simply expands the government’s budget. Thus even rigorous project selection or reallocation of donor finance to laudable activities cannot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aid in a distorted environment. To measure the effect of their finance, donors must look at overall allocations and, even more important, at the efficacy of public spending.

The allocation of expenditures alone does not guarantee success, for the quality of public spending is as important as its quantity. In countries with sound economic management (of both macroeconomic policy and delivery of public services), more aid can be in the form of budget support, which would simplify administration and reduce overhead. In countries with basically sound policies but weak capacity for delivering services, project aid should be a catalyst for improving the efficacy of public expenditures. Countries without good policies, efficient public services, or properly allocated expenditures will benefit little from financing, and aid should focus on improvements in all three areas.

Fourth, projects need to focus on creating and transmitting knowledge and capacity. The key role of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to support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that improve public service delivery (chapter 4). Even where money may not stick, the local knowledge and institutional capacity created by the catalyst of aid projects can. Where projects are innovative, it is crucial to have objective and rigorous evaluation of outcomes and dissemination of new information. Knowledge about what works in service provision—and what does not—is one of the most important outputs of development assistance. In many cases innovative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will involve greater participation by local communities and decentralization of decisionmaking.

Policy-based aid should be provided to nurture policy reform in credible reformers.

Aid agencies need to find alternative approaches to helping highly distorted countries, since traditional methods have failed.

Fifth, aid agencies need to find alternative approaches to helping highly distorted countries, since traditional methods have failed in these cases (chapter 5). Communities and governments are heterogeneous, and even in the most difficult environments there will be pockets of reform. Donors need to be patient and flexible and look for windows of opportunity to nurture these reform efforts. Typically, ideas will be more useful than large-scale finance. Donors' ability to work in these environments has been hampered by an "approval and disbursement culture" that does not value small-scale, staff-intensive activities. In the past agencies have too often focused on how much money they disburse and on narrow physical implementation measures of the "success" of the projects that they finance. It turns out that neither measure tells much about the effectiveness of assistance.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aid should focus instead on the extent to which financial resources have contributed to sound policy environments. It should focus on the extent to which agencies have used their resources to stimulate the policy reforms and institutional changes that lead to better outcomes. These are not easy questions to answer, but independent reviews of development agencies—with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y policymakers and project beneficiaries—can help establish whether agencies are doing a good job.

Box 1 Defining Ai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The first is a subset of the second and comprises grants plus concessional loans that have at least a 25 percent grant component.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s all financing that flows from developed country governments and multilateral agencies to the developing world. Some of this financing is at interest rates close to commercial rates. "Foreign aid" is usually associated with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normally targeted to the poorest countries. This assistance is the primary focus of this study, but many of the findings are relevant for the larger category of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Both types of aid can be divided into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mponents. Bilateral assistance is adminis-

tered by agencies of donor governments (such as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or Japan's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Multilateral assistance is funded by contributions from wealthy countries and administered by agencies, such as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nd the World Bank. Of al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oughly a third is multilateral.

Some bilateral aid is tied—that is, it must be used to procure goods and services from the donor country. Studies have shown that tied aid reduces the value of that assistance by about 25 percent, and there is widespread agreement that untieing bilateral aid would make it more effective. Among OECD countries there has been a clear trend away from tied aid. In 1995 it accounted for only about a fifth of all aid.

The New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EIGN AID IS A POST WORLD WAR II PHENOMENON. FROM THE start, it had twin objectives, potentially in conflict. The first objective was to promote long-term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underlying motivation of donors was a combination of altruism and a more self-interested concern that, in the long term,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security would benefit if poor countries were growing. The second objective was to promote the short-term 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s of donors. Aid went to regimes that were political allies of major Western powers. Thus the strategic and developmental objectives were potentially, but not necessarily, at odds. Consider Bolivia and Zaire. Both received U.S. aid, partly for strategic reasons, yet the outcomes were vastly different. Bolivia used the resources relatively well after reforms of the mid-1980s and over the past decade has stabilized and laid a groundwork for success. In the former Zaire, by contrast, it is hard to see any benefit from its years as a major aid recip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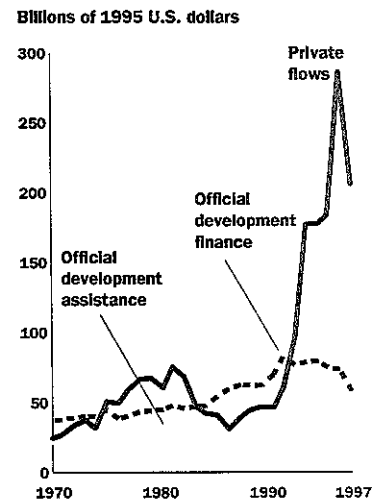
During the 1970s and 1980s foreign aid from OECD countries rose steadily (figure 1).² In 1991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eaked at \$69 billion (in 1995 prices; see boxes 1 and 2). In the 1990s, however, three events have lowered the absolute and relative importance of foreign aid: fiscal problems in OECD countries,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dramatic growth in private capit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n recent years OECD countries have been struggling to control fiscal deficits and contain growth in government spending. Even though foreign aid is a tiny fraction of budgets, it has been one of the first items for the ax. All major donors reduced aid relative to their GNPs between 1991 and 1997 (figure 2). The decline was especially sharp in the United States—aid was a mere 0.08 percent of GNP in 1997. Sweden and other Nordic countries have traditionally been generous, giving almost 1 percent of GNP. But among large countries, France is the only one that gives more than 0.45 percent. Collectively, OECD countries contributed just 0.22 percent of their GNP in 1997. The end of the Cold War likely influenced some countries' decision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aid has ebbed; as a result it risks losing its broad support among donor governments.

At the same time, there has been a surge in private capit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 1970s and 1980s official finance—that is, money from bilateral donor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represented

After peaking in 1991, aid has fallen.

Figure 1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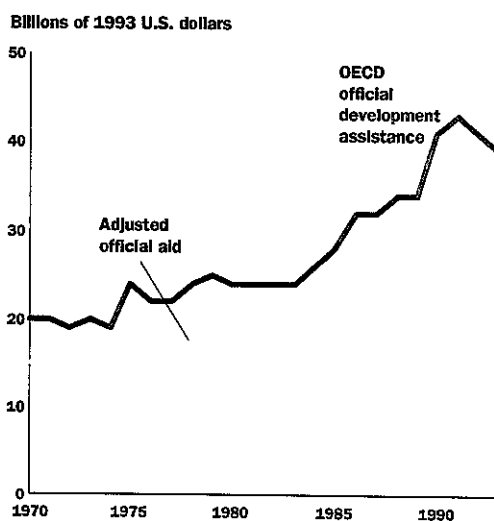
Source: Global Development Finance 1998.

Box 2 Measuring Aid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publishes information on its members' aid to developing countries—that is, grants plus net disbursements of concessional loans that have at least a 25 percent grant component. A different way to measure aid is to extract from each concessional loan the grant element and add that to the figure for pure grants. Using this approach, Chang, Fernandez-Arias, and Servén (1998) developed data on aid for 103 recipients (see figure).

There are three points worth making about this new data. First, the adjusted figure tends to be lower than the traditional measure. Second, the two series are highly correlated and produce similar results in econometric analyses. Most aid is in the form of grants, so the new approach does not have much effect on the overall measur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id are the same regardless of which measure of aid is used (see chapter 1). Third, the adjusted aid figures show a sharper decline in aid in the 1990s than the OECD measure. This is because international interest rates have been low in recent years, so the aid component of concessional loans is smaller. The amount of aid in a loan with a 2 percent interest rate is small if international interest rates are 5 percent and large if they are 10 percent.

Box figure 2 Total Aid: OEC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djusted Official Aid



Source: Chang, Fernandez-Arias, and Servén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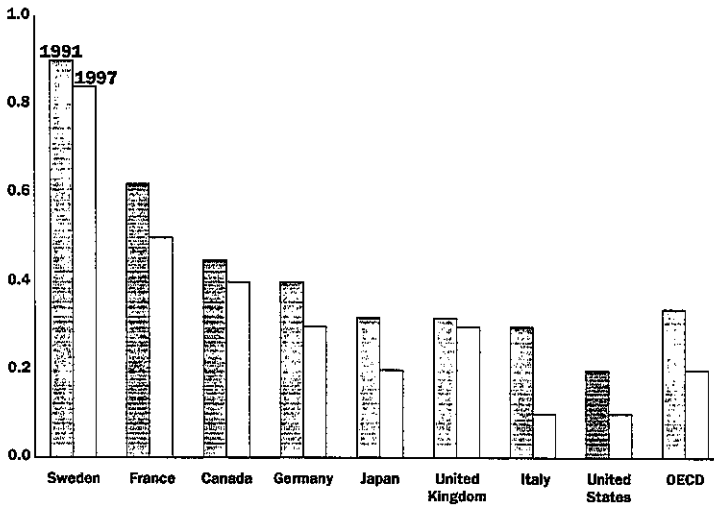
about half of all finance going from the developed to the developing world (see figure 1). With private flows expanding to more than \$250 billion in 1996, however, official finance is now only a quarter of all finance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Private capital flows are heavily concentrated in a few countries, however—and some flows are volatile. A surge in the late 1970s receded after the onset of the debt crisis in 1982. Another big rush occurred in the mid-1990s, but with the financial crises rocking East Asia in 1997 foreign investment dropped sharply. The flow of private money to the developing world fell by \$80 billion between 1996 and 1997. In any event, private flows will continue to go to a small number of (mostly) middle-income countries. In 1996, 26 countries received 95 percent of private investment; the rest went to the other 140 developing countries.

Figure 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Relative to Gross National Product, Major Donors, 1991 and 1997

Aid is down everywhere.

ODA as a percentage of GNP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In a typical low-income country, foreign aid remains far and away the primary source of external finance, amounting to 7–8 percent of GNP.

Developments in the 1990s have sharply altered the climate for foreign aid. The end of the Cold War opened up new possibilities: with aid no longer constrained by those strategic objectives, it should be possible to make aid more efficient at meeting its primary objective of long-term growth and poverty reduction.³ Yet, given budget problems and rising private flows, donors are clearly rethinking the importance and value of foreign assist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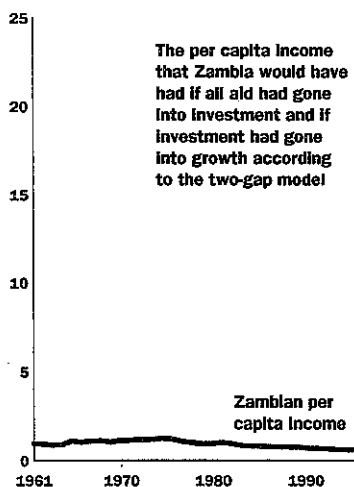
New Thinking on Development Strategy

FOREIGN AID, JUST ONE WAY OF PROMOTING DEVELOPMENT, MUST fit within a broad overall strategy. Pas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onditions and beliefs about development strategy structured organizations, instruments, and implementation of aid. But those beliefs have undergone enormous, and accelerating, change.

If all the aid to Zambia had gone into productive investment, it would be a rich country today.

Figure 3 The Gap between Model and Reality in Zambia, 1961–94

Thousands of 1995 U.S. dollars



Source: Easterly 1997.

In the early days of development assistance, government was seen as the positive agent for change. Domestic markets in developing countries were thought to be nonexistent and incapable of growth. International markets were tainted by the association with colonialism, as well as by the collapse of markets for commodities and credit in the Great Depression of the 1930s.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first flush of independence created optimism about new governments as agents of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change. Government-to-government aid had a plausible claim as the best way to promote development.

Development economists believed not only that poor countries were held back primarily by a lack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 (which was, and remains, true) but also that domestic poverty and international market failures denied developing countries access to investment funds needed for economic growth.⁴ Calculating countries' growth "requirements" of investment finance or foreign exchange (or both)—and comparing them with what was available—emphasized the size of the gaps to be filled. The natural tactical response was to fill the gaps with foreign aid through transfers of investible foreign exchange. If money was the problem, then "moving the money" was an appropriate objective for aid and aid agencies. The contribution of aid could then be measured in dollars.

Sadly, experience has long since undermined the rosy optimism of aid-financed, government-led, accumulationist strategies for development. Suppose that development aid only financed investment and investment really played the crucial role projected by early models. In that case, aid to Zambia should have financed rapid growth that would have pushed per capita income above \$20,000, while in reality per capita income stagnated at around \$600 (figure 3). The past 20 years have seen the death of centrally planned economies, stagnation in the leading import-substituting models of the 1970s (Mexico and Brazil), and broad economic failure (if not absolute disintegration) of post-independence Africa, which pursued a state-led strategy.⁵ The past 20 years have also seen waves of spectacular increases in incomes and exports of East Asian economies—first, Korea, Taiwan (China), Hong Kong (now returned to China), and Singapore, followed by Thailand, Malaysia, Indonesia, and, after important economic reforms, China; the emergence of Chile as the most dynamic Latin American economy and the recent recovery of others; and successes in Africa, such as Botswana and Mauritius. The evidence suggests that rapid development is possible, and should be based on markets and on effective states playing an economically important facilitating, but not dominant, role.

So, there have been three phases of development thinking. In the first, market failures were seen as pervasive and complete, and government as the only solution to all ills. In the second there was a brief period when government failure was seen as pervasive and complete, and markets (if not the solution) as the only hope. Today's third view—pragmatic but not ideologically satisfying—is that both markets and governments have pervasive failures but that these usually are not complete. This emphasizes that government should focus on areas where the problems in the absence of intervention are greatest—but government must have the capacity to improve the situation. “We need to recognize both the limits and strengths of markets, as well as the strengths, and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s aimed at correcting market failures” (Stiglitz 1989, p. 202).

The development strategy emerging from this view is two-pronged—put in place growth-enhancing, market-oriented policies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effective law and order, trade liberalization, and so on) and ensure the provision of important public services that cannot be well and equitably supplied by private markets (infrastructure services and education, for instance). Developing countries with sound policies and high-quality public institutions have grown much faster than those without—2.7 percent per capita compared with –0.5 percent per capita (box 3). Put simply, failures in policymaking, institution building,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have been more severe constraints on development than capital markets.

Together with the new strategy comes a broader agenda. Early development practice focused on growth of per capita income. But in reality, developing countries are concerned with broad improvements in the quality of life—higher incomes, yes, but also reduced poverty, advances in literacy and health,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w agenda is reflected in the goals set forth by the donor community, in consultation with developing country partners:

- Reducing by one half the proportion of people living in extreme poverty by 2015.
- Achieving universal primary education in all countries by 2015.
- Making progress toward equality of the sexes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by eliminating disparitie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by 2005.
- Reducing by two-thirds the mortality rates for infants and children under age 5 and by three-quarters maternal mortality—both by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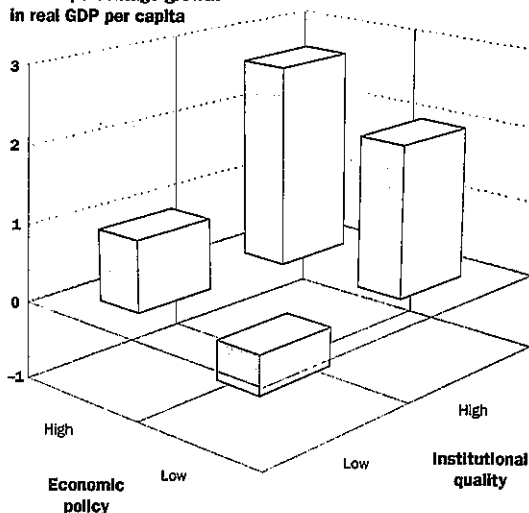
Together with the new development strategy comes a broader agenda.

Box 3 Defining Sound Management: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SOUND MANAGEMENT CONSISTS OF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will lead to rapid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in a particular country. Developing countries learn about good and bad policies from their own experience and each other's experience. Sound management is difficult but not impossible to measure using a number of proxy indicators.

Box figure 3 Institutions, Policies, and Growth

Annual percentage growth
in real GDP per capita



Source: Burnside and Dollar 1998.

The index of economic policy used in box figure 3 combines three factors that have been shown in empirical studies to affect developing countries' growth: inflation, the budget surplus, and trade openness, as measured by Sachs and Warner (1995). A country with poor policies would be one with high inflation, large fiscal imbalances, and a closed trade regime (Nicaragua in the 1980s, for instance). An example of good economic policy would be Uganda in the mid-1990s.

The measure of institutional quality involves an assessment of the strength of the rule of law, the quality of public bureaucracy, and the pervasiveness of corruption. As the crisis of 1997–98 has shown, Indonesia is a country with poor institutional quality. Botswana, with its high-quality institutions, is a different story.

As donors make more of an effort to support good management, they likely will want to broaden the measure beyond the macroeconomic and institutional features illuminated here. For example, efforts to improve education and health are critical for successful development. And government support t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and to community solidarity efforts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East Asia's success (Ishikawa 1960, 1978). The general point is that the definition of "good management" emerges from the actual experi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 Providing access through the primary health care system to reproductive health services for all women and girls of child-bearing age as soon as possible and no later than 2015.
- Implementing national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ll countries by 2005 to ensure that losses of environmental resources are reversed both nationally and globally by 2015.

Box 4 Functions of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INCE ITS INCEPTION IN 1960, THE OECD's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has functioned as the principal strategy-setting and policy and performance review organ of the major bilateral donors.

Bilateral aid programs are not conceived and implemented in a political vacuum. Indeed they are subject to considerable domestic pressures from political and commercial interest groups in the donor countries. And bilateral aid agencies can be subject to the same kinds of disbursement-driven dynamics as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creating incentives for staff to be approval-focused rather than result-focused. They can also be more concerned to show the national flag on their development projects than to join collective sector improvement efforts in which donor identities are merged.

The DAC has been the forum where the major donors have worked to keep their programs focused on development objectives, to promote coordination, and to review aid effectiveness. Every three years, each DAC member is subject to an examination of its aid policies and performance by the other members of the Committee, based on studies by the OECD staff and led by two specially designated "examiners" drawn from the Committee. These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s, including the conclusions reached by the DAC, have been published since 1994.

Over the last decade and a half, the DAC has codified and published a comprehensive set of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These guidelines and best practices cover key policy orientations and operational issues in central areas of aid management such as coordination, project assistance, program assistance, technical assistance, procurement, and evaluation—as well as for such basic dimensions of development as participation and good governance, environment, and gender equality.

The DAC's Working Party on Aid Evaluation brings together the heads of the evaluation units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development agencies to work on evaluation capa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At the strategic level, the DAC produced in 1996 the report,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provides the basis for the kind of partnerships most likely to produce development progress: on the side of the developing country, a strong commitment to an effective policy environment and key development priorities aimed at pro-poor growth; and on the donor sid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for such policies on a program and budget level combined with an emphasis on participation and capacity-building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knowledge and ideas").

Source: Contributed by DAC sta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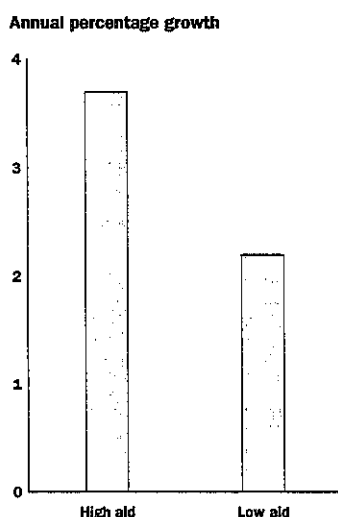
These goals are elaborated on in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roduced by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box 4).

All this points to a different role for aid. Development assistance is more about supporting good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n providing capital. Money is important, of course, but effective aid should bring a package of finance and ideas—and one of the keys is finding the right combination of the two to address different situations and problems.

Money Matters—In a Good Policy Environment

Aid has a large effect when countries have sound management.

Figure 4 Per Capita GDP Growth in Low-Income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Source: Burnside and Dollar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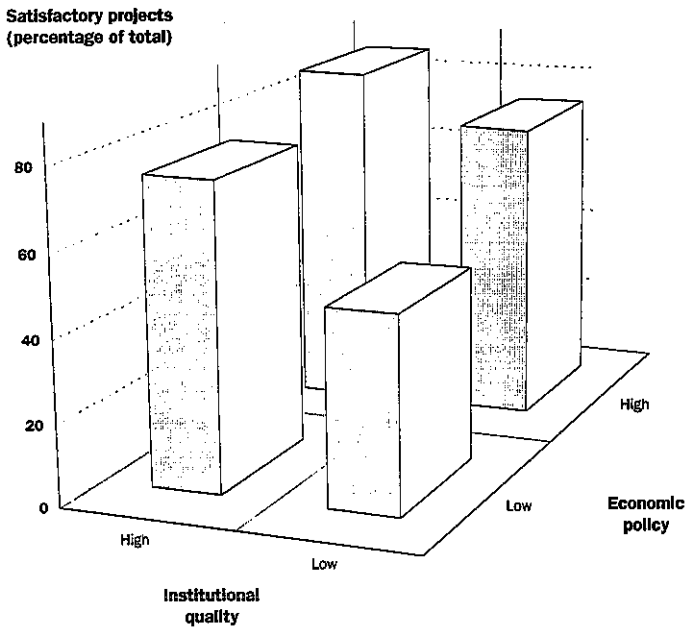
SO, GIVEN THE NEW PATH IN DEVELOPMENT THINKING, WHAT IS important for long-term growth?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s, open trade regimes, and protected property rights, as well as efficient public bureaucracies that can deliver education, health, and other public services. When developing countries have this kind of sound management, financial aid has a big effect on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mproving social indicators over and above what good management itself induces. Equally, aid has littl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countries with poor management. Financial aid will have a lasting effect only in a healthy climate for efficient investment and human capital development. Three sources provide the evidence—cross-country studies, research into the success and failure of investment projects financed by the World Bank, and case studies of aid effectiveness.

Few cross-country studies have found a robust effect of aid on growth. The picture changes, however, if countries are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ir economic management. Aid generally has a large effect in good-management environments: 1 percent of GDP in assistance translates to a sustained increase in growth of 0.5 percentage points of GDP. Some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have received only small amounts of aid and have grown at 2.2 percent per capita. The good-management, high-aid group, however, grew much faster—3.7 percent per capita (figure 4). There is no such difference for countries with poor management. Those receiving small amounts of aid have grown sluggishly (if at all), as have those receiving large amounts. Introducing other variables does not change the picture.

The effect of aid goes beyond growth. In a country with sound management, 1 percent of GDP in assistance reduces poverty by 1 percent. Aid has a similar effect on infant mortality, but again only if there is good management.

A final lesson from cross-country studies is that, with sound country management, aid works in partnership with private capital. Specifically, 1 percent of GDP in aid crowds in another 1.9 percent of GDP in private investment. Put another way, assistance to well-managed countries increases private sector confidence and supports important public services. It hardly needs to be said, but in poorly managed countries aid crowds out private investment.

More evidence on the relationships among aid, management, and development comes from analysis of the success and failure of public

Figure 5 Project Performance by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Source: World Bank 1997a.

investment projects financed by the World Bank—in, for example, roads, power, and education. In countries with good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efficient public institutions, projects were 86 percent successful, with much higher rates of return. In countries with weak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corresponding figure is a measly 48 percent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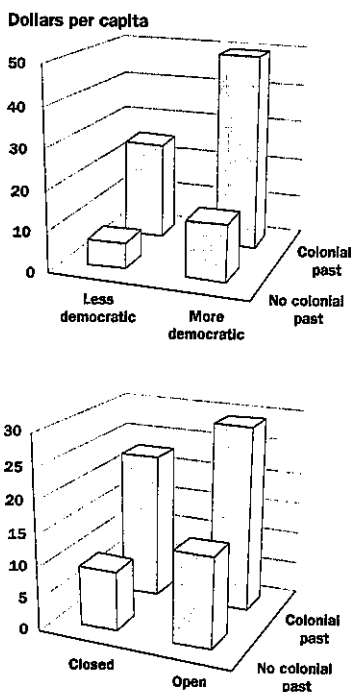
Case studies of aid effectiveness have come to similar conclusions. Again, look at some earlier comparisons: the important role of aid to Bolivia after it reformed, compared with the largely ineffective aid to Nicaragua, which had poor policies throughout the 1980s; or the highly effective aid to Botswana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best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contrast to the many failures in Tanzania.

While it is useful as an illustration to draw a sharp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management, there is in fact a continuum of policy regimes. Many developing countries fall into a gray area between good management and poor. The key recommendation from these findings is not that finance should go only to well-managed countries. Rather, we recommend that aid be allocated on the basis of poverty and economic management.

Projects perform better with better policies and better institutions.

Being a former colony attracts more aid than having good policies.

Figure 6 Bilateral Aid and Colonial Past



Source: Alesina and Dollar 1998.

Among countries with similar poverty levels but different policy regimes, more finance should go to the countries with better management.

The actual allocation of aid has often been influenced by the strategic interests of donors. Although donor behavior differs, total bilateral aid has favored former colonies and political allies more than open economies or democracies. An undemocratic former colony gets about twice as much assistance as a democratic noncolony, and the same is true for a closed former colony compared with an open noncolony (figure 6). As a result, much bilateral aid has gone to countries with poor management. Indeed, countries with poor management have received about the same amount of bilateral aid as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after controlling for per capita income and population).

Aggregating the flows from different donors obscures the different criteria on which aid is allocated. In the Nordic countries, strategic variables—such as a colonial past or United Nations voting patterns—play almost no part in allocations. Nordic aid is targeted to the poorest countries, favoring open economies and democracies. Multilateral assistance has been more effectively targeted than bilateral assistance to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though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Overall, aid is more effective at promoting growth and reducing poverty when it is channeled to poor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A \$10 billion increase in aid would lift 25 million people per year out of poverty—if it favors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By contrast, an across-the-board increase would lift only 7 million out of poverty.

There are two reasons to be optimistic that foreign aid can be allocated more efficiently in the future. First, the end of the Cold War reduces the pressure to provide aid to strategic allies. In a few highly distorted economies (Myanmar, Nigeria, Zaire) aid declined dramatically in the early 1990s. Second, there has been a worldwide trend toward economic reform in developing nations. Thus, a growing number of very poor countries have relatively good policies. Ethiopia, India, Uganda, and Vietnam, for instance, have large populations and many poor people, but have made great strides in economic reform in recent years. Aid targeted to such low-income reformers can have a big effect on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By the same token, large amounts of finance cannot be put to productive use before countries reform. In the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donors need to find other instruments to support development.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Policies

MORE THAN JUST PROVIDING MONEY, FOREIGN AID MUST promote sound policies and help develop institutions. Recent literature shows that policy reforms that are not difficult technically (stabilization and trade liberalization) can add 2–3 percentage points to developing countries' growth. Since average developing country growth has been only 1 percent per capita, that would be a huge improvement.

Much development assistance is aimed at promoting policy reform, and the record is mixed. Such reforms depend mainly on domestic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which are not easy for outsiders to influence. But where development assistance to highly distorted regimes has stimulated policy reform, the nonfinancial aspect of aid has often been the important factor. Thus it is possible for donors to make headway in promoting policy reform in difficult environments without violating the first recommendation—that is, give more money to good policy performers. In poor policy environments, ideas are more important than money.

Some of the most important ways in which foreign assistance promotes policy reform are hard to measure. There has been a worldwide trend toward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1990s, and dissemination by development agencies of ideas about good policy has surely had an influence. Donors and foundations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inancing the overseas education of policymakers. The Berkeley-trained group that designed Indonesia's reform package in the 1970s is a classic example. Many of Latin America's impressive reforms in the 1980s and 1990s were engineered by politicians and officials with advanced training that was partly financed by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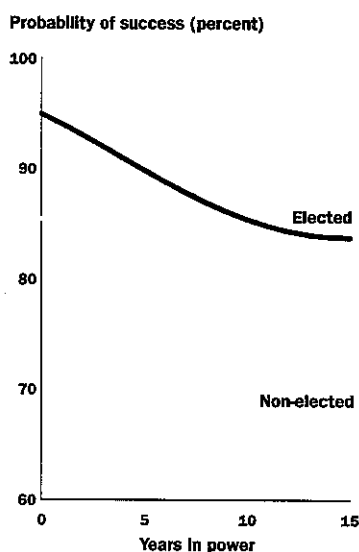
Some efforts may pay off only over a long period. In the early 1990s, for example, the World Bank launched a public education campaign in Ukraine to stimulate debate within civil society about economic reform. Ukraine has yet to achieve really good policies, but the support to popular education may yet have a big payoff.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precise effects of disseminating knowledge, educating officials, and stimulating popular debate. Case studies suggest, however, that they are often important to a successful reform program.

A more straightforward way to promote policy reform through aid is to make financing conditional on the adoption of certain policies—an

Policy reforms depend mainly on domestic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New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reform.

Figure 7 Elections, Tenure, and Probability of Successful Reform



Source: Dollar and Svensson 1998.

approach long follow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and the World Bank. Results have been far from uniform. In many cases policy measures were not carried out, yet loans were disbursed anyway. About a third of the World Bank's adjustment loans fail in that reform objectives are not met: "policy reforms rarely succeed unless the government is genuinely convinced that the reforms have to be implemented and considers the reform program its own" (World Bank 1997a, p. 37). While results improved in the 1990s, further progress—incorporating the lessons of the recent East Asian experience—is still needed.

A recent study foun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adjustment loans could largely be predicted by a country's underlying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eatures, including whether the leader had been democratically elected and how long the government had been in power. A newly elected reform government had a greater probability of success, than an authoritarian government in power for a long time (figure 7). In general, new governments have a high success rate with reform and are good candidates for support. This often includes governments that arise in post-conflict situations. The study also found that variables under the World Bank's control, such as the number of conditions or resources devoted to preparation and supervision,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success or failure of reform.

The implication: conditionality is unlikely to bring about lasting reform if there is no strong domestic movement for change. When domestic constituencies are committed to reform, adjustment loans and foreign aid can help consolidate policy gains in three ways. First, conditional loans are a means by which a reform-minded government can publicly commit to policy measures. Second, conditionality sends a signal to the private sector that a reform program is credible, and this should encourage a quicker response from investors. Third, aid spurs growth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So, if reforms have moved quickly and already improved the policy environment, financial aid will have a big effect, which in turn should help sustain political support for the reforms. This is the conclusion of a review of eight successfully reforming countries in the postwar period (Sachs 1994). Sachs argues that in all cases the government was already committed to reform, but timely foreign assistance played an essential role. What aid did was to "help good governments to survive long enough to solve problems" (p. 512). Donors have gradually learned this lesson, and there is evidence that they have become more selective in providing policy-based aid: in the 1990–95 period, the

success rate of World Bank adjustment loans climbed to 76 percent, compared with 67 percent before 1990 (World Bank 1997a).

Thus, in supporting policy reform, the mix and timing of ideas and finance are crucial for effective assistance. In countries without reform movements, donors can try to nurture them through analytical work,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Such nonfinancial assistance remains important as reform movements develop and consolidate reform plans. The timing of large-scale finance must also be exact. If it comes too early, the emergence of a coherent program can be undermined, and the finance is unlikely to have much effect on growth. If it comes too late, it is an opportunity missed—to increase the effect of reform on growth and to help consolidate the policy regime. In deciding timing, donors should pay attention to the progress of reform, as well as to leading indicators of successful reform (a newly elected government, for instance). Conditionality still has a role—to allow government to commit to reform and to signal the seriousness of reform—but to be effective in this it must focus on a small number of truly important mea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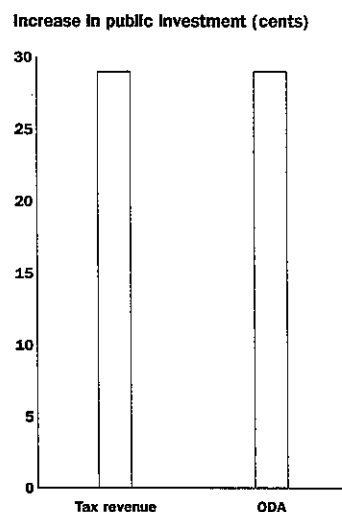
Money Matters—In a Good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COMPOSITION AND EFFICIENCY OF PUBLIC EXPENDITURES affect both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While public provision of some services is crucial, public involvement in others is at best neutral—and at worst distorts the economy and directs attention and resources from more pressing public sector responsibilities. Although most foreign aid has financed specific investment projects, what you see is not necessarily what you get. In many cases development financing is fungible. For instance, although most aid is targeted to finance investment costs, estimates suggest that the net effect of a dollar of aid is to increase public investment by only 29 cents—exactly the amount by which any dollar of government revenue would have raised investment (figure 8). Similarly, an aid dollar used to finance projects in education tends to increase government spending in all sectors to the same extent as a dollar of government revenue from any source.

If aid resources are fungible, the effects of “money aid” and “ideas aid” need to be assessed separately. Fungibility means that a government can

A dollar of aid increases public investment by exactly the same amount as any dollar of government revenue.

Figure 8 Public Investment from One Dollar of Tax Revenue 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Source: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8.

Countries with public sectors that provide effective, high-quality services are prime candidates for large amounts of financial support.

use increased resources as it chooses—to increase spending, fund tax cuts, or reduce the fiscal deficit. The effectiveness of finance depends on the quality of all public investments and expenditures, not simply on aid-financed sectors and projects. This finding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aid. Agencies often hone in on the success rate of individual projects as one measure of their effectiveness. At first glance, this appears to be a focus on “quality.” But it can lead to distorted incentives, depending on the criteria for judging success. Since money is often fungible, the return to any particular project financed by aid does not reveal the true effect of assistance. Moreover, if agencies are evaluated mainly on the success rate of projects (defined narrowly, without accounting for spillover benefits), managers will avoid risky, innovative projects in favor of things that are known to work. With fungibility, the impact of aid is not the same as the impact of the aid-financed project. The return on the finance depends on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public expenditures. In addition, there is the important question of how the project was done differently with donor support, compared with how it would have been done without such support.

Once fungibility is recognized, choosing the level of support and the instrument for providing assistance requires a view on the overall quality of public sector management. But how to judge the composition and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Governments need to choose expenditures carefully, with an eye toward the net impact of additional spending on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nd that depends on what the private sector would supply without government. Too many developing country budgets have been devoted to activities that have no growth potential and no effect on poverty: wasteful and inefficient public enterprises, middle-class subsidies for fuel, electricity, and more, and spending that benefits mainly the rich, such as credit subsidies and free universities. Moreover,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spending is at least as important as its composition. Governments should be judged not on how much they spend but on how much they accomplish.

Countries with public sectors that provide effective, high-quality services are prime candidates for large amounts of financial support, and it makes sense to provide some of this as general financing of the budget. This approach recognizes the reality of fungibility and economizes on the cost (both to donors and recipients) of delivering aid. Studies of foreign aid have long pointed to the problem of poor coordination among donors and the burden that this imposes on developing countries. Delivering

more finance as general support to the budget would alleviate this problem.

As noted, many low-income countries fall into a gray area between good and poor management. Because implementing macroeconomic and trade reforms is technically easier than strengthening institutions (such as the civil service and the rule of law), these countries will often have relatively good macroeconomic policies but inefficient service delivery. Thus there will have to be more support for building institutions and implementing reforms in different sectors—more ideas, less money. A greater share of financing should come through projects whose value added is measured by the degree to which design and implementation helped improve performance in those sectors.

Finally, donors should be more willing to cut back financing to countries with persistently low-quality public sectors. While it is difficult to withdraw support, attempts to work around a poor-quality public sector are unlikely to produce anything worthwhile or lasting. In these cases donor support should be geared less to financing and more to activities that in the long run may lay the groundwork for institutional and policy reform—again, back to ideas, with only enough finance to put the new ideas to work. The general point is that different country environments require different instruments of support.

Donors should be more willing to cut back financing to countries with persistently low-quality public s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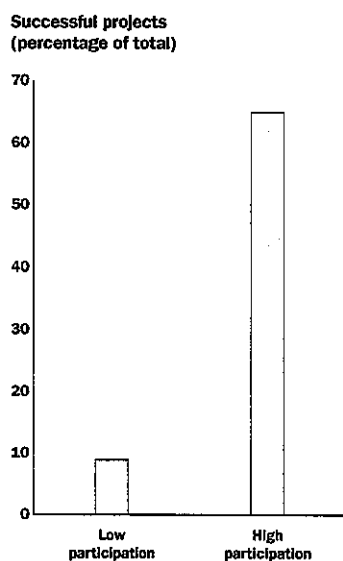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Institutions

MANY IMPORTANT PUBLIC SERVICES—SUCH AS MUCH OF BASIC infrastructure—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allocate through markets. But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that make these services candidates for government involvement also create problems in designing institutions and incentives that would make the public sector efficient. One major development challenge for 2000 and beyond is getting governments to do well the things that governments must do.

Well-designed aid can support effective public institutions and good governance by helping with the experimentation, learning, disse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new ideas on service provision. Where there is demand for change, aid can make a big contribution, often through projects. As noted, the money element of a project does not necessarily stick with a particular sector because government revenues are fungible.

Beneficiary participation can quintuple project success.

Figure 9 Success in Rural Water Supply Projects with Differing Levels of Beneficiary Participation



Source: Isham, Narayan, and Pritchett 1995.

Thus the main rationale of projects must be to support reform of sector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demonstrate new ways of achieving development results.

Various historical, legal,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make each country's situation unique—and often require the generation of new knowledge. Aid can help governments by bringing to bear lessons from their own, or international, experience, and by creating conditions that help experimentation and, more important, evaluation. Aid projects can assist countrie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entire sectors.

Unfortunately, aid has sometimes been part of the problem. Past aid has gone almost exclusively to (or through) central governments and has affected how public services are delivered. Even though some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services more effectively, developing countries tend to have unnecessarily centralized service provision, to which aid has contributed. The traditional design and management of aid packages have also reduced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Donor responses to weak institutions have in the past often been ineffective. Faced with low implementation capacity and pressure to “move the money,” aid agencies have a long history of attempting to “cocoon” their projects using free-standing technical assistance, independent project implementation units, and foreign experts—rather than trying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service provision. In many cases these efforts have been as much, or more, of a failure as efforts to induce macroeconomic policy reform. They have neither improved services in the short run nor led to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ong run.

Aid can help improve institutions and policies at the sector level in many ways:

- Analytical work of donor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has been shown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public projects. In one study an additional \$10,000 in analytical work returned \$80,000 in stronger benefits from projects.
- In a sample of donor-financed rural water supply projects, the success rate was 68 percent for projects with high beneficiary participation, but only 12 percent for projects with low participation (figure 9). More important, donor efforts to promote beneficiary participation helped the adoption of this approach to service provision.
- Comparing project success across countries shows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public investments. In general, more

civil liberties (freedom of the press, freedom to assemble, and so on) lead to more project successes. Effective provision of community services requires that citizens' voices be heard.

- About 40 percent of World Bank projects have had a substantial effect on institutional development—that is, they have helped change the way the public sector does business.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key role of aid projects as a way of providing development assistance is not to move money but to support the creation of an effective public sector. Aid agencies can provide ideas about how to improve services and finance innovative approaches. Learning from these innovations generates knowledge about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This view of development projects has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 choice and evaluation of projects, but for the way aid agencies are designed and evaluated. In particular, the evaluation of projects from the donors' point of view should focus on whether they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the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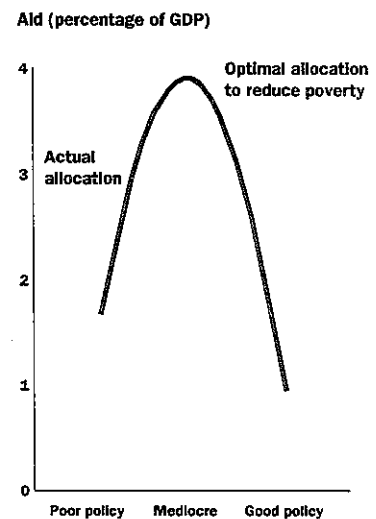
Money, but More Ideas, Too

DEVELOPING COUNTRIES ARE TO A LARGE EXTENT MASTERS OF their own fate. Domestic economic management matters more than foreign financial aid. Economies that lag are held back more by policy gaps and institutions gaps than by a financing gap. Aid as money has a large impact only once count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with reform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Poor countries with good policies should get more aid than ones with mediocre policies—but in fact they get less (figure 10).

Foreign aid has concentrated too much on the transfer of capital with (often) scant attention to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into which resources were flowing. This approach resulted from misunderstandings about development—overemphasizing finance at the expense of policies and institutions—and from external and internal pressures on aid institutions. Disbursements (of loans and grants) were easily calculated and tended to become a critical output measure for development institutions. Agencies saw themselves as being primarily in the business of dishing out money, so it is not surprising that much went into poorly managed economies—with little result.

Poor countries with good policies should get more aid than ones with mediocre policies—but in fact they get less.

Figure 10 Actual Allocation of Aid, 1996, and Optimal Allocation to Reduce Poverty



Source: Collier and Dollar 1998.

So, what ca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sefully do in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Obviously there is no simple answer to this question. Almost nothing positive has happened in Burma (Myanmar) or Nigeria in the past three decades, so it would be hubris to pretend that there is some magic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se and similar countries. Nevertheless, there are examples of successful assistance that has improved the lives of people in such countries.

The final chapter of the report presents four case studies of effective aid under difficult conditions: adjustment without adjustment lending in Vietnam; support to education decentralization in El Salvador, Pakistan, and Brazil; a health financing innovation in Cameroon; and the

Box 5 Stakeholder Views on Aid Effectiveness

IN PREPARING THIS REPORT, THE MESSAGES WERE discussed with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from the developing and developed worlds. Although there inevitably are some differences in views, the extent to which there was broad agreement on what factors account for successes in development assistance is remarkable:

Not surprising, these turn out to be a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conducive to earning high returns from resources applied for development; a leading role by recipient countries in designing and managing development programs which helps elicit commitment to success and open governance to enforce accountability and prudence.

Benno Ndulu,
Head, Africa Economic Research Consortium

The new concept of "ownership," stressed in th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 new development strategy, aims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icacy by apportioning responsibility for costs and risks to those involved.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developing country has the lead role in forming development policy. In participatory development, however, citizens who participate—and bear a share of the burden—work to ensure the project's efficacy. The public draws

up plans, asks for assistance, bears some construction costs, and shares in responsibility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s ensures enthusiastic public participation and maintains project sustainability.

Toru Shinotsuka,
Chief Economist, Japan's OECF

Close partnership with NGOs in development projects has proven effective in enhancing ownership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ereby promoting the sustainability of projects, especially those delivering services to (and empowering) local communities. But the willingness of both donor agencies and recipient governments to involve NGOs is crucial, and, here, the environment is mixed. Not all donors welcome a strong NGO role. Likewise, government receptiveness to NGO involvement—never mind partnership—differs from country to country. Even within countries, it can vary widely among local governments, as in the Philippines. Much advocacy work remains to be done, and the World Bank's leadership in promoting civil society partnership in development cooperation is critical.

Cielito Habito,
Secretary of Socio-Economic Planning,
Republic of the Philippines

Source: OECF/World Bank 1998, 23, 15, 21.

Africa road maintenance initiative. Running through these cases of success in the difficult environments are four themes:

- *Finding a champion.* Countries, governments, and communities are heterogeneous. While it is fair to characterize Burma overall as “poorly managed,” there are likely to be reform-minded elements in the community and even in the government. If aid can find and support these reformers, it can have a big impact.
- *Having a long-term vision of systemic change.* Successful reformers have a vision of how things could be different in 10 years—different both in outcomes (more kids going to school, graduating, getting jobs) and in process (community involvement in schools, broad public support for reform policies).
- *Supporting knowledge creation.* While reformers typically have a long-term vision, they often need to develop the details of reform through innovation and evaluation. Furthermore, for reform to take root requires a demonstration that it actually works. Financing and evaluating innovations is a key role of development assistance.
- *Engaging civil society.* In the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the government is failing to provide supportive policies and effective services. This is why government-to-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produce poor results. Effective aid in this case often involves supporting civil society either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change or to take service provision directly into its own hands.

The foregoing points concern characteristics of promising environments for change and how donors can promote those characteristics. The lessons of successful assistance also provide guidance about donor behavior. Aid is more effective when:

- *Agencies focus on long-term reform.* It is noteworthy that success in difficult environments typically involves intensive staff input from donors and small disbursements of money. It also goes “beyond projects” to support systemic reforms. In the difficult environments, effective assistance is more about ideas than it is about money or projects. Money may be one input, as in the examples in Chapter 5. Projects can also be a useful input. But the focus of assistance in these cases was on supporting people with new ideas or looking for new ideas.
- *Donors work in partnership rather than in competition.* Studies of aid have long pointed to the proliferation of donors and lack of coordi-

For reform to take root requires a demonstration that it actually works.

In cases of successful assistance donors focus on larger transformations, not on individual projects and flags.

nation among them. Well-managed countries force coordination on donors, but in the weak environments they often run amok. It is hard to explain this behavior, except that different donors like to "plant their flags" on something tangible. In the cases of successful assistance, we tend to find strong partnership among donors with a focus on larger transformations, not on individual projects and flags.

As the focus of aid expands to money and ideas, management and evaluation become trickier. Agencies are trying to support policy reform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at both the macroeconomic and sectoral levels. The privileged units of account should be the country or sector program. Individual projects will be important in supporting sectoral development, but they should be evaluated primarily on their contribution, as building blocks and testing grounds, to the reform of sectoral institutions and policies. "Evaluating the Bank's effectiveness can no longer focus only on the project, it must also measure the impact of the full range of bank activities at the sector and country levels. This calls for new evaluation instruments and modalities . . ." (World Bank 1997a, p. 1).

Donor agencies have learned from their success and failures. In the 1990s all of the major agencies have instituted reforms aimed at strengthening the focus on results on the ground. Most agencies have also developed 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so that individual activities now must fit into a larger game plan for policy reform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same vein, the focus of evaluation has risen above the level of the project to overall country program reviews. These essentially ask: Have agencies used their resources to stimulate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that have led to improved services and better quality of life? This is not an easy question to answer. But it is the right one to ask. The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recently sponsored reviews of the overall impact of aid in eight African countries, conducted jointly by scholar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in question and from major donor countries—which seems to be a fruitful approach. Similarly, the shareholders of the IMF recently turned to a group of outside scholars to assess the Fund's support to low-income reformers. And the World Bank has initiated country assistance reviews with input from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Called for are independent reviews of development agencies with strong input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focusing on two questions: Has the bulk of financing gone to sound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s? And have agencies contributed to policy reform and institu-

tional change? Evaluating the right things should feed back into the management and incentives within agencies. With better management and evaluation, development agencies should become:

- *More selective*—putting more money into economies with sound management.
- *More knowledge-based*—using resources to support new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expanding knowledge about what works, and disseminating this information as a core business.
- *Better coordinated*—results-oriented agencies should worry less about planting their flags on particular projects and more about how communities, governments, and donors working together can improve services.
- *More self-critical*—agencies should be asking themselves continually: Why do we do what we do? And what is the impact?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aid effectiveness and with the end of Cold War strategic pressures, there is reason to be optimistic that reform of aid agencies will succeed.

There is reason to be optimistic that reform of aid agencies will succeed.

Notes

1. Even a partial list would include books by those outside aid agencies (Cassen 1986, updated in 1994; Riddell 1996; Mosley 1987; Krueger, Michalopoulos, and Ruttan 1989), various institutional evaluations, and large bibliographies on specialized topics, such as aid and macroeconomics (White 1992), policy-based lending (Killick 1991), aid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iddell, Bebbington, and Peck 1995), and aid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World Bank 1998b).

2. Because of data availability, the focus of this study is assistance from OECD countries to the developing world. It does not cover South-South aid (for example, from Kuwait or Saudi Arabia) or the Soviet Union's extensive foreign aid.

3. The report focuses on international efforts to support long-term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the developing world. There are other important typ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ot covered by the study, such as efforts to reduce cross-border narcotics traffic or to pro-

mote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Furthermore, humanitarian aid, which accounts for less than 10 percent of development assistance and focuses on short term mitigation efforts, is a separate issue not addressed in this report.

4. The oft-made suggestion that the early consensus was on physical investment and that the new consensus is a shift to human investment is belied by the literature and by reality. Gunnar Myrdal's classic *Asian Drama*, written in the 1950s, signaled the intellectual shift to roughly equal emphasis on physical and human capital.

5. It would be wrong to be overly critical of earlier views or those who held them, as economics is an inexact science and reading the evidence is difficult. A 50-year-old development economist making policy in 1960 would have witnessed in his or her lifetime: the Great Depression, the success of World War II planning in ending unemployment and raising wartime production, the spectacular rise of the Soviet Union under central planning, and the catch-up of Japan to the European powers.

Money Matters—In a Good Policy Environment

Many of the measures that promote long-term growth also help reduce poverty.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RECEIVED large amounts of foreign aid over long periods. But has aid reduced poverty and infant mortality or increased per capita income and private investment? Would more effective aid raise incomes and significantly lower poverty in the future? And can aid's effect on poverty be improved by reallocating it from some countries to others?

All aid is ultimately aimed at promoting growth and reducing poverty, whatever the immediate objectives. In an ideal world, \$1 million of aid to one country would have the same marginal effect on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as channeling the same amount to another country. In the real world, this does not happen. Some countries benefit more than others. Why? Aid effectiveness largely depends on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of recipient countries. Where economic management is sound, aid leads to higher private investment, more rapid growth, lower infant mortality, and a faster decline in poverty. Where economic management is poor, aid has little effect on development.

The next section of this chapter briefly reviews the divergent growth experi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Growth helps reduce poverty and improve social indicators, which is why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growth is important. Then some stylized facts about growth, institutions, and policies are examined, and the question asked: why should aid affect growth? After that,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growth, aid and poverty reduction, and aid and private investment. Then another question: how has aid—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been allocated? Finally, recommendations are made on how aid can be made more effective.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Fortunes

IN 1966 ETHIOPIA, INDIA, AND THAILAND WERE ALL POOR COUNTRIES. In each society a majority of people were living on less than \$1 a day (in 1985 prices). Compared with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India did well, doubling real per capita income between 1966 and 1990, and reducing poverty to 53 percent of the population. But over the same period Thailand did very well, tripling per capita income and cutting poverty to just 2 percent. This difference is what Robert Lucas means by the “staggering consequences for human welfare” of different rates of growth and development. The contrast between Thailand and Ethiopia is even starker. In 1966 Thailand had about four times Ethiopia’s per capita income. By 1990 Ethiopians had seen no income growth, and Thailand was more than 10 times wealthier.

Growth matters not for its own sake, but because it raises living standards. Of every 1,000 babies born in 1967 in Thailand, 84 did not survive the first year of life. By 1994 that figure had been cut by nearly two-thirds. India and Ethiopia also made progress, but not as much. In India infant mortality fell by a half over this period. In Ethiopia it fell by only 27 percent. Other social indicators tell a similar story. By 1990 Thailand had achieved universal primary education for girls, while the figure for India was 91 percent and for Ethiopia, 19 percent.

Growth does not eliminate poverty and deprivation, but per capita incomes and social indicators tend to improve (or deteriorate) together: life expectancy, school enrollment, infant mortality, and child malnutrition are all closely related to per capita income. Although there have been great improvements in living standards globally, the huge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show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Take infant mortality: in nearly every developing country it fell between 1967 and 1994. The extent of the decline, however, varied widely (figure 1.1). Economically stagnant countries such as Zaire (now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thiopia, Niger, and Zambia saw only modest falls, while such faster-growing countries as Botswana, Chile, Lesotho, Mauritius, and Tunisia saw improvements of 70 percent or more.

Rising incomes of the poor expand their capacity to improve their health, education, and living standards. Moreover, many of the measures that promote long-term growth—basic education or an open trade regime, for example—also help reduce poverty. But economic growth does not solve all ills: environmental degradation, crime and violence,

“Rates of growth of real per capita GNP are diverse, even over sustained periods. For 1960–80 we observe, for example: India, 1.4 percent per year; Egypt, 3.4 percent; South Korea, 7.0 percent . . . Between the 60s and 70s, Indonesia’s growth increased from 3.9 to 7.5.”

“I do not see how one can look at figures like these without seeing them as representing possibilities. Is there some action a government of India could take that would lead the Indian economy to grow like Indonesia’s? If so, what, exactly? The consequences for human welfare involved in questions like these are simply staggering. Once one starts to think about them, it is hard to think about anything el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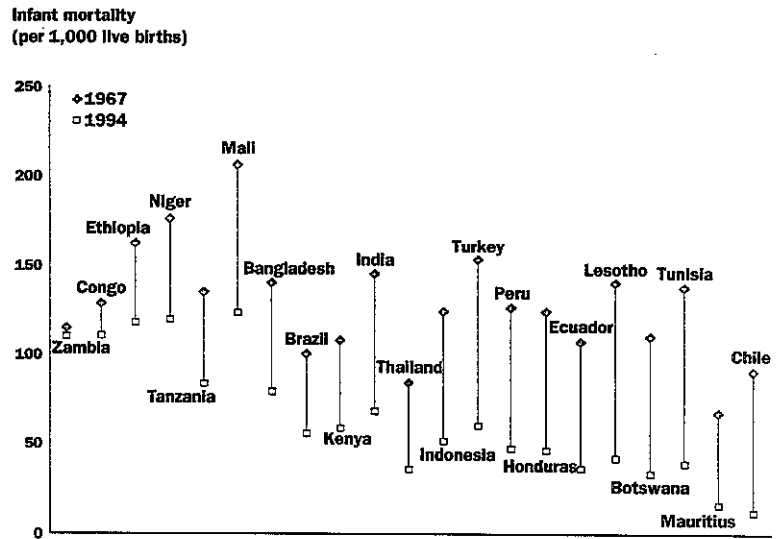
Robert E. Lucas, Jr.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p. 4–5

From the same starting points in 1967, infant mortality fell to 33 per thousand in Botswana in 1994 while remaining virtually unchanged at 110 in Zambia.

Figure 1.1 Infant Mortality in Selected Countries, 1967 and 1994



Sourc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sex discrimination, social exclusion, and the like may or may not improve with income. When people improve their status from low to middle income, new challenges emerge for society. Consider, for example, the choking haze—from fires set to clear plantations—that enveloped Southeast Asia in the summer of 1997. Or the many developing country cities that have severe problems with traffic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Still for low-income countries, generating self-sustaining growth is a crucial first step in development. If Ethiopia's total output were divided evenly among households, everyone would be poor. Growth (an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is clearly required to solve poverty and its problems: malnutrition, poor health, and lack of education and basic social services.

Overall, developing countries have made tremendous progress: more babies are surviving, more food is on the table, more children are in school, and there are fewer deaths from easily preventable diseases. There has been more global improvement in life expectancy in the past 40 years than in the previous 4,000 (World Bank 1993). The revolu-

tionary expansion of education can be seen across generations: 62 percent of Chinese in their sixties received no schooling as children, compared with just 5 percent of young adults. In Indonesia 80 percent of 60-year-olds had no schooling, compared with just 15 percent of young adults.

But in all dimensions, progress has been uneven geographically. The greatest improvement has been in fast-growing economies. Since World War II, developing countries have fallen into three categories: fast growers, slow and stalled growers, and nongrowers and reversals (Pritchett 1998). A small but significant group—Botswana, Indonesia,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iland—has grown much faster than industrial countries (table 1.1). The gap between these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the leader in income) has narrowed impressively.

Countries can, and do, move in (and out) of the group of fast growers. Many were sure that Korea was a basket case before growth took off in the early 1960s. Indonesia in 1966 was plagued by slow growth, high inflation, and social unrest. Before the boom in 1974, Mauritius's GDP per capita was lower than in 1960. Other countries have joined the high-growth set more recently: China since the late 1970s, and Chile since 1984. Countries also fall out of the fast-grower set. Brazil's growth was 4.2 percent from 1965 to 1980 but then -0.2 percent from 1980 to 1992. And Indonesia's growth will certainly slow as a result of its current crisis.

Slow growers, with growth rates similar to those of industrial countries, include Bangladesh, India, Malawi, and Pakistan. They have not been falling behind, but they are not catching up either. In 1990 per capita income in the United States was 18 times India's, about the same as in 1966. But since per capita income roughly doubled for each country, the absolute gap is now much wider. Slow-growing countries have seen some improvement in poverty and social indicators, but not nearly as much as the fast growers.

For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in the world, there has been no per capita growth in recent decades, or even (especially recently) substantial decline. Many of these people live in Africa: for instance, Côte d'Ivoire, Ethiopia, and Zambia. Non-Africans include Haitians, Nicaraguans, and Iranians. In relative terms, these countries are falling further behind the rest of the world. In 1966 per capita income in the United States was 20 times Zaire's; now it is 50 times.

Table 1.1 Real Per Capita Income Relative to the United States

	<i>Percentage of U.S. income</i>	
	<i>1966</i>	<i>1990</i>
<i>Fast growers</i>		
Botswana	4.7	12.5
Indonesia	5.0	10.9
Korea, Rep. of	9.6	37.0
Thailand	10.1	19.8
<i>Slow growers</i>		
Bangladesh	8.8	7.7
India	5.4	7.0
Malawi	3.6	2.9
Pakistan	7.3	7.7
<i>No growers</i>		
Côte d'Ivoire	11.6	6.7
Ethiopia	2.4	1.8
Haiti	7.3	4.5
Iran	29.0	18.8
Nicaragua	18.7	7.2
Zaire	5.1	2.2
Zambia	8.5	3.8

Source: Summers and Heston 1991.

Why the Divergence?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hat good macroeconomic management provides a fertile environment for growth.

HOW TO EXPLAIN THESE WIDELY DIFFERING GROWTH PERFORMANCES? It was once thought that the key factor holding back poor countries was a lack of savings and foreign exchange for investment. Part of the initial rationale for foreign aid was to help countries overcome a "savings gap" to finance necessary investment and a "foreign exchange gap" so that imported machinery could be the cornerstone of that investment. Development agencies worked with a "two gap" model that made imports and investment in physical capital the driving force of growth. The role of aid in promoting growth was clear, since aid can help fill both gaps.

The slow stagnation and sudden collapse of the Soviet system of central planning, which was the intellectual father of "gap thinking" and development planning, made it clear that investment alone cannot guarantee growth. In the 1990s the focus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work on growth has gone deeper. Emphasis has shifted from investment to incentives. That is, from capital to the underlying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promote growth by encouraging efficient investment, by supporting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by facilitating technological adv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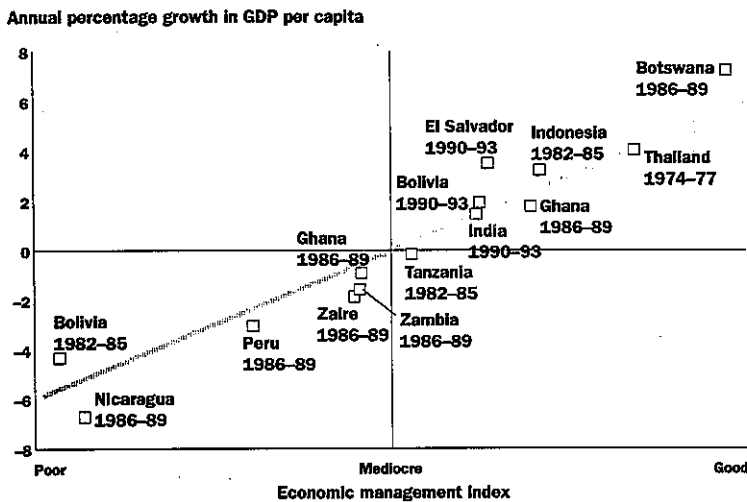
What are the conclusions of this new growth literature?

A stable macroeconomic climate is crucial. High inflation is bad for investment and growth (Fischer 1993). Similarly, large fiscal deficits hold back growth (Easterly and Rebelo 1993). An outward orientation and a reasonable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engagement are essential: most trade liberalizations accelerate growth (Sachs and Warner 1995).¹ Fiscal, monetary, and trade policies show whether a country is well managed at the macroeconomic level, and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hat good macroeconomic management provides a fertile environment for growth.

Good institutions and economic management are also needed at the microeconomic level. The strength of private property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the quality of the civil service affect long-term growth (Knack and Keefer 1995). Similarly, corruption in the public bureaucracy is bad for growth (Mauro 1995).

For their studies of aid and growth, Burnside and Dollar (1997, 1998) compiled a dataset covering 56 aid-receiving developing countries and averaging growth, aid, and other variables over four-year periods (starting with 1970–73 and ending with 1990–93). They created an economic management index based on the Sachs-Warner measure of openness, the

Figure 1.2 Economic Management and Growth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Source: Burnside and Dollar 1998.

budget surplus, the inflation rate, and a measure of institutional quality. Obviously there is more to economic management, but these serve as a useful, and measurable, proxy.² The relationship between per capita growth and the economic management index reconfirms that sound management—at both the macroeconomic level and institutional levels—is important for growth (figur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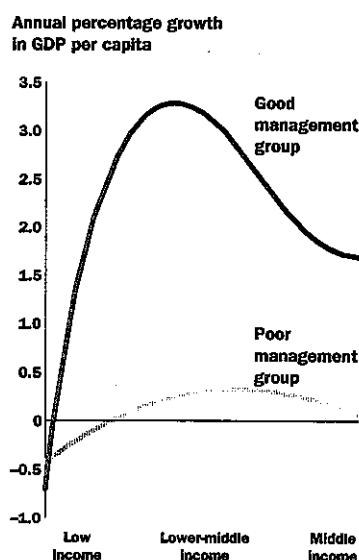
This finding suggests that poor countries have been held back not by a financing gap, but by an “institutions gap” and a “policy gap.” If they can overcome them, they can begin to grow successfully. Botswana and Thailand are examples of good management—Tanzania and Zambia of poor. The difference in management between, say, Thailand and Tanzania may have been worth about 4 percentage points of growth. (Note that while Indonesia had solid macroeconomic policy, it scored badly on the measure of institutional quality.)

Countries can reposition themselves over time. Bolivia and Ghana had poor management in the early 1980s, but became good-management countries in the 1990s. The macroeconomic policies included in this index can be changed quickly if society and government want to reform. Other institutional aspects of good management, such as the rule of law, take longer to improve (North 1990).

Countries with better policies can grow faster, and reform can get them there—as in Ghana and Bolivia.

Poor countries have the potential for rapid growth.

Figure 1.3 Growth Rate and Income Level



Source: Burnside and Dollar 1998.

Growth rates are also much more volatile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industrial countries (Easterly and others 1993). Developing countries may grow at 5 percent per capita in one four-year period, and then at -3 percent in the next. Empirical studies of growth can explain about half of the variation in growth rat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In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 . .

THERE ARE POTENTIAL ADVANTAGES TO BACKWARDNESS, BUT these can be realized only with good policies (Sachs and Warner 1995). The Burnside-Dollar sample can be divided into good and poor management groups,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t the beginning of a period and subsequent growth (figure 1.3). Among the good-management group, middle-income countries grow faster than high-income ones. The superstars—the East Asian tigers (before the 1997 crisis) or Chile—are found in the good-management, middle-income group, which grew much faster than high-income countries. By and large, good-management middle-income countries attract a lo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earn technologies from more advanced economies, and have investment with a high return to capital. They are catching up with the industrialized world, but as they move closer growth tends to slow, as there are fewer opportunities to learn, and the return to capital diminishes. In contrast, with poor management there is no advantage to backwardness: such countries grow slowly at all income levels. Countries that cut themselves off from globalization (through restrictive trade practices and unstable macroeconomic policies) are the biggest losers.

When low-income countries, such as Mali, put good policies in place, they perform better, but they still do not match the results for the middle-income countrie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These countries may have other characteristics that hurt growth—being landlocked, for instance.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their ability to save and invest is hampered by poverty itself, even when good policies are in place. If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were perfect, private money would perhaps flow to seriously reforming countries. But imperfections mean that private investors cannot accurately assess the situation and may hold back, undermining what would otherwise be a successful reform program.

This suggests a role for foreign aid in sparking developing country growth. Financial aid to poor countries that have good policies should have a high return. It can help them accelerate to rapid growth. On the flip side, there is no reason to suppose that pouring aid into poor-management countries will accelerate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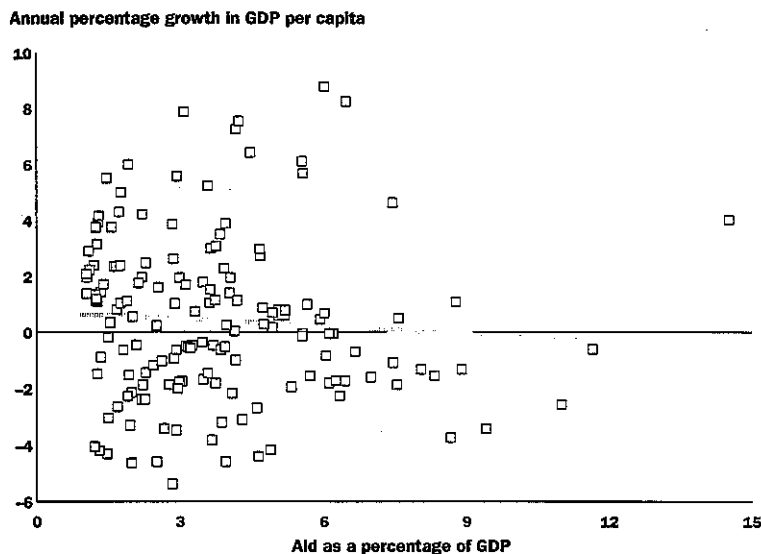
Development assistance can also encourage policy reforms (how it can do so is the subject of the next chapter). Serious reform can add 2–3 percentage points to growth. This would make an enormous difference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have had little or no growth in per capita income over the past 25 years.

... Aid Spurs Growth

The simpl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per capita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is weak, if it exists at all (figure 1.4).³ Some countries get a great deal of assistance and grow slowly (Zambia, for instance) while others also get a lot and grow quickly (Botswana, Ghana).

From this simple starting point, there are two problems in analyzing the effect of aid on growth. First, other factors that affect growth must be

Figure 1.4 Aid and Growth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1970–93



Source: Burnside and Dollar 1998.

Some countries received a lot of assistance, and incomes fell—some countries received little aid, and incomes rose.

in its management index leads to an increase in growth of 1.3 percentage points. With twice that amount of aid the effect of good management is even stronger—growth is 1.9 percentage points higher.

Other researchers have reached similar conclusions. In a recent study comparing aid effectiveness in Bolivia, Costa Rica, and Nicaragua, Cecilia Lopez, Colombia's Minister of Planning, found that aid did not have much effect on growth in Nicaragua because of the country's highly distorted policies—a large fiscal deficit and high inflation. Aid was largely effective in Bolivia, which successfully completed a reform program in the 1980s. Lopez's conclusion from the three case studies:

Policies have a critical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of aid, for the same reasons that they affect economic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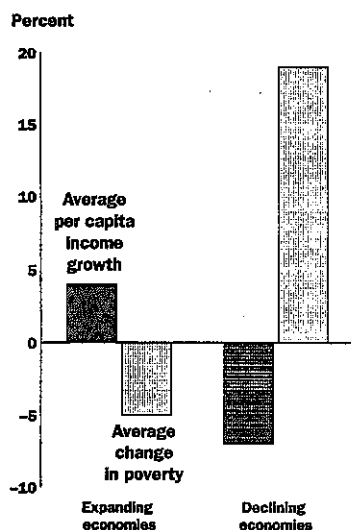
- Foreign aid in itself is neutral with respect to development, for its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depend on government policies. Effects on economic development will tend to be positive when aid is used to build up capital or to finance public investment that contributes to the profitability of private capital, or for human capital development.
- Fiscal policy should generate government's current savings, so that both domestic and foreign resources finance public investment. If this does not happen, foreign resources may end up financing the government's current expenses and not investment projects, as happened in Nicaragua.
- The relationship between aid's positive effects and good domestic policies always holds, even during adjustment (Lopez 1997).

A study of seven African countries by researchers from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under the auspices of the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pointed to good economic policies as a key precondition for successful assistance:

"Clearly, the large influx of aid has not fostered rapid economic growth in most African countries and has been only partly successful in poverty alleviation. How can one reconcile this lack of success with the field-level evidence just cited and reach a clear verdict on aid's economic impact? Unfortunately, a number of factors prevent the establishment of a clear link between aid and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economy. First, government economic policies themselves can prevent aid from having the impact it otherwise would have. Policies have a critical influence on the effectiveness of aid, for the same reasons that they affect economic growth;

***In declining economies
an average drop of 7
percent in per capita
income led to an
increase in poverty of 19
percent.***

Figure 1.6 Economic Growth and Poverty



Source: Ravallion and Chen 1997.

economic policies that engender balance of payments difficulties, high budget deficits, or high rates of inflation are likely to foster a climate of economic uncertainty, which dampens the private sector's response to the public investment represented by aid. A classic example of such a phenomenon is an aid-funded agricultural extension project that does not achieve its objectives of output or productivity growth, because macroeconomic policies have resulted in an overvalued exchange rate, which makes the farmer's output noncompetitive. Similarly, policies that create extensive market distortions are likely to undermine the quality of scarce resource use, resulting in socially suboptimal outcomes. Taking up the example of the agricultural extension project, farmer response is muted because the government's agricultural policies provide farmers with disincentives to adopt yield-enhancing new technologies. These are not fortuitous examples: by the mid-1980s, most experts were convinced that donor and government attempts to expand and modernize agriculture in many African states had been largely undone by macro and sectoral policies that were exacerbating the impact of the decline in world prices for agricultural commodities. They credited the prevailing policy environment with the superior performance of the agricultural sector in Kenya, for example, and the poor performance in Tanzania and Zambia" (van de Walle and Johnston 1996, p. 36–37).

... Aid Reduces Poverty

The main aim of aid is to reduce poverty. Poverty re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is closely related to per capita income growth. Development economists used to worry that the benefits of growth would be undone by increases in income inequality as poor countries developed. Recent evidence has shown conclusively, however, that this is not so.

One study examined trend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for 45 countries for which high-quality household income or expenditure data are available over time (Li, Squire, and Zou 1998). In 29 countries there has been no trend in either direction. The remaining 16 countries are divided: 8 have shown rising inequality, 8 declining. If income distribution does not change much over time, the gains in per capita income will affect different segments of society to about the same degree. Thus, in countries with rapid growth, incomes of the poorest will rise rapidly and the inci-

dence of poverty will decline. But in countries with no per capita growth and a stable income distribution, there will be no poverty reduction.

Another study examined recent per capita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n 67 countries for which household data were available. It found that every country with increasing per capita household income saw poverty decline, and every country with declining per capita income saw poverty increase. In the expanding economies, per capita income grew 4 percent, and poverty declined 5 percent. In declining economies an average drop of 7 percent in per capita income led to an increase in poverty of 19 percent (figure 1.6).

Poverty data are not available for all countries and time periods in the Burnside and Dollar study, so direct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aid is impossible. But according to Bruno, Ravallion, and Squire (1998), on average a 1 percent increase in per capita income in developing countries reduces poverty by 2 percent. Put another way, in countries with sound management an extra 1 percent of real GDP in aid results in a 0.5 percentage point increase in growth and hence a 1 percent decline in poverty. In countries with poor management the expected effect of aid on poverty reduction is far l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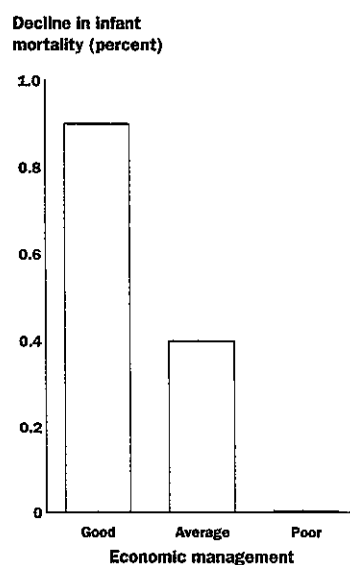
Aid can affect well-being in many ways. Consider changes in infant mortality, an important social indicator for which data are widely available. Burnside and Dollar found that aid helps reduce infant mortality if a country has good management—an extra 1 percent of GDP in aid leads to a decline in infant mortality of 0.9 percent (figure 1.7). In contrast, if a country has poor management, there is no marginal impact from another 1 percent of GDP in aid.

... Aid "Crowds in" Private Investment

The impact of aid on growth in good-management countries is high. This may be because once good management is in place, there are high-productivity public investments to be financed by aid. If an economy is growing rapidly, the return on investment in road rehabilitation, for example, is high. If the economy is stagnant, the return is lower or nonexistent. Similarly, economic growth makes it easier to get children into school and have a high return from this investment in human capital. In a sluggish economy the incentives to send children to school are weak. Thus, with good management in place, aid helps government make more of these high-return expenditures. Evidence at the microeconomic level supports this finding. Public investments financed by the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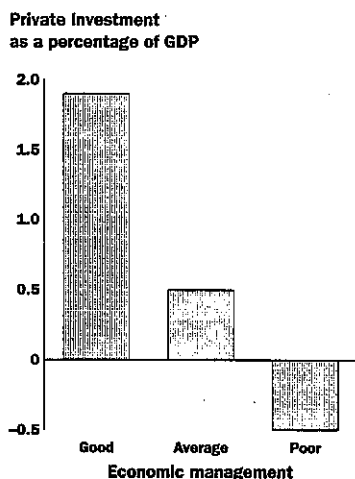
With good management an extra 1 percent of GDP in aid leads to a decline in infant mortality of 0.9 percent.

Figure 1.7 Decline in Infant Mortality from a Percent of GDP in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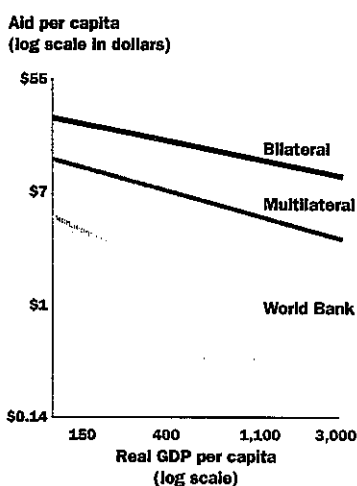
Source: Burnside and Dollar 1998.

Figure 1.8 Marginal Impact on Private Investment of a Percent of GDP in Aid



Source: Dollar and Easterly 1998.

Figure 1.9 Bilateral, Multilateral, and World Bank Aid Per Capita and Income Level



Source: Calculated from Burnside-Dollar dataset.

for instance, have more success in a good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86 percent, compared with only 48 percent in a weak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see overview figure 5).

There is another possible explanat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growth—that when a poor country puts good policies in place, domestic and foreign private investors are uncertain about the sustainability of the reform. If there is fear of reversal, investors will wait. And even with good management, low-income countries are hamstrung by other impediments, including weak infrastructure. Foreign aid to reforming governments may improve the environment for private investment—both by creating confidence in the reform program and helping to ease infrastructure bottlenecks.

In a poor-management country foreign aid may crowd out private investment: it may encourage the public sector to make commercial investments that would otherwise be undertaken by private investors. In a good-management country the effects of foreign aid would likely be magnified by crowding in private investment.

There is evidence to support these notions (Dollar and Easterly 1998). One percent of GDP in assistance increases private investment an extra 1.9 percent of GDP in good-management countries (figure 1.8). Thus the combination of good management and foreign aid is welcomed by the private sector, and this helps to explain the strong effect aid has on growth in such an environment. In a poor-management country, however, 1 percent of GDP in aid is estimated to reduce private investment by 0.5 percent of GDP, which may explain why the net effect of such aid is small.

These findings for the effect of aid on growth and private investment shed some light on the problems of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and how they can be helped (box 1.1).

Aid Has Not Favored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TARGETING ASSISTANCE TO POOR COUNTRIES WITH SOUND institutions and policies will make the most of scarce aid resources to encourage investment, spur growth, and reduce poverty. But between 1970 and 1993 aid allocations—by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were dominated by politics—both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the Cold War and the internal politics of aid agencies.

Foreign aid is targeted to poor countries—but imperfectly. Bilateral aid per capita received by developing countries has a weak, negative relationship with their per capita income (figure 1.9). Generally, a doubling of per capita income leads to a 33 percent reduction in aid. But the behavior of bilateral donors varies widely (Ehrenpreis 1997). Half of all Swedish aid has gone to the poorest 12 percent of countries (weighted by population); of all bilateral aid, only 20 percent went to these countries. Another study also found that Canadian, Dutch, and Nordic assistance is sharply targeted to poor countries (Alesina and Dollar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per capita and income is stronger for multilateral aid than for bilateral and stronger still for the World Bank's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facility, which is part of multilateral aid. For IDA, a doubling of per capita income has been associated with a 90 percent reduction in aid per capita.

Another important factor in aid allocation is population. Countries that have small populations get more assistance per capita or more rela-

Box 1.1 Aid and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ARE LOW-income countries that have debt they cannot service. The problem arises not largely from foreign aid (which is mostly grants), but because these countries borrowed too much from private capital markets or from official sources at near-commercial interest rates. How did they get into such trouble? And how can they be helped?

These countries had poorer management in the 1970s and 1980s than other low-income countries, and showed virtually no per capita growth in 1970–93. Even so, they were able to run up large amounts of debt. These borrowings were not put to good use and certainly did not generate a high enough return to repay the lo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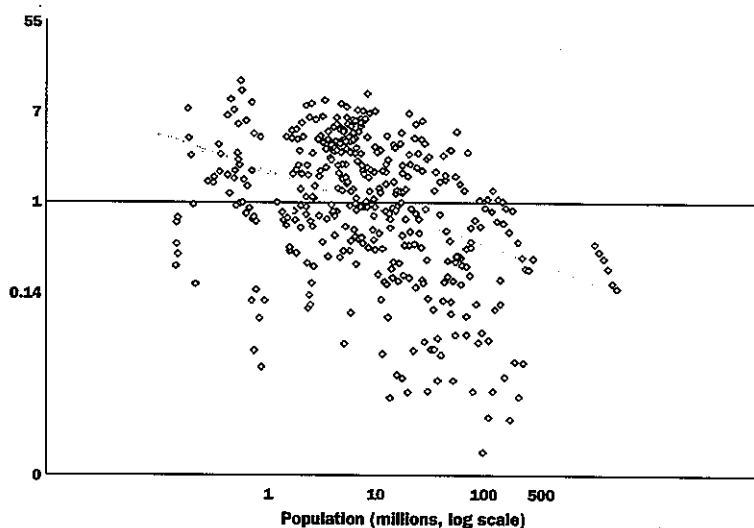
In the 1990s highly indebted poor countries have been receiving extraordinary amounts of aid to service these debts—about twice as much as they should have, based on per capita income, population, policies, and so on. Despite the assistance to service these debts, the large debt overhang creates an uncertainty

for the whole economy. What happens if donors lose interest in these extraordinary aid allocations to service debt?

The World Bank, the IMF, and other donors have started an initiative to forgive large amounts of this debt, which should give these countries more resources to provide important public services. An additional benefit of debt relief will be to improve the climate for private investment. Removing the unpayable debt, once and for all, will relieve uncertainty. Benefits from debt relief will be greater if countries have undone the poor management practices that contributed to their troubles in the first place. Debt relief is a form of aid and will have a greater impact in a good-management country. Removing the debt overhang for those with poor management is not likely to produce significant benefits. For these reasons, the debt reduction initiative for heavily indebted countries requires a track record of policy reform. The first countries to benefit from debt reduction in the mid-1990s—Uganda, Bolivia—successfully reformed policy.

Figure 1.10 Aid and Population

Aid as a percentage of GDP (log scale)



Source: Calculated from Burnside-Dollar dataset.

tive to GDP (figure 1.10). This makes sense for some assistance. For instance, it costs about the same to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entral bank of India as to the central bank of Lao PDR. But if aid is financing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or road construction, there perhaps should not be such discrimination against large countries. More than half the world's poor live in India and China: in 1990–93 they received \$2 and \$1 per capita in aid. Yet small countries often receive \$50 per capita or more. This discrimination against large countries is one reason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llocation and income is not strong.

A second factor that undermines this relationship is that aid allocation often depends on the political or strategic interests of donors—for example, U.S. aid in the Middle East or European aid to former colonies. Burnside and Dollar (1997) found that political factors help explain the allocation of bilateral aid, but that multilateral aid is not strongly influenced. These factors are not important for only a handful of bilateral donors—Canada, Denmark, Finland, Netherlands, Norway, and Sweden (Alesina and Dollar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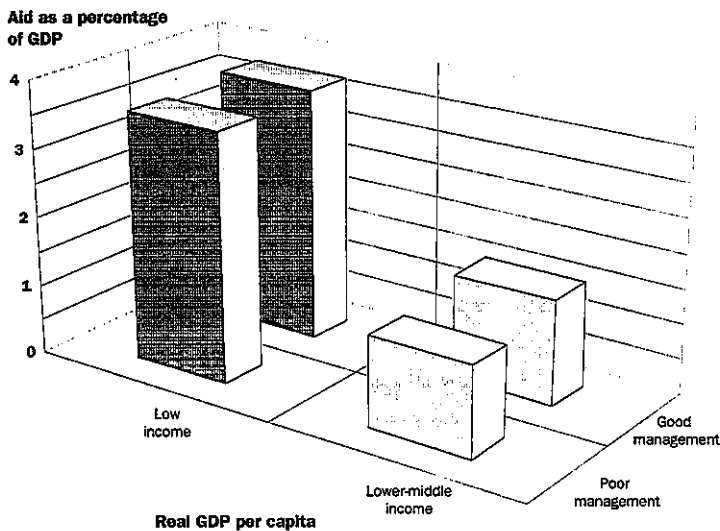
The dual objectives—pursuing strategic goals and rewarding good policies—work against each other. This can be seen by looking at the cor-

relation between bilateral aid and management (figure 1.11). So, how have bilateral donors treated two countries with the same income and population but different management? Good and bad management regimes have received roughly the same average assistance. Being a former colony of a major donor is more valuable in attracting bilateral assistance than having good management (Alesina and Dollar 1998).

The allocation of multilateral aid has depended on income, population, and good management. Political and strategic considerations were not significant. Thus, for multilateral aid, lower-middle income countries with good management received 30 percent more than the typical poor-management country with the same income and population (figure 1.12). For very low-income countries the difference between good management and poor management has been minor.

Since mos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s bilateral, the allocation of all aid together (multilateral and bilateral) shows little relationship with the quality of country management. Cold War aid driven by strategic considerations may have accomplished its political goals, but aid that went to countries with poor management did little to reduce poverty.

Figure 1.11 Allocation of Bilateral Aid, 1970–93



Source: Calculated from the Burnside-Dollar dataset.

Be Focused

At the moment plenty of countries combine mass poverty with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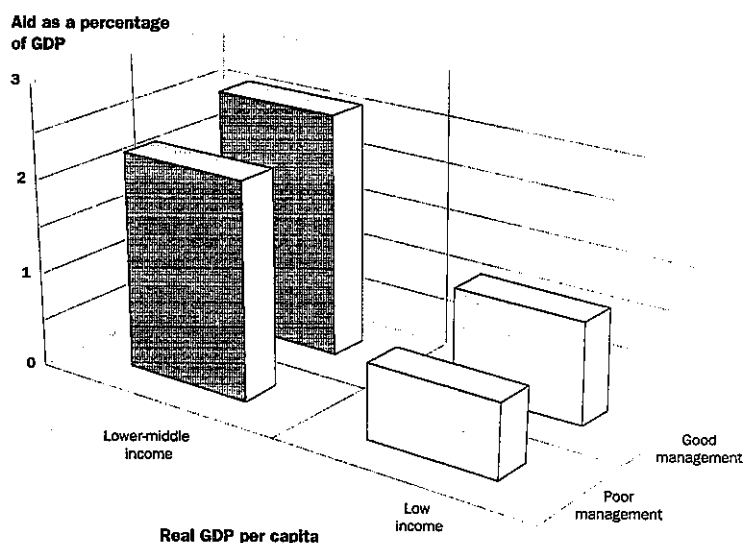
Clearly, development assistance needs to be more concentrated on where it can be most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It needs to take more account of the environment in which it is placed. Finance is most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in those countries that have both mass poverty and a good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Conversely, it is less effective in countries that already have relatively little poverty, or have poor policies and weak institutions.

But is there much scope for a more focused approach? Perhaps mass poverty is so strongly linked with poor policies and weak institutions that we just don't find the combination of mass poverty and good policies in which aid is highly effective? Not so. At the moment plenty of countries combine mass poverty with good policies and institutions. Why? Because of the wave of policy reform and institution building that has swept through poor countries during the 1990s.

Figure 1.13 classifies 113 developing countries based on their incidence of poverty and the quality of their policies in 1996.⁴

What creates a great opportunity for foreign aid is the upper-right-hand quadrant. Thirty-two countries have poverty rates above 50 per-

Figure 1.12 Allocation of Multilateral Aid, 1970-93



Source: Calculated from Burnside-Dollar data set.

cent, and also have above average policies. In such conditions aid is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poverty. Some of the countries in this quadrant are among the poorest in the world: for example, Ethiopia, Uganda, Mali, and India. This is the *High Impact* quadrant for 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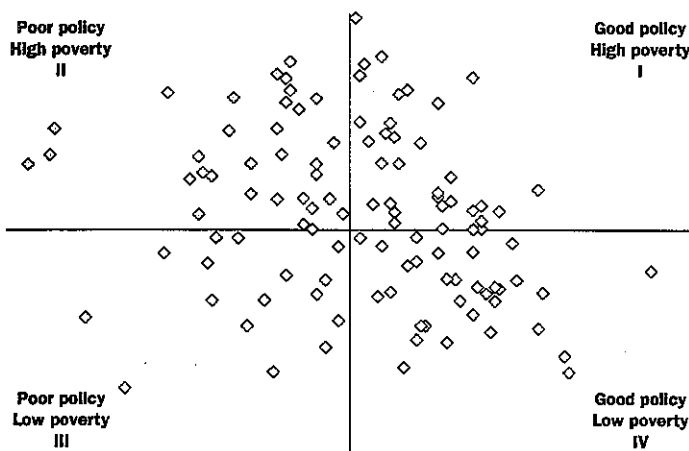
Conversely, in the bottom-left-hand quadrant aid is radically less effective. Sixteen countries already have a low incidence of poverty, as well as below average policies. There are fewer poor people to help, and aid does less for them because it is handicapped by the poor policies.

In the remaining two quadrants aid is less effective than in the *High Impact* quadrant.

In the upper-left-hand quadrant there are 32 countries with poverty rates above 50 percent. There are millions of poor people in these economies in need of help, but unfortunately the policy environments are not good enough for aid to have much effect. The priority for the world community in these countries is to help in the domestic political and social process of policy change: that is, in contributing knowledge rather than big finance. Of course, some financial flows provide opportunities for dialogue and knowledge transfers. But aid to these economies has to be justified more for its indirect contribution to policy change than for its direct effect on poverty reduction.

Why? Because of the wave of policy reform and institution building that has swept through poor countries during the 1990s.

Figure 1.13 Poverty and Policy, 113 Developing Countries, 1996



Source: Collier and Dollar 1998.

An across-the-board \$10 billion increase in aid would lift 7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while a targeted increase could lift 25 million out of poverty.

In the lower-right-hand quadrant there are 31 countries that have above-average policies. Aid works in these environments, but there is less work for it to do, since there is already a low incidence of poverty.

So, there is certainly scope for a focused approach to aid: financial assistance to *High Impact* countries is far more effective than in countries in other quadrants. But is there scope for aid to be *more focused* than it is at present? Surely, donors are already taking into account poverty and policies in determining where to allocate finance—aren't they?

Actually, not very much. To see this, suppose that the world community raised an extra \$10 billion and allocated it proportionately to existing aid allocations. So allocated, this extra aid could raise 7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Now suppose instead that the \$10 billion were allocated to the *High Impact* quadrant. The extra impact would be dramatic: 25 million people would be raised out of poverty (Collier and Dollar 1998).

Being more focused can thus spectacularly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id in reducing poverty. Nearly four times as many people could be lifted out of poverty for a given amount of aid. And of course, if aid became much more effective, there would be more of it. Rapid poverty reduction is the major global challenge: demonstrated effectiveness can be expected to produce greater support for aid.

Notes

1. All three of these studies consider whether good policies bring about growth or growth spurs good policies—and conclude that policy reform leads to more growth.

2. Collier and Dollar 1998 show that the finding that aid has more impact in a good management environment holds in the 1990s using a much broader measure of institutions and policies, including issues such as corruption, governance, equity, and safety nets. For research purposes, this broader measure has the disadvantage that it is not available back through time.

3. For the growth analysis, aid is measured relative to GDP at purchasing power parity (Summers and Heston

1991). In low-income countries, this measure of GDP is often three times higher than GDP at domestic prices because prices of nontraded goods tend to be low in poor countries. In the developing world the average aid receipt relative to PPP GDP is about 2 percent. The same amount would be 6–7 percent of GDP in domestic prices.

4. The measure of policy used to construct this figure is the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 of the World Bank. It has more components than the index in the Burnside-Dollar study, including such areas as social sector policies and safety nets. It has the advantage of covering a large number of countries and being up-to-date. But it is not available as a consistent measure going back in time.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Policies

SOUND MANAGEMENT THAT PRODUCES MACROECONOMIC stability, openness, rule of law, and absence of corruption leads to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It also creates the right environment for aid to reduce poverty. While a \$10 billion increase in aid could lift 25 million people out of poverty each year, an even bigger assault on global poverty will require further institution building and policy reform. Between the mid-1980s and mid-1990s there were huge advances in the quality of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 further improvement of the same magnitude could add a full percentage point to developing country growth and lift another 60 million people a year out of the poverty abyss. Policy reform and capacity building are the keys. Ideas and money—together—have the potential to do far more than finance alone.

In this chapter we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policy reform at the macroeconomic and sectoral levels. Has the amount of finance that countries receive affected their policies? Some conservative critiques of aid hold that finance will lead to poor policies. What is the evidence? We also examine policy-based (or conditional) lending and the extent to which it has helped improve economic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Then we focus on less tangible mechanisms through which aid can affect policy—dissemination of ideas, education of future leaders, stimulation of policy debate within civil society. Arguably,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for aid.

It is hard, however, to make generalizations about aid and policy. First, it is not true that countries that receive large amounts of aid have bad policies; there is surprisingly littl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aid and policies. Second, policy-based lending has a mixed record. Many societies have initiated serious reform programs, and adjustment lending has been

Between the mid-1980s and mid-1990s there were huge advances in the quality of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

Conditional lending is worthwhile where reforms have serious domestic support.

successful in supporting those reforms and helping lock in policy gain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long legacy of failed adjustment lending where there was no strong domestic constituency for reform. Foreign aid cannot take the lead in promoting reform if there is little local movement in that direction. Finally, and somewhat speculatively, case studies suggest that aid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stimulating reform over the long haul. Foreign aid has helped finance the overseas education of many leaders, an investment that may not have much effect on policies for 20 years or more. There are also cases in which foreign assistance has stimulated policy debates within civil society, but it is difficult to measure the impact.

Conditional lending is worthwhile where reforms have serious domestic support. As with aid in general, however, donors have not been sufficiently selective with policy-based lending. In countries with poor policies and no movement toward reform, it is worth thinking about how to create reformers and popular movements for reform, but it will not be easy. Adjustment lending has not been a useful tool in this respect, and may have been counterproductive. The role of aid in difficult environments is to educate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policy, and stimulate public debate where possible.

Money—Good or Bad for Reform?

SOCIAL SCIENTISTS HAVE LONG DEBATED THE ROLE OF OFFICIAL AID in supporting reform. If policy reforms have short-term costs affecting particular segments of the population, foreign aid can help get those reforms off the ground. Stabilization typically requires fiscal adjustments that lead to higher taxes or fewer services for some groups. Trade liberalization hurts firms and workers in previously protected industries. State enterprise reform and privatization often lead to transitional unemployment. If a government wants to implement these reforms, foreign aid can help with adjustment costs.

One recent study analyzed eight major postwar economic reformers: Bolivia, Chile, Germany, Israel, Mexico, Poland, and Turkey (Sachs 1994). In each case aid was a crucial contributor, though all governments were committed to reform before large-scale aid arrived. The study concluded that aid helps “good governments to survive long enough to solve problems” (p. 512). Moreover, foreign aid increases the effect of policy

reform on growth, thus raising benefits relative to costs. This should increase the likelihood that reform will be sustained.

Another study, however, points out that "aid can also help bad governments to survive" (Rodrik 1996). "For debating purposes, one can cite at least as many cases as Sachs does to demonstrate an association between plentiful aid and *delayed* reform One of the pieces of conventional wisdom about the Korean and Taiwanese reforms of the 1960s is that these reforms took place in large measure because U.S. aid, which had been plentiful during the 1950s, was coming to an end" (p. 31).

Burnside and Dollar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their index of macroeconomic and trade policies for the 56 countries in their sample. They showed first that policies can largely be explained by underlying country characteristics, such as the rule of law, ethnic splits (which are associated with poor policies), or political instability (also linked to poor policies). When aid is added to this analysis, it has no effect on the policy index. This does not refute Sachs's view that aid contributed to reform in some cases—instead, it shows only that aid supported governments with bad policies to about the same extent that it supported reforming govern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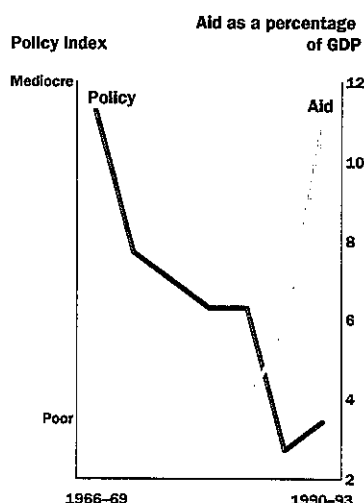
While there is not much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aid that countries get and the *level* of their policies, it is still possible that aid supports changes in policies. If donors were good at anticipating "turning points" and at increasing their aid *just before* reform, we would observe aid flowing to poor policy regimes, but the flows would be followed by reform. Alesina and Dollar (1998) investigate this possibility. In a sample of 60 countries, they identify 87 episodes in which there is a surge in aid (a large change relative to what the country had been receiving). In only six of the 87 episodes was the surge followed by significant reform. In 92 cases in which there was a large decline in aid, 16 were followed by reform. Thus, reform is more likely to be preceded by a decline in aid than an increase in aid. But the main thing that emerges from this work is that there is littl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aid and policy reform. It is not generally the case that donors have successfully anticipated "turning points" and increased their assistance in advance of reform.

The varied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policy can be seen in individual countries. Zambia, for example, could support the view that aid enables governments to delay reforms. Policies in Zambia were poor and getting poorer throughout 1970–93, yet the amount of aid that it

Aid supported governments with bad policies to about the same extent that it supported reforming governments.

In Zambia, policies got worse while aid increased . . .

Figure 2.1 Zambia: Aid and Policy



Source: Dollar and Easterly 1998.

received rose continuously—reaching 11 percent of real GDP by the early 1990s (figure 2.1).

For every Zambia, however, there is a Ghana. Ghana received little aid when it had bad policies—but has received strong donor support since it reformed (figure 2.2). Case studies of Ghana generally find that foreign assistance helped consolidate a good reform program. In Burnside and Dollar's 56 country sample, these different experiences cancel out: aid and policy are virtually uncorrelated. When other variables known to affect policy are introduced, there is still no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policy.

So, there is no simpl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aid that countries receive and the quality of their policies. Aid may still have contributed to policy reform in some cases, however, either through the leverage of conditionality or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ideas.

Ownership—What Money Cannot Buy

IF AID IS AS LIKELY TO DELAY REFORM AS ENCOURAGE IT, WHY NOT make assistance conditional on policy reform? After all, financial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from the World Bank are designed to disburse only as reform measures are carried out. Although these flows are only a fraction of official finance, other donors pay attention to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when making decisions about aid allocations.

For various reasons, however, conditionality may fail to generate permanent improvements in policy. First, it is inherently difficult to monitor. Take, for example, a seemingly simple condition: that the fiscal deficit not exceed a certain level. The fiscal deficit is influenced not just by government policy, but by shocks outside government control. So a country may miss an agreed target because of a shock; in fact, doing so may be desirable because a target that is good policy in one environment becomes poor policy in another. Whether or not a policy target has been met requires some subjective judgment. The subjectivity becomes more acute as reforms become more complex institutionally.

The second problem with conditionality is that it has force only during the life of the adjustment program. A government in financial difficulty may agree to reforms and carry them out to obtain conditional

resources. If there is no strong commitment to these reforms, they can — and likely will — be reversed at the end of the program.

The third and probably most serious problem concerns incentives within donor agencies. Disbursing funds is one of the important rationales for these agencies. Since monitoring policy reform requires some subjective judgment, donors will likely find that governments are making a good effort—whether they are or not—and disburse their funds. *The Economist* describes this kind of donor behavior as follo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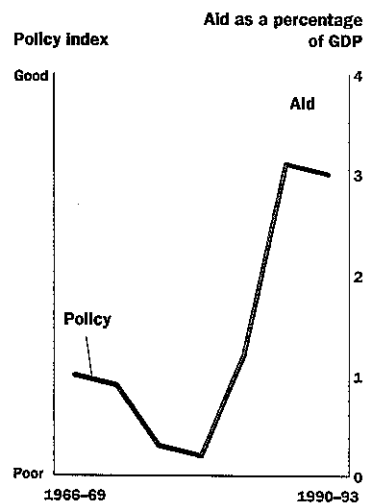
“Over the past few years Kenya has performed a curious mating ritual with its aid donors. The steps are: one, Kenya wins its yearly pledges of foreign aid. Two, the government begins to misbehave, backtracking on economic reform and behaving in an authoritarian manner. Three, a new meeting of donor countries looms with exasperated foreign governments preparing their sharp rebukes. Four, Kenya pulls a placatory rabbit out of the hat. Five, the donors are mollified and the aid is pledged. The whole dance then starts again” (August 19, 1995, p. 37).

There is a mountain of literature on 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and its effect on policies (for example, Mosley 1987, Mosley and others 1995, and Thomas 1991). All the studies conclude with skepticism about the ability of conditionality to promote reform in countries where there is no strong local movement in that direction. One concludes that, in Africa, 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from the World Bank affected the policies of recipients “a little, but not as much as the Bank hoped” (Mosley and others 1995). The main problem was that the World Bank had strong incentives to disburse funds—and thus was inclined to see a good effort even where there was none. In fact, in the authors’ sample of adjustment loans, only 53 percent of loan conditions were met. Even so, almost all adjustment loans were disbursed. Zambia, for example, received 18 adjustment loans between 1966–69 and 1990–93 while its policies got worse (see figure 2.1). In Kenya the World Bank provided aid to support identical agricultural policy reforms five separate times. Each time reforms were either not implemented or later reversed. Yet all adjustment loans were disbursed. The lesson? A conditional loan is no guarantee that reforms will be carried out—or last once they are.

Yet, adjustment lending from the IMF and the World Bank has supported many successful reform programs. Bolivia is a good example of a

... but in Ghana, aid rose in lockstep with better poli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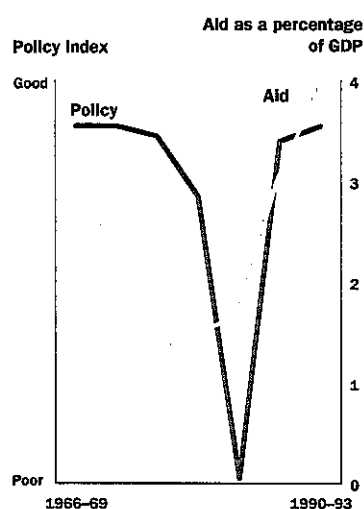
Figure 2.2 Ghana: Aid and Policy



Source: Dollar and Easterly 1998.

In Bolivia, adjustment lending provided finance to a determined reforming government.

Figure 2.3 Bolivia: Aid and Policy



Source: Dollar and Easterly 1998.

country where adjustment lending provided finance to a determined reforming government, with assistance increasing in lock-step with policy reforms (Lopez 1997; figure 2.3). Much of this increase in finance came through adjustment loans. Another review of policy-based lending concluded: "It seems clear that the lending cum conditionality process works well only when local polities have decided, largely on their own, possibly with outside technical help, to address their reform needs, effect certain policy changes sequentially, and approa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financial help in getting there" (Ranis 1995, p. 10).

In its own internal reviews the World Bank has come to the same conclusion—"ownership," or strong domestic support of reforms, is essential for adjustment lending to succeed. Before 1990 about a third of adjustment loans failed to achieve expected reforms, and the lack of borrower ownership or commitment was a key factor in the failures (Branson and Jayarajah 1995).

In a sizable sample of World Bank adjustment loans (105 cases where reforms were successfully carried out, and 55 where they were not), a recent study found several political and institutional features associated with successful reform programs (Dollar and Svensson 1997). Most important, 52 percent of governments that implemented successful reforms were democratically elected, whereas only 29 percent of governments overseeing failed programs wer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s that had been in power for a long time were less likely to implement reform successfully. Furthermore, political instability was highly correlated with failure (table 2.1). Political and economic variables successfully predicted the outcomes of 75 percent of the adjustment loans (appendix 2).

Table 2.1 Features of Successful and Failed Adjustment Programs

	<i>Successful</i>	<i>Failed</i>
<i>Country statistics</i>		
Democratically elected	52%	29%
Government crisis during reform period	9%	24%
<i>World Bank variables</i>		
Preparation (staff weeks)	143	135
Prior analytical work (staff weeks)	84	80
Number of conditions	45	47
Loan size (millions of U.S.dollars)	169	166

Source: Dollar and Svensson 1998.

The study also examined factors under the World Bank's control, including: size of the adjustment loan, number of conditions, resources used to prepare the loan, and resources devoted to analytical work in the four years prior to the loan. It found that these "Bank effort" variables are similar for successful and failed adjustment programs (see table 2.1). When all the variables are tossed into the analysis, it becomes clear that successful reform depends primarily on a country'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In the past the World Bank did not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at success or failure of reform depends largely on a country's own effort. A case in point: Zambia. In the 1980s the Bank approved four structural adjustment loans totaling \$212 million, and they were almost fully disbursed. After completion, the World Bank rated three of the four loans as failures: that is, reforms supported by the loans were not satisfactorily implemented. The Dollar-Svensson results suggest that this was largely predictable. Conditions in Zambia at the time were not conducive to reform. The government, not democratically elected and in power for a long time, was likely a nonreformer. It may have been worth taking a chance on the first adjustment loan, but (admittedly with 20/20 hindsight) a succession of policy-based loans for Zambia was not the best use of resources. Donors have gradually learned this lesson and become more selective about providing policy-based assistance. In 1990–95, the success rate of World Bank adjustment loans increased to 76 percent (World Bank 1997a).

These studies suggest that policy reform depends largely on countrie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eatures. Borrower ownership of reform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prerequisite for success. But once a serious reform program is started, financial assistance can help consolidate it.

In the past the World Bank did not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at success or failure of reform depends largely on a country's own effort.

Fomenting Reform

EMPIRICAL LITERATURE HAS SHOWN THAT REFORMS WITHIN reach for low-income countries could add 2–3 percentage points to their growth. Given that long-term growth has been zero to 1 percent per capita for most of these countries, that would be a huge improvement. For many of the poorest countries—those that are falling further behind in relative terms—initiating serious policy reform is

perhaps the most important issue on their agenda. At the same time, it is not easy to generate reform, and conditional lending into weak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s has failed. So, can donors promote policy reform in the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of, for example, Myanmar, Nigeria, or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Or do they simply throw up their arms and walk away?

Clearly, to desert difficult countries is unacceptable. As poverty is reduced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sound policies, countries with highly distorted policies will account for an ever-increasing share of the poor. What is the answer? There is evidence that donors can make a difference without large-scale financing. Intangible and low-cost efforts can promote policy reform over the long term—by disseminating development ideas,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and stimulating policy debate in civil society.

Development agenci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what is good policy, both at the macroeconomic level and in individual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pension reform (box 2.1). But good policy is not something subjectively decided by the World Bank; lessons emerge from the experiences of developing countries. Good management is, objectively, what has increased growth and reduced poverty in those countries.

Some key development policies (macroeconomic stability and openness) have become known as the “Washington consensus.” This is an ironic designation because in the 1970s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were not promoting these policies. In fact, the Bank was taken

Box 2.1 Reforming Pension Schemes

MANY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have unsustainable public pension schemes—that is, pay as you go schemes that function as long as there are lots of workers and few retirees, but become unworkable when there are more retirees than workers. A World Bank report, *Averting the Old Age Crisis*, and its follow-up dissemin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are a good example of how low-cost assistance can stimulate policy reform. Following the report, donors have helped many countries study the long-term fiscal and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their old-age security—Argentina, China, Hungary, Mexico, Poland, and Uruguay, for example. Officials involved in successful pension reform—in Chile, for instance—have been used to disseminate important messages. The thrust of technical assistance has been to help countries simulate the effect of their current pension systems and reform alternatives. In many cases these analyses have become a platform for public debate on pension reform and a way for the government to convince the public that reform is necessary.

with statist policies, such as those of Julius Nyerere in Tanzania. Through experience, however, the world has learned that this approach does not lead to sustained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such policy-makers as T.S. Chiang and T.C. Liu in Taiwan (China) were experimenting with policies that were not in fashion with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mmunity.

It was only in the early 1980s that development agencies started to appreciate fully the value of sound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began to promote trade liberalization and encourage closed economies to learn from the success of more open ones. It is hard to assess the impact of this dissemination of ideas. Sachs and Warner (1995) identify 35 countries that liberalized trade in the past 10 years. These countries almost certainly were influenced by past successes in other countries. Did development agencies play an important part in disseminating knowledge about successful policies? Likely, yes—but it cannot be proved one way or another.

Development assistance can also promote dissemination of knowledge about development by funding programs to send students abroad—to study economics, law, public administration, and so on. Returning students often play a key role in policy reform—either directly as government employees or officials or indirectly through work in domestic universities and the media. One famous example is the Berkeley group that designed Indonesia's reform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Over the past 10 years many reforms in Latin America have been designed and implemented by ministers who studied economics abroad. In Botswana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had a long-standing program that trained most government officials.

One study of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concluded that few generalizations could be made about successful developing country reform (Williamson 1994, p. 589). Of critical importance was a "coherent economic team." In most cases key members of economic teams in reforming economies have at least some overseas economics training, usually supported by donors or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Ford Foundation.

Overseas training is not, however, a panacea for reform. Instead, where other domestic political factors have started a reform movement, well-trained economists and civil servants are crucial for its success.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people have been trained but not put to effective

Where domestic political factors have started a reform movement, well-trained economists and civil servants are crucial for its success.

Master's level staff in government earn a fifth of what they could earn working for one of Nairobi's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ing firms.

use. A recent study of aid in Africa by the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includes both successful and unsuccessful examples:

"Governments find it difficult to retain qualified staff because of internal management problems and low wages in the public sector. At independence, civil service salaries were typically much higher than salaries in the private sector. . . . In the Tanzania and Kenya of 1970, for instance, a government worker earned 14 and 11-16 percent more, respectively, than a private sector employee with the same experience and education. By the late 1980s, however, reckless patronage practices, along with inflation and persistent fiscal crisis, had devastated individual salaries. In Tanzania,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had increased from 135,000 in 1970 to 302,000, but civil service salaries had lost 94 percent of their former purchasing power African governments found it difficult to retain competent staff, particularly at higher grades and technical levels. Thus, one study describes a CIDA-funded project in Kenya that trained 13 economists to master's level between 1985 and 1991; within a year, ten had found jobs outside of government and the other three, freshly returned from Canada, were looking for better paid positions in the private sector. The problem is simply that master's level staff in government earn a fifth of what they could earn working for one of Nairobi's international management consulting firms or the resident mission of a donor agency.

"The most able often leave: across Africa, civil servants have accepted better-paid jobs in the private sector or migrated out of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some 50,000 to 60,000 middle and high-level African managers left their country of origin between 1986 and 1990. Many went to work for the aid agencies themselves, lured by salaries often five to ten times higher than in the public service. In Kenya, for instance, a World Bank project hired eight Kenyans for a project it was financing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paying them between \$3,000 and \$6,000 a month compared with a total compensation package of approximately \$250 available to a senior economist in the civil service.

"In a country like Botswana that avoided economic crisis, the presence of a virtuous cycle results in a very different dynamic. Regularly paid and given the means to perform their jobs, civil ser-

vants stay in their positions. It is not unusual for a permanent secretary to remain in the same position for more than ten years. Although private sector wages have increased recently and some employees have left the civil service, few have left the country. The case study reports USAID's claim that all but three of the 1,300 or so Botswanans who have received master's level training in the United States since independence have returned to the country" (van de Walle and Johnston 1996, p. 89–92).

Clearly, well-trained officials can be an important input to good policy (witness Botswana). If other factors conspire to maintain poor policies, however, trained officials are likely to leave the public sector (though they may still make a big contribution to development). But they often emigrate, in which case training will not have provided the intended benefits to the country.

Stimulating debate in civil society about policy is an intangible way for development assistance to influence policy reform. This is not easy. Leaders in countries with poor policies have interests in maintaining those policies. Highly distorted trade regimes, exchange rates, and agricultural prices, for example, can lead to corruption and rent seeking among favored groups. In such cases donors should look for space to develop a dialogue with the middle civil service—usually more technocratic than political—and with elements of civil society.

In Ukraine, for example, during an era of poor policies, the World Bank decided that lending would be counterproductive. It would postpone reforms even further, and other interventions were needed—for example, public education for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The media, reformers within government, parliamentaria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were involved in major seminars, nationwide town meetings, and a weekly, high-profile roundtable with the media on key economic and institutional reform issues. One champion of this program was the governor of Ukraine's central bank, who participated actively and remarked publicly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the World Bank did in early transition to help promote reforms and development were to refrain from large-scale lending and implement the public education program.

There are few hard research results to show that disseminating good ideas, sending students abroad, or stimulating policy debates in civil society leads to developing country policy reform and better performance.

***Stimulating debate
in civil society about
policy is one way for
development assistance
to influence policy
reform.***

But case studies suggest that these factors are often important. Moreover, such activities are inexpensive.

It is not easy for outsiders to generate reform.

If Commitment, Money—If Not, Ideas

THERE IS NO VALUE IN PROVIDING LARGE AMOUNTS OF MONEY to a country with poor policies, even if it technically commits to the conditions of a reform program. Providing adjustment loans to governments not serious about reform has been a major recent problem of foreign aid.

For many low-income countries, initiating economic reform is crucial for future progress. But it is not easy for outsiders to generate reform. In countries with poor policies, donors should concentrate on activities that might support reform in the long run—overseas scholarships, dissemination of ideas about policy reform and development, and stimulation of debate in civil society. In most cases these are relatively low-cost measures, so there is no contradiction with the strong message that most finance should go to poor countries that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with policy reform.

Our review also found that adjustment lending is most effective if a government is strongly committed to reform. This raises a question, however: if reform programs must have strong domestic support to succeed, is there any point in having conditional lending? One study argues that there is still a useful role for policy-based lending, but that the way that it is managed must be reformed (Collier 1997). In the past donor agencies have tried to “buy reform” by offering assistance to governments that were not otherwise inclined to reform. This approach failed. Moreover, this use of conditionality undermines its potential value. Governments truly committed to reform may agree to a conditional loan that binds them to a policy and protects them from internal special interests. Such a conditional loan is a type of restraint that helps government resist the temptation to deviate from good policy in the pursuit of short-run interests.

Conditional loans can also be useful as signaling devices. Uncertainties about policy retard investment. Conditional loans can indicate to the private sector that government is serious about reform and the new policy regime is likely to persist. In good-policy countries, aid is associated with higher private investment; the combination of reform and foreign assis-

tance can boost investor confidence. Collier points out that the way in which policy-based lending has been managed tends to undermine its usefulness as a restraint and signaling mechanism. These loans have not been useful as restraints (since funds have been disbursed regardless of whether reform has been carried out) and have not been good signals of the seriousness of reform (before 1990 one-third of adjustment loans failed).

The role of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is not to arm-twist governments to do what they are reluctant to do. Nor is it true that if the World Bank works harder or puts more resources into an adjustment loan, a failed reformer can somehow be turned into a successful one. Instead, the rol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to disseminate information that might influence public dialogue about policy reform—and to learn to read the signals about whether governments are serious or not. Mistakes are inevitable, but the success of adjustment loans should be closer to 85 percent than 67 percent. This target could be achieved by being more selective about the environments in which donors become involved in financing adjustment.

Collier argues further that for this approach to be effective, adjustment loans need to focus on fewer, but truly important measures. (In the Dollar-Svensson sample the mean number of conditions is 46, and the maximum 193.) For such loans to be effective as a restraint, there has to be clear agreement between government and donor agencies about what is important and the grounds for nondisbursement. To be effective as a signal, loans would have to have a high success rate (say, 85 percent). They would then be accurate signals to the private sector that the government receiving the loans is seriously committed to reform.

To be effective, adjustment loans need to focus on fewer, but truly important measures.

Money Matters—In a Good Institutional Environment

MONEY MATTERS—BUT NOT IN THE WAY WE thought. Projects financed by foreign aid are often highly visible and important successes—roads and highways, schools and health clinics, irrigation infrastructure, power plants. But success can be assessed at two levels—at the micro or project level, which typically shows high rates of success or at the macro level of economywide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where, as chapter 1 has shown, there is less visible success. If aid financing is fungible, the benefits of an aid-financed project are only loosely connected with the actual benefits of aid financing. Aid's true effect depends on the crucial (but difficult to assess) question: what would have happened in the absence of donor financing?

Most aid goes to projects to assist particular sectors (figure 3.1). Do these targeted resources reach these sectors? Or is foreign aid fungible? Specifically, if donors finance a \$1 million project in education, does the recipient country spend more on education than if the donors had simply provided \$1 million of budget support? The issue is not corruption, nor is it a question of administrative arrangements for aid flows. Instead, a person—or country—given resources “in kind” will rationally reallocate their other expenditures.

If aid is not fungible, evaluating the overall effect of aid is easy: it is simply the collective effect of individual projects. If primary education is important, more projects in this area should lead to overall improvements. If aid is typically fungible, however, managing and assessing the effect of aid is much more complicated.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Evaluating aid's effect requires not just examining what happened in

the lifetime of a project, but judging what would have happened had there been no aid.

The first section of this chapter explores in detail what is meant by fungibility. We then look at the available evidence on several dimensions of fungibility. If a donor finances an investment for education, for instance, what confidence does it have that the resources:

- Stick with the government rather than finance, say, tax reductions?
- Finance investment rather than expanding consumption spending?
- Finance education rather than some other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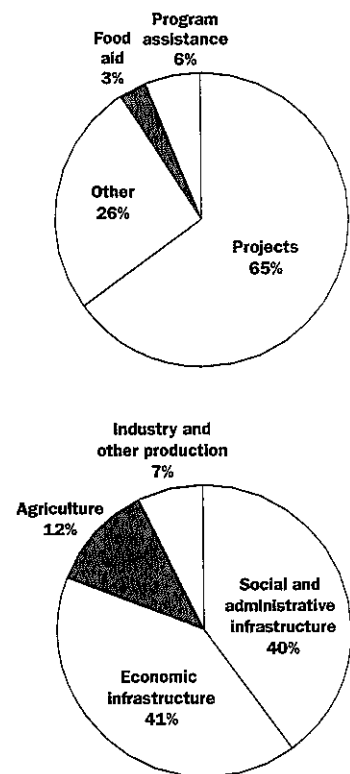
Donors cannot be certain that resources actually go to the area favored by the project. So, we examine the implication of fungibility for evaluating projects.

One possibility is that in practice the actual effect of financing tied to projects is to raise government spending exactly as if general budgetary support were given. This implies that, even when donors are financing projects, an assessment of aid's effect as a financial transfer depends on a judgment of overall government spending—whether expenditures are allocated to activities likely to promote development and how effective the spending is. This involves assessing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spending. Again, what you see is not necessarily what you get, as the key question is: what would have happened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s?

What does fungibility mean for analyzing the allocation and efficiency of government spending and for managing and evaluating development assistance? In countries with sound policies, appropriate allocations of expenditures, and effective services, donors can provide large amounts of assistance as general budget support, knowing the resources will be well used. In cases where there is agreement about allocation but efficiency is low, aid projects and financing should be evaluated not just as money for a particular project but also for what the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overall efficacy of government expenditures (see chapter 4). Where donors and governments do not agree on the allocation of expenditures and spending is not likely to be effective, the best approach is to reduce funding and increase support for policy dialogue and institution building—until donors are convinced that their funds will contribute to development.

Most aid goes to projects—and most project aid goes to social, economic, and administrative infrastructure.

Figure 3.1 Distribution of Aid, by Type and S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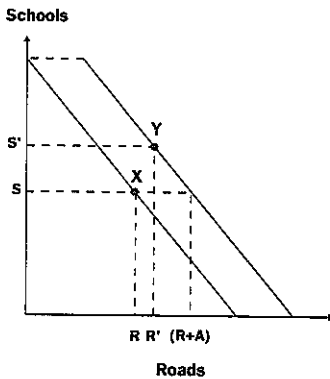


Source: OECD 1998.

Fungibility?

Fungibility is an issue only if the objectives of donors and recipients are different.

Figure 3.2 Full Fungibility



Source: Hypothetical illustration.

FIRST, A SHORT BUT INFORMATIVE DETOUR. MANY GOVERNMENT programs transfer income to individuals—income that is tied to specific purchases or that is transferred “in kind” rather than in cash. A prime example is a food stamp program that provides vouchers to be redeemed for the purchase of a limited list of food items. Even if the program is free of corruption (so that every food stamp dollar is redeemed for food), does such a program have a greater effect on people’s food consumption than if they had been given cash?

Compare two views. The naive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view is that, if food stamps bought food, food consumption increased dollar for dollar. The “fungibility” view is that food stamp recipients are sophisticated and have their own objectives, in which case the recipient would reduce expenditures on food from their non-food stamp income dollar-for-dollar with increases in food stamp expenditures. So a dollar’s worth of food stamps, even when spent on food, will increase food consumption by exactly the same amount as would have a dollar given in cash.

Which view is right? For food stamps there is solid evidence. Puerto Rico “cashed out” food stamps in 1982, and evidence suggests that this had little or no effect on food expenditures (Moffitt 1989). In the United States two randomized experiments of “cash out” found no effect on food expenditures in Alabama and only a small effect in San Diego (Fraker and others 1995). With food stamps the empirical evidence is overwhelming—that the naive view is wrong and the fungibility view is (almost exactly) right. But how does this relate to foreign aid?

A simple diagram helps illustrate three points about the fungibility of foreign aid (figure 3.2). Suppose that a government spends on only two goods, roads and schools, and in its budget it chooses to spend R on roads and S on schools (point X on the budget line). Now suppose that a donor is willing to make a grant of amount A to finance roads. If donor money is not at all fungible, this entire amount would be spent on roads. Thus the government would spend $R+A$ on roads, and the same amount as before on schools (S). But if the money is completely fungible, the government’s new budget is effectively the pre-grant budget plus A (as long as the government meets the condition of spending more than A on roads). In this example the government would then spend R' on roads (more than the pre-grant R and more than A but less than $R+A$) and S' on schools. This illustrates three points.

First, all of the aid (A), or its equivalent, is spent on roads in an administrative sense in all cases, but the effect of aid spent on roads on the *total* spending on roads could range anywhere from zero to the total amount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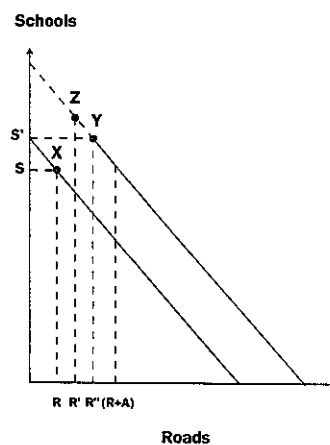
Second, full fungibility does not mean that none of the aid gets spent on roads, just that the effect on total road spending of providing amount A for roads is exactly the same as if the amount were provided as general budget support. The practical importance of fungibility depends on whether the donor and recipient have the same objectives. If the donor simply wishes to expand the budget available to the government but it is administratively convenient to provide funding for roads, then fungibility is unimportant. If, on the other hand, the donor has different preferences and really wanted the amount A to be spent on roads, then fungibility is a problem.

Third, fungibility requires that the amount of aid provided for roads is smaller than that which the government would have spent on roads from its own resources. Suppose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chosen to spend at point X on roads and schools and then receives road aid of amount A (figure 3.3). Then actual expenditures will increase to point Y , but had the transfer been untied, the government would have chosen point Z . Thus fungibility is less likely if the amount of aid is large relative to the government's budget (as in many aid-dependent economies) or if the item to which the financing is tied is specific and only a tiny fraction of the government budget (for example, project aid made available for an entirely new type of spending).

Most foreign aid goes to projects in which the donor finances either a single large investment (such as a highway) or, more often, a cluster of related investments (rural roads, urban housing, systems of irrigation canals, water supply for a number of villages, programs of school construction). Yet the fungibility of aid financing has been recognized as an issue from the beginning of large-scale aid.¹ The analytical possibility is not new, but what is new is the evidence on fungibility. Suppose that a donor provides \$1 million to a government for an investment in a specific project in, say, education. The three relevant questions are:

- Does government spending rise by \$1 million?
- Does government development spending rise by \$1 million?
- Does education spending rise by \$1 million?

Figure 3.3 Partial Fungibility



Source: Hypothetical illustration.

There is apparently a greater "flypaper" effect with concessional loans than with grants.

Does Aid Increase Government Spending?

Governments have several options when they receive aid. They can increase spending dollar for dollar. They can reduce taxes dollar for dollar. Or they can leave current spending and taxation unchanged and use the aid to reduce the deficit (equivalent to cutting future taxes)—or any mix of the th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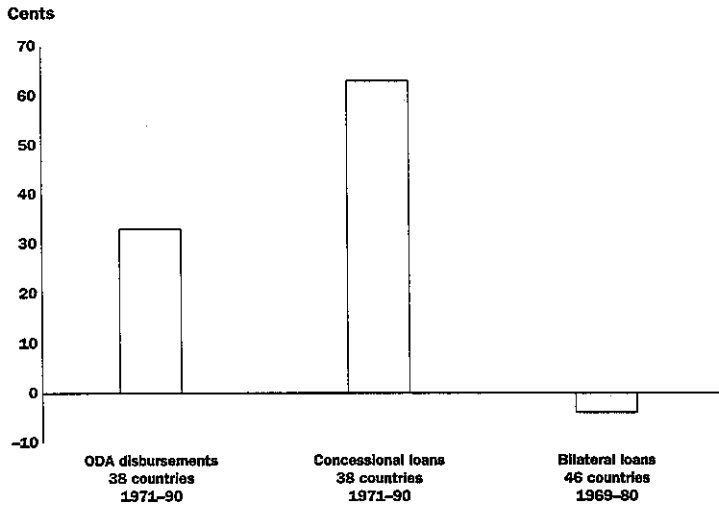
There is a large body of literature on the effect of transfers between one level of government and another in the same country—sa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ial (or state) governments. The evidence is that money from higher-level to local governments tends to pass more into government spending and less into tax relief than a pure fungibility view would suggest. This tendency for nontax resources to “stick” to higher levels of government spending and not be passed on as tax relief is called the “flypaper” effect.

With foreign aid there is a wide range of estimates of the size of the flypaper effect. Two studies based on sizable samples of countries find that \$1 in aid translates into much less than \$1 in government spending.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7) looked at 38 countries and found that \$1 in concessional loans (such as those from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leads to 63 cents in additional government spending (figure 3.4). For concessional loans and grants combined, the effect is only 33 cents. Thus there is apparently a greater flypaper effect with concessional loans than with grants. In a sample of 46 countries, Cashel-Cordo and Craig (1990) found that bilateral loans had no effect on government spending.

Studies based on smaller samples and individual countries find stronger flypaper effects.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7) use a subsample of 14 countries for which they had detailed data over time about government spending by sector (appendix 3). There was a complete flypaper effect: \$1 of aid translated into roughly \$1 of government spending (95 cents for bilateral loans and \$1.24 for concessional loans). In a case study of Indonesia, Pack and Pack (1990) found that \$1 in aid leads to \$1.50 in additional government spending (figure 3.4). Thus, instead of providing tax relief by substituting for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aid may increase taxation by “crowding in” government spending. This “crowding in” is possible if aid helps government mobilize other resources through improved tax collection or better access to commercial funds—or if aid relieves constraints that were limiting government spending.

Figure 3.4 A Dollar's Worth of Aid and Government Expend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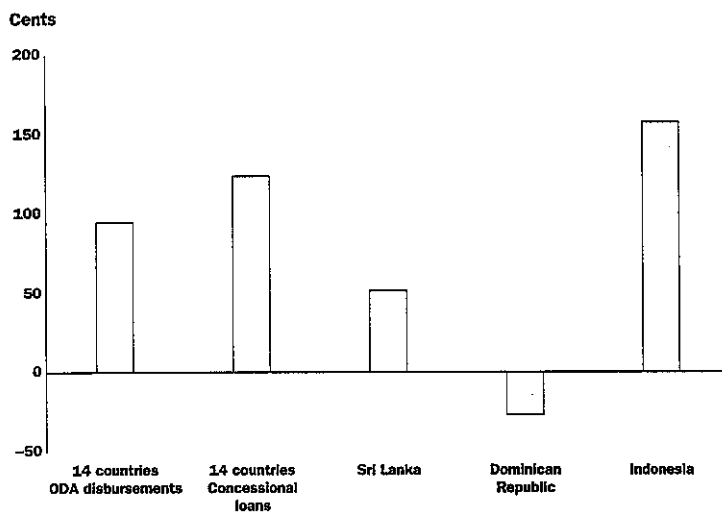
Estimates from Large Cross National Samples



Source: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8; Cashel-Cordo and Craig 1990.

In large samples, a dollar's worth of aid leads to significantly less than a dollar's worth of government expenditure . . .

Estimates from Individual Countries and Small Samples



Source: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8; Pack and Pack 1990, 1993, 1996.

. . . but in individual countries strong "flypaper" effects are sometimes observed.

It is difficult to find the link between aid and development spending.

This supports the view that aid is largely fungible. Fungibility means that a government can use increased resources as it chooses—to increase spending, fund tax cuts, or reduce the fiscal deficit (reducing future taxes). Different societies will make different choices, so it will be possible to find examples (such as Indonesia) in which government spending rises hand-in-hand with aid. But this relationship is not seen uniformly in large samples of countries, which suggests that although there is some flypaper effect, it is not generally true that \$1 in aid increases government spending by a full \$1. Some goes to tax relief or deficit reduction.

Does Aid Increase Development Sp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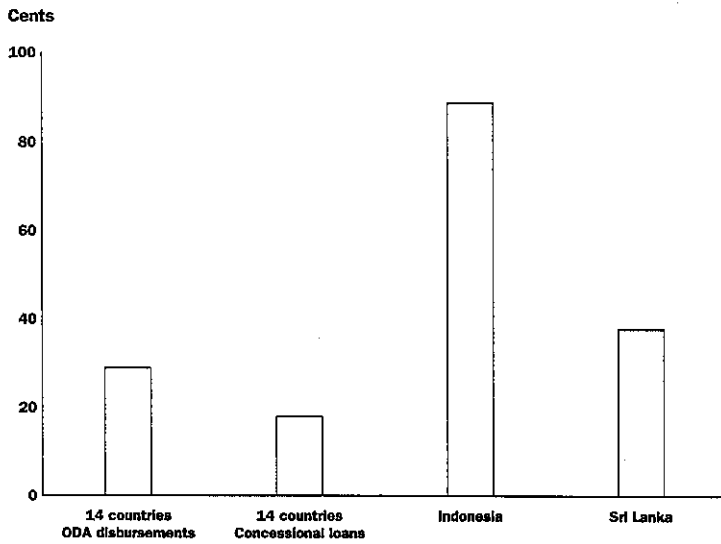
Donor financing and funding for projects is typically not structured to finance government spending in general. Instead, it is aimed at particular projects or specific expenditures, such a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or social services. In developing country budgets these are usually captured in the distinction between “recurrent”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weak data on how government spending is split between development expenditures and other spending (administration, subsidies, defense, and so on). Thu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link between aid and development spending in a large sample of countries. A general idea can be gained, however,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government consumption spending.

In their sample of 14 countries, Feyzioglu, Swaroop, and Zhu find that \$1 in foreign aid typically results in 29 cents of public investment (figure 3.5). These, remember, were countries with a strong flypaper effect, so aid went dollar-for-dollar to government spending. It seems, though, that aid financed the government in general, not the development expenditures that donors typically target. In this sample 29 cents was the exact amount of a typical dollar of government spending from all sources (aid and non-aid) that goes into investment. Thus an aid dollar had exactly the same effect as one from any other source of government revenue.

The strong effect of aid (especially bilateral aid) on government consumption spending is seen in the same large sample of countries used in chapter 1 (figure 3.6). The strong association of more aid with higher government consumption spending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determinants of government spending) suggests both a flypaper effect (that resources stuck) and fungibility (that allows aid provided for investment to finance consumption spen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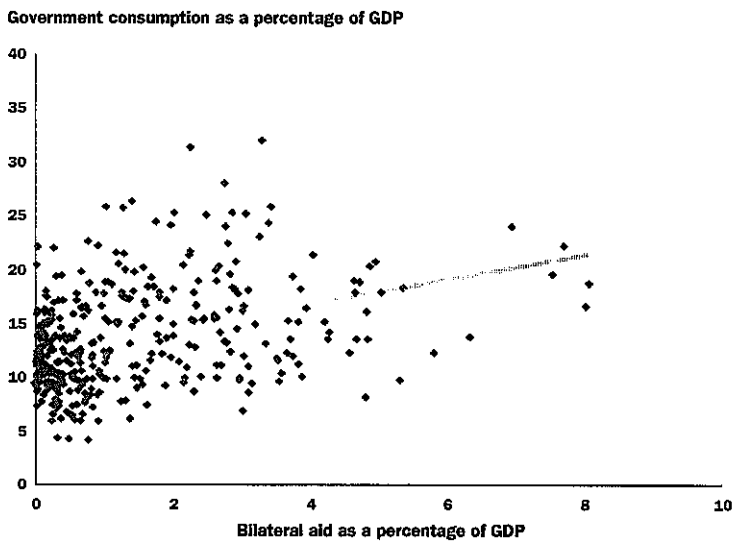
Figure 3.5 A Dollar's Worth of Aid and Government Investment ("Development") Expenditures



Source: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8; Pack and Pack 1990, 1993, 1996.

The typical aid dollar finances 29 cents of public investment . . .

Figure 3.6 Bilateral Aid and Government Consumption



Source: Calculated from the Burnside-Dollar data set.

. . . most of the rest goes to government consumption.

Empirical studies of Indonesia and Sri Lanka also find that aid has a smaller effect on development spending than on total government spending, so that not all aid passes into investment. Again, the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are large. In Sri Lanka an additional aid dollar raised government spending by 52 cents. Of that, 38 cents was devoted to development spending and 14 cents to consumption spending. In Indonesia a dollar's worth of aid raised spending by \$1.58, of which development expenditures accounted for 89 c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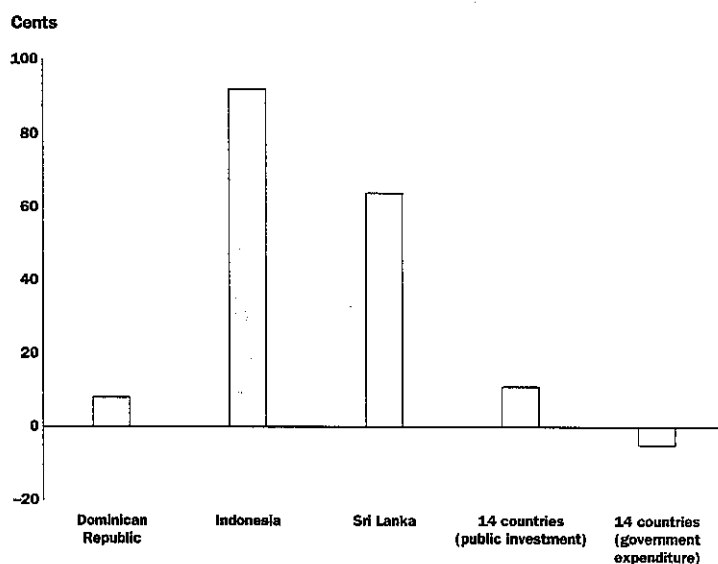
The evidence suggests that, even where aid goes mostly to government spending, the spending funded by aid is largely fungible between consumption and invest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aid is administratively targeted to specific investment projects.

Does Project Aid Finance Particular Sectors?

Researchers have also tried to address sectoral fungibility—that is, does higher foreign assistance for a particular sector (for example, agriculture or education) raise spending for that sector? There are two ways to answer

A dollar's worth of aid to agriculture leads to less than a dollar's spending on agriculture.

Figure 3.7 A Dollar's Worth of Aid to Agriculture and Spending on Agriculture



Source: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8; Pack and Pack 1990, 1993, 1996.

that question: by comparing spending over time within a country and comparing spending across countries. Whatever the method, the answer is the same: it varies. In some countries and sectors aid appears to be completely fungible across sectors, while in other countries and sectors the money seems to “stick.”

Pack and Pack (1990) show that for every dollar increase in donor financing for Indonesian agriculture, expenditures in that sector increase by 92 cents. In contrast, a cross-sectional study of 14 countries finds that agricultural expenditures *decrease* by five cents for every \$1 in aid given to agriculture (figure 3.7).

The net effect of an aid dollar on spending in a specific sector depends not only on the composition of the aid received, but also on how government responds to aid flows. Take education and health, and the results for a cross-sectional sample of 14 countries. The direct effect on education spending of a dollar in aid depends on the allocation of aid among sectors: 8.7 cents of every aid dollar are allocated to education and health. With sectoral fungibility, however, that is not the whole picture, which depends on whether aid for education leads to a reduction in what the government otherwise would have spent on school programs, and whether aid for other sectors causes the government to spend more on education. In the estimates from the 14 countries, the net effect of a dollar's worth of aid is to reduce education and health expenditures by 6.5 cents, even though on average 8.7 cents was devoted to education and health (figure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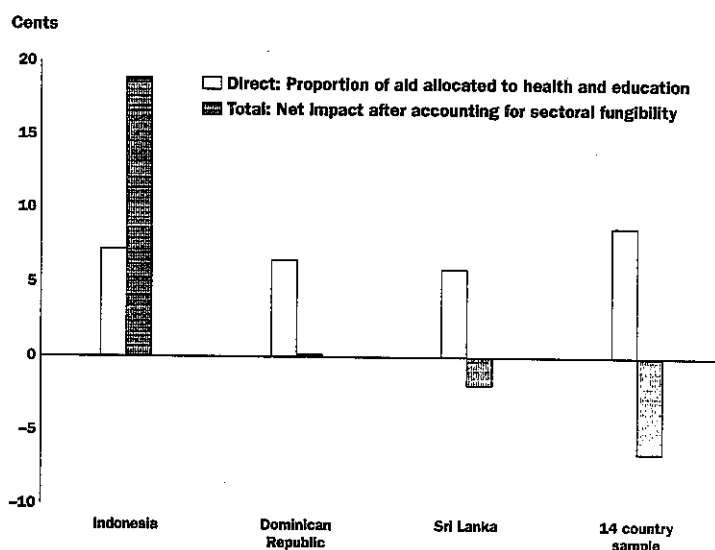
The effect varies enormously by country. In Sri Lanka 5.9 cents of an aid dollar go to education and health, but the estimated net effect is to *reduce* spending by 1.9 cents. Indonesia receives a similar proportion devoted to education and health, 7.2 cents, but the effect is to *increase* spending by 18.9 cents; clearly money earmarked for other sectors was reallocated to education and health. The important point is that government commitment to particular sectors is more important than targeting aid.

These statistics do not tell the whole story of consequences. It may be that the observed changes in public expenditures are exactly what donors wanted anyway. The donor objective, for example, may not be to increase total education spending, but to increase spending on primary education while reducing spending on higher education. But a shift in the allocation of spending requires agreement between donors and the government based on analysis and dialogue.

Government commitment to particular sectors is more important than targeting aid.

A dollar's worth of aid to education may lead to little (or no) additional spending on education.

Figure 3.8 A Dollar's Worth of Aid to Health and Education and Spending on Health and Education



Source: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8; Pack and Pack 1990, 1993, 1996.

Budgetary Mechanics of Fungibility

The magnitude of fungibility depends on a country's budgetary structures, the degree to which governments are able to manage their finances, and the extent of donor involvement.

In India's complicated federal fiscal system of transfer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dividual states, for instance, the budgetary system was designed so that the donor financing coming through the central government to projects in specific states would not affect either the projects chosen or the total transfers received by the states. This made fungibility explicit. The Indian budgetary system was designed so that projects were chosen to be part of the public sector investment plan or not, and then financing was obtained for those projects. The evidence from an empirical study suggests that aid to the Indian central government was fully fungible, both between development and nondevelopment spending and across sectors (Jha and Swaroop 1997). Other countries, such as Mexico, have incorporated mechanisms into their budgetary system to create fungibility: the goal of their system is

to ensure that budget allocations are not to be affected by the availability of finance.

The Indian system also determined the amount of investment financing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each state. In the past, if states received a larger amount of support from donors, their transfer for development spending on capital accou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was correspondingly reduced (Jha and Swaroop 1997).

One major weakness of aid in Africa is the lack of strong budgetary control by either government or society over public investment. A case study in Ghana, Malawi, and Uganda revealed that controls were too weak to accomplish any of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budgetary systems: developing aggregate budget discipline, imposing strategic priorities, and encouraging technical efficiency (Campos and Pradhan 1996). The big problem is that budgets are often ad hoc—that is, realized expenditures differ enormously from budgets, and there is a disconnect between the recurrent budget and the development budget. Moreover, donor financing, particularly through projects, is a large component of investment and total expenditures. For instance, donor project financing accounted for 71 percent of capital expenditures in Ghana and 87 percent in Uganda (table 3.1).

Weak systems of budgetary planning, control, and management, combined with large donor contributions, often cause “the bulk of the Public Investment Program to be determined by donor-driven priorities, thereby fragmenting and undermining the priority setting process within the countries” (Campos and Pradhan 1996, p. 29). Lack of government control over project selection and the budgeting process was one of the key problems in African aid identified in a recent study by the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and implemented jointly with African researchers (van de Walle and Johnston 1996). Their case studies of seven countries found that donors often drove project selection and most projects had little recipient input. For example, in Senegal only 170 of 316 projects in

Realized expenditures differ enormously from budgets.

Table 3.1 Donor Financing of Investment Budgets in Two African Countries (percent)

	<i>Ghana</i>	<i>Uganda</i>
Project financing/capital expenditures	71	87
Project financing/total expenditures	27	43
All donor financing/total expenditures	32	67

Source: Campos and Pradhan 1996.

the public investment plan had been assessed using the appropriate internal procedures. Donor control likely meant that aid would be less fungible, but it raised other problems—such as a lack of government ownership and commitments to recurrent finance for projects.

Project Assessment with Fungible Money

These differences in fungibility across countries mean that it is pretty certain that what you see is *not* what you get. Moreover, it is difficult to know either before or after donors provide finance the extent of fungibility, and so exactly what was financed. But if money is fungible, evaluating donor-financed projects is beside the point, as their effect is not the same as that of donor financing. To take a hypothetical example: suppose there were 11 discrete projects, each of which cost \$10 million. Suppose, also, that the economic returns on them ran from 100 percent (for project A), to 90 percent (project B), and so on down to 0 percent (project K). Suppose, finally, the country will invest \$50 million from its own resources, while a donor provides \$10 million—in total, enough to finance six projects. There are several possibilities (table 3.2).

Table 3.2 Evaluating the Effect of Projects with Fungibility

	<i>Projects undertaken</i>	<i>Apparent effect of aid-financed project</i>		<i>Actual effect of aid financing</i>	
		<i>Project</i>	<i>Return</i>	<i>Project</i>	<i>Return</i>
Base case	ABCDE				
Donor finances A, the highest-return project, freed resources finance F, the marginal project	ABCDE, F	A	100 percent	F	40 percent
Donor finances marginal project chosen by the government	ABCDE, F	F	40 percent	F	40 percent
Donor finances A, the highest-return project, and freed resources finance K, a low-return project	ABCDE, K	A	100 percent	K	0 percent
Donor finances A, the highest-return project, and freed resources finance consumption spending, or reduce taxes	ABCDE	A	100 percent	None	Unknown, could be large or small

Note: Based on an entirely hypothetical example in which there is a set of possible projects (each costing \$10 million) with different economic rates of return—and in the absence of aid financing, the government chooses to implement five projects.

Source: Hypothetical illustration.

First, the government agrees that the donor will finance the highest-return project (A). Thus the apparent rate of return is 100 percent: that is, when the donor assesses the benefits it will find that its aid has been hugely successful. What really matters in evaluating the effect of aid, however, is what the government does with the resources it otherwise would have devoted to the project. It could do the next best project not yet financed, which would be F (with a return of 40 percent), since it is already committed to B, C, D, and E. Or the government could choose to do a white elephant project (K) with political payoffs but with a return to the economy of zero. It could also choose to reallocate the resources from investment to consumption. What is the return on additi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high or low? Often consumption spending, such as that on recurrent inputs 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is not financed by donors but has enormously high returns in keeping existing investments productive. So a shift from investment to consumption could have a huge return, say, 200 percent. Alternatively, the consumption could be the conspicuous consumption of the elite and have zero return. Or the aid could have financed tax relief, which as a "project" may have very high returns if it reduces distortionary taxes.

Delivering aid through projects has several advantages for donors. There are administrative advantages to organizing tasks into discrete, manageable units. Investment projects fit well with the notion that increasing investment is the key to development. And by financing particular items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o on), projects appeal to single-interest coalitions in donor countries supporting foreign aid.

But while the project approach has some advantages for donors, it does not ensure that aid is put to good use. Nor does it facilitate the evaluation of aid effectiveness. If, say, aid finances a road project with a 20 percent rate of return, this information tells us next to nothing about aid effectiveness. Does fungibility imply that projects are irrelevant and should be abandoned as a way of organizing and delivering aid, in favor of broader financing mechanisms? Not at all. Project financing can be used to convey other value added. In many cases the project's value added was never intended to be the investment itself. Donors often are not trying to influence project selection or directly alter the sectoral composition of spending but are using projects as a vehicle for technology transfer or to build institutional capacity or reform sectoral policies.

Taking the road example, donor involvement may mean that thos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roads are improved—or road policies are

While the project approach has some advantages for donors, it does not ensure that aid is put to good use.

Donors are, more or less, financing whatever the government chooses to do.

changed for the better. Projects are a cauldron of money and ideas. Since the money does not necessarily stick with the sector,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projects should focus on the contribution of ideas to altering sector institutions and policies (see chapter 4).

Public Spending—Quality not Quantity

THE SAFEST ASSUMPTION FOR DONORS IS THAT THEY ARE, MORE or less, financing whatever the government chooses to do. Since donors are financing government in general, they need to consider all public expenditures, in terms of both allocation and efficiency, when deciding the appropriate level and method of aid. So donors must each decide, what makes for an effective public spending program?

Equity and Efficiency

Governments ought to be doing things where there is a convincing rationale for public involvement. Twenty or so years ago, donors willingly financed almost anything in which the government chose to try its hand—textile plants, shoe factories, steel mills, and all sorts of manufacturing. Not only were developing world parastatals financed through donor credits and loans; many government corporations were created because donor financing was available. There has been a clear shift in thinking about the value of government investments in shoe making or textile weaving. Today few people would dispute that these activities can just as easily (and with greater effect) be undertaken by the private sector. In general,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s to improve equity and efficiency. But government action that achieves these improvements proves difficult in practice.

Equity. Many government expenditures—even those traditionally justified by their improvements in equity—are not well targeted toward poverty alleviation. For instance, an assessment in Brazil found that social insurance payments in 1980 reached only better-off formal sector workers, so the richest 20 percent of workers received 12 times the benefits that went to the poorest 20 percent. In education, too, equity implications differ widely between primary and tertiary education, for instance. A study in Indonesia found that the richest fifth of households received

only 60 percent of the benefits per person from public spending on primary education as the poorest fifth. Since children in richer households were more likely to remain in school, however, the higher the level of schooling, the greater the benefit to richer households. By senior secondary school, the richest fifth received 17 times the benefits of the poorest fifth (van de Walle 1995).

Efficiency. Justifying government actions to increase efficiency is also not always simple. The existence of market failures must be taken into account. But so, too, must their magnitude, particularly when compared with the likely “government failure” in implementing a proposed remedy. The notion that since market failures were pervasive, they were complete and therefore demanded government action, has been replaced by a nuanced view—that both market failures and government failures are pervasive, but not complete. So, although working from common principles, a country-by-country assessment is needed to determine the magnitude of market failure and the depth of government capacity (World Bank 1997b).

Nevertheless, the principle of efficiency often leads to clear recommendations. For instance, governments, sometimes supported by donor financing, have devoted substantial resources to manufacturing and trade that markets could have provided equally well and for which there was no underlying efficiency rationale. Moreover, governments have often used broad-based subsidies that lack rationale in either equity or efficiency—such as large-scale subsidies to agricultural products or fuels used mainly by richer consumers, which impose an explicit or implicit tax on poorer agricultural producers.

Quality and Quant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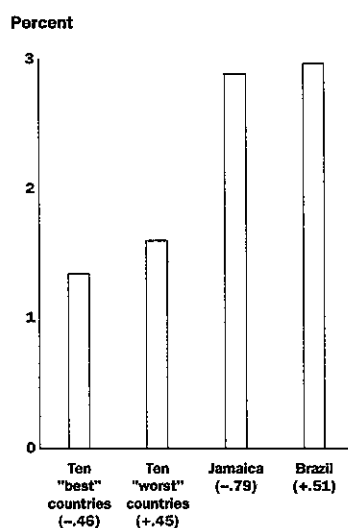
The qua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s is typically more important than the quantity. While there is evidence about what kinds of public sector outputs are crucial to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basic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for instance), there is often little or no evidence that increasing public spending would have an impact on these objectives. Just as the effect of aid differs across countries, so too does the effect of increased public spending on improving outcomes. Cross-national and sectoral evidence, as well as individual cases, suggests that inputs like money are often not the most important issue for public sector outputs.

The empirical growth literature finds that government consumption has no positive effect on growth. Some studies find a negative effect, others

The quality of government expenditures is typically more important than the quantity.

The quantity of public spending on health bears little relationship to lower mortality.

Figure 3.9 Public Spending on Health as a Percentage of GDP and Health Outcomes



Note: The number in parenthesis is the residual from a regression of the natural log of under-5 mortality on GDP per capita and other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mortality.
Source: Filmer and Pritchett 1997.

zero. The finding that aid largely finances government consumption, which has no positive effect on growth, again helps explain why aid is not fueling growth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One study used data on economic growth and the allocation of government budgets for 43 developing countries to show that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ublic capital spending (Devarajan, Swaroop, and Zou 1996). The authors found that increasing by one percent the share of public spending devoted to capital (versus current) spending would reduce economic growth by half a percentage point each year. Another study, using a specially created dataset on public investments, found that the share of GDP devoted to public investment had no association with economic growth, after controlling for a standard set of determinants of growth (Easterly and Rebelo 1993). So while one intended purpose of aid might be to increase public investment, the quantity of investment alone bears little relationship to economic growth. Examining the effect of the magnitude of public investment across countries shows that differences in the efficiency with which governments invest is as important in explaining growth as the amount they spend on investment (Pritchett 1996).

The data are similarly agnostic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oral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Devarajan, Swaroop, and Zou find no association between growth and the share of public spending devoted to education or health. Moreover, they find that both education and health spending per capita are consistently negatively related to growth. Easterly and Rebelo also find that the share of GDP going to public investment in education and health is unrelated to economic growth. There is little evidence from cross-country comparisons that more spending on public investment, or even reallocation across sectors, would automatically translate into better growth outcom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estimates of public spending efficiency for three major sectors: health,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Comparisons across countries suggest that public spending has some (small) effect on health. Ranking countries by the difference between actual child mortality and the level expected for their economic and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the 10 countries with the best performance in health typically spend 1.3 percent of GDP on health—and child mortality is 40 percent lower than would be expected (figure 3.9). The worst 10 have child mortality roughly 40 percent higher than expected, but actually devote a larger share of GDP to public spending on health than the 10 best (Filmer and Pritchett 1997).

In explaining any measure of mortality (infant, child) or life expectancy, regression analysis finds little or no correlation between public spending and health status (Musgrove 1996).

Likewise, in education there is little evidence that higher spending means higher quality schooling. Using assessments of educational performance in math and science based on internationally comparable examinations, one study found that both total and recurrent spending on education as a fraction of GDP was negatively related to test score achievements (Hanushek and Kim 1995). While most agree that a rapid expansion of skills was key to the pre-1997 success of the fast-growing East Asian economies, these countries are not distinguished by the extent of the resources devoted to education during its takeoff and after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accounted for about 3 percent of GDP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y physical inputs such as the pupil-teacher ratio, which in 1985 was 38 in Korea, 31 in the Philippines, and 32 in Sri Lanka (Tan and Mingat 1992).

In infrastructure there are similar differences in cost and performance across countries (World Bank 1994). While the flow of infrastructure services is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it is harder to show that infrastructure expenditures (or even stocks) are important (Hulten 1996).

It will come as no surprise to anyone with experience in developing countries that comparisons show little connection between spending and outcomes. This does not mean, however, that spending cannot influence outcomes. The actual effect of spending in almost every area of endeavor—from infrastructure to education—has been much less than the potential.

When the *what* and the *how well* come together and governments do the *right* things *well*, the results can be amazing. An obvious example is the educational accomplishments in East Asia, where countries such as Korea have gone from widespread illiteracy to educational quality that rivals (and surpasses) that of much richer countries. There are similar examples in health, where the mobilization of public health efforts to attack problems of communicable diseases, diseases carried by pests, and water-borne diseases led to a revolution in health status. Sri Lanka and the state of Kerala in India have life expectancies far exceeding that predicted by their income and education. When the state of Ceara in Brazil was able to mobilize and energize government workers in the health sector, it achieved enormous reductions in infant mortality in a few years.

When the emphasis is on what government should do, and particularly how much it should spend, aid becomes a means to support spending, as

The actual effect of spending in almost every area of endeavor—from infrastructure to education—has been much less than the potential.

Donors must form an opinion on the allocation and effectiveness of a country's public spending.

if spending were the end in itself. Thus aid flows independently of how effectively spending promotes poverty reduction. In many cases, even when donor resources increased investment in the right areas, it did not promote development. Thus it is not just what governments do, but how they do it and how well.

What Should Donors Do?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FUNGIBILITY AND OF DIFFERENCES in the quality of public spending for the way donors do business? Many discussions of aid policy concentrate on what donors ought to be financing: girls' education or rural feeder roads, agricultural extension or family planning clinics, power plants or vaccination campaigns. But if money is fungible among sectors (and it often is), then from the narrow view of expanding expenditures it simply does not matter what donors finance. Most development practitioners recognize fungibility, however, and have moved to a broader concept of the effect of donor financing: it is more than just an attempt to expand capital. This raises the question of how donors allocate effort and available resources to best assist each country. As with country-level policies, we return to two themes in choosing the magnitude and mode of assistance: timing and selectivity, and the role of money and ideas.

Form a View . . .

To pursue an effective development strategy, donors must form an opinion on the allocation and effectiveness of a country's public spending. Donors can help only if they know what a country's needs are. In the past decade public expenditure analysis has emerged as a useful tool to assess the value of government spending in different areas. Reviews of public expenditures have focused on how well budgets meet the three criteria of budgeting: fiscal discipline, priorities across sectors, and technical efficiency.

Donors need to be able to form a judgment on how well government spending is working along each of the three criteria. These reviews led to the elimination of many "white elephants." Scrutinizing (and often

cutting) large planned investments that would later generate budget commitments was one fruitful result of public expenditure analysis.

Public spending analysis has also brought to the fore attention on issues within sectors—across subsectors and across functional categories. When countries are faced with fiscal adjustment, two common tendencies are across-the-board cuts in budget items and cuts in everything but payroll—approaches that are inefficient. Analysis has also been effective in bringing into focus subsectoral priorities—say, preserving primary education, less so tertiary, from budget cuts.

The first generation of public expenditure analyses did not go far enough. The analyses generally did not use a framework for spending that established justification for public expenditures or broad guidance about the appropriate composition of spending across sectors (Swaroop 1997). A review of 113 World Bank public expenditure reviews found that few even looked at the role of the state and public-private boundaries (McCarthy 1995). Moreover, very few reviews went beyond expenditures and linked them to specific outputs.

One painful lesson of experience is that government and community ownership of projects is crucial.

... and Use the View

Once donors have formed a view on the allocation and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what then? One common donor reaction to the fungibility of money is to try to avoid it by imposing additional conditions on aid financing beyond one project to ensure the additionality of resources at the sectoral level. Bad idea.

One way to ensure additionality is for donors to finance only items or projects that governments are not financing. Common sense tells us, however, that this reasoning is flawed. It would mean that donors finance only what countries and governments do not want to do. And government would have little or no commitment to implementing or, much less, maintaining projects once donors depart. Some governments (purposely or by default) have given donors free rein to do whatever they feel like. Money for such projects would almost certainly be “additional,” but with equal certainty the projects themselves would be pointless, except in those rare cases that the project itself creates commitment. Far better that both recipients and donors be strongly committed to the sustainability of projects. But this is precisely when money will be fungible.

One painful lesson of experience is that government and community ownership of projects is crucial. Trying to make financing additional,

Donors should take it for granted that their financing is fungible because that is reality.

however, implies that there is a disagreement between donors and government about the allocation of expenditures but that donors have enough clout to ensure that governments will follow their recommendations on the overall allocation of spending. This is practically impossible. It is not just a question of saying that if a donor provides an additional \$1 million that spending on the activity financed must increase by \$1 million because spending might have increased by that amount in the absence of the extra aid. To ensure additionality, donors would have to make governments promise that they are spending \$1 million more than they would have had they not received the aid. But they would say that in any case, wouldn't they?

In fact, donors should take it for granted that their financing is fungible because that is reality. This, in turn, requires rethinking how aid is delivered. Efficient delivery in different countries depends on the nature of public spending and the efficiency of the public sector. One measure of public sector efficiency is the index of economic management. And an earlier recommendation was that of two equally poor countries, well-managed countries should receive more finance than poorly managed ones (see chapter 1).

In a country with sound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a larger portion of aid can be in the form of general budget support. This recognizes the reality of fungibility and economizes on the administrative costs of aid. These are important—a typical World Bank project runs about \$1 million in administrative costs. If a project is merely replicating what the country already does relatively well (building another power plant in a well-managed system), there is little value added from administrative costs. Providing general budget support would free these staff and donor resources for other, higher-value added activities.

Problems with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are usually one of two types: inefficiency in allocation of resources across activities or inefficiency in the use of allocated resources.

Composition of Spending. Consider first a country that does things reasonably well, but continues to spend on many things that are inefficient because the private market could do these things just as well or the social returns are simply too low. Suppose that a country insists on putting large amounts of public finance into higher education. Donors traditionally want to fund primary education to expand its relative share of the budget. But with fungibility this approach is not rational. Possibly a better approach is "time slice" financing of the education budget.

Developed specifically for this purpose are such instruments as the Sector Investment Program. Donors and recipient governments reach a broad agreement on the goals for the sector—and develop projects and programs to achieve these goals. Donors then finance particular projects within the agreed program or provide general support to the sector budget. Periodic reviews of the Sector Investment Program provide a forum where donors and recipient governments can frankly exchange views on the overall sector spending program. Donors can use this policy dialogue to improve the allocation of expenditures. Another mechanism some have tried is a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 that tries to produce a strategic direction for government. Case studies of Ghana and Uganda, however, have found these less successful than hoped. In Ghana, some expenditures are designated as core. Pressures to include more items in the core led to the creation of a “supercore,” which was just as pressured. Both concepts were abolished in 1990. One cannot expect miracles, however, and some early experiences with these innovations are showing natural implementation difficulties.

While it is useful to have an open dialogue, it is unrealistic to expect complete consensus on the important activities for government to undertake. There are still wide divisions of opinion about the right role for government between and withi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Some people believe that governments should subsidize tertiary schooling. Others do not. Some believe that governments should play a strong role in allocating credit. No, say others.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electricity, say some. Many disagree. These are not just disagreements about the extent and nature of market failure but about values, like the extent to which governments should take redistributive action. Technocratic advice will not be sufficient to resolve most disputes about allocations across sectors or within sectors across categories of spending. In 1990 Sweden spent three times Japan's 11.5 percent of GDP on social transfers (Lindert 1994). Given the enormous differences among donor countries in the allocation of spending and of private and public responsibilities, it is hard to believe that a sharp consensus will emerge from the democratic process even among donors, much less between donors and recipient governments.

Effectiveness of Spending. Suppose now that an aid recipient has spending allocations that donors broadly support, but is inefficient in delivering services. If a country has carried out macroeconomic reforms, it should be getting a significant amount of aid. Macroeconomic reform is not technically difficult, but developing an efficient public sector is more challenging.

There are still wide divisions of opinion about the right role for government between and withi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In this case donors should largely stick with the project approach. The main objective of projects now is not to increase funding for a particular activity, but to help change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at the micro level that affect service delivery. An assessment of public sector efficiency is needed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about how to deliver aid. Once countries have carried out macroeconomic reforms, those with efficient public sectors can receive budget support, while those with inefficient public sectors would get relatively less money and more ideas.

Where a country has both a severely distorted allocation of expenditures and an inefficient public sector, institutions and policies will be poor and finance will be of little value. The traditional donor response has, nevertheless, been to try to find something useful to finance. Fungibility helps explain why large amounts of aid have had no lasting effect in these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There is no alternative to patience. But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hat donors can, without large flows, support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productive public expenditures, the subject of chapter 4.

Note

1. The World Bank's first Chief Economist, Paul Rodenstein-Rodan, emphasized in the 1950s that even when financing was tied to projects, money often remained fungible. Assessments of aid as early as the 1960s raised the issue of fungibility (Little and Clifford 1965).

Aid Can Be the Midwife of Good Institutions

AS THE WORLD'S ECONOMIES MOVE INEXORABLY TO embrace market-friendly policies, public sectors are reorienting themselves and downsizing. "Less is better," has been the cry. But could this response go too far? In many crucial areas there are essential public responsibilities—in developing human, institutional, and physical infrastructure—that government must continue to fulfill. In these areas, less is not necessarily better, but "better is better."

One key to development is that government must do well those things that government must do. Since aid (both money and ideas) mostly supports the public sector, one pressing question is: How can development assistance be designed so that it helps governments carry out better the activities essential to increasing growth and reducing poverty? Another is: How can aid combine financial support with help to create local knowledge so that governments can improv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services?

Creating knowledge does not mean that donor agencies (or the experts they hire) have chunks of technical or engineering information that they simply transmit to aid recipients. In the public sector, development knowledge is needed to design and effectively run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public services: primary schools in El Salvador, water supply in Guinea, road maintenance in Tanzania, or utility regulation in Argentina. This is not knowledge that exists somewhere and can be packed in a suitcase and carried to developing countries. To be effective, this is knowledge that must be created locally and internalized. Existing principles must always be adapted to new or local circumstances (or both), and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and citizens must take

How can development assistance be designed so that it helps governments carry out better the activities essential to increasing growth and reducing poverty?

Before choosing instruments, aid donors first need to be clear about goals.

the lead in creating this new knowledge. Development agencies can, however, bring unique value added to the table.

A consistent focus on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public sector implies a radical shift in the way aid business is done—in the choice of instruments, how those instruments are used and evaluated, and how donors relate to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Before choosing instruments, aid donors first need to be clear about goals. The role of aid varies depending on country circumstances; the mix of financial and nonfinancial development assistance must be tailored to specific needs. In the few poor countries where the public sector is already effective, the task of foreign aid is straightforward: simply financing the expansion of public services is likely to be both successful and beneficial.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governments are not effective at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financing more of the same is unlikely to be successful or beneficial. In these cases foreign assistance should focus on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core public services. This requires the right mix of finance and ideas to produce the greatest value added. Money does not usually matter most. Aid agencies must look beyond providing finance to supporting the creation of knowledge.

A combination of policy dialogue and financing is more likely to increase aid effectiveness than a narrow focus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id-financed projects. At times, donors have hindered the creation of effective public sectors because they saw end runs around local institutions as the easiest way to achieve project success. Donors need to convince countries of the value of better policies and institutions rather than cocoon “their” projects from the worst consequences of those policies.

Better Public Provision

PROVIDING PUBLIC SERVIC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quires that all stakeholders—governments, providers (whether public employees or private), and citizens—have reasonable incentives. These incentives can be manifold: from making governments responsive to citizens to ensuring the right structure of civil service pay, to designing concession contracts that fit country and sector circumstances.

Accountability

No longer can governments be monopoly providers of services (education, health, roads, irrigation, water, and so on) with no accountability to citizens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ir performance. In recent years donors have moved to support 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as well as innovations that support greater community "voice" and involvement. In a range of sectors these reforms carry different names and take different forms but reflect the same impetus—rural water supply ("participation"), irrigation systems ("water user associations"), schools ("decentralization" and "school autonomy"), transport ("road management boards"), health ("community association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community forestry").

Donor finance can affect accountability and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for good or ill. In the irrigation sector examples abound of how an emphasis by governments and donors on quantitative (or investment) targets and modern technologies led to the exclusion of the intended beneficiaries from planning, design, and implementation. Sometimes that exclusion can lead to almost absurd results. One major donor-financed irrigation system in Nepal was designed by technical staff on the assumption that the area was unirrigated (Ostrom 1996). A fortuitous delay in the project provided the time to discover that, in fact, there were 85 fully functioning farmer-managed irrigation systems. Beneficiary involvement would have saved red faces. Another Nepalese irrigation scheme actually lowered agricultural productivity by undermining preexisting arrangements among farmers (Hilton 1990, 1992).

A recurring problem with irrigation projects has been inadequate revenues for operations and maintenance. Merely raising water fees does not solve the problem unless providers are accountable and the necessary revenues are devoted to maintenance. Even when revenues are available for maintenance,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provider can be a problem. One study compares irrigation systems in India and the Republic of Korea (Wade 1995). While the two systems are similar, the different design of their irrigation departments (responsible for delivering water) leads to enormous differences in performance. In India the department is a centralized bureaucracy that relies on general treasury revenues for finance; in Korea irrigation officials are local and in constant contact with farmers.

Such problems are not unique to irrigation, but plague service delivery in many other sectors—water supply, health care, education, road maintenance—due partly to the way aid projects have been structured. The

Donor finance can affect accountability and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for good or ill.

emphasis on increasing the quantity of financial aid as the answer to increasing growth has led agencies to targets that centered on the size and speed of disbursements and a technocratic approach to the design of investments. Even when all parties know better, "moving the money" can easily and quickly become the paramount institutional objective (Tendler 1975). With that kind of thinking, agencies opt for large projects rather than small ones and prefer to deal directly with centralized agencies on efficiency grounds (box 4.1). Doing so makes accounting and administration easier. In many cases donor investment projects—with fixed schedules and budgets—have left no room for beneficiary involvement. In some cases this led to "approval cultures" in aid agencies, where success was judged by the volume of disbursements (World Bank 1992).

Reviews of the Danish donor agency's 30-year experience in Tanzania's rural water sector found that the same problems (lack of maintenance, low community interest) occurred repeatedly, yet only modest changes were made in project design. The agency's procedures were dictated by a need to implement projects rather than to create supplies of water that met the needs of beneficiaries. A review of the World Bank's irrigation experience suggests that although the benefits of user participation are large, "irrigation professionals are wary of such participation, because they know it will lengthen the implementation period" (Jones 1995, p. 141).

Some measure of the importance of beneficiary participation in project success can be gleaned from an evaluation of 121 rural water supply projects financed by dono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49 countries (Narayan 1995; Isham, Narayan, and Pritchett 1995). As

Box 4.1 Aid and Centralization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in the delivery of public services—for example, health, social welfare, agricultural extension, and rural infrastructure provision, all of which have all been devolved in the Philippines—is intuitively desirable. But in practice decentralization has led to problems in the formulation of donor projects. The problem does not arise so much in the case of grant assistance as in loan-funded projects, where the question of loan conduiting can become a stumbling

block. Donor agencies are not normally prepared to lend directly to local governments without a guarantee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But providing such a guarantee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devolving responsibility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e absence of satisfactory loan conduiting mechanisms for local governments,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tend to formulate projects that involve devolved functions, undermining the devolution process" (Habito, in OECF/World Bank 1998, p. 21).

shown in the overview among projects with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68 percent were highly successful. But of those projects in which there was little beneficiary involvement, only 12 percent were highly effective. Another important finding was that not only was participation crucial to success, but also that it could be encouraged, or discouraged, through project design and government action. Implementing agencies which actively sought to involve intended beneficiaries had 62 percent of their projects achieve success (figure 4.1). In contrast, government agencies that did not actively seek beneficiary involvement ended up with less effective projects and only 10 percent were highly successf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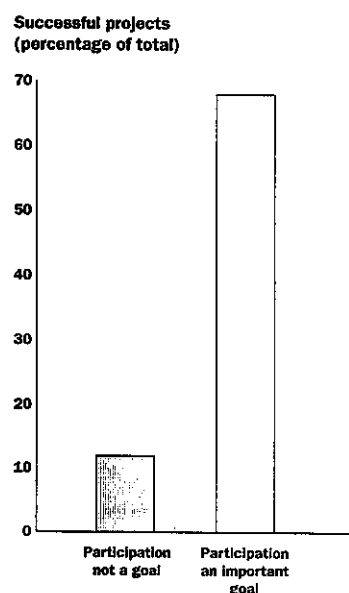
Another study found that investment projects have been more effective in countries where citizens enjoy civil liberties (Isham, Kaufmann, and Pritchett 1997). This is not a measure of political democracy but of people's freedom to express their views (free press,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freedom to petition governments). Civil liberties matter even among projects assessed on the economic rate of return—projects that might be thought to be entirely technocratic matters for engineers and economists and insulated from popular pressures (appendix 4). Indeed, the probability of a project failing (those with *ex post* economic returns below a cutoff of 10 percent) is 50 percent higher in countries with fewer civil liberties (figure 4.2).

Donors are moving to encourage beneficiary involvement and local ownership. To that end, they have embarked on numerous innovations, including social investment funds. These funds do not specify a particular set of projects by sector (a road project, say, or new schools in particular villages). Instead, they specify processes whereby communities can apply for funds for any project they wish to undertake, subject to reasonable conditions on cost, need, sustainability, community contribution, and so on. Such funds have been created in more than 20 countries, and a preliminary evaluation suggests that they have been reasonably successful. They force changes on donor agencies from project to process: the fund must specify a process for funding projects and assess the likelihood that this process will produce projects that generate sustained benefits. But the evaluation found that even social funds maintain features that are an end run around institutional weaknesses and hence are only a temporary solution.

Donors are also becoming more flexible about allowing midstream adjustments in projects and encouraging "structured learning" so that development objectives are met. An example is the World Bank's support to Brazil's PROSANEAR sanitation project. Sponsored in part by Caixa

When agencies sought participation as a goal, 62 percent of projects were successful—when not, only 10 perc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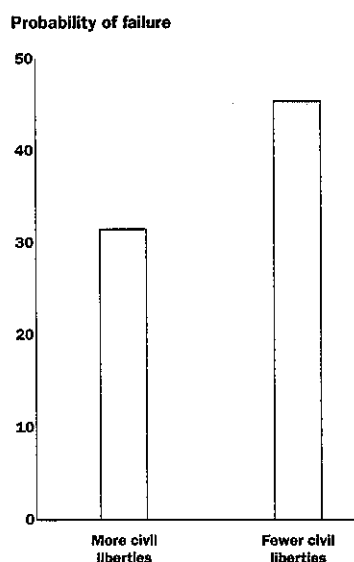
Figure 4.1 Participation and Project Success



Source: Isham, Narayan, and Pritchett 1995.

Civil liberties matter for economic projects.

Figure 4.2 Civil Liberties and the Probability of World Bank Project Failure



Source: Isham, Kaufmann, and Prichett 1997.

Economica Federal, this project uses an effective sewage collection strategy. "PROSANEAR boasts a high degree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hared responsibility. Communities are increasingly involved in monitoring household use and system performance, and in managing their own repairs. The project's most striking feature is Caixa's commitment to adjust design and works according to the lessons of experience" (World Bank 1995a, p. 6).

Public Sector Compensation and Performance

The approach to aid that emphasized the quantity of investment and technocratic skills tended to underestimate the power of incentives in determining the actions of public sector providers. In the past donor and government technocrats assumed that once power plants were built, they would be operated effectively; new roads would be maintained; health clinics, once constructed, would provide quality services. In reality benefits will flow only if there are adequate incentives for (mainly civil service) providers.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donors now recognize that incentives are crucial for success and have been providing support for reforms in public sector management and the civil service.

Many poor countries have found it hard to maintain a competent, efficient, and honest civil service because real public sector wages have tumbled in the past 15–20 years. Underpaid (but not especially overworked) and with their morale at rock bottom, civil servants, especially high-level ones, have turned to moonlighting and corruption (World Bank 1995b). By 1986 the real average wage in Tanzania, for example, had fallen to a fifth of its 1969–77 value. The wage of top civil servants had fallen even further: to just 6 percent of its previous level. The ratio of top level pay to the minimum wage was only five to one. Pay is not always the problem. Even in countries where civil service pay is adequate, the structure of incentives is not. Guarantees of job tenure and lockstep pay rises based on seniority encourage none but the workaholic.

Especially in poor and aid-dependent economies, donors have sometimes done more harm than good. In their efforts to attract the best people for projects, donors can unwittingly deplete the civil service of its best and brightest, offering salaries and working conditions that governments cannot match. An independent study reported that for an agriculture project in Kenya the World Bank hired eight local people at salaries of \$3,000–6,000 a month; of the eight, all but one was recruited from the

civil service, where the monthly salary for a senior economist was roughly \$250. In Mozambiqu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ere paying five times the civil service wage for professional staff and 10 times the civil service wage for technicians (Fallon and Pereira da Silva 1995). The combination of low civil service salaries and competition for skilled personnel among donors makes the strengthening of the civil service through training a Herculean task. Workers leave as quickly as they are trained. One program in Kenya funded by the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trained 13 economists to the master's level; within a year, 10 had found jobs outside government, and the other three were searching (van de Walle and Johnston 1996).

Civil service reform, too, often denudes the public sector of its most competent staff. Reforms usually include downsizing (jargon for eliminating redundancies). When this is "voluntary" (employees are offered a severance package, usually more generous than mandated by law), the most skilled are the first to leave. But downsizing does not have to be a problem. In 1991 Peru announced two staff reduction packages for its civil service. One was an across-the-board offer taken up by 250,000 workers, of which 163,000 had to be rehired later. In contrast, the downsizing in tax administration targeted employees by skill level and was able to reduce staff by two-thirds while raising wages and doubling tax revenue (Haltiwanger and Singh forthcoming).

When donor-financed projects fail, it is often because of weak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Effective Public Institutions

When donor-financed projects fail, it is often because of weak institutions and public organizations. There is plenty of evidence that institutional capability affects overall economic growth and the success of investments. One recent study found that over the 30 years to 1994, countries with sound policies and capable and effective government institutions grew at 3 percent per capita each year—while those with sound policies but weak institutions grew at only 1.4 percent a year (World Bank 1997a).

Using an index based on various dimensions of government performance, a recent staff review of World Bank-financed projects found that, whereas the average success rate on Bank projects was 68 percent, projects in countries with sound policies and capable institutions had an 86 percent success rate. Countries with neither sound policies nor able institutions had failures in 52 percent of projects, nearly four times the rate in countries with good policies and governance (see overview figure 5).

The design of projects needs to adjust to the reality that money or capital stock is less important than good institutions or better idea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settings where policies and institutions are seriously weak, the Bank would do best to focus on policy-based lending and non-lending services that support the strategic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capacity of government" (World Bank 1997a, p. 13).

Would better-designe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mean more effective public institutions? Because aid has gone almost exclusively to (or through) central governments, it has affected how public services are delivered. In general, government-provided services are those that are difficult to allocate via markets, either because they are pure public goods that benefit all (national security, rule of law) or because they involve external effects that are hard to value (health service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nature of these services, however, implies problems in designing lasting institutions and incentives for efficient public sector delivery and performance.

In the interests of effective implementation, donors often establish quasi-independent project implementation units outside the line ministry (and sometimes outside the government). Donors do this to "cocoon" the projects they finance from the worst inadequacies of the public sector. When projects are "successfully" concluded and turned over for operation to the regular line ministry, they lack the commitment, competence, and resources needed to continue. While isolating projects can at times make sense for purposes of piloting, demonstration, or evaluation, narrowly measured implementation "success" that comes at the expense of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generally is a Pyrrhic victory and inimical to the true success of aid.

The design of projects needs to adjust to the reality that money or capital stock is less important than good institutions or better ideas. The point of an education project is not to increase funding for the sector (this can be done without projects) but to help reformers change the ideas, institutions, and policies in the sector. A truly effective project is a bundle of activities that does not just build schools but, more important, helps to change how schools are run to provide high-quality education. Building the finest schools, hospitals, or roads is pointless if the institutional capacity does not exist to maintain and run them.

This means that the most useful projects will often be innovative. If a country is competent at building schools and running them, donors should simply provide general budgetary support. The only rationale for a project is that things should be done differently than they are now. If existing schools are ineffective, a useful project might rehabilitate them and help

alter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example, increasing community input into decisionmaking). Such a project may draw on things that have worked elsewhere, but it is innovative in the setting where it is being implemented.

An important corollary is that the success rate of financed projects is not particularly relevant—if success is narrowly defined. An effective agency may finance a lot of innovative projects, and some of these may “fail”—in the sense that they do not lead to better services. The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developing countries are systematically gaining knowledge from such experiments. Failed projects can often teach as much (or more than) successful ones. If projects are deemed “successful” because they merely replicate past success, agencies have the wrong incentives to provide effective assistance. Managers will want to avoid risky, innovative projects in favor of things that are known to work. This leads to unseemly and counterproductive competition among donors to “skim the cream” and finance only those items in the public investment program that are likely to be successful—with or without donor involvement.

In response, donor agencies have moved to broader measures of project success. They typically assess the effect of projects on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sector agencies. Take a road project. Are better technologies for designing and building roads being introduced? Will pricing and other policies ensure maintenance? Are agency staff receiving necessary training? Assessing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institutional effect” is essentially asking a host of questions about whether the project is helping the recipient country to change the way that it manages its road sector.

Note that a project could have a successful “outcome”—the road is built and has a high return—but no lasting effect. On the flip side, a project could have “failed” but have led to substantial institutional development. This is particularly true of innovative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to which a lot of aid now goes. The innovative approach may not work, but if it is systematically evaluated and the knowledge is fed into a broader reform program, the project is helping improve the management of the sector.

This kind of serious impact evaluation has often been missing from development assistance, yet it is potentially of the greatest value. Again, innovations may fail, but development assistance is strengthening the underlying institutions by assisting i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new approaches and generation of knowledge. Increasingly, donors are emphasizing the crucial importance of this kind of knowledge creation. Witness the United Kingdom. A recent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says:

If projects are deemed “successful” because they merely replicate past success, agencies have the wrong incentives to provide effective assistance.

Without research, many development interventions would fail or be much less successful.

"Research is an important weapon in the fight against poverty. Without research, many development interventions would fail or be much less successful; and research has significant multiplier effects—solutions to the causes of poverty in one part of the developing world may well be replicable in another. The principle of shared knowledg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partnerships which are essential to development. The Government sees the continued investment in knowledge generation as a key element in achieving its aims and objectives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White Paper 1997, p. 48).

At the World Bank, each completed project is rated on the basis of whether it had a "substantial institutional development impact," and this is viewed as the "most important evaluation criteria for long-term development effectiveness" (World Bank 1997a, p. 24). However, this component is also difficult. For a long time the share of World Bank-financed projects with a "substantial" institutional impact hovered around 30 percent, and only in recent years has it climbed to 39 percent. Thus it is possible for development projects to help change significantly the way the public sector does business. But it still happens in too few cases.

In our view, an effective development agency will be taking risks, systematically evaluating the outcomes, and disseminating the knowledge gained. This generation and dissemination of knowledge is one of the biggest contributions that development assistance can make. In tandem with the old rationale for aid, in which donor financing addressed market failure in capital markets, donor activities need to address the market failure in "knowledge" markets (Stiglitz 1988). But serious, rigorous evaluations that generate solid knowledge are expensive, and no one government has the incentive to undertake evaluations that will benefit other countries.

Public Provision without Public Providers

TO MAKE AID MORE EFFECTIVE,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turn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and exclusive) use of public bureaucracies to provide services. Many public services can be provided effectively (often more effectively) by private organizations under contract or holding a concession. Donors and

governments have often turned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ew sources of financing have also brought about important changes in providers' incentives, empowered intended beneficiaries, and so increased the effectiveness of aid.

Contracting and Concessions

Privatizations and divestments have reduced the drain on government revenues and capacity in areas where public sector involvement is not critical. But even when government retains responsibility for services, they need not be managed through the usual public sector agency. Many activities can be contracted out to the private sector, and competition among potential providers can create pressures for cost-effectiveness.

How does it work? Take AGETIPs (Agences d'Execution des Travaux d'Interêt Public), not-for-profit associations that enter into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governments to carry out infrastructure projects. The first was in Senegal, which (by contracting with individual suppliers through open bids) was able to reduce costs and delays. Other West African countries soon adopted this model (World Bank 1997c).

A concession is a way to contract with private provider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without relinquishing public ownership of assets or public control of service delivery conditions. In Guinea a contractual arrangement under which a private management agency took over the operation of a water system was set up with the help of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loan that initially paid the difference between costs and the revenues recovered from users. The subsidy was gradually reduced and the operation is now run commercially. This shows how aid can smooth the introduction of new arrangements. As important, donors can relay positive (and negative) experiences to other aid agencies and countries contemplating similar arrangements—be it power deregulation in Chile, water concessions in Argentina, or toll roads in Mexico.

Disseminating experience and lessons from innovators is especially important i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id. Take railways, a clear example of diffusion of information about innovations in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railways are often run down and costly, with outdated rolling stock—all thanks to inefficient public management and competition from roads and airlines. Argentina was an innovator in railways. It split its massive federal system into several freight and commuter rail networks and awarded the rights to run them to private firms, some-

Many public services can be provided effectively (often more effectively) by private organizations under contract or holding a concession.

times through "negative" concessions (where firms bid the lowest amount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offer them in subsidies). While some of these concessions have had problems, labor productivity quadrupled, prices fell, and the public sector saved \$600 million (Thompson and Budin 1997). More important for aid, development agencies helped ensure that the pitfalls and pluses of Argentina's experience were incorporated into programs in Brazil, Chile, Mexico, and countries in Africa, which have all moved to concession railways.

NGOs as Service Providers

The us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s implementing agencies for donor-financed projects is another rising trend (box 4.2). Many NGOs also receive government contracts to provide services.

NGOs have advantages in providing some services, over both government agencies and more profit-oriented suppliers. NGOs can often reach local and target groups more effectively than can traditional government agencies. But NGOs are no cure for the shortcomings of the public sector. Moreover, external NGOs often have the same problem as donors in

Box 4.2 A Useful Surge i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 RECENT REPORT BY JAPAN'S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 notes that "the spread of democracy and the broader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has come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has stimulated NGO activity throughout the world. The governments of both developing and industrial countries have a relatively good understanding of the large role that NGOs can play in a country's development. The OECF has collaborated with local NGOs on preimplementation studies and project implementation for several projects, including the Aravalli Hills Afforestation Project in India and the Forest Sector Project in the Philippines. It has also commissioned a Japanese

NGO, the Japan Wild Bird Society, to conduct an environmental survey on the habitat of cranes as part of the OECF's special assistance for project 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Project of Agriculture on State Farms in Heilongjiang Province in China (Sanjiang Plain). For the Jamuna Multipurpose Bridge Project in Bangladesh, a local NGO is conducting the basic survey on site expropriation. There have also been numerous instances in which local and international NGOs have contributed valuable advice on sector surveys, preimplementation studies, and project appraisal and implementation" (OECF 1996, p. 60).

creating sustainability and local ownership (World Bank 1998 a). So, while NGOs can be part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they cannot replace government and cannot be a permanent substitute for public sector capacity.

User Fees, Effectiveness, and Demand-side Financing

Government services (particularly those financed by aid) are often provided free to users—health care, irrigation, water, extension services, schooling, roads, and so on. In many cases this approach is socially desirable but raises three problems—two serious, one less so. Least important, free services tend to be overused, clogging the system—be it a road network or health clinic. The two more severe problems are institutional and closely related to aid. First, since the service does not generate revenues, its provider depends on the general treasury for funding. Especially in poor countries with chronic or recurrent fiscal crises, that is cold comfort. There is little assurance that funds needed for, say, medicine or irrigation maintenance will be forthcoming. Second, because funding comes from the treasury, it is difficult to empower beneficiaries or instill in them the sense of ownership so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aid projects. Users are frozen out, in setting priorities and planning and delivering services.

In recent years donors have financed innovative ways to increase service effectiveness by creating charges directly linked to improvements in quality—from irrigation to education, health to agriculture. Health is a good example. Providing universal health care in poor countries is a laudable aim. But because of insufficient funding, morale is in the depths, and more important, clinics often have no needles, drugs, or medicine. That leads to a vicious cycle: patients, knowing the poor quality, seek care elsewhere, leading to underuse of clinics, which makes it harder to justify increased budgets to improve services (Filmer, Hammer, and Pritchett 1998).

In 1988 the Bamako Initiative sought to reverse that cycle by introducing user fees in Cameroon. A project financed by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rried out a controlled evaluation of the combination of charging user fees and using them to improve quality by creating a reliable drug supply. The study found that not only did the use of health centers increase but that there were proportionately more poor users than rich (Litvack and Bodart 1993). Similar experiments have had similar results in other sectors, such as education (Birdsall and Orivel 1996). Examples like these reveal the valuable role donors can play in financing and evaluating innovations in service delivery.

In recent years donors have financed innovative ways to increase service effectiveness.

The shift in development thinking requires reorienting the instruments of aid.

Making Aid Work for Better Public Services

THE SHIFT IN DEVELOPMENT THINKING FROM A GOVERNMENT-LED accumulationist strategy to a focus on fundamental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core public sector responsibilities requires reorienting the instruments of aid. In particular, it means reconsidering the methods of financial (project and program) and nonfinancial (technical assistance, policy analysis, training) assistance and how they can be adapted to support the new development strategy.

Project Finance

We have not yet discussed a topic that accounts for most of the analysis of aid effectiveness: the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details of making aid projects more effective. There are two reasons for this. First, and most important, this area has been well covered in many past evaluations, reviews of experience, and research, and we have little of value to add. Many donor agencies review the performance of completed projects. The combination of individual project experience and comparisons across countries allows these evaluations to provide critical and constructive suggestions from the lessons learned to improve the organization's operations. In addition, some donor agencies' technical departments and evaluation departments produce sector specific reviews of both the problems faced and promising approaches in each sector.¹ This voluminous literature on project performance and sectors provides a wealth of information needed to implement successful projects.

The second reason that we do not go further into the issue of effective aid projects is that we are more interested in the indirect than the direct effects of projects. Aid-financed projects can have spillover effects from individual projects to the general operation of the public sector.

Almost from the beginning, projects financed by foreign aid were thought to have important indirect and broader benefits. Hirschmann (1967) argued that perhaps the greatest were institutional and personal learning from the concep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projects. He believed that projects were the "privileged particles" of development that created innovation by confronting problems as they arise. These benefits emphasize the value added of donor involvement, which allows a supportive "infrastructure" of institutional and technical support for implementation that would otherwise not be present.

Development projects can be a testing ground for ideas or concepts that are new to a country, demonstrating to the government and citizens what does (or does not) work—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using NGOs, involving user groups in management, and so on. The value added of donors is twofold. One is the ability to devote resources to careful evaluation of experience. Knowledge of this type is an international public good, and no government has sufficient incentive to evaluate or disseminate it. Donor projects can also help break the mentality that locks the public sector into ineffective arrangements. Reform-minded governments find it hard to implement new ideas—especially those that challenge entrenched interests, particularly if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y will work. That they will work can often only be proven by implementation. Donors can break this vicious circle by helping to implement such projects. In a joint meeting of officials of the Gambia and the World Bank to improve the working relationship, the Gambians expressed “the importance of the Bank’s role in bringing experience and ideas from outside as the strongest plank in the partnership. Financing was vital, but more because it represented the possibility to do—moving beyond talk” (Marshall 1997, p. 26).

But the benefits depend on the project being implemented in a way that is different and on the evaluation of this difference. Unfortunately, both of these requirements are rarely met, as donor-financed projects often do not provide mechanisms for rigorous evaluation of outcomes—or did not until recently.

Projects also present opportunities to engage in a sectorwide dialogue with government. Many investment project failures are linked to sector policies of government that often conflict and work at cross-purposes. For instance, in some countries agricultural extension, irrigation, and transport projects intended to encourage farmers to grow specific crops have been overwhelmed by macroeconomic and microeconomic policies that effectively resulted in heavy taxation on agriculture. In other countries investments in roads, irrigation, and other infrastructure have been poorly maintained (or not maintained at all) because public agencies could not recover costs and were starved of funds. Changes in general policies that result from dialogue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donor-financed projects and improve prospects for all projects in the sector. This effect can be crucial value added from donor involvement.

Just one example comes from the difficult area of resettlement caused by land acquisitions in public investments (see box 4.3). Because projects can have both a direct impact (a new road links communities, carries

***Development projects
can be a testing ground
for ideas or concepts
that are new to a
country.***

people and freight) and spillover benefits (improving institutions and sector policies), both need to be evaluated.

Nonproject Finance

Donor financing that is tied less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icular projects—such as program aid, sector investment financing, sectoral adjustment programs, or other time-slice finance instruments—ha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ver project finance.

In a country where spending allocations are sound and the effectiveness of expenditures is high, the potential value added of donor involvement in project design and implementation is minimal. Nonproject financing saves on project preparation and implementation costs, both for donors and recipient governments. One scarce resource of donors is staff with technical skills and experience from a range of countries. Since project preparation is staff intensive, however, using projects as a form of support in well-managed countries does not necessarily allocate staff where their skills are best used or needed. Scarce skills will probably be put to more productive use elsewhere. For recipients, nonproject assis-

Box 4.3 Resettlement in Developmen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ORLD Bank's experience with implementing its resettlement policies in its projects concludes that:

"Having been the first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ever to adopt a resettlement policy, the Bank has promoted this policy with the Borrowers whose projects include involuntary population displacement. One main result of the Bank's catalytic impact 1986 to 1993 is that several Borrowers enacted or improved domestic policies and legal frameworks for resettlement.

"Resettlement works when governments want it to work. The main way governments express their commitments to good resettlement is by creating adequate institutional capacity, defined as the synergy between policies, organizations, and resources.

When borrowers do not genuinely concur with the Bank's resettlement policy from the outset, resettlement is generally not carried out well—regardless of Bank missions or the frequency of Bank threats to suspend disbursements.

"The Bank has been far more effective overall—and immediate operations have benefited more—when it in reached agreement with borrowing governments on the broad domestic or sector policy framework relevant to Bank-assisted operations, than when its efforts were confined to legal agreements for individual projects. In turn, the obligations it laid down in individual loan legal agreements and the agreed "project policy" have sometimes formed the basis for discussing and improving more general domestic legal and policy frameworks" (World Bank 1996a, p. 8).

tance helps with donor coordination. The administrative setup needed to monitor perhaps hundreds of donor-financed projects is burdensome to governments with limited public sector management capability. Often each donor and each project has its own procedures, plans, and reporting and procurement requirements.

Project financing brings its own biases into the incentives of aid agencies: favoring investment over recurrent spending, large projects over small ones, expansion of physical production over improvement in efficiency, imported materials over domestic. Recipients often see projects as being generated and implemented by aid agencies alone, with little local ownership.

The use of general budgetary support delinks projects and implementation from overall targets for assistance—that is, the size of projects is often scaled to meet targets for total assistance disbursed rather than to maximize the value added of projects. At times the scale of the project works at cross-purposes with its intent.

But all of these considerations apply mainly to those lucky few countries and sectors in which public services are already effective and, perhaps, even efficient. If one of the main concerns of development is to improve policies and increase government's institutional capacity (and it should be), foreign assistance that simply expands the budget envelope of existing activities without changing the structure or incentives for service delivery is unlikely to see much of a payoff. The question is: What kind of support will best lead to public sector improvement? Sometimes projects are necessary. At other times a policy dialogue—connected to program assistance—is needed. And sometimes no financing at all is the most useful.

An excellent study of aid in Africa sponsored by the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based on collaborative case studies in seven African countries, makes this recommendation:

“[Program aid] is not likely to promote development in the absence of sound economic policies. In such situations, donors should maintain a policy dialogue with the government, but limit aid flows and direct them to project assistance, often focusing on non-state actors. When sound economic policies have been put in place, donors should expand program aid, perhaps in the context of sectoral investment strategies negotiated with the government” (van de Walle and Johnston 1996, p. 8).

Project financing brings its own biases into the incentives of aid agencies: favoring investment over recurrent spending, large projects over small.

A society (or government agency) that has generated its own reform program is receptive to technical assistance and institution building.

This recognizes the complex factors in the choice of the method and level of development assistance. Effective aid depends not just on the type and method of aid chosen, but critically on government policies, institutional capability, and commitment to improve services.

Nonfinancial Support

Nonfinancial support can have a high payoff, but its record has been mixed. Lack of institution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has long been recognized as a big hurdle to development.² One traditional solution has been to use three types of technical assistance: employing foreign experts on a short- or long-term basis, training government officials (in country or abroad), and financing long-run educational programs. While donors have made much use of foreign experts to improve institutions (and there have been successes) the overall results have been disappointing (World Bank 1996b). 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evaluation in 1993 suggested that "there is a growing sense that technical cooperation does not work well, that as presently practiced it is ineffective, that such benefits as it brings are extremely costly, and that in any case it has little lasting impact" (Berg 1993, p. 3-4).

A society (or government agency) that has generated its own reform program is receptive to technical assistance and institution building. When not driven by domestic demand for particular expertise, however, foreign experts are often not integrated with ministries in a way that allows knowledge to be transferred. Free-standing technical assistance provided by international consultants and individual technical experts has served some purposes, but as a way to promote and improve public sector institutions they have usually been expensive failures.

Training government officials in technical tasks has also had mixed results. In many countries training has been unsuccessful because public officials do not have the incentive to perform, are politically blocked from performing, or do not have the materials or resources to perform. In many countries there is no way to speed up the slow process that involves creating not just the capacity for policy analysis and dialogue (both i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but also the demand from recipient governments for productive technical assistance. The impact of ideas is difficult to monitor, evaluate, and especially quantify because the ways in which policy analysis contributes to future performance are often intangible and indirect.

One study undertook an empirical analysis of World Bank projects (mostly approved in the 1980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two staff inputs (Deininger, Squire, and Basu 1998). One is the input directly related to the project—preparation before the project begins and supervision while the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and the finance is being disbursed. The second is “economic and sector work,” which produces reports on the economy and particular sectors for government but also covers the dialogue with government and other development agencies.

The study found that (even after controlling for country, sector, and economic conditions and staff preparation and supervision for a particular project) prior analytical work improves projects. On average these activities have a high payoff, as the benefit of one additional week of analytical work by the World Bank is nine times the cost—including staff time, travel, and overhead (figure 4.3). Moreover, since analytical work affects many projects, the overall benefit is even larger. And these are just the payoffs to projects financed by the Bank. If the changes made from policy analysis affect other donor-financed projects, or perhaps even all government projects, the returns to involvement in nonlending activities would be enorm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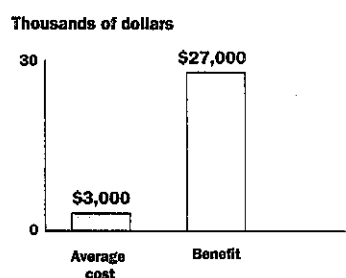
While analytical work has a high return, the same authors found that the World Bank underinvested in it, and overinvested in resources dedicated to ensure that a steady stream of projects went to the Executive Board (appendix 5). According to their estimates, a shift of resources from project preparation to analytical work would have led to lower commitments but a higher success rate of projects. In other words, fewer projects would have been approved, but they would have been better designed and better implemented. Ironically, a shift of resources from project preparation to analytical work would have led to higher—not lower—disbursements of funds. The reason is that problem projects are implemented slowly and hence disburse slowly.

Methods of Assistance and Public Sector Efficiency

Properly managed, aid can encourage better public sectors through both project and nonproject activities (and often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two). Both can provide the knowledge countries need. Projects support experimentation and reform, demonstration, piloting, evaluation, and innovation. There are also several ways in which donors can assist countries through nonproject activities, such as by creating and diffusing

The payoffs for analytical work can be enormous.

Figure 4.3 Cost and Benefit of an Additional Week of Analytical Work



Source: Deininger, Squire, and Basu 1998.

Properly managed, aid can encourage better public sectors through both project and nonproject activities.

information drawn from their experience. Since aid agencies implement many projects in different countries and with different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have an established capacity to evaluate projects, they can draw on cross-cutting evidence and experience that no single country could. Policy analysis, bringing technical expertise to bear, can be useful. Training—that is, enabling domestic actors with the necessary capabilities to accomplish their objectives, whether by exposing policymakers to other experiences or providing new skill—also plays a key role.

Notes

1. Even a partial list of the literature produced by just the World Bank gives some indication. From the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have come reviews of, among other sectors, irrigation, agricultural extension, and adjustment lending. Sectoral policy papers reviewing the experience with Bank involvement have been produced on, among others, energy, water, education, and adjustment lending.

2. Krueger, Michalopoulos, and Ruttan (1989) note that in the 1950s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as home to a huge debate between advocates of capital assistance and advocates of technical assistance.

Money, but More Ideas, Too

GOOD ECONOMIC MANAGEMENT MATTERS MORE TO developing countries than foreign financial aid does. Policy and institutional gaps hold back economies that lag behind, not financing gaps. Aid money has a big impact only after count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reforming their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se messages should not, however, be twisted to mean that countries with weak institutions and policies (call them difficult, weak, or troubled environments) cannot be helped. They can. Many things can be done usefully.

But first we know from experience what is *unlikely* to work:

- *Large amounts of money.* Providing significant financing has not made much of a dent in poverty in countries with weak management.
- *Buying reform.* Conditional lending has not generated reform in countries with no domestic movement in this direction for reform.
- *Focusing on individual projects.* In difficult environments donors have often fallen back on a core program of projects, mostly in the social sectors. But the success of individual projects (always difficult to achieve) does not have much impact unless it spurs *systemic change*. And because money typically is fungible, the whole (distorted) public sector is being financed, not just the favored sector.

S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get beyond projects and spur systemic change in whole sectors and countries. Easier said than done. Almost nothing positive has happened in Myanmar (Burma) or Nigeria in the past three decades. There obviously is no panacea for the ills of such countries. Even so, there are examples of successful assista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get beyond projects and spur systemic change in whole sectors and countries.

***In difficult environments,
effective assistance is
more about ideas than
money or projects.***

that has improved the lives of people living in countries with weak governance and poor policies. In some cases this assistance has contributed to a larger transformation that made a major difference.

Here we present four case studies of effective aid under difficult conditions. Running through them are four themes:

- *Find a champion.* Countries, governments, and communities are heterogeneous. While it is fair to characterize Burma overall as “poorly managed,” there are likely to be reform-minded elements in the community and even in the government. If aid can find and support these reformers, it can have a big impact.
- *Have a long-term vision of systemic change.* Successful reformers have a vision of how things could be different in, say, 10 years—different both in outcomes (more kids going to school, graduating, getting jobs) and in process (community involvement in schools, broad public support for reform policies).
- *Support knowledge creation.* While reformers typically have a long-term vision, they often need to develop the details of reform through innovation and evaluation. Moreover, for reform to take root requires a demonstration that it works. Financing and evaluating innovations is a key role for development assistance.
- *Engage civil society.* In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the government is failing to provide supportive policies and effective services. That is why government-to-government financial transfers produce poor results. Effective aid in such an environment often involves supporting civil society to pressure the government to change or to take service provision directly into its own hands (or to do both).

The foregoing points dea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promising environments for change and the ways donors can enhance those characteristics. The lessons from successful assistance also provide guidance about donor behavior. Aid is more effective when:

- *Agencies focus on long-term reform.* Successful aid in difficult environments typically involves intensive staff input from donors and small disbursements of money. It also goes “beyond projects” to support systemic reforms. In difficult environments, effective assistance is more about ideas than money or projects.

- *Donors work as partners rather than competitors.* Studies of aid have long pointed to the proliferation of donors and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them. Well-managed countries force coordination on donors, but in the weak environments donors often run amok. It is hard to explain this, except that different donors like to “plant their flags” on something (anything) tangible. In cases of successful assistance, there tends to be a strong partnership among donors with a focus on larger transformations, not on individual flags.

Well-managed countries force coordination on donors, but in the weak environments donors often run amok.

Vietnam: Adjustment without Lending

IT WOULD BE HARD TO IMAGINE A TOUGHER ENVIRONMENT FOR development assistance than Vietnam in the mid-1980s. One of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Vietnam had to appeal for international food aid at several points in the decade. Despite Soviet aid (10 percent of GNP each year), there was virtually no progress in development (in poverty reduction or improved social indicators). Economic management was poor. The trade regime was closed. There was no scope in the economy for the private sector. And a large fiscal imbalance was financed by printing money, leading to hyperinflation.

Vietnam in 1985–86 is a good example of how a large amount of financial aid can have no impact in an environment of distorted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re was widespread dissatisfaction within society, government, and the ruling communist party with these poor results. At a landmark meeting in 1986 the party decided to change direction and initiated *doi moi* (renovation). One of the leading champions of reform was Vo Van Kiet, who emerged as deputy prime minister responsible for the economy. The impetus for change came not just from the fact that Vietnam was doing poorly, but from the success of nearby economies that were more open to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Although the economic team had a general sense of the direction for economic policy—toward more private initiative and greater openness—it did not have a detailed reform program (Ljunggren 1993).

The Soviet Union's aid dropped sharply in the late 1980s, leaving Vietnam with only limited assistance (less than 1 percent of GDP) primarily from the UNDP and Sweden (SIDA). While Vietnam was grappling with classic adjustment problems, it was receiving no financial

Vietnam's reform opened more space for civil society, and donor activities encouraged this as 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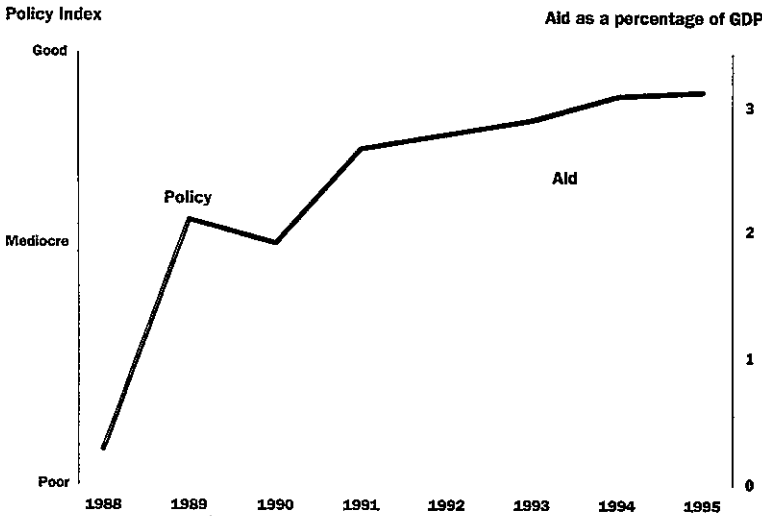
support from the IMF or the World Bank because of its political estrangement from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se institutions. The two were, however, contributing some staff time to advise the government. Furthermore, UNDP and SIDA invited the Bank and the Fund to manage some of the technical assistance they financed. So, the IMF managed UNDP-financed technical assistance for the central bank and contributed some of its own staff time. In a similar arrangement the World Bank managed UNDP-financed assistance for the State Planning Committee (now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In the early stages of reform this partnership of agencies provided important inputs. In 1991 the UNDP and the World Bank organized a meeting in Kuala Lumpur at which Vo Van Kiet and his team met with economic ministers from Indonesia, the Republic of Korea, and Malaysia. Each country laid out some key policies that had worked for them, and the Vietnamese team asked detailed questions about stabilization, trade liberalization, foreign investment, and other economic policies. At a more technical level, the same group of donor agencies organized training courses, policy workshops, and study tours for staff from Vietnam's economic ministries.

All this was aimed at helping Vietnam learn about its neighbors' experiences and develop the knowledge it needed to manage its own economy successfully. The generation of knowledge was supported at a more micro level, too. UNDP, SIDA, and the World Bank teamed to help the government carry out the first representative household survey ever done in Vietnam—generating a wealth of information about household production, income and poverty, education, health, and child nutrition. This survey, conducted in 1992–93, revealed that 55 percent of the population lived below a widely used international poverty line (Dollar and others 1998).

Vietnam's reform opened more space for civil society, and donor activities encouraged this as well. Two examples: The Asia Foundation and the World Bank organized the first public meeting between the domestic private sector and leading officials to discuss economic policies and key distortions holding back private investment. And a group of donors organized rural workshops to discuss the poverty analysis that emerged from the household survey and how donors could support local initiatives aimed at poverty reduction.

It is impossible to measure the exact effect of these donor activities. But there undoubtedly has been dramatic improvement in economic policies in Vietnam and that has made people's lives better. Vietnam's

Figure 5.1 Vietnam: Aid and Policy

Source: Dollar and Easterl 1998.

Aid in Vietnam focused on policy advice and technical assistance during adjustment and reform. Large-scale finance arrived after a good policy framework was in place.

policy improved from truly terrible in the mid-1980s to merely poor by 1990 (figure 5.1). (The improvement captures the strengthening of property rights over agricultural land and the first stage of stabilization, going from 400 percent inflation to about 70 percent.) There was further steady policy improvement in the early 1990s as inflation was brought under control, trade liberalized, and the legal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ector clarified.

Note that during 1989–93 Vietnam was receiving a small amount of aid (about 1 percent of GDP). Large-scale financial aid did not arrive until 1994–95, by which time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 was quite good for a low-income country.

Vietnam is a good example of systemic change. In the mid-1980s households were restricted in what they could do with land and labor. By the mid-1990s they had considerable freedom to work their land, start a household business, or look for wage labor. Innovations that had worked well locally were “scaled up” to the whole country. With the better policy environment came the need for complementary investments in roads, power, education, and other sectors.

In the wake of policy reform, growth accelerated. Of the 40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1986, Vietnam had by far the fastest growth

In recent years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experimented with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in the next decade. And benefits have been widely shared. A 1998 study of the households first surveyed in 1992–93 revealed that average household income had risen 39 percent in real terms and that the poverty rate had been cut nearly in half—from 55 percent of households to about 30 percent.

What are the lessons for foreign aid? Donors helped a reformer develop policies for Vietnam and show that they could work. And the clear objectives of Vietnam's leaders helped in coordinating donors.

The focus during the critical 1989–92 period was clearly on ideas, not money. For reasons of international politics, major donors such as the World Bank could not provide money to Vietnam until 1993, so they had to do something different. Intensive staff time required little money and made a big contribution to the country's reform and development.

El Salvador, Pakistan, and Brazil: Education's Decentralization and Reform

GOVERNMENTS IN DEVELOPING COUNTRIES USUALLY PLAY A MAJOR role in the allocation and management of educational resources. Even when some authority is delegated to provinces or municipalities, individual school administrators and parents have a limited voice. This centralized approach has supported many achievements in education, but it has not always reached groups that have traditionally had low levels of education (the poor and girls, for instance). And over-centralization can stifle initiative among those critical in affecting school outcomes—teachers, principals, and parents.

In recent years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experimented with decentralization of education in two ways: first, allowing more local autonomy and input into public schools, and second, creating more space for the nongovernmental sector. In some cases donors have helped finance and design these innovations. Most important, there has been support for government efforts to evaluate these innovations seriously, following pilot groups and comparing them with control groups not participating in the pilot. For reforms in El Salvador, Pakistan, and Brazil, there is now solid evidence that they work.

El Salvador's community-managed schools program—more popularly known by the acronym, EDUCO, or *Educacion con Participacion de la*

Comunidad—is an innovative effort for both 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to decentralize education by strengthening the direct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of parents and community groups. A prototype of today's EDUCO schools emerged in the 1980s when public schools could not be extended to rural areas because of the country's civil war. Some communities took the initiative to organize their own schools, administered and financially supported by an association of households. Although these early attempts were held back by the low rural income base, they demonstrated a strong inherent demand for education as well as a desire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of schools. In 1991 El Salvador's ministry of education, supported by such aid agencies as the World Bank, decided to use the prototype as the principal method of expanding education in rural areas through the EDUCO program.

Today's EDUCO schools are managed autonomously by an elected community education association (*Asociación Comunal para la Educación*, or ACE) drawn from the parents of the students. The ACEs take the central role of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they are contracted by the ministry to deliver a given curriculum to an agreed number of students. The ACEs are then responsible for contracting and removing teachers' by closely monitoring their performance, and for equipping and maintaining the school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ACEs is expected to improve school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by reflecting local 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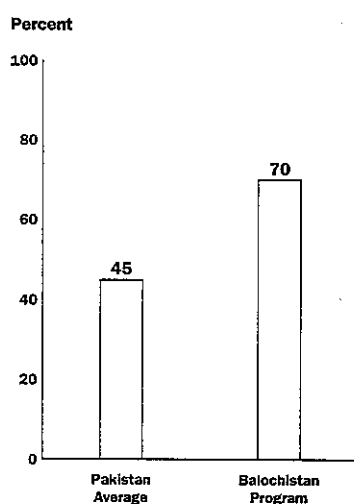
The EDUCO program is a way to expand educational access quickly to remote rural areas. But has this come at the expense of quality? No. Community-managed schools are not low in quality. Student achievement on standardized mathematics and language tests is the same for EDUCO schools and traditional ones (after controlling for household background). In fact, EDUCO schools may be superior. They have significantly fewer school days missed by students as a result of teacher absence (Jimenez and Sawada 1998). Based on this success, the government is now planning to introduce community management into all traditional schools.

In Pakistan a long-standing problem has been the low participation of girls in schooling. In 1994–95 the provincial government of Balochistan began supporting nongovernmental schools, with an emphasis on increasing the enrollment of girls. Subsidies are paid to new nongovernmental schools, based on the number of girls enrolled. After three years, the schools are expected to be financially self-sufficient through fees and private support.

El Salvador's community-managed schools emerged in the 1980s when public schools could not be extended to rural areas because of the country's civil war.

An innovative program to support the start-up of girls' schools in Balochistan led to an immediate leap in girls' enrollment.

**Figure 5.2 Pakistan:
School Enrollment of Five- to
Eight-year-old Girls**



Source: Kim, Alderman, and Orazem 1998.

In urban areas a new private school was opened in every poor neighborhood randomly selected for the program. Girls' enrollment increased by 25 percentage points, compared with their enrollment in control group neighborhoods that did not participate in the program (figure 5.2). Moreover, even though the program provided a direct subsidy only to the enrollment of girls, it had a positive spillover effect on boys' enrollment. This success was not affected by income or othe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neighborhood, suggesting that expanding it to other poor areas of Pakistan would likely be successful.

In rural areas, girls' enrollment is particularly low. So, the program supported the creation of girls' schools, often headed by a female teacher, a factor believed to significantly increase parents' interest in sending their daughters to school. Again, results show that the program significantly increased girls' enrollment compared with villages without girls' schools. As in the urban areas, there has been a spillover benefit in higher boys' enrollment rates.

In Brazil's State of São Paulo the new secretary of education, Rose Neubauer, initiated decentralization and improvements in efficiency. The traditional system involved using the same building for primary school in the morning and secondary school in the afternoon, with teachers commuting among different schools. There were also the usual problems of low teacher salaries and morale. The result: low enrollment rates, many repeaters and dropouts, and poor student achievement.

The reforms were threefold. First, the system was rationalized. Remapping allowed the concentration of primary students in primary schools and secondary students in secondary schools. Teachers were thus assigned to a single school, reducing commuting time and creating a more coherent faculty. This freed up resources to lengthen the school day and increase teacher salaries. The state education budget increased by 10 percent, but teacher salaries nearly doubled—possible because of the efficiency gains.

Second was decentralization. The state handed responsibility for primary education to municipalities that had the resources, capacity, and desire to assume it. There was a further decentralization of authority to school heads. Previously, these were political appointees not always possessing the requisite skills. In the new system these heads have to take a pedagogical exam and develop an action plan for the school.

The third prong of the reform was a commitment to assessment and research—that is, to a "results focus." Serious evaluation enabled the gov-

ernment to determine quickly that the reforms were working. Within a few years primary school enrollments in municipalities doubled from 600,000 to 1.2 million. Repetition rates dropped from more than 10 percent to less than 4 percent. Dropout rates plunged from 9 percent to 5 percent in primary schools and from 20 percent to 12 percent in secondary schools. The ultimate test of reform will be its effect on student achievement, and the testing system will allow careful evaluation over the next few years. Early results are quite promising, and teachers are happier as well. Neubauer is the first secretary of education in more than 20 years to go three years without a teachers strike!

What can be learned from the El Salvador, Pakistan, and Brazil education reforms? In each case decentralizing and involving civil society led to improvements in public services—specifically, the broader availability of schooling to disadvantaged groups. A key issue in each case was to take a good idea and see if it worked, to create the potential for systemic change—that is, for the reform of the whole sector. In El Salvador and Brazil the government is moving in this direction. In Pakistan it remains to be seen if the innovation will be widely disseminated.

But for donors, these provide clear examples of how assistance can help support reformers—in the initial piloting, in serious impact evaluation, and in mainstreaming if there is demand to “scale up.” Moreover, it is possible that these efforts to stimulate decentralization and community participation in education will have larger spillover benefits leading to more community involvement in other areas (roads, health), an important area for future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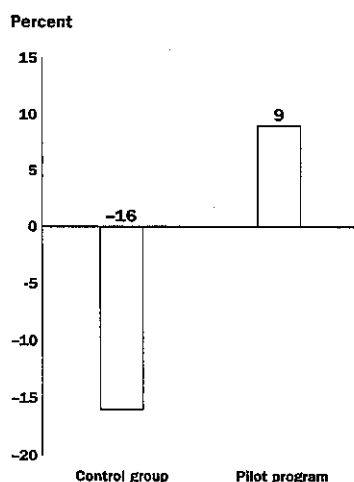
In El Salvador, Pakistan, and Brazil decentralizing and involving civil society led to improvements in public services.

Cameroon: Health Financing and Delivery

CAMEROON ENTERED THE 1980S WITH AN ANNUAL GROWTH RATE of 10 percent and exited them with an annual –10 percent growth. Partly the result of external shocks, the volatility was exacerbated by poor economic policy. The government adjusted slowly to a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allowed its fiscal deficit to climb to an unsustainable 12 percent of GDP in 1988. The fiscal imbalance led the government to adopt structural adjustment measures, including a 19 percent reduction in total spending. As in other African countries faced with similar problems, expenditure cuts fell disproportionately on public

In a period of fiscal adjustment and expenditure cuts in Cameroon, health center use declined 16 percent. But in villages with an innovative program of user fees and revolving drug funds, use increased 9 percent.

Figure 5.3 Cameroon: Change in Health Center Use and Utilization, 1990–91



Source: Litvack and Bodart 1993.

investment and on nonsalary recurrent costs. The health budget declined by an even larger amount—46 percent in real terms between 1987 and 1990.

These cuts were one factor leading to low-quality health care and poor use of public health centers. The centers were left with a staff of four or five nurses but virtually no drugs or supplies. Not surprisingly, health personnel were demoralized. Only a few patients visited the health centers each day for curative care; and opportunities to deliver preventive health care decreased. Most people bypassed the health center and “self-treated” through traditional medicine or through purchasing drugs of dubious quality from private vendors, or through traveling to a distant town to buy expensive brand name drugs at a pharmacy.

Then, in 1989 the ministry of health decided to decentralize the administration and finance of rural health care delivery. The approach was similar to that being tried, with UNICEF support, in several other African countries. The ministry asked USAID to help design and make operational this reoriented approach to public health care in two provinces. Other dono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Germany’s GTZ, UNICEF, CARE, Save the Children) were focusing on different aspects of primary health care. But the USAID-funded project was the pilot in which the government was experimenting with a comprehensive new approach to financing and delivering health services.

Local health committees were formed to oversee the operation of health centers and tell villagers about the importance of preventive health measures. Health centers were supplied with curative drugs and supplies, which were replenished through consultation fees and drug sales. Preventive health measures (vaccinations, family planning, information on safe drinking water) were still provided free.

By making good-quality, generic drugs available at health centers at a reasonable price it was thought that use of the centers would rise. In fact, the use of health center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households in areas with the new policy, but declined in the control group areas (figure 5.3). It was also thought that access of the poor might decline because of the user fees. But this did not happen. The poor were not left out. Indeed, they seemed to be benefiting proportionately more than others. Why? Because they lacked any source of reliable quality drugs prior to this policy, so it had a greater impact on them (Litvack and Bodart 1993).

Although this very successful pilot came to a close in 1994, opportunities for scaling up have not yet been realized. Many of the innovative

policies implemented in the two provinces required a waiver of normal procedures, and to replicate the pilot throughout the country would require broader changes in policy and legislation. For example, it had been envisioned that every health committee would become a private, not-for-profit association with ministry representation to ensure its independence. The needed legislation was drafted during the course of the USAID-funded project, but it has yet to b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ther issues need to be resolved before scaling up. How to address poorer areas; how to design transparent, predictable intergovernmental transfers to create incentives for cost recovery; and how to improve the central procurement system for pharmaceuticals.

What is the result of this partnership between reformers in the health sector and donor agencies? At least two provinces in Cameroon are delivering better health care to their people. Furthermore, there is a stock of knowledge that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proper government support can be a powerful way to improve rural service delivery, particularly for the poor. This could be an important input into a larger reform program in the sector and beyond. But as yet there has been no broader reform, and it is difficult for donors to do much until there is a larger domestic movement for change.

Africa's road sector provides good examples of how money—in a weak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can have little impact.

Africa's Road Maintenance Initiative

AFRICA'S ROAD SECTOR PROVIDES GOOD EXAMPLES OF HOW MONEY—in a weak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can have little impact. Almost a third of Africa's \$150 billion in roads (much of it aid-financed) has been lost due to lack of maintenance. Entering the 1990s about half the region's paved roads and 70 percent of the unpaved roads were in fair to poor condition. The poor state of the transport network was a serious bottleneck that lessened the value of reforms or other public investments.

Institutional and policy weaknesses prevented governments from providing necessary road maintenance despite ample funding. In most countries there was an almost exclusive reliance on public road maintenance companies, which tended to have a large capital stock (equipment) at low levels of use. The public sector companies were also overstaffed. Thus funds were directed at equipment and employment, but often were not available

The core problem of road maintenance is not technical or financial—it is weak and unsuitabl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other critical inputs (parts, fuel). The underlying problem: operations were used to meet objectives (say, employment) other than maintaining roads. Moreover, general weaknesses in national budgeting often led to an uneven flow of operating funds, further hampering efficiency.

In response to the mounting crisis, African transport ministers launched the Sub-Saharan Africa Transport Program in 1987, with the road maintenance initiative as a key component. The premise of the initiative is that the core problem of road maintenance is not technical or financial, but that the “real causes are weak and unsuitabl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managing and financing roads” (Heggie 1994, p. 2). The objective was to foster long-term systemic change, so that by 2000 countries would be well on their way to developing workable systems of maintenance.

What were the initiative’s innovative features? First, it began by bringing policymakers in the transport sector and road users together for seminars. Their focus was on the consequences of neglecting maintenance and on the institutional and policy weaknesses that resulted in poor maintenance. Countries discovered that they had common problems, and that already there were important examples of successful reform.

Second, the initiative focused on institutional weaknesses. The fact that road maintenance units were often part of the general civil service with inflexible employment policies, made it difficult to recruit, motivate, retain, or dismiss staff. Establishing autonomy for road agencies can provide more flexibility in employment. Financial autonomy can be important as well. In general, road maintenance is a public good, and road maintenance companies cannot directly charge the beneficiaries of their work. But taxes for vehicles and fuel can be structured to closely approximate “prices” for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n a country with strong budget management a government may not want to earmark funds from vehicle and fuel taxes for road maintenance. (Whatever the source of the revenue, it should ideally go to the use that has the highest social return.) But the best can be the enemy of the good. If the budget is not well managed and funds do not flow to road maintenance—even when the return to the activity is extremely high—then it is wise to search for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that best fits this case and provides a good outcome.

Some countries in the road maintenance initiative have started “road funds” in which certain taxes and fees are earmarked for road maintenance. This arrangement has benefits:

- It can improve tax collection. Collection always relies to a certain extent on the willingness of people to pay. When road users are convinced that their taxes are not going to provide public services, avoidance is high. If users are convinced that taxes will finance services that benefit them, they are more willing to pay.
- It can provide a steady financing source for day-to-day operations. In the past expensive equipment and staff could sit idle while the government resolved the latest fiscal crisis. In the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 there is a more stable flow of funds.
- It can improve spending. Road funds are overseen by road boards that include both government staff from the sector as well as road users—farmers, businessmen, bus and transport companies. This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s led not just to better collection of road taxes but to more efficient use of funds.

The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has led not just to better collection of road taxes but to more efficient use of funds.

Road boards have also provided input into other institutional changes, moving away from exclusive reliance on the public sector to carry out road maintenance. There now are commercially run equipment pools, and both road maintenance tasks and equipment maintenance are being contracted out (Carapetis and others 1991).

One key lesson is the importance of having a long-term game plan for reform. The initiative began in 1987, but it came to show major results only in 1992. It also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knowledge creation,” as we use the term in this report. In highly distorted environments people stop expecting services from the public sector and become skeptical about possibilities for reform. What is needed in this situation is not just good ideas, but demonstrations that they work. Now that there is tangible evidence of their value, good ideas from the African road maintenance initiative are spreading quickly from country to country. Also needed for the reform of public institutions is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Conclusion

POVERTY HAS ALWAYS BEEN WITH US. DEVELOPMENT ASSISTANCE IS only 50 years old. It is encouraging that there have been huge successes in the aid business—and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have been some spectacular failures. Many failures involved investments

It is possible to assist development in countries with weak institutions and policies, but the focus needs to be on supporting reformers rather than disbursing money.

based on strategic (not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influenced by the Cold War. But the failures of aid are not simply the result of pursuing nondevelopmental goals. Many of the world's poor live in countries with weak governance and poor policies, so that aid agencies work primarily in difficult environments. Early development thinking suggested that large dollops of capital into these countries would spur development. This is not the case. The examples here show that it is possible to assist development in countries with weak institutions and policies, but the focus needs to be on supporting reformers rather than disbursing money.

A number of common themes run through these examples of effective assistance. There must be *champions of reform with long-term visions* at the local or national level. Aid must help them *create the knowledge that they need for effective development*. In the difficult environments, public services are poor or nonexistent. Since the government in these cases is functioning poorly, effective innovations typically involve *engaging civil society*—either to bring about governmental reform or to create substitute institutions.

While it is possible to make a difference in countries with weak institutions and weak policies, scaling up the assistance to have a large effect generally requires nationwide reform. In Vietnam national reform in the late 1980s set the stage for a dramatic reduction in poverty in the 1990s. But in Cameroon's health sector, a successful innovation in two provinces was not replicated nationally. Essentially,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remained weak and did not take advantage of the successful innovation.

National transformations often catch observers by surprise. No one in the late 1980s could foresee the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 that would come over the Soviet Union. Reforms in Vietnam, India in the early 1990s, Ethiopia or El Salvador after their civil wars—all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predict a few years earlier. What this means for donors is that it is worthwhile to look for opportunities to support pockets of reform in difficult cases, but that they will not have much leverage over whether local successes are scaled up to nationwide transformations.

Another common theme concerns donor behavior. In the successful examples of assistance donors were more cooperative than competitive, more focused on knowledge creation than on disbursing money. For donors to be more consistently effective requires changing the internal culture and incentives for line managers in donor agencies—which have often encouraged a focus on the volume of finance or on narrow measures of project “success,” not on the contribution of assistance to sys-

temic change. A recent study of aid dependency sponsored by SIDA analyzes the problem:

"Both donor and recipient have incentive systems which reward reaching a high volume of resource transfer, measured in relation to a predefined ceiling.... In many administrations, both bilateral and multilateral, the emphasis is on disbursements and country allocations. Non-disbursed amounts will be noted by executive boards or parliamentary committees and may result in reduced allocations for the next fiscal year.

"On the recipient side, officials of ministries of finance and planning are rewarded for the commitments they can attract from donors in bilateral negotiations or in donor meetings. Whether these commitments result in disbursements is often of less consequence. Results are measured against volume figures, with no regard for the quality of management. Quality is supposed to be measured by regular evaluations, but this dimension of aid transfers is very complex and can always be disputed. Besides, when the time has come to evaluate the actual outcome, most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project on both sides will have been transferred.

"These practices have a direct relationship to program quality as well as to the feeling of program ownership. In the present aid-dependent countries, new programs have been pushed through for decades by donors as well as by planning ministries under a time pressure that appears completely unwarranted in retrospect, considering the slow rate of subsequent implementation. In these often very large-scale programs quality has taken second place behind quantity, and the question of ownership has never arisen: it is the owner who pushes" (Edgren 1996, p. 11).

Effective donor agencies need to create internal mechanisms and incentives that foster selectivity and that focus large-scale finance on developing countries with good policies. In countries with poor policies, donors need to be more patient and accept that the best assistance may involve activities that do not result in much disbursement.

Donor agencies have learned from their successes and failures. In the 1990s all of the major agencies have instituted reforms aimed at strengthening the focus on results on the ground (box 5.1). Most agencies have also formulated country assistance strategies so that individual activities now

Donor agencies need to create internal mechanisms and incentives that foster selectivity and that focus large-scale finance on developing countries with good policies.

Box 5.1 Reforming Aid Agencies in the 1990s

A MAJOR CHALLENGE FOR AID AGENCIES IN RECENT years has been to adapt their institutional strategies, cultures, and capacities to work with participatory development. New patterns of staffing, recruitment, and personnel performance assessment, new project management approaches, and new criteria for judging success—all have emerged progressively. How far has this process gone, and what remains to be done?

Fo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elf-commissioned reports led to a fundamental reconsider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ir traditional instruments—project loans. Beginning with the World Bank's Wapenhans Report, followed by similar reports of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the conclusion was that loan quantity had been given primacy over loan quality. Securing loan approvals was a more powerful motivator for staff than working to ensure project success or larger development

goals. Institutional factors critic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mpact had been neglected. Changes are now under way in each of the multilaterals, and sectorwide approaches are replacing individual projects. The World Bank has embodied its new objectives and organizational culture in a partnership strategy that reaches out to counterparts within and outside government.

Similar changes are evident in bilateral agencies, which have also often been disbursement-driven. But their main instrument has been grants not loans, with more flexibility in prepa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he emphasis has shifted from capital projects to capacity building and support for policy reform.

In all these changes the focus is on development results—on the human progress and the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advance generated by the effort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ir partners.

Source: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staff.

must fit into a larger game plan for policy reform and institutional change. In the same vein, the focus of evaluation has risen above the level of the project to overall country program reviews. These essentially ask: Have agencies used their resources to stimulate institutional and policy changes that have led to improved services and a better quality of life? This is not an easy question to answer. But it is the right one to ask. The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recently sponsored reviews of the overall impact of aid in eight African countries, conducted jointly by scholars from the developing countries in question and from major donor countries—which seems to be a fruitful approach. In the same vein, the shareholders of the IMF recently turned to a group of outside scholars to assess the Fund's support to low-income reformers. And the World Bank has initiated country assistance reviews with input from a wide range of stakeholders.

Called for are independent reviews of development agencies with strong input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focusing on two questions: Has the bulk of financing gone to sound institutional and policy environments? And have agencies contributed to policy reform and institutional change? Evaluating the right things should feed back into the management and

incentives within agencies. With better management and evaluation, development agencies should become:

- *More selective*—putting more money into economies with sound management.
- *More knowledge-based*—using resources to support new approaches to service delivery, expanding knowledge about what works, and disseminating this information as a core business.
- *Better coordinated*—results-oriented agencies should worry less about planting their flags on particular projects and more about how communities, governments, and donors working together can improve services.
- *More self-critical*—agencies continuously should be asking themselves: Why do we do what we do? And what is the impact?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nd aid effectiveness and with the end of Cold War strategic pressures, there is reason to be optimistic that the reform of aid agencies will succeed.

Appendix 1

Estimating the Effect of Aid on Growth

THE APPENDIXES PROVIDE TECHNICAL DETAILS OF SOME of the important original research results featured in this report. They are based on research papers that are available as journal articles or working papers that can be downloaded from the Assessing Aid website (<http://www.worldbank.org/research/aid>). The reader who wants more detail should go to these underlying sources. In most cases the datasets will also be available over the web. This first appendix deals with the effect of aid on growth.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recent empirical studies of growth relies on dynamic models of inter-temporal optimization. In these models the accumulation of physical and human capital depends on initial conditions and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that affect the return to savings and investment. Thus, growth is a function of initial condition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external shocks such as changes in the terms of trade or in weather patterns.

To introduce aid, this kind of analysis must take account of the fact that poor growth may induce donors to provide more aid. Instrumental variables techniques essentially split aid flows into permanent and transitory components. Only permanent aid goes into the growth regression. The regressions in table A1.1 use the dataset developed in Burnside and Dollar (1997). The dependent variable is growth rate of per capita GNP, averaged over four-year periods, beginning with 1970–73 and ending with 1990–93. There are six four-year periods and 56 developing countries in the sample (table A1.2), though there are some missing observations where data were not available.

Regression 1 explains growth as a function of initial conditions, the incentive regime, and an error term that captures external shocks. Following other literature, the measures of the incentive regime included are the inflation rate (Fischer 1993), the budget surplus (Easterly and Rebelo 1993), a measure of trade openness (Sachs and Warner 1995), and a measure of institutional quality (Knack and Keefer 1995). The level of government consumption is also considered, but this does not have a robust relationship with growth.

The index of economic management used in this chapter is formed as a weighted sum of the inflation rate, the budget surplus, trade openness, and institutional quality, where the weights are the regression coefficients in regression 1. This index can be interpreted as the predicted growth rate, given the quality of the incentive regime and assuming that the country had the average value of the initial condition variables. The index has a mean of 1.1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6. (The phrase "good management" in the text refers to a level of 2.7 or above.)

In regression 2 the index replaces the individual components; it can be seen to have a very strong association with growth. Regression 3 introduces aid relative to GDP and instruments for it with population and variables reflecting donor strategic interests. As in Boone (1994),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aid and growth. The picture changes, however, if aid is interacted with the management index. Regression 4 includes aid interacted with the index, as well as aid squared interacted with the index. (Potential endogeneity requires that instruments be used for aid as well as for both interactive terms.) The positive coefficient on aid times management and the negative coefficient on aid squared times management indicate that aid has a positive effect on growth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but that there are diminishing marginal returns to aid. It should be stressed, however, that the estimate of the diminishing returns is imprecise. To measure this requires cases in which there is good policy and large amounts of aid. There are only a few such cases, so the estimate depends on these few outliers. If they are dropped from the dataset, there is no longer a significant coefficient on the aid squared times management term. However, the positive coefficient on aid times management is quite robust (regression 5).

The sample includes some middle-income countries, such as Chile and Mexico, that have received little aid and have access to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Regressions 6–8 repeat regressions 3–5, but drop the middle-income countries. The results are stronger in two senses: first, the estimated impact of aid on growth in a good management environment is larger; and second, the statistical confidence has increased.

For a given quality of policy and level of aid, regressions 4, 5, 7, and 8 each provide a different point estimate of the marginal impact of 1 percent of GDP in aid on growth. The average point estimates for different qualities of policy are:

Marginal effect on growth of 1 percent of GDP in aid (percentage points)		
Poor policy (index = 0)	Mediocre policy (1.1)	Good policy (2.7)
–0.3	0	0.5

While the estimated impact of aid in a poor policy environment is negative, the estimate i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zero. The estimated impact in a good policy environment is significantly positive. These averages from the four regressions are the estimates shown in Figure 1.5. The positive coefficient on the interactive term also means that policy improvements are more potent if a country is receiving aid. Finally, note that government consumption h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growth—important because aid often finances government consumption (chapter 3).

ASSESSING AID: WHAT WORKS, WHAT DOESN'T, AND WHY

Table A1.1 Estimating the Effect of Aid on Growth

Dependent variable: growth rate of per capita GNP (four-year average)
Sample: 56 developing countries, four-year periods (1970–73 to 1990–93)

	<i>Regression</i>							
	1	2	3	4	5	6	7	8
Initial GDP per capita	-0.60 (1.04)	-0.63 (1.30)	-0.76 (1.00)	-0.74 (0.90)	-0.95 (1.09)	-0.80 (0.82)	-1.14 (1.22)	-1.42 (1.27)
Financial depth	0.01 (0.95)	0.01 (1.12)	0.02 (1.68)	0.03 (1.66)	0.02 (1.62)	0.03 ^a (1.99)	0.05 ^a (1.99)	0.03 ^a (1.99)
Political instability	-0.42 (1.50)	-0.42 (1.57)	-0.39 (1.43)	-0.34 (1.15)	-0.34 (1.19)	-0.72 (1.15)	-0.93 (1.75)	-0.69 (1.32)
Economic management	—	1.00 ^b (7.17)	1.03 ^b (7.01)	0.50 ^a (1.93)	0.70 ^b (3.42)	1.20 ^b (7.00)	0.01 (0.01)	0.58 ^a (2.08)
Trade openness	2.11 ^b (4.11)	—	—	—	—	—	—	—
Inflation	-1.56 ^b (3.92)	—	—	—	—	—	—	—
Budget surplus	4.07 (1.03)	—	—	—	—	—	—	—
Institutional quality	0.66 ^b (3.75)	—	—	—	—	—	—	—
Government consumption	-2.53 (0.55)	-1.96 (0.52)	-4.38 (0.68)	-1.53 (0.21)	-1.73 (0.25)	-2.38 (0.40)	2.10 (0.29)	1.13 (0.17)
Aid/GDP	—	—	-0.08 (0.28)	-0.15 (0.35)	-0.37 (0.89)	-0.10 (0.49)	-0.28 (0.79)	-0.53 (1.69)
Management x aid/GDP	—	—	—	0.66 ^a (2.11)	0.24 ^a (2.38)	—	0.99 ^b (2.69)	0.36 ^b (3.64)
Management x (aid/GDP) ²	—	—	—	-0.07 (1.63)	—	—	-0.09 ^a (2.10)	—
<i>R</i> ²	0.41	0.41	0.39	0.35	0.39	0.46	0.36	0.46
Number of observations	284	284	272	272	268	189	189	185

a. Significant at the 5 percent level.

b. Significant at the 1 percent level.

Table A1.2 Countries in the Dataset

<i>Sub-Saharan Africa</i>	<i>Latin America</i>	<i>Middle East and North Africa</i>	<i>East Asia</i>	<i>South Asia</i>
Botswana	Argentina	Algeria	Indonesia	India
Cameroon	Bolivia	Egypt	Korea	Pakistan
Côte d'Ivoire	Brazil	Morocco	Philippines	Sri Lanka
Ethiopia	Chile	Tunisia	Thailand	
Gabon	Colombia	Syria	Malaysia	
Gambia	Costa Rica	Turkey		
Ghana	Dominican			
Kenya	Republic			
Madagascar	Ecuador			
Malawi	El Salvador			
Mali	Guatemala			
Niger	Guyana			
Nigeria	Haiti			
Senegal	Honduras			
Sierra Leone	Jamaica			
Somalia	Mexico			
Tanzania	Nicaragua			
Togo	Paraguay			
Zaire	Peru			
Zambia	Trinidad			
Zimbabwe	and Tobago			
	Uruguay			
	Venezuela			

Appendix 2

Expla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RECENTLY, THE THEORY OF MACROECONOMIC POLICY and economic reforms has changed focus. Instead of viewing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economic policy as a control problem in which the issue is to find the optimal policy rule, the core of the analysis has shifted to the actual policy process. The chosen economic policy is explained by appealing to binding incentive constraints facing optimizing policymakers. The theoretical literature in political economy has identified several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successful reforms (see Rodrik 1996 for a recent review of the literature). To test these theories, and to investigate if factors under the World Bank's control have any effect on success or failure of reform, a measure of the extent of policy reform is needed.

Previous work on explaining reform progress has used different outcome measures (or changes in them) as proxies of reform, but that has obvious shortcomings. For example, outcome is partly driven by exogenous shocks which are difficult to disentangle from policy effects, there is lag between policy change and outcome, and reforms differ in objectives and may therefore not be captured by a single outcome measure. Dollar and Svensson (1998) avoid these problem by using a zero-one variable reflecting failure or success of reform programs supported by the World Bank (outcome). The binary evaluation variable (outcome) is determined *ex post* by the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OED) of the World Bank.

Using the zero-one reform measure as dependent variable, a probit regression could be specified relating the probability of successful reform

to domestic political economy variables, World Bank effort variables and other controls. The regressions in table A2.1 use the dataset developed in Dollar and Svensson (1998), consisting of 182 completed adjustment loans during the period 1980–95, for which comparable data could be collected: 36 percent of these reform programs were judged not to have met their objectives.

Regression 1 explains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reform as a function of only the core political economy variables. All variables enter significantly: success is associated with democratic government and with political stability. Ethnic fractionalization and length of time that the incumbent has been in power enter non-linearly: the basic message is that high degrees of fractionalization are bad for policy reform, and that long-term incumbents are not likely candidates for reform. Regression 1 predicts correctly 75 percent of the observations.

In regression 2, several Bank-related variables are added to the specification, recognizing that there is an endogeneity issue that has not yet been addressed. Some of these variables are likely to be exogenous: whether the adjustment loan focuses on trade reform or sectoral reform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policy problems in the country and the government's desire to attack particular problems. What is clearly under the Bank's influence is the amount of preparation staffweeks and amount of supervision staffweeks. In regression 2, preparation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success and supervision, negatively associated. Once controlling for these two variables, other Bank-related variables such as number of conditions, loan size and the allocation of conditions among tranches play no role.

An implicit assumption underlying regression 2 is that the World Bank does not respond to exogenous shocks that reduce the probability of success—that is, the error term in regression 2 is assumed to be un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preparation and supervision. However, an exogenous shock that reduces the probability of success is likely to call forth more preparation and supervision resources. Thus, in order to estimate these relationships it is necessary to partition the World Bank effort into a predicted part that is independent of exogenous shocks—and an unpredicted part. This is possible to do by employing a two-stage probit technique developed by Amemiya (1978). Regression 3 reports the result of including the predicted part of the World Bank effort variables. Once these Bank-effort variables are treated as endogenous,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any of them and the success or failure of adjustment

programs,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economy variables and outcomes is stable.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there ar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affect the probability of success of a reform program. Given those factors, none of the variables under the World Bank's control significantly affects success or failure of adjustment programs. If endogeneity is ignored, there i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and outcomes, and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ion and outcomes. That these relationships disappear in the two-stage regressions indicates that the associations reflect how the World Bank allocates resources.

To further explore the last issue, regression equations for supervision and preparation are specified in columns 4-6. Regression 4 shows that preparation is strongly related to a number of variables (regional dummies, loan size, number of conditions, income, and population) that in turn have no relationship with the probability of success—but has very little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economy variables.

There is a broadly similar story for the allocation of supervision resources (regressions 5 and 6). Unlike the preparation equation, regional dummies are no longer important. The regional departments of the World Bank have different amounts to prepare loans, but once these loans are approved the regions devote similar resources to supervising a loan of given characteristics. In the supervision equation, it is also considered that preparation may affect supervision. In the OLS regression (regression 5) there is a larg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and supervision.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error terms in the preparation and supervision equations are certainly correlated. Anything unobserved that leads to higher (lower) than predicted preparation will almost certainly lead to higher (lower) than predicted supervision. The fact that the regional dummies seem to belong in the preparation equation but not in the supervision equation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use them as instruments to correct for this simultaneity problem. In the two-stage least squares regression (regression 6),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and supervision is no longer significant.

Table A2.1 Estimating the Outcome of Adjustment Loans

	Regression					
	1	2	3	4	5	6
Dependent variable	Outcome	Outcome	Outcome	Preparation	Supervision	Supervision
Regression method	Probit	Probit	Probit/IV ^a	OLS	OLS	IV ^a
Observations	220	182	179	179	179	179
Countries	67	60	60	60	60	60
Constant	-0.098 (0.32)	-0.762 (0.72)	-0.366 (0.25)	3.311 (4.38)	2.685 (4.02)	3.272 (3.11)
Ethnic fractionalization	5.930 (4.16)	8.176 (4.40)	7.763 (4.04)	0.018 (0.04)	-0.134 (0.42)	-0.144 (0.46)
Ethnic fractionalization ²	-6.513 (4.27)	-8.501 (4.32)	-8.046 (3.79)	0.043 (0.10)	0.213 (0.59)	0.254 (0.73)
Government crisis	-1.301 (3.94)	-2.372 (4.46)	-2.285 (4.29)	-0.223 (2.48)	-0.029 (0.39)	-0.017 (0.18)
Democratically elected	0.585 (2.61)	0.887 (3.11)	0.912 (3.09)	0.124 (1.98)	-6.1E-3 (0.01)	-0.009 (0.18)
Time in power	-0.089 (2.07)	-0.118 (2.23)	-0.113 (2.09)	0.004 (0.36)	0.003 (0.29)	0.004 (0.48)
Time in power ²	0.003 (2.15)	0.004 (2.17)	0.004 (2.02)	-3.7E-3 (0.99)	3.6E-3 (1.14)	-4.7E-3 (1.47)
Preparation staff weeks (log)		0.966 (2.31)	0.323 (0.24)		0.339 (5.14)	0.364 (1.34)
Supervision staff weeks (log)		-1.410 (2.92)	-0.869 (0.67)			
Finance conditions (percent)		1.217 (1.84)	1.423 (2.02)	-0.149 (1.07)	-0.078 (0.67)	-0.120 (0.99)
Macro and fiscal conditions (percent)		0.910 (1.04)	0.766 (0.89)	-0.260 (1.33)	-0.323 (1.97)	-0.256 (1.41)
Sectoral conditions (percent)		1.386 (2.26)	1.161 (1.83)	0.002 (0.02)	0.180 (1.65)	0.175 (1.59)
Trade conditions (percent)		1.067 (1.70)	0.961 (1.46)	-0.021 (0.15)	-0.141 (1.25)	-0.141 (1.23)
Number of conditions (percent)				0.153 (3.29)	0.074 (1.85)	0.077 (1.28)
Loan size (log)				0.281 (5.29)	0.210 (4.37)	0.220 (2.50)
Structural adjustment loan				-0.145 (2.16)	-0.062 (1.10)	-0.105 (1.58)
Sub-Saharan Africa				-0.080 (0.78)	0.093 (1.09)	
Latin America & Caribbean				-0.284 (3.06)	0.020 (0.25)	
East Asia				-0.148 (1.39)	-0.118 (1.33)	
Initial GDP per capita (log)				-0.064 (1.04)	-0.153 (2.96)	-0.184 (3.39)
Initial population (log)				-0.147 (3.90)	-0.099 (3.00)	-0.124 (2.66)
Predicted ability	0.75	0.80				
Adjusted R ²				0.34	0.45	

a. Regression 3 is estimated by a two-stage procedure described in Dollar and Svensson (1998), with preparation and supervision specifications given in regressions 4 and 6. Regression 6 is estimated by 2SLS with preparation specification given in regression 4. t-statistics in parentheses.

Appendix 3

Analysis of the Fungibility of Foreign Aid

ONE OF THE MAIN CHANNELS THROUGH WHICH foreign aid influences development outcomes is its impact on the recipient country's public expenditures. The link between foreign aid and public expenditures is, however, not straightforward because some aid may be "fungible." An aid recipient country could render ear-marked aid fungible by reducing its own resources in the sector that receives aid and transferring them to other sectors of the budget.

Feyzioglu, Swaroop, and Zhu 1998 study this issue using annual data from 1971 to 1990 from 14 countries—Bangladesh, Costa Rica, Ecuador, Egypt, Honduras, Kenya, Mexico, Malawi, Malaysia, Peru, Sierra Leone, Thailand, Turkey, and Zaire. Two foreign aid variables were used: total aid to a country (the annual net disbursement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r ODA), and the sectoral composition of concessionary loans from all sources, over time and across countries. Other variables in the data base included total as well as sectoral classification of public spending, per capital real GDP, infant mortality, average years of schooling, school enrollment ratios, military expenditur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share of agriculture in national income.

The model in the study develops links between foreign aid and public spending assuming that the observed mix of public expenditures results from a combination of the government's utility maximizing choice using fungible resources—domestic and external—and the purchase of goods from the nonfungible portion of aid.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impact of aggregate foreign aid on total government spending is first estimated to examine whether foreign aid affects the resource

mobilization effort of the recipient country. The impact of earmarked sector-specific aid on components of government spending is estimated next and the fungibility hypothesis examined.

While the problem of simultaneity exists in principle in this study, attempt is made to minimize it by (a) using aid disbursement numbers which in most part are predetermined; and (b) including a few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s of the recipient country as explanatory variables in the regression analysis.

Tables A3.1 and A3.2 report the main regression results of the study. Regression 1 show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GDP and the share of the net disbursement of ODA. The regression shows that a dollar increase in foreign aid leads to an increase of 0.95 cents in total government spending. There is no tax relief effect in this sample. Increases in the net disbursement of concessional loans, however, are far more stimulative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s. Regression 2 shows that a dollar increase in concessional loans leads to a \$1.24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s. The likely reason why concessional loans have a relatively larger impact on government expenditures than overall ODA is that a portion of such loans have matching requirements—that is, for every dollar that a government spends on a specified activity it gets a matching amount in concessional loans. Among the control variables, the share of agricultural output in GDP—a measure of level of development in a country—is the only variable tha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both the equations. The negative coefficient suggests that countries that have a bigger share of their GDP from agriculture and are therefore relatively less developed, have relatively smaller government spending. Regression 3—which includes expenditure shares according to the economic classification—indicates that roughly three-quarters of ODA is spent on government's current expenditure. The coefficient of ODA in regression 5 shows that the remaining one-quarter of aid (after accounting for current expenditure) goes for capital expenditure.

Regressions reported in table A3.2 examine the link between the net disbursement of concessional loans to a particular sector and public spending in that sector. In each of the six regressions—one each for education, health, energy, agriculture, transport and communication, and defense—the coefficient on the variable *Government expenditure net of aid in GDP*, which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regressions, indicates how the government distributes an additional dollar that it gets from all

resources net of concessionary loans. Regression 5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loans to the transport and communication sector and the public spending in that sector; the coefficient on the aid variable is 0.92, which is statistically not different from 1. Other estimates indicate that loans to agriculture and energy, for the sample countries, have been fungible. But for the education and health sectors no null hypotheses of interest can be rejected. The likely explanation is that based on the available data for these sectors, the power of the test is not enough to reject any reasonable hypothesis. In recent years, the donor community has been increasingly concerned that development assistance is being used to fund military expenditures. Data from the sample countries do not, however, support the hypothesis that foreign aid is diverted for military purposes (regression 6).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consistent link between aid to a sector and increased spending in that sector—that is, aid tends to be fungible.

Table A3.1 Impact of Foreign Aid on Total, Current, and Capital Public Expenditures, 1971–90

<i>Dependent variable^a</i>	<i>Regression</i>					
	<i>Total government spending</i>		<i>Public current expenditures</i>		<i>Public capital expenditures</i>	
	<i>1</i>	<i>2</i>	<i>3</i>	<i>4</i>	<i>5</i>	<i>6</i>
Constant						1.80 (0.29)
Government expenditure net of aid in GDP			0.63 (15.33)	0.65 (14.44)	0.35 (9.15)	0.35 (8.80)
Share of ODA in GDP	0.95 (5.82)		0.72 (10.59)		0.29 (4.65)	
Share of concessionary loans in GDP		1.24 (4.08)		1.22 (8.97)		0.27 (1.19)
Real per-capita GDP	0.01 (1.67)	0.01 (1.10)	−0.002 (0.43)	−0.004 (1.05)	0.002 (0.59)	0.002 (0.80)
Neighbor's military expenditure in GDP [lag(−1)]	0.33 (1.04)	0.43 (1.26)	−0.10 (0.76)	−0.53 (0.37)	0.08 (0.64)	0.04 (0.30)
Average schooling in labor force [lag(−1)]	−1.78 (1.04)	−1.12 (0.61)	3.74 (4.19)	2.92 (2.90)	−3.58 (4.27)	−1.95 (2.66)
Infant mortality rate [lag(−1)]	0.09 (1.51)	0.06 (0.94)	0.06 (2.19)	0.01 (0.26)	−0.05 (1.91)	−0.02 (0.89)
Share of agriculture output in GDP [lag(−1)]	−0.63 (2.69)	−0.53 (2.09)	−0.12 (0.94)	−0.09 (0.63)	0.07 (0.59)	0.15 (1.55)
Gastil index of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0.39 (0.64)	0.32 (0.50)	−0.17 (0.50)	−0.48 (1.35)	0.04 (0.12)	−0.03 (0.10)
<i>Adjusted R²</i>	<i>0.87</i>	<i>0.84</i>	<i>0.97</i>	<i>0.97</i>	<i>0.79</i>	<i>0.19</i>
<i>Observations</i>	<i>128</i>	<i>128</i>	<i>89</i>	<i>89</i>	<i>89</i>	<i>89</i>
<i>Model^b</i>	<i>Fixed</i>	<i>Fixed</i>	<i>Fixed</i>	<i>Fixed</i>	<i>Fixed</i>	<i>Random</i>

a. Dependent variables are expressed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b. Model indicates whether the country dummies in the regression represent a fixed effects or a random effects model.

Note: For regressions that represent a fixed-effects model, coefficients of country dummies are not reported. t-statistics in parentheses.

Table A3.2 Impact of Sectoral Concessionary Loans on Sectoral Government Expenditure, 1971–90

<i>Dependent variable^a</i>	<i>Regression</i>					
	<i>Education</i> 1	<i>Health</i> 2	<i>Energy</i> 3	<i>Agriculture</i> 4	<i>Transport and communication</i> 5	<i>Defense</i> 6
Constant	4.12 (1.49)	1.19 (1.28)	-0.63 (0.51)	-2.07 (1.20)	2.08 (3.44)	3.36 (0.89)
Government expenditure Net of aid in GDP	0.08 (4.94)	0.02 (4.32)	0.01 (1.99)	0.03 (2.75)	0.10 (5.57)	0.11 (5.10)
<i>Sectoral loans (as a share of GDP)</i>						
Education	1.55 (1.08)	0.01 (0.03)	0.16 (0.27)	0.05 (0.05)	0.52 (0.31)	0.71 (0.38)
Health	-3.21 (0.73)	-0.31 (0.23)	3.07 (1.61)	3.45 (1.29)	1.10 (0.21)	5.19 (0.91)
Energy	-0.71 (1.21)	0.12 (1.84)	0.36 (3.82)	0.21 (1.59)	0.17 (3.75)	0.02 (0.07)
Agriculture	0.56 (2.22)	0.19 (2.45)	0.09 (0.82)	-0.05 (0.32)	-0.01 (0.03)	0.21 (0.65)
Transport and communication	-0.59 (3.01)	0.14 (2.44)	0.16 (1.92)	0.21 (1.77)	0.92 (3.98)	0.36 (1.44)
Other sectors	-0.05 (1.65)	0.02 (2.30)	0.01 (0.79)	0.06 (3.25)	0.04 (1.09)	-0.01 (0.35)
Real per capita GDP	0.0003 (0.26)	-0.0001 (0.15)	0.001 (1.44)	0.0003 (0.45)	-0.0002 (0.17)	0.0002 (0.15)
Neighbor's military expenditure in GDP [lag (-1)]	-0.12 (1.28)	0.003 (0.17)	0.02 (0.41)	-0.004 (0.12)	-0.04 (0.67)	0.01 (0.16)
Average schooling in labor force [lag (-1)]	-0.19 (0.68)	-0.08 (0.89)	-0.12 (0.99)	0.46 (2.55)	-1.65 (4.87)	-0.29 (0.75)
Infant mortality rate [lag (-1)]	0.01 (1.37)	-0.003 (0.91)	0.002 (0.53)	0.01 (1.60)	-0.03 (2.38)	-0.01 (1.12)
Share of agriculture output in GDP [lag (-1)]	-0.05 (1.17)	0.008 (0.65)	0.02 (1.12)	-0.004 (0.18)	-0.08 (1.92)	-0.03 (0.56)
Gastil index of political and civil liberties	-0.17 (1.56)	-0.06 (1.92)	-0.06 (1.23)	-0.02 (0.32)	-0.07 (0.57)	-0.03 (0.2)
Adjusted R ²	0.04	0.24	0.18	0.09	0.89	0.34
Observations	128	128	128	128	128	128
Model ^b	Random	Random	Random	Random	Random	Random

See Table 1.

a. Dependent variables are expressed as a share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b. Model indicates whether the country dummies in the regression represent a fixed effects or a random effects model.

Note: For regressions that represent a fixed-effects model, coefficients of country dummies are not reported. t-statistics in parentheses.

Appendix 4

The Impact of Civil Liberties and Democracy on Government Performance

TO MEASURE "CIVIL LIBERTIES" THE STUDY UNDERTAKEN as part of the research on aid effectiveness used a variety of existing indicators constructed by political scientists (Isham, Kaufmann, and Pritchett 1997). The two most general indicators were the Freedom House (1997) civil liberties index which ranks countries annually on a seven-point scale based on assessments of 14 factors, such as a press free of censorship,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freedom of religion, and free trade unions. A different index compiled by Humana (1996) ranks countries on a scale from 0 to 100 on the degree to which the country complies with the human rights agreed to in the 1966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measure "democracy," there are similar rankings constructed by political scientists that focus more narrowly on the extent to which a country's leaders (executive and legislative) were chosen by elections. This includes a political index of democracy created by Freedom House (1997) as well as others.

To measur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s we used a sample of the economic rates of return (ERR) of World Bank projects, which requires some explanation. Since the World Bank applies the same project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procedures across all countries, the *differences* across countries in returns are an indication of how effective the government is in implementing public projects.

To assess the impact of the governance variables we began from a base specification of the determinants of ERR from Isham and Kaufmann (forthcoming), which included a set of policy variables (black

market premia, fiscal surplus), economic variables (terms of trade changes, GDP growth, the capital to labor ratio), a dummy for "project complexity" and a set of dummy variables for the sector of the project. For the time-varying variables, we used the average value in the three years prior to the year in which the project was evaluated (usually the same as the completion year). We experimented with and without a set of regional dummy variables. Table A4.1 shows the base case results, estimated using a Tobit procedure to allow for the downward truncation of the dependent variable (the ERR is truncated as -5).

To this equation are added the variables for civil liberties. Both civil liberties variables had a strong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Bank-financed government projects (table A4.2). The two variables produce qualitatively similar results and the range of the estimates suggests that improving from the worst to the best civil liberties would improve the rate of return on government investment projects by between 8 percentage points (Freedom House index) and 22 (Humana index) (the average return in the sample was 16).

Two other interesting results from this regression suggest that this impact reflected the impact of citizen voice on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First, indicators of civil strife (riots, political strikes and demonstrations)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ERR on Bank projects, but that partial correlation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is more of this expression of discontent in countries with *more* civil liberties. Once one accounts for the greater civil liberties, this eliminates any independent impact of civil strife, indicating that when civil liberties allow it there is greater expression of all types of citizen voice and that ultimately this voice is a force for improving government performance.

Second, once the regressions explaining project returns included civil liberties there was no additional impact of electoral democracy. So, while electoral democracy and civil liberties are obviously closely linked, both in practice and in the data, the main channel of influence appears to be the availability of civil liberties rather than the more purely political mechanisms of choosing leaders.

Table A4.1 Base Specification for the Nongovernance Determinants of the Economic Rate of Return of Government Projects, 1974–87

	<i>Estimate without regional dummies</i>	<i>Estimate with regional dummies</i>
<i>Exogenous variable</i>		
In (capital/labor)	-1.09 (0.067) ^a	-1.66 (0.060) ^a
Dummy for project complexity	-4.29 (0.017) ^b	-4.23 (0.016) ^b
Terms of trade shock	0.0015 (0.889)	0.001 (0.922)
<i>Policy variable</i>		
Black market premia	-0.046 (0.000) ^b	-0.037 (0.000) ^b
Fiscal surplus	0.197 (0.149)	0.266 (0.063) ^a
GDP growth	0.193 (0.357)	0.013 (0.949)
<i>Regional dummy variable</i>		
East Asia		-3.33 (0.154)
Latin American and the Caribbean		-4.74 (0.072) ^a
Europe,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4.93 (0.100) ^a
Sub-Saharan Africa		-10.8 (0.000) ^b
<i>Sectoral dummy variable</i>		
Agriculture	0.027 (0.992)	1.39 (0.602)
Energy and public utilities	-3.92 (0.136)	-3.18 (0.220)
Transport and tourism	3.85 (0.137)	6.24 (0.016) ^b
Urban	10.1 (0.011) ^b	11.9 (0.003) ^b

a. p-level less than 0.10.

b. p-level less than 0.05.

Note: We report p-levels of the test whether the coefficient is 0 rather than test statistics themselves. The p-level is the significance level at which the null hypothesis can be rejected, hence a p-level less than 0.05 indicates a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at (at least) the 5 percent level. The p-levels are in parentheses. The sample size is 761.

Table A4.2 Impact of Civil Liberties Indicators on the Economic Rate of Return of Government Projects, Controlling for Economic and Project Variables

<i>Index</i>	<i>Without regional variables</i>	<i>With regional variables</i>
Freedom House	1.95	1.32
civil liberties, 1978–87	(0.000) ^a	(0.047) ^a
Humana, 1982–85	0.251	0.256
	(0.009) ^a	(0.025) ^a

a. p-level less than 0.05.

Note: Sample sizes are 649 for the Freedom House civil liberties index and 236 for the Humana index.

Appendix 5

Estimating the Impact of Analytical Work

WHILE THERE HAVE BEEN VARIOUS ANALYSES OF the impact of aid in the aggregate, far less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investigating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of aid and the composition of the aid portfolio.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is contex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transfers and analytical work. This distinction, and the effort to measure the impact and economic return to analytical services, is of particular relevance in a context where, with increasing access of developing countries to nonconcessional sources of finance, it is often argued that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World Bank will shift toward the provision of such “non-lending” services.

In the case of the World Bank, such analytical work comprises two distinct areas. Countrywide studies include Economic Memoranda containing a comprehensive accou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prospects, as well as topical reports such as Poverty Assessments, Public Expenditure Reviews, and so on that underpin the World Bank’s policy advice. These are complemented by sectoral studies such as reviews of the Transport Sector, Health and Education Sector Reports—which provide the broad framework that generally serves as a basis for subsequent lending operations in these sectors. Undertaking this range and magnitude of work does not come cheap—annual expenditures on economic analysis and advice are more than \$100 million.

Issues, Approach, and Data

The three key questions addressed in Deininger, Squire, and Basu (1998) are (1) whether economic and sector work (ESW) enhances project quality, thereby making a positive contribution to development impact; (2) whether reallocation of staff time from activities related to supervision or preparation of specific projects to ESW or vice versa could have enhanced overall project quality; and (3) whether other goals, such as a tradeoff between lending volume and lending quality, might have guided the allocation of scarce staff resources. Estimation of reduced form equations for project quality (as well as demand for resources in preparation and supervision of projects, respectively)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manager's assumed objective function provides a basis for empirical testing of these hypotheses. Information on project performance is based on ratings of the Bank's Operations Evaluation Department (OED) of either the rate of return as estimated after project completion (for the set of projects where such an estimation is actually feasible) or a zero-one rating that classifies a project as either satisfactory or unsatisfactory. These measures are available for 1,367 and 3,957 projects, respectively, although availability of data on ESW inputs somewhat reduces the sample.

Results

This approach finds that ESW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various measures of quality of World Bank projects. As table A5.1 indicates, a one-staffweek increase in the amount of time devoted to ESW before project initiation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 in the economic rate of return for an individual project of between 0.02 and 0.04 percentage points, translating into an increase of between \$12,000 and \$25,000 in the project's net present value for an all-inclusive cost (with overheads, travel, and so on) of no more than \$3,000—a dollar of ESW yields four to eight dollars in development impact. To the extent that a staffweek of ESW benefits more than one project, this would be an underestimate. Indeed, examining the impact of ESW on a country's entire lending program indicates that a dollar of ESW yields between 12 and 15 dollars of development impact. And even this figure fails to cap-

ture nonproject related benefits of ESW—as in influencing broader policy formulation and analysis in specific countries.

A question that arises from the analysis is whether the allocation of resources between different types of support has been appropriate. Assuming that staff resources are fungible across time and between different uses, one would expect the marginal contribution of ESW to the quality of lending to be lower than that of lending services (preparation and supervision), because—in contrast to lending services—ESW can have benefits beyond its immediate impact on lending. Indeed, ESW is often undertaken to provide the basis for policy advice to governments and is not necessarily tightly linked to a particular project or lending program. Deininger, Squire, and Basu find the reverse, however—ESW has a systematically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the lending program, whereas neither preparation nor supervision turn out to be 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reallocation of staff time from lending services to ESW would have increased the quality of the lending program. Consistent with this, we find that task managers at the project level are able to reduce the time allocated to lending services by about 2.5 staffweeks for every staffweek expended on ESW. We infer that ESW helps staff to identify and support new investment options (it expands the set of feasible projects) and design better projects *ex ante* (it improves the quality of projects already in the investment program). Preparation

Table A5.1 Impact of Economic and Sector Work on Project Outcome and Economic Rate of Return

<i>Dependent Variable</i>	<i>Project Outcome</i>	<i>Rate of Return</i>
ESW	0.090 ^b (0.407)	4.229 ^c (1.664)
Public sector surplus	0.719 (0.963)	14.974 (53.654)
Inflation	-0.037 ^a (.021)	1.917 (10.248)
Openness	0.739 ^c (0.018)	-3.495 (21.888)
<i>No of projects</i>	873	302
<i>R²/LL</i>	-534.62	0.142

a. Significant at the 10 percent level.

b. Significant at the 5 percent level.

c. Significant at the 1 percent level.

Note: Coefficients and standard error multiplied by 100. Sector dummies included but not report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nd supervision, by contrast, can improve the quality of a project (whether good or bad) only *ex post*.

Even though the preceding results suggest that higher levels of ESW will improve the quality of the lending program, it is still possible that, within a given resource envelope, shifting staff time from lending services to ESW will reduce the overall lending volume. Addressing this question, we find that this was indeed the case—lending services were between 40 and 50 percent more effective in increasing total commitments than ESW. But if disbursements—resource transfer—is the variable of interest, we find that managers could have increased both lending quality and disbursements by switching resources from lending services to ESW. This, together with the conclusion that there has been underinvestment in ESW from the standpoint of project quality, suggests that the volume of commitments has (at least to some degree) been an additional objective guiding the disposition of staff resources. These results provide some insight into this tradeoff between quality and quantity—the analysis suggests that on average a manager was indifferent between a decrease of \$2 million in the net present value of a lending program and an additional \$4 million of lending volume. If this estimate is broadly accurate, it suggests that managers were prepared to allow a substantial reduction in program quality in return for only a small increase (2 percent) in commitments relative to the average program size.

Selected Bibliography

-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1998. "Who Gives Aid to Whom and Why?" NBER Working Paper 6612.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
- Amemiya, T. 1978. "The Estimation of a Simultaneous Equation Generalized Probit Model." *Econometrica* 46.
- Bauer, P.T. 1971. *Dissent on Development*.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 Berg, Elliott. 1993. *Rethinking Technical Cooperation: Reforms for Capacity Building in Africa*.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Birdsall, Nancy, and François Orivel. 1996. "Demand for Primary Schooling in Rural Mali: Should User Fees Be Increased?" *Education Economics* 4(3).
- Boone, Peter. 1994. "The Impact of Foreign Aid on Savings and Growth." London School of Economics.
- Branson, William, and Carl Jayarajah. 1995. *Structural and Sectoral Adjustment: World Bank Experience, 1980-92*. A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 Study. Washington, D.C.
- Bruno, Michael, Martin Ravallion, and Lyn Squire. 1998. "Equity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Old and New Perspectives on the Policy Issues." In V. Tanzi and K. Chu, eds., *Income Distribution and High-Quality Growth*. Cambridge, Mass.: MIT Press.
-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1997. "Aid, Policies, and Grow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777.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 1998. "Aid, the Incentive Regim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937.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Campos, Ed, and Sanjay Pradhan. 1996. "Budgetary Institutions and Expenditure Outcomes: Binding Government to Fiscal Performanc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646.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Washington, D.C.
- Carapetis, Steve, Hernán Levy, and Terje Wolden. 1991. *The Road Maintenance Initiative: Building Capacity for Policy Reform*. EDI Seminar Se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 Cashel-Cordo, P., and S. Craig. 1990. "The Public Sector Impact of International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2(3).
- Cassen, Robert. 1994. *Does Aid Work?* Oxford: Clarendon.
- Chang, Charles, Eduardo Fernandez-Arias, and Luís Servén. 1998. "Measuring Aid Flows: A New Approach."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Collier, Paul. 1997. "The Failure of Conditionality." In C. Gwin and J. Nelson, eds., *Perspectives on Aid and Development*. Washington, D.C.: Overseas Development Council.
- Collier, Paul, and David Dollar. 1998. "Aid Allocation and Poverty Reduction."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Deininger, Klaus, Lyn Squire, and Swati Basu. 1998. "Does Economic Analysis Improve the Quality of Foreign Assistance?"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3).
- Devarajan, Shantayanan, Vinaya Swaroop, and Heng-fu Zou. 1996. "The Composition of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7.
- Dollar, David, and William Easterly. 1998. "The Search for the Key: Aid, Investment, and Policies in Africa."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Dollar, David, Jennie Litvack, and Paul Glewwe, eds. 1998. *Household Welfare and Vietnam's Transition*. Washington, D.C.: World Bank.
- Dollar, David, and Jakob Svensson. 1998. "What Explains the Success or Failure of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938.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Easterly, William. 1997. "The Ghost of Financing Gap."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807.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Easterly, William, Michael Kremer, Lant Pritchett, and Lawrence Summers. 1993. "Good Policy or Good Luck? Country Growth Performance and Temporary Shock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 Easterly, William, and Sergio T. Rebelo. 199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 Edgren, Gus. 1996. "A Challenge to the Aid Relationship." In SIDA (1996).
- Ehrenpreis, Dag. 1997. "The Changing Global Framework." In SIDA (1997a).
- El Salvador, Ministry of Education. 1995. *EDUCO Learns and Teaches*. San Salvador: Algier's Impresores, SA de CV.
- Fallon, Peter R., and Luiz Pereira da Silva. 1995. "Recognizing Labor Market Constraints: Government-Donor Competition for Manpower in Mozambique." In Lindauer and Nunberg (1995).
- Feyzioglu, Tarhan, Vinaya Swaroop, and Min Zhu. 1998. "A Panel Data Analysis of the Fungibility of Foreign Aid." *World Bank Economic Review* 12(1).
- Filmer, Deon, Jeffrey Hammer, and Lant Pritchett. 1998. "Health Policy in Poor Countries: Weak Links in the Chain."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874.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Filmer, Deon, and Lant Pritchett. 1997. "Child Mortality and Public Spending on Health: How Much Does Money Matter?"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864.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Fischer, Stanley. 1993. "The Role of Macroeconomic Factors in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3).
- Fraker, Thomas, Alberto Martini, and James Ohls. 1995. "The Effect of Food Stamp Cashout on Food Expenditures: An Assessment of the Findings from Four Demonstrations."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4).
- Freedom House. 1997. *Freedom in the World: 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New York.
- Haltiwanger, John, and Manisha Singh. Forthcoming. "Cross-Country Evidence on Public Sector Retrenchment." *World Bank Economic Review*.

REFERENCES

- Hanushek, Eric, and Dongwook Kim. 1995. "Schooling, Labor Force Quality,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539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
- Heggie, Ian. 1994. *Management and Financing of Roads: An Agenda for Reform*. World Bank Technical Paper 275. Washington, D.C.
- Hilton, Rita. 1990. "Cost Recovery and Local Resource Mobilization: An Examination of Incentives in Irrigation Systems in Nepal." Burlington, Vt.: Associates in Rural Development.
- . 1992. "Institutional Incentives for Resource Mobilization: An Analysis of Irrigation Schemes in Nepal."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4(3).
- Hirschman, A. 1967. *Development Projects Observed*.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 Hulten, Charles R. 1996. "Infrastructure Capital and Economic Growth: How Well You Use It May Be More Important than How Much You Have." NBER Working Paper 584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ss.
- Humana, Charles. 1996. *World Human Rights Guide*. London: Hodder and Stroughton.
- Isham, Jonathan, and Daniel Kaufmann. Forthcoming. "The Forgotten Rationale for Policy Reform: The Impact on Projec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Isham, Jonathan, Daniel Kaufmann, and Lant Pritchett. 1997. "Civil Liberties, Democracy, and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rojects."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2).
- Isham, Jonathan, Deepa Narayan, and Lant Pritchett. 1995. "Does Participation Improve Performance? Establishing Causality with Subjective Data." *World Bank Economic Review* 9(2).
- Ishikawa, Shigeru. 1960. *Economic Development in Asian Perspective*. Tokyo: Kinokuniya.
- . 1978. *Labor Absorption in Asian Agriculture*. Bangkok: ILO-ARTEP.
- Jha, Shikha, and Vinaya Swaroop. 1997. "Fiscal Effects of Foreign Aid: A Case Study of India."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Jimenez, Emmanuel, and Yasuyuki Sawada. 1998. "Do Community-Managed Schools Work? An Evaluation of El Salvador's EDUCO Program." Impact Evaluation of Education Reforms Working Paper 8.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Jones, William. 1995. *The World Bank and Irrigation*. A World Bank Operations Evaluation Study. Washington, D.C.
- Killick, Tony. 1991. "The Developmental Effectiveness of Aid to Africa."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646. World Bank, International Economics Department, Washington, D.C.
- Kim, Jooseop, Harold Alderman, and Peter Orazem. 1998. "Can Private Schools Subsidies Increase Schooling for the Poor? The Quetta Urban Fellowship Program." Impact Evaluation of Education Reforms Working Paper 11.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5.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Cross-Country Tests Using Alternative Institutional Measures." *Economics and Politics* 7(3).
- Krueger, Anne O., Constantine Michalopoulos, and Vernon Ruttan. 1989. *Aid and Development*.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evy, Victor. 1987. "Does Concessionary Aid Lead to Higher Investment Rates in Low-Income Coun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9(1)
- Li, Hongyi, Lyn Squire, and Heng-fu Zou. 1998. "Explaining International and Intertemporal Variations in Income Inequality." *Economic Journal* 108.

- Lindauer, David, and Barbara Nunberg, eds. 1995. *Rehabilitating Government: Pay and Employment Reform in Africa*. Washington, D.C.: World Bank.
- Lindert, Peter. 1994. "The Rise of Social Spending, 1880–1930."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31(1).
- Little, I.M.D., and J.M. Clifford. 1965. *International Aid*.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Litvack, Jennie, and Claude Bodart. 1993. "User Fees Plus Quality Equals Improved Access to Health Care: Results of a Field Experiment in Cameroon."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7(3).
- Ljunggren, Borje. 1993. "Market Economies under Communist Regimes: Reform in Vietnam, Laos and Cambodia." In B. Ljunggren, ed., *The Challenge of Reform in Indochina*.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Lopez, Cecilia. 1997. *Impacto de la Ayuda Externa en America Latina, 1972–1992* (Impact of External Aid on Latin America, 1972–1992). Bogotá: Tercer Mundo.
- Lucas, Robert.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 Marshall, Katherine. 1997. "Vision and Relationships in the International Aid World: The Gambia–World Bank Kairaba Partnership Forum." HIID Discussion Paper 602.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ambridge, Mass.
- Mauro, Paul. 1995. "Corruption and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 McCarthy, Desmond. 1995. "Review of Public Expenditure Work." World Bank, Policy Research Department, Washington, D.C.
- Moffitt, Robert. 1989. "Estimating the Value of an In-Kind Transfer: The Case of Food Stamps." *Econometrica* 57(2).
- Mosley, Paul. 1987a. "Conditionality as a Bargaining Process: Structural Adjustment Lending, 1980–86." Princeton Essays in International Finance 168.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 . 1987b. *Overseas Aid: Its Defence and Reform*. Brighton, England: Wheatsheaf.
- Mosley, Paul, Jane Harrigan, and John Toye. 1995. *Aid and Power*. Vol. 1. 2d ed. London: Routledge.
- Musgrove, Philip. 1996. *Public and Private Roles in Health: Theory and Financing Pattern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339. Washington, D.C.
- Narayan, Deepa. 1995. *The Contribution of People's Participation: Evidence from 121 Rural Water Supply Project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Development Occasional Paper 1. Washington, D.C.: World Bank.
- North, Douglass.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98. *Development Cooperation: 1997 Report*. Paris.
- .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Role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 . 1992. *Principles for Effective Aid*. Paris.
- OECD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f Japan. 1996. *The Role of OECF toward 2010*. Tokyo.
- OECD of Japan and World Bank. 1998. *A New Vis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for the 21st Century*.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in Tokyo, September 1997. Tokyo.
- Ostrom, Elinor. 1996. "Incentives, Rules of the Game, and Development." In Michael Bruno and Boris Pleskovic, eds., *Annual World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1995*. Washington, D.C.: World Bank.

- Pack, Howard, and Janet Rothenberg Pack. 1990. "Is Foreign Aid Fungible? The Case of Indonesia." *Economic Journal* 100(March).
- . 1993. "Foreign Aid and the Question of Fungibilit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5(2).
- . 1996. "Foreign Aid and Fiscal Stres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 Pritchett, Lant. 1996. "Mind Your P's and Q's: The Cost of Public Investment Is Not the Value of Public Capital."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660.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 1998. "Patterns of Economic Growth: Hills, Plateaus, Mountains, and Plain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947.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Ranis, Gustav. 1995. "On Fast-Disbursing Policy-Based Loans." Yale University, Economics Department, New Haven.
- Ravallion, Martin, and Shaohua Chen. 1997. "What Can New Survey Data Tell Us about Recent Changes in Distribution and Pover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2).
- Riddell, Roger. 1996. *Aid in the 21st Century*. ODS Discussion Paper Series.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Office of Development Studies. New York: United Nations.
- Riddell, R.C., A. Bebbington, and L. Peck. 1995. *Promoting Development by Proxy: An Evaluation of the Development Impact of Government Support to Swedish NGOs*. SIDA Evaluation Report 1995/2. Stockholm: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 Rodrik, Dani. 1996. "Understanding Economic Policy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1).
- Sachs, Jeffrey. 1994. "Life in the Economic Emergency Room." In Williamson (1994).
- Sachs, Jeffrey, and Andrew Warner. 1995. "Economic Reform and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1.
- SIDA (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uthority). 1996. *Aid Dependency*. Stockholm.
- . 1997a.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21st Century*. Stockholm.
- . 1997b. *SIDA Looks Forward*. Stockholm.
- Summers, Robert, and Alan Heston. 1991. "The Penn World Table, Version V."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 Swaroop, Vinaya. 1997. "Experience with Public Expenditure Reviews."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Group, Washington, D.C.
- Tan, Jee-Peng, and Alain Mingat. 1992. *Education in Asia: A Comparative Study of Cost and Financing*. A World Bank Regional and Sectoral Study. Washington, D.C.
- Tendler, Judith. 1975. *Inside Foreign Aid*.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homas, Vinod, Ajay Chhibber, Mansour Dailami, and Jaime de Melo, eds. 1991. *Restructuring Economies in Distress: Policy Reform and the World Ban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Louis S., and Karim-Jacques Budin. 1997. "Global Trend to Railway Concessions Delivering Positive Results." Viewpoint 134. World Bank, Finance, Private Sector, and Infrastructure Network, Washington, D.C.
- United Kingdom, Secretary of Sta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1997. *Eliminating World Poverty: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White Pap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London.
- van de Walle, Dominique. 1995. "The Distribution of Subsidies through Public Health Services in

업무자료 인사 2000-4-29

원조평가(Assessing Aid)

발 행	2000년 6월 15일
편집겸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총무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우)110-460 (전화: 740-5115)
Website	http://www.koica.or.kr
인 쇄	광복문화사

<비매품>